

발간등록번호

71-4140000-000044-14

漣川郡誌

2 권

연천의 역사

漣川郡誌編纂委員會

漣川郡誌

2 권

연천의 역사

漣川郡誌編纂委員會



전곡리 유적



호로그루



경순왕릉



송의전지



오봉사지 부도



연천 유엔군 화장장

| 목 차 |

제 2 권

연천의 역사

제1장. 연천의 선사시대

I. 구석기 시대

1. 전곡리 유적
2. 남계리 유적
3. 원당리 유적
4. 통현리 유적

II. 신석기 시대

1. 삼거리 유적
2. 학곡리 유적

III. 청동기 시대

1. 생활유적
 - 1) 삼거리 유적
 - 2) 강내리 유적
 - 3) 합수리 유적
2. 분묘유적
 - 1) 차탄리 고인돌

IV. 원삼국 시대

1. 생활유적
 - 1) 강내리 유적
 - 2) 삼곶리 유적
 - 3) 합수리 유적
 - 4) 삼거리 유적
 - 5) 남계리 유적
2. 분묘유적
 - 1) 삼곶리 적석총
 - 2) 학곡리 적석총

011

제2장 고대의 연천

035

015

I. 삼한 소국의 성장과 연천지역

039

016

1. 청동기문화의 보급과 정치세력의 성장

039

018

1) 연천지역 청동기문화의 보급 양상

039

020

2) 고조선사의 전개와

021

연천지역 정치세력의 성장

044

022

2. 고조선의 멸망과

022

연천지역 정치세력의 동향

046

024

1) 고조선의 멸망과 진번군의 설치·폐지

046

025

2) 연천지역 적석묘의 분포양상과

025

삼한 소국의 성장

047

025

3) 연천지역 삼한 소국의 대외교섭과 흥망

051

025

II. 삼국의 각축전 전개와 연천지역

054

027

1. 백제의 연천지역 진출과 지배거점 구축

054

027

1) 백제의 국가적 성장과 연천지역 진출

054

027

2) 백제의 임진강 유역 방어체계 구축

058

027

3) 백제의 지방지배와

029

연천지역 재지세력의 동향

060

029

2. 고구려의 연천지역 영유와 지방지배

062

029

1) 고구려의 남진 개시와 백제와의 공방전

062

030

2) 광개토왕의 백제 공격과 연천지역 점령

065

030

3) 고구려의 지방지배와 연천지역의 행정구역

071

031

4) 연천지역의 고구려 성곽과 지방지배 양상

075

031

3. 신라의 북상과 고구려와의 대치

080

031

1) 신라의 북상과 한강 유역 진출

080

031

2)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033

고구려와의 대치

081

III. 통일신라시기 연천지역의 동향	086
1. 나당전쟁의 전개와 연천지역	086
1) 나당전쟁의 개시와 당군의 임진강 방면 진격	086
2) 신라의 당군 격퇴와 매소성 전투	090
2. 연천지역의 행정구역 편제와 수취체계	093
1) 통일신라의 연천지역 영역화 과정	093
2) 통일신라시기 연천지역의 행정구역 편제	096
3) 임진강 수로를 활용한 수취체계 운영	098

3) 공양왕대 경기의 개편과 연천지역	130
2. 통행로와 군사로로서 연천지역	130
1) 최씨정권의 수립과 장단나루	130
2) 거란 유종의 침략과 연천지역	131
3) 왜구의 침략과 장단나루	135
3. 천도의 추진과 연천지역	137
1) 풍수사상과 궁궐의 창건	137
2) 천도의 추진과 연주 지역	138

제3장. 고려시대의 연천 107

I. 나말여초 궁예·왕건의 활동과 연천지역	110
1. 궁예의 철원 진출과 연천지역	110
2. 고려 건국과 연천지역의 위상 변화	114
II. 고려전기 연천지역의 성장	116
1. 지방통치제도의 정비와 연천지역	116
1) 성종대 개성부 성립과 연천지역	116
2) 현종대 경기의 형성과 연천지역	118
2. 교통로로서 장단나루와 연천지역	119
1) 성종대 역로망의 형성과 연천지역	119
3. 고려-거란 전쟁과 연천지역	122
1) 동아시아 정세와 거란의 침략	122
2) 강조의 정변과 현종의 남행	124
III. 고려후기 연천지역의 변화	127
1. 감무 설치와 연천지역의 변화	127
1) 예종대 감무파견과 연천지역	127
2) 충선왕대 장주에서 연주로 개칭	129

제4장. 조선시대의 연천 143

I. 조선 전기 연천지역의 행정과 사회문화	147
1. 지방제도의 정비와 행정구역	147
1) 8도제와 군현제의 정비	147
2) 연천 지역의 행정구역	150
2. 교통과 산업	155
1) 연천지역의 교통	155
2) 연천지역의 산업	156
3. 군사 편제와 군민의 역	159
1) 조선 전기 경기도의 군사편제	159
2) 연천군민의 군역과 요역 부담	162
4. 사회와 문화	165
1) 송의전의 설치와 운영	165
2) 조선전기 주요 인물과 묘소	168
II. 양란의 전개와 연천지역의 전투	174
1. 임진왜란의 전개와 연천지역의 전투	174
1) 왜란의 발발과 전투	174
2) 연천지역의 임진강 전투	177
2. 이괄의 난과 연천	179

3. 정묘·병자로한과 연천지역의 전투	182	3) 갑오개혁기 지방관의 임무와 조세행정	229
1) 정묘호란과 연천	182	2. 대한제국기 13도제의 실시와 경기도 연천군	233
2) 병자호란과 연천	184	1) 아관파천 이후 지방제도 변화와 연천군	233
3) 보개산 성령산성 전투	186	2) 대한제국기 지방관의 임무와 역할	235
III. 조선후기 연천지역의 제도 개편과 사회경제	188	II. 일제의 통감부 통치와 연천지역의 의병항쟁	240
1. 지방제도 개편	188	1. 통감부 시기 지방제도의 변화	240
1) 군현제도 개편	188	2. 국권수호운동과 연천지역의 의병항쟁	243
2) 행정구역	191	1) 일제의 강제 군대해산과 의병항쟁	243
3) 읍치와 주요 시설	192	2) 경기 북부지방 임진강 유역 의병부대의 항쟁	246
2. 임진강 방어체제와 군사 편제	196	3) 양반 의병장 허위와 13도연합의진의 서울진공작전	248
1) 지리적 배경	196	4) 해산군인 연기우 부대와 의병항쟁의 최후	252
2) 조선 후기 연천 일대 방어체제의 개편	199	III. 일제의 식민지배와 민족운동	255
3) 연천의 군사와 무기	202	1. 일제의 지배체제와 지방제도 개편	255
3. 인구와 경제	203	1) 일제의 지배체제 정비와 연천	255
1) 연천의 인구와 토지 변화	203	2) 지방제도 개편과 연천군	257
2) 연천의 경제와 세금	207	2. 3.1운동과 연천지역	260
4. 사회와 문화	212	1) 3월 21일 백학면 만세시위와 미산면 만세시위	263
1) 향교, 서원, 제례 시설	212	2) 3월 22일과 23일 미산면 만세시위	265
2) 연천의 주요 인물	214	3) 3월 27일 남면 입암리 만세시위	265
제5장. 근대 시기의 연천	221	4) 3월 30일과 31일 왕징면 만세시위	265
I. 근대적 지방제도 도입과 연천군의 변화	225	5) 3월 31일 적성면 만세시위	265
1. 갑오개혁기 23부제 실시와 한성부 연천군	225	6) 4월 1일 적성면 만세시위	266
1) 군국기무처 개혁과 지방제도 개편의 방향	225	7) 4월 1일 중면 만세시위	266
2) 1895년 23부제 실시와 한성부 산하의 연천군	227	8) 4월 4일 북면 만세시위와 서남면 만세시위	266
		9) 4월 5일 북면 만세시위	266
		10) 4월 10일 관인면 만세시위	267

3. 연천지역의 사회운동	268	IV. 휴전회담과 연천지역 상황	297
1) 청년운동	269	1. 휴전회담 시 연천지역 고지전	297
2) 노동·농민운동	270	1) 1951년 후반기 연천지역 고지전	297
		2) 1952년도 연천지역 고지전	299
		3) 1953년도 연천지역 고지전	302
제6장. 연천의 현대사와 한국전쟁	273	2. 정전협정 조인 후 전후 복구	305
I. 연천지역 38도선 분단과 미소군의 진주	276	1) 정전협정 조인	305
1. 해방과 미소군의 진주	276	2) 전쟁 피해와 전후 복구	306
1) 미소군의 진주와 38도선 분단	276		
2) 연천지역 군정 실시	276		
2. 정부수립 전후 38선상의 갈등	278		
II. 전쟁의 발발과 연천지역 초기전투	280		
1. 38도선 방어선 전투	280		
1) 연천지역 북한군의 전쟁 준비와 공격부대 배치	280		
2) 연천지역 초기 전투	281		
3) 북한의 점령정책과 피난민 상황	283		
2. 인천상륙작전 직후 연천지역 반격작전	286		
1) 반격작전과 38도선으로 진출	286		
2) 유엔군의 점령정책	287		
III. 1·4 후퇴 이후 연천지역 작전	290		
1. 1·4후퇴 시기 연천지역 상황	290		
1) 연천 철수 작전	290		
2) 중국군 3차 공세와 1·4후퇴	290		
2. 서울 재수복 이후 연천지역 전투	291		
1) 중국군의 춘계공세	291		
2) 임진강-설마리 전투	292		
3) 금굴산-전곡 전투	294		
4) 장승천, 울동 전투	296		



제 1 장

연천의 선사시대

I. 구석기 시대

II. 신석기 시대

III. 청동기 시대

IV. 원삼국 시대

집필

최종택(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이정범(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원)



[그림 1] 연천군 행정구역 및 문화유산 분포도

연천군은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쪽은 경기도 포천시·강원도 철원군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경기도 파주시, 북쪽은 강원도 철원군·황해도 금천군, 남쪽은 경기도 양주시·경기도 동두천시와 접하고 있다. 연천군의 지형은 광주산맥의 지맥이 동남쪽으로 지나고 있으며, 북쪽은 미식령산맥이 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북서쪽과 동쪽의 고도가 높고, 남쪽의 임진강 연안은 해발 100m 이하의 완만한 평지로 이루어져있다. 연천군은 임진강 수계에 속한 지역으로 크게 임진강 본류와 지류인 한탄강, 그리고 한탄강의 지류인 차탄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하천으로 함경남도 법동군 용포리 두류산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백자산에서 발원한 한탄강과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에서 합류한다. 합류된 임진강은 파주시 교하동에서 한강과 만난다.

연천군의 지질은 한반도 선캄브리아기의 기저부를 형성하고있는 경기육괴에 포함되며, 서울과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를 잇는 열곡 지형인 추가령 구조곡의 일부로 현무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현무암은 주상절리를 이루며 틈을 따라서 풍화와 침식을 쉽게 받으며, 이러한 주상절리면을 따라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수직단애는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이다. 또한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부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남부의 난대성

기후와 북부의 한대성 기후의 점이지대인 대륙성 기후에 속하며, 강수량 역시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며, 연평균 강수량은 1,320mm로 우리나라의 다우지 중 하나이다.

연천군의 선사시대 유적은 이러한 지형적, 자연적 영향으로 형성된 임진강·한탄강 두 하천 주변의 평탄대지와 반대편 저평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유적들이 중첩되거나 인접해서 확인된다. 특히 구석기 유적은 한탄강 하류지역의 평탄한 현무암 대지에 퇴적층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이후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 유적과 원삼국 시대 유적들 역시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 충적지와 구릉지대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연천의 선사시대 유적들은 최근 조사된 지표조사(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0,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7)로 인해 많은 수의 유적들이 확인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학술발굴과 구제발굴로 인해 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천의 선사시대 유적 중 각 시대별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주요한 유적들을 소개 하였으며, 유적별 조사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구석기 시대

연천 일대에는 철원-평강 지역에서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용암대지를 형성하고, 북쪽으로는 안변 남대천을 따라 안변까지, 남쪽으로는 한탄강과 임진강을 따라 연천군 전곡리를 지나 파주시 파평리까지 이어진다. 이 현무암층은 하부의 연대가 약 60만년 전, 상부의 현무암이 약 30만년 전후이며, 한탄강이 현무암 대지 위를 흐르는 동안 이루어진 두께 3~8m의 퇴적층에서 석기가 주로 확인된다. 이 퇴적층은 화산 활동이 끝나고 한탄강에 물이 다시 차오르며 진행된 침식과 퇴적에 의해 생성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천 구석기 유적의 연대를 구하는 작업은 이 퇴적층 시점의 연대를 구하는 것이 되지만 화산활동 이후 형성된 퇴적층 내부에는 적절한 절대 연대를 구할 수 있는 시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암대지의 연대를 전곡리 유물군의 상한 연대로 간주하기도 하며, 퇴적층의 연대 자체를 직접 측정해서 비정하기도 한다(유용욱 2014: 9). 이러한 연대 측정에 각기 장단점이 있어 확인 할 순 없지만 유물이 발견되는 퇴적층은 현무암이 절리(節理)현상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침식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현무암 상부의 30만년에서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천의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은 한탄강·임진강 유역을 따라 전곡리 유적(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3; 1994, 서울대학교박물관 1989; 2006, 영남대학교박물관 1984,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993; 1996,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1), 남계리 구석기 유적(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1994,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8) 원당리 유적(건국대학교박물관, 2001), 통현리 유적(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등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전곡읍, 미산면 일원으로 20여 곳의 구석기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그림 2] 전곡리 유적 전경(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3] 전곡리 유적 발굴조사지역(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

1. 전곡리 유적

구석기 시대 유적 중 대표적인 것은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으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문산, 적성을 거쳐 한탄강을 건너면 해발 60m 내외의 비교적 평탄한 대지가 펼쳐지며 이 일대에 유적이 자리한다. 이 유적은 한탄강 하류지역에서 1978년 4월 미군 병사 그렉 보웬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채집하면서 처음 알려졌으며, 이는 북부 아프리카의 상고안(sangoan)유물과 비교되며 동아시아에서도 유럽·아프리카와 같은 주먹도끼 문화가 밝혀진 최초의 유적이다. 당시까지는 모비우스(Hallam Leonard Movius)가 1940년대에 동아시아의 구석기 공작이 서구와는 계통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인도의 서쪽을 경계로 하여 서쪽의 아슐리안 문화와는 다른 짝개 문화로 구분하는 모비우스 라인을 설정하였는데,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공작이 발견됨으로서 모비우스 라인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전곡리 유적은 1979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시작한 이래 2010년까지 여러 조사단에 의해 30여 년간 19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진행되었다.<표 1>

전곡리 유적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한 유물의 총 수량은 약 6,400점으로, 지표에서 채집한 유물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매우 많은 편이다. 석기는 대체로 한탄강이나 임진강 변에서 흔히 있는 석영 맥암이나 규암 등의 강돌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다른 종류의 석재인 지역에서 흔한 현무암, 편마암 등도 소량 확인되고 있다. 석기 중 대형 석기로는 아슐

〈표 1〉 전국리유적 발굴조사현황(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

조사기간	조사경위	조사자/기관: 출토수량	국가 귀속	소장 (위탁처)
1978. 4	최초 발견	그렉 보웬: 4 점	등재	서울대학교 박물관
1978.5.~8.	지표조사	김원룡, 정영화 윤대인, 권학수	-	-
1978	지표조사	서울대학교 박물관 충남대학교 박물관: 500점+ α	-	-
1979. 3.~4.	1차 발굴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건국대학교 1-2차: 531점 경희대학교 2차: 50점+○ 서울대학교 1-2차: 534점 영남대학교 1-2차: 104점 계 1,219점+ α	-	각급 대학교 박물관 및 기타소장
1979. 9.~11	2차 발굴조사 (사적 2지구)			
1980. 10.~12	3차 발굴조사 (사적 2지구)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건국대학교 3차: 109점 경희대학교 3차: ○점 서울대학교 3-4차: 548점 영남대학교 3차: 73점 계 730점+ α	-	각 대학교 박물관
1981. 10.~11.	4차 발굴조사 (사적 2지구)			
1982. 7.~8.	5차 발굴조사 (유적 지질조사)	건국대학교 박물관 경희대학교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1점+@ 영남대학교 박물관	-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3. 3.~7.	6차 발굴조사 (유적 지질조사)	서울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서울대 지리학과 서울대 지질학과 서울대 생물학과	-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6. 10.~12.	7차 발굴조사 (사적 2지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509점	-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1. 11.~12.	8차 발굴조사 (사적1-2지구/도로개설)	한양대학교 박물관 문화인류학과: 52점	-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2. 3.~6.	9차 발굴조사 (사적 외곽 3번도로 개수)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422점	256점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4. 11.~1995. 6	10차 발굴조사 (사적 외곽 37번도로 확장)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1,023점	1,023점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8. 11.~12	전곡리 185-4등 (민원시굴)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12점	12점	한양대학교 박물관
2000. 6.~2001. 2.	11차 발굴조사 (사적구역 전체 시굴)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462점	462점	한양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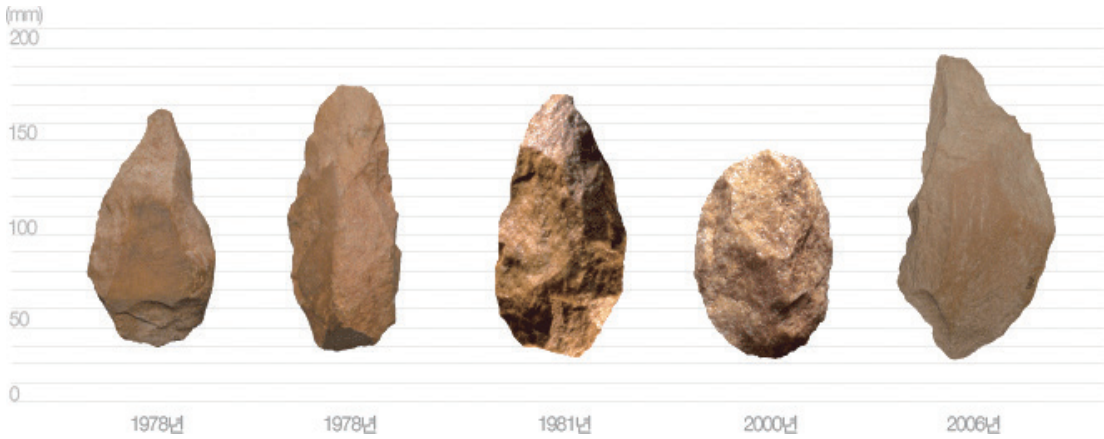
2004. 5. ~7.	12차 발굴조사 (전곡농협 신축부지 발굴)	서울대학교 박물관: 176점	176점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5. 9. ~10.	유적 내 화장실 신축부지 발굴	서울대학교 박물관	-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6. 4. ~6.	13차 발굴조사 (사적 3지구/박물관건립지)	서울대학교 박물관: 고구려성지 관련 토기편 일괄	=	=
2006. 5. ~2007. 12.	14차 발굴조사 (사적 외곽 국민주택부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1,193점	-	-
2007. 12. ~2008. 5.	15차 발굴조사 (박물관 건립지 추가조사)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8. 3. ~4.	16차 발굴조사(사적 외곽 2-5호선 도로개설)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157점	-	-
2008. 6. ~7.	17차 발굴조사(사적 외곽 2-5호선 도로확장)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	-
2008. 10. ~2009. 11.	18차 발굴조사(사적 외곽 2-5호선 도로개설)	서울대학교 박물관	-	-
2008. 11. ~2009. 3.	19차 발굴조사(사적 외곽 1-2호선 도로확장)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	-

리안형 주먹도끼류, 가로날도끼, 대형첨두기, 찍개류, 대형의 굽개 그리고 다각면 원구 등이 있으며, 소형 석기는 굽개날, 톱니날, 홈날 등을 만든 것들이 보이는데 박편이나 부정형의 석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석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적의 시기와 관련하여 전곡리를 비롯한 파주 임진강안 여러 지점의 연대는 약 50만 년 전으로 알려진 반면, 한탄강 하류의 은대리 부근의 연대는 17만 년 전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2. 남계리 유적

남계리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65 일원에 위치하며, 연천 전곡리 유적으로부터 서북방향으로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곡리 유적과 동일하게 한탄강 하류의 강안 대지상에 놓여있다. 발굴조사는 89년과 92년에 총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3, 4층에서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3층에서 출토된 석기는 석편석기 위주로서 굽개, 밀개, 첨두기, 조각기 등으로 후기 구석기 시대 이른 시기이며, 4층 석기는 굽개·밀개·첨두기·석핵 및 석편 등으로, 이 석기 중 양극석편의 존재는 중기 구석기 시대의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제2차 발굴지역은 군남면 남계리 116-1번지로, 7층위 중 제 4피트의 2층에서는 굽개·첨두기·송곳·밀개 등 소형 석기들이 출토되어 후기 구석기 시대 말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기타 피트의 3층 유물은 주먹도끼·클리버·굽개·홈석기·톱니석기 등으로 후기 구석기 시대 이른 시



[그림 4] 전곡리 유적 출토 주먹도끼(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



[그림 5] 남계리 유적 출토 석기(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

기에 해당된다. 기타 피트의 4층에서는 원형 돌마치·긁개 등이 출토되어 중기 구석기 시대 이
른 시기에 해당된다.

즉 한탄강 오른쪽 강안단구의 점토퇴적층 내의 남계리 구석기 유적은 2층 후기 구석기 시
대 늦은 시기(서기전 20만년), 3층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이른 시기(서기전 3만 5000년), 4층 중
기 구석기 시대의 이른 시기(서기전 8만~7000년)로 볼 수 있다.

3. 원당리 유적

원당리 유적은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으며, 파주 주월리·가월리 유적보다 조금 하류 지역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사행하는 임진강 북안의 구릉성 대지 위에 있고, 퇴적은 매우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층위 구성은 지점에 따라 다르나 표토층, 심회적색찰흙층(제2문화층), 황갈색찰흙층, 암황 갈색찰흙층, 홍갈색찰흙층(제1문화층), 황색모래층, 진홍색모래층, 적갈색모래층, 현무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당리 유적1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로, 동쪽으로 임진강변이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1996~1999년에 4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층위는 기본적으로 4개로 구분된다. 1층은 표토층, 2층은 암황갈색 점토층이며, 중기 구석기 시대 문화층을 가지고 있다. 3층은 갈색 점토층, 4층은 암황갈색 점토층으로 전기 구석기 시대 초기 문화층을 가진다.



[그림 6] 원당리 유적 출토 석기(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

특히 4층에서는 찌개류만 35점이 발굴되어 원당리 4층은 한반도 최초 찌개문화의 문화층임이 확인되었다. 연대는 적어도 30~5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2층에서 출토된 찌개, 클리버(작은 도끼), 톱니석기, 굽개, 밀개, 침두기, 끌, 송곳과 흙석기 등 9종류의 석기는 중기 구석기 시대(10만 년~5만 년 전)에 해당된다. 이는 점토층에서 주먹도끼를 동반한 전곡리 및 남계리 층위와 동일시기로 보인다. 즉 원당리 유적1의 발굴로 임진강 유역의 구석기 시대 문화층은 두 층위로 정확히 구분되며, 아래층 4층은 찌개 전통의 문화층이며, 상층(2층)은 클리버를 동반한 중기구석기 시대에 해당됨이 확인되었다.

원당리 유적2는 2002년~2003년 발굴 조사되었다. 원당리 유적1에서 동남방향으로 약 200m 지점에 위치하며, 현재 임진강 북동쪽에 작은 언덕처럼 남아 있는 경작지에 해당한다. 해발 33m 정도의 암갈색 점토층에서 전형적인 구석기 시대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출토유물은 주먹도끼, 대형 침두기, 칼, 전형적인 타격점이 준비된 몸돌 등이 있다.

원당리 유적3은 1996년~1997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다. 연천 장남면사무소가 있는 원당리에서 도로를 따라 마을 안쪽으로 3km가량 가면 임진강과 장남교에 이른다. 원당리 유적은 장남교에 이르기 전 임진강 북안에 위치한 충적대지 상에 위치한다. 층위는 기본적으로 하부의 기반암이 현무암 위를 실트층, 모래층과 찰흙층이 덮고 있다.

유물의 경우, 아래층(각 피트의 5층과 7층)에서는 한 개의 역석에서 석편이 1점 또는 2점 제거된 끝찌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르발르와 석핵 1점이 출토되어 시기적으로 전기 구석기 시대 말 또는 중기 구석기 시대 초기에 해당됨을 나타내고 있다. 윗층(각 피트의 2층)에서는 거대한 석편체 클리버(작은 도끼)가 출토되어 중기 구석기 시대 말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굽개, 밀개, 단면기, 침두기 등의 뎀석기가 출토되었다.

4. 통현리 유적

통현리 유적은 2013년 통현-고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일원으로 조사 되었는데, 후기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3개의 문화층에서 석영·응회암·흑요석 등의 돌감을 이용한 590여 점의 뎀석기들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에 퇴적된 지층은 배후산지에서 유래한 사면퇴적체로서, 하부에서부터 각력층-유기질니질층-각력층-암(적)갈색 고토양층의 순으로 두꺼운 층후를 이루고 있다. 문화층은 첫 번째 토양층이 발달한 암(적)갈색찰흙층과 그 상부의 명갈색찰흙층 등 총 3개의 지층에서 확인되었다. 돌감은 석영·응회암·흑요석 등이 이용되었으며, 석기 제작 관련 유물들이 다수의 비율을 띠고 있다. 한편 2문화층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밀개 20여 점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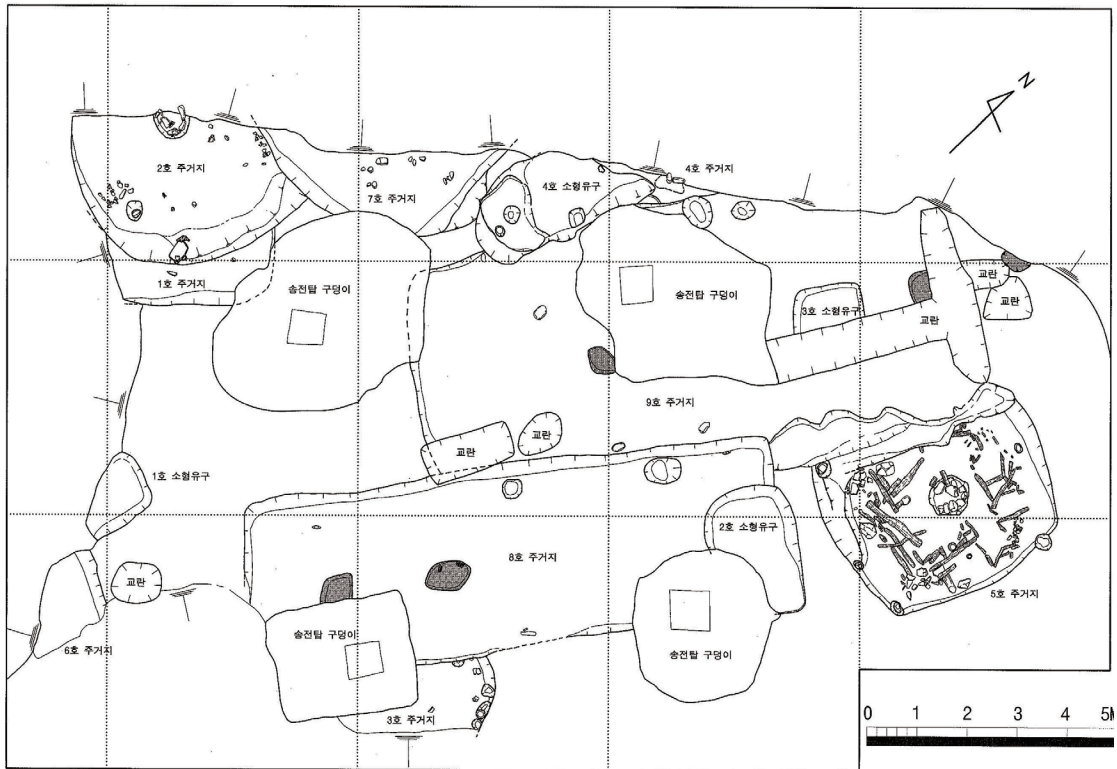
표. 신석기 시대

연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원삼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 유적과 공통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다른 시기의 유구와 중복해서 확인되는 등 조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군남면 삼거리 유적(경기도박물관 2002), 백학면 학곡리 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09)이 있다. 이 외에도 합수리 유적(한울문화재연구원 2012)에서는 방형과 타원형의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각각 1기씩 확인 되었으며, 내부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횡산리 적석총(국방문화재연구원 2012)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야외노지 3기와 함께 빗살무늬토기편을 비롯한 옥기 및 석착 등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연천에서는 임진강유역으로 선곡리, 우정리, 동이리, 삼화리, 삼꽃리, 고릉리 등지에서 빗살무늬토기편 등 약 21개소의 신석기 시대 유물산포지가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1. 삼거리 유적

연천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인 삼거리 유적은 연천군 군남면 일대를 남류하는 임진강 동쪽 연안의 강변 충적대지에 형성된 선사시대 유적으로,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722-2 일대에 위치한다. 유적은 임진강의 동쪽 해발 36m 내외의 자연제방 위에 입지한다. 유적은 1996년 집중호우로 드러나 이우형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후 1999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면적은 231㎡에 불과했지만 청동기 시대 주거지와 신석기 시대 주거지 6기를 포함하여 모두 13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후 유적의 주변에서 추가로 유적이 조사되면서(백두문화재연구원 2019, 강원문화재연구원 2017), 삼거리 일대는 구석기~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선사시대 취락의 입지가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5~7m의 간격을 두고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5호 주거지를 기준으로 볼 때 한 변의 길이는 4m 내외, 내부 면적은 20㎡ 내외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주거지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바닥을 다진 경우(4호주거지), 불처리한 흔적도 남아 있는 경우(5·6호주거지)가 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기둥구멍이 조사되었다. 노지는 1·2·5호 주거지에서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의 중앙에 원형 또는 타원형의 얇은 수혈을 파고 주변에 천석을 세운 위석식노지이다. 기둥구멍은 3호 주거지의 경우 북쪽 벽면을 따라 6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 쪽은 훼손되어 정확한 배치 상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5호 주거지는 벽면 마다 3개씩의 기둥구멍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는데, 화재로 폐기되면서 주거지의 상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탄화목재가 남아 있어 주거지



[그림 7] 삼거리 유적 유구배치도(경기도박물관 2002)

복원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다. 빗살무늬토기의 기형은 둥글거나 뾰족한 바닥을 가진 포탄형으로 전형적인 중서부 빗살무늬토기의 형태를 보여준다. 문양은 구연부에는 단사선문, 죽관문, 점열문 등이 압인·압날기법으로 시문되어 있고 동체부에는 종주어골문, 횡주어골문, 능형집선문, 사격자문, 사선문 등이 칩선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다. 저부의 문양을 알 수 있는 토기편은 많지 않으나 횡주어골문과 방사선문 등이 칩선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다. 시문구는 압인기법으로 시문된 문양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치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석기는 갈돌과 갈판이 가장 많으며 굴지구(掘地具)와 어망추 등도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문양은 3 부위의 문양배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동체부 문양에는 종주어골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체부에 능형집선문도 많이 보이며 타래문 형태의 어깨문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문양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양구성의 특징으로 볼 때 삼거리 유적은 중서부지방 신석기 시대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절대 연대 측정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발굴범위가 협소하여 정확한 시기를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암사동식

다치 횡주어골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금탄리1식 토기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암사동의 이른 시기 즉 중서부지방 전기 후반인 기원전 4000~3600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갈돌의 단면형태가 타원형이고 갈판의 폭에 비해 갈돌이 소형이라는 점도 전기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삼거리 유적의 연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유적은 경기북부지역과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발굴조사는 231㎡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었지만, 지표상에서 채집되는 유물의 산포 범위로 볼 때 자연제방 전체에 폭넓게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면 상당히 많은 유구와 유물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아 이 지역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표준적인 유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곡리 유적

학곡리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482에 해당하며, 임진강의 북안에 위치한다. 유적의 입지는 해발 13m 내외의 낮은 구릉지와 임진강을 따라 형성된 사구(砂丘)사이에 해당하며, 임진강과 북쪽에 위치한 해골이라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접하는 부분의 북동 사면에 자리한다. 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빗살무늬토기와 석기류 350점 가량이 출토되었다. 폐기장은 북서쪽사면 상단 해발 20m 지점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잔존규모는 길이 9.6m, 너비 1.5m, 최대 높이 0.3m 정도이다. 폐기장은 인위적인 굴착 없이 자연지형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서는 불 맞은 석재편과 마연된 석재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빗살무늬토기편과 어망추, 솥돌, 석촉, 석제 낚싯바늘, 갈판, 미완성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유물이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되어 석기제작과 관련될 가능성보다 폐기장으로 추정하였다. 빗살무늬토기의 문양은 구연부는 점열문, 동체부는 횡주어골문과 삼각집선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Ⅲ. 청동기 시대

연천의 청동기 시대 유적은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으로 구분된다. 생활유적은 하천 유역의 충적대지상에 위치하거나 하천에 인접한 구릉에 입지한 특징을 보이며, 다른 선사시대 유적과 중복되는 양상이 짙다. 연천지역의 청동기 시대 생활유적은 조사 사례는 많지 않으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북단에서 조사된 선사시대 마을 유적으로 주로 황해도 지역의 팽이모양토기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묘유적은 고인돌이 학곡리에서 6기, 삼곶리에서 1기, 진상리에서 2기, 양원리에서 1기, 차탄리에서 1기, 통현리에서 9기, 전곡리에서 4기, 은대리에서 2기, 초성리에서 2기가 조사되었으며, 횡산리에서 입석이 1기가 확인되었으며(경기도박물관 2007), 생활유적과 비슷하게 하천 유역 충적지 또는 구릉지에 입지한다. 석재는 연천 일원의 주요 암재인 현무암 또는 응회암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탁자식과 개석식이 모두 확인된다.

발굴조사 된 주요 생활유적은 삼거리 유적(경기도박물관 2002), 강내리 유적(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합수리 유적(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등, 분묘유적으로는 차탄리 고인돌(세종대학교박물관 2014) 등이 있다.

1. 생활유적

1) 삼거리 유적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일대는 남류하는 임진강 동쪽 연안의 강변 충적대지에 형성되어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양호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사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거리 유적은 1999년에 경기도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신석기 시대 주거지 5기와 청동기 시대 주거지 4기 등 총 1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적 내에는 본래 고인돌이 있었지만, 덮개돌이 인근 중학교 교정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진다.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는 평면 형태가 말각방형 내지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유구의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전체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은 8호뿐으로 크기는 10.68×3.6×0.6~0.42m이다. 바닥의 장축 중앙을 따라 노지가 8호는 2기, 9호는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수혈식이며 깊이는 6~7cm 정도로 얇다. 주혈은 장벽 아래에서만 일부 확인되었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공렬토기, 공렬토기, 마제석검, 마제석촉, 반월형석도, 석창, 석부, 숫돌, 갈돌, 갈판 등이 있으며, 모두

740여 점이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토기, 공렬문토기 출토되었는데, 특히 심발형토기의 기형은 동체에 비해 저부가 매우 좁은 형태로 각형토기와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석기류는 유단식마제석검, 이단유경식석촉, 삼각만입석촉, 석착, 장주형 반월형석도, 갈판, 갈돌, 지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간돌검은 검몸에 혈구가 있고, 자루의 양 측면만이 결입된 형태로 봉산 어수구 석관묘출토 간돌검과 유사하다. 한편 7호 집자리에서는 석화, 숫돌, 미완성 석기 등 석기 제작 공정을 보여주는 석기류들이 출토되었다.

이후 삼거리 유적 일대에서 주거지의 조성시기와 출토된 유물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유적이 확인되는데(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백두문화재연구원 2019). 특히 임진강 삼거리 유적에서는 총 청동기 시대 주거지 6기, 수혈 1기가 조사 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갈장방형·장방형이고, 규모는 3호 주거지만 대형이고 나머지 5기는 중·소형이다. 장축방향은 1호와 3호가 북동-남서향이고 2·4·5·6호는 북서-남동향이다. 내부시설은 노지와 주혈이 있으며, 노지는 1호와 6호 주거지에서 무시설형으로 조사되었다. 주혈은 1·2·4·6호 주거지에서 벽을 따라 노출되었으며 대부분 지름 15cm 이하의 소형이다. 3호 주거지는 현지보존으로 결정되어 목탄노출 후 유물만 수습하고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내부시설을 조사 할 수 없었으나 벽가에 잔존한 목탄 중 벽체와 통목형 목탄이 일부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벽을 따라 주혈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호 주거지는 확장한 양상이 관찰되는데, 원래 방형으로 축조해서 사용하다가 서쪽으로 약 1.3m 정도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2의 바닥면은 소결이 약하고 피열범위가 노지1에 비해 얇게 관찰되는데, 이는 노지1을 주로 사용하였거나, 노지2에서 불을 피우지 않고 불씨만 옮겨와 사용하여 나타나는 양상일 수 있다.

유물은 이중구연계토기가 주를 이루며, 단사선문이 구연부에 시문되어 있다. 단사선문을 시문하면서 구순부에 동일한 도구로 각목을 새긴 것도 관찰된다. 그 외에 공렬문토기, 무문토기, 갈색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완형이 거의 없고, 대부분편으로 출토되어 기종을 알 수 있는 것은 호형과 발형뿐이다. 토제품은 3호 주거지에서 토제방추차, 토제장신구, 토제어망추가 출토되었다. 토제장신구는 주거지 북동쪽 바닥면에서 완형으로 1점, 편으로 6점이 출토되었다.

2·3·6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탄화물에 대한 식물유체 분석 결과, 탄화된 쌀, 팥, 콩, 도토리 등으로 분석되었고 탄화미는 평균적으로 1.61:1의 장폭비를 가진 자포니카형에 해당된다. 식물유체 중 도토리가 발견되어 농경 발생 이후에도 야생 식물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강내리 유적

강내리 유적은 임진강과 안열천이 합수되는 지점에 형성된 해발 30m 내외의 층적대지 상

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유구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7기, 원삼국 시대 주거지 77기, 고구려 석실분 9기 및 경작유구(1,114㎡)와 수혈유구 131기 등 총 233기의 유구가 있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는 모두 7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5기는 나 지역으로 명명된 조사지역 북쪽의 구릉 사면에, 2기는 중앙부의 층적대지 상에 위치한다. 구릉의 사면에서 발견되는 주거지들의 장축방향은 모두 등고선의 방향과 수직으로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강의 흐르는 방향과도 수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의 내부에서는 노지 등의 내부시설 등이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의 중심축과 벽을 따라 주공이 발견되었다. 층적지에서 위치한 장방향 주거지는 2기가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으로 중복되어 발견되었다. 62호 주거지의 경우 내부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조성하였고, 내부 중앙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3기의 노지가 배치되었다. 주공은 노지 사이에 3기와 벽체 주변으로 다수가 확인된다. 유물은 석축 3점과 석축 반제품, 반월형석도,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63호 주거지는 62호 주거지보다 선행된 유구로 벽체에 탄화된 목재가 그대로 노출되었고, 내부에서 다량의 무문토기들이 출토되었다.

3) 합수리 유적

합수리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홍수 조절지 발굴조사 H지역으로서 한울문화재연구원에게 발굴을 실시하였으며,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의 주거지 및 수혈, 소성유구 및 굴립주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마거리에서 합수리를 지나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마거천의 동안에 형성된 층적지대이다. 유적의 서안으로 흐르는 마거천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 임진강과 합류하며, 남동쪽으로는 군자산이 있다. 유적은 층적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지정리의 과정에서 자연층을 깎아내고 객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유적의 일부는 유실되었다

청동기 시대 유구는 12기의 주거지와 방형수혈 2기가 조사되었으며, 긴 네모꼴 주거지 바닥에 점토다짐처리를 한 ‘천전리식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강 유역과 연천 일원이 청동기 시대 동일한 문화권이 형성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 분묘유적

1) 차탄리 고인돌

차탄리 고인돌은 경기도 기념물 제 208호로 연천 지역의 대표적 탁자식 고인돌이다. 조사된 고인돌은 평지에 입지해 있으며, 동쪽 250m 정도 거리에는 차탄천이 흐르고 있어 물의 흐름과 덮개돌의 긴 방향이 나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덮개돌의 긴 방향은 남-북쪽을 향해 있으며 추정 궤돌은 덮개돌에 깔려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궤돌로 추정되는 또 다른 돌은 덮개

돌 동쪽 옆에 묻혀 있었는데, 지표상에 윗부분 만 드러나 있었다. 고인돌에 대한 조사 결과, 덮개돌 크기는 길이 560m, 너비 320cm 정도로 실측되어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데 동현리 3·8호와 양원리 고인돌의 덮개돌보다 180m 정도가 크고, 너비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특히 탁자식 중에서는 덮개돌 크기만 보았을 때 크면서 두께도 최대 60m 정도여서 두꺼운 편이다.

덮개돌에 있는 성혈(굽)은 주로 윗면에 20여개 넘게 있으며, 동쪽 옆면에도 15개 정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30여 개가 파악되었다. 덮개돌 윗면은 동쪽변과 가운데 부분 그리고 남쪽 부분에 모여 있는데, 큰 성혈은 단독으로 파여 있지만, 보통 2~3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다. 덮개돌 동쪽 옆면의 성혈은 가운데와 북쪽 부분에 역시 2~3 개씩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하면서 평면이 타원형 인 것이 대부분이다.

핌돌은 덮개돌 아래에 1개가 깔려 있고, 동쪽 옆에 1개가 드러나있는 상태이다. 덮개돌 밑에서 뚜껑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무덤방을 덮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8] 차탄리 고인돌 전경: 남→북(세종대학교박물관 2014)

IV. 원삼국 시대

연천지역의 원삼국 시대 유적은 초성리 유적에서 처음 주거지가 확인된 이래 2010년을 전후한 군남댐 수몰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들이 보고되면서 다수의 원삼국 시대 취락이 보고되었다. 임진강 유역을 따라 강내리 유적(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합수리 유적(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삼곶리 유적(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2) 등에서 다수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이른 시기인 방형의 주거지부터 ‘ㄱ’, ‘ㅊ’자형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기에 유적이 확인되며, 유물 역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와 같이 대략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때까지 넓은 시대 폭을 지닌다.

주거지 이외에도 횡산리 적석총, 삼곶리 적석총, 삼거리 적석총, 우정리 적석총 등 다수의 적석총이 연천 일원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가 진행된 삼곶리 적석총(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원 1994), 횡산리 적석총(국방문화재연구소 2012), 학곡리 적석총(기전문화재연구원 2004)은 모두 무기단식으로 하천 유역의 자연제방에 독립적으로 입지한 특징을 보인다.

1. 생활유적

1) 강내리 유적

강내리 유적의 원삼국 시대 주거지는 크게 ㄱ자형 주거지, ㅊ자형 주거지, 방형주거지 등으로 나뉘며, 그 수는 ㄱ자형 주거지 2기, ㅊ자형 주거지는 68기, 방형주거지 7기이다. 이중 ㄱ자형 주거지와 ㅊ자형 주거지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대형(장축길이 15m~20m, ≍199㎡) 주거지 8기, 중형(장축길이 6m~10m, ≍57㎡) 주거지 44기, 소형(장축길이 6m미만, ≍28㎡) 주거지 13기이다. 주거지의 출입구를 제외한 주실의 평면은 장방형, 오각형, 육각형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주거지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굴착 이후 별도의 흑갈색점토를 깔고 정지하여 사용하였거나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주거지의 출입구는 모두 남향, 또는 남동향이며, 주실 바닥으로부터 높게 형성되어 주실로 들어갈수록 완만해지거나 혹은 계단식으로 조성되었다. 내부시설로는 ‘ㄱ’자형 구들과 ‘—’자형 부뚜막, 노지, 주공 등이 남아 있다. ‘ㄱ’자형 구들은 부뚜막과 고래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지 주실의 중앙부나 중앙부에서 전벽으로 치우친 부분에서 부뚜막이 조성되고, 고래열은 우측벽과 나란히 벽이 끝나는 지점(출입구 쪽)까지 이어진다. 축조방식은 전면에 판석을 사용하거나, 부뚜막 부분만 판석을 세우고 고래열은 점토를 쌓아 축조하는 복합식(혼용식)이 있다. 구들의 배연부 상부구조는 대부분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으나, 27호 주거지의 경우 출입구에서 가까운 우측벽 끝단에서 비스

듬하게 벽을 타고 형성된 구조물이 어깨선 바깥으로 피혈된 원형의 수혈선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주거지들의 배연부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자형 부뚜막은 연도부로 직접 연결된다. 부뚜막의 위치는 17호 주거지처럼 전벽의 좌우측에 직교하여 조성되거나 64호 주거지의 경우와 같이 전벽의 우측 모서리에 사선으로 축조되었다. 축조 방식은 판석화된 할석, 또는 천석을 이용하였으며, 주거지에 따라 길이의 차이가 관찰된다. 배연시설은 부뚜막이 조성된 측벽에 굴광선을 파고 일부 판석과 점토를 이용하여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 이용하였다. 노지는 주로 주실의 중앙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주거지의 경우 구들 시설과 함께 확인되었다. 기둥자리는 측벽을 따라 조성되었으며, 정형적인 배열을 갖춘 주거지의 경우, 굴광면의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된 것이 특징적이다

2) 삼꽃리 유적

연천 삼꽃리 유적의 남편으로는 임진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으며, 북편으로는 높은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에서는 주거지 21기와 수혈 81기가 조사되었다. 삼꽃리 유적에서 조사된 21기의 주거지 중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평면형태와 노시설, 주축방향의 추정이 가능한 것은 13기이며, 선후관계가 명확한 유구 간 중복관계는 5건 이다. 13기 주거지들은 평면 형태에 있어 출입구가 돌출된 오각형 또는 육각형을 띠며, 출입구부가 돌출되지 않은 소형의 방형주거지도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자형 구들, ‘┌’자형 구들, 노지가 고루 발견된다. 특별한 점은 6기의 주거지에서 철기생산과 관련된 시설물 11기가 확인되었다. 철기생산과 관련된 시설물은 대부분 유적의 동편에서 확인되는데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중복해서 철기생산유구가 시설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토기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반 출토되며, 유물 수는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유구를 제외하고는 소량 출토된다. 철제품은 철촉, 철도자, 철정 등 7점, 석제품으로 모룻돌, 솥돌 등이 출토되었으며, 송풍관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3) 합수리 유적

연천 합수리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연천군 증면 합수리이며, 이 지역은 마거리에서 합수리를 지나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마거리천의 동안에 형성된 충적 지대이다. 유적의 서안으로 흐르는 마거리천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 임진강과 합류하며, 남동쪽으로는 군자산이 있다. 유적은 충적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지정리의 과정에서 자연층을 깎아내고 객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유적의 일부는 유실되었다.

연천 합수리 유적에서는 원삼국 시대 주거지 10기가 조사되었으며 수혈 22기, 구상유구 4

기, 굴립주건물지 8기, 매납유구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출입시설을 가진 주거지이며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경질무문토기의 출토 비율이 높았다. 그 외 용범 등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물도 확인되어 합수리 주변에 위치한 삼곶리 유적과의 관련성도 고려되고 있다.

4) 삼거리 유적

연천 삼거리 유적은 임진강 동안 자연제방 상 '연천 삼거리 유물산포지'내에 위치한다. 여기서는 일찍이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주거유적이 조사된 바 있고, 적석분구묘 또한 분포하고 있어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최근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 시대 유물을 포함해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 중 원삼국 시대 유구로는 주거지 4기와 수혈 5기, 고상건물지 1기 등이 조사되었고, 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를 중심으로 타날문토기와 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5) 남계리 유적

연천 남계리 유적에서는 원삼국 시대 주거지 4기와 미상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를 중심으로 소량의 타날문토기 동체부편만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4기 모두 바닥면에서 주공배치가 확인되지 않아 평면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삭평이 심하여 구조가 불분명한 4호 주거지를 제외한 주거지 3기는 노시설과 유구 간 중복관계, 주축방향 그리고 분포양상 등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2. 분묘유적

1) 삼곶리 적석총

경기도 연천군 증면 삼곶리에 위치한다. 임진강 유역에서 처음으로 학술 조사된 적석묘로서 학사적인 의미가 크다. 임진강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북쪽으로 곡류하는 지점의 강변 북측 모래 언덕 위에 입지하는데, 모래 언덕은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인근에 횡산리 적석묘와 삼거리 적석묘가 3~4km 범위 내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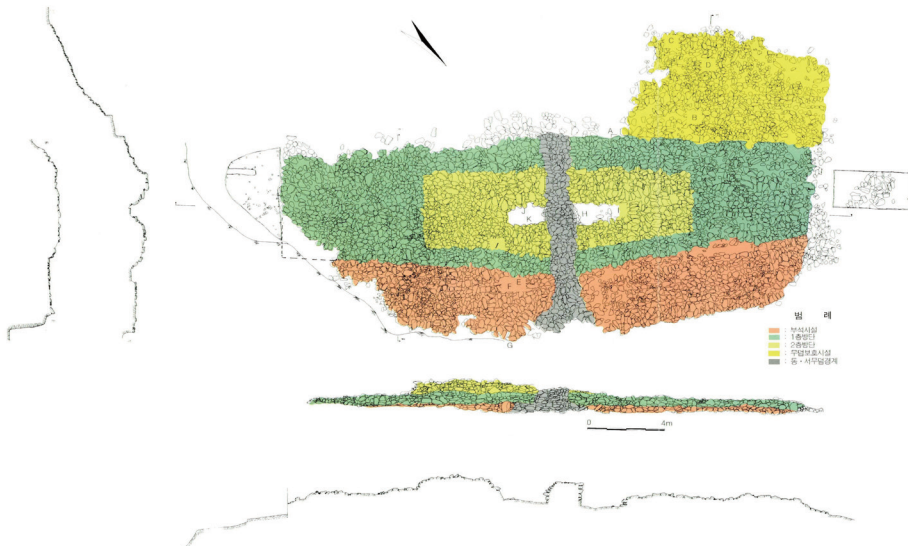
무덤은 매장주체부를 이루는 적석 시설 외에 보호 시설로 추정되는 남사면의 층석시설과 제단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무지 북편의 부석시설(敷石施設)로 구성되어 있다. 적석은 모래 언덕의 상면을 정지한 후에 지름 40~50cm의 큰 강돌로 한 겹을 깔아 기초를 만들었으며,

그 위에 2단의 계단식으로 장방형의 적석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지만, 본래 3단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석 규모는 무덤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경계 적석부를 중심으로 서쪽의 하단 적석이 길이 12m, 너비 6m 가량이며, 동쪽의 하단 적석은 길이 15m, 너비 6m 가량이다. 돌 무지의 높이는 하단과 상단이 각각 40~50cm 가량이다. 매장주체부는 경계 적석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확인되었는데, 축조시기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서쪽 매장주체부가 먼저 조영되고 나중에 동쪽 매장주체부가 조영되었는데,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유물로 볼 때, 시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의 너비 1m 정도의 경계 적석부를 사이에 두고 동서 방향으로 연결된 매장주체부는 상단의 적석 상면에서 노출되는 수혈식석곽으로 규모는 길이 250~270cm 정도이고 너비 140cm 가량이다. 석곽은 가공하지 않은 강돌을 이용하여 횡평적하였으나, 학곡리 적석묘와 같이 부분적으로 종평적인 예도 관찰되기 때문에 동일한 석곽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에 특별한 시설이 없는 점도 학곡리 적석묘와 유사하다.

출토유물은 유리·호박·마노제의 작은 구슬로 만든 경식과 유연형 철촉이 양쪽 매장주체부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청동환(靑銅環) 1점이 서쪽 매장주체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석곽 외부에서 구슬·숫돌·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2~3세기로 추정되며, 학곡리 적석묘와 함께 임진강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적석묘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그림 9] 삼곡리 적석총 적석부 평면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2) 학곡리 적석층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의 임진강변 일대에 위치한다. 무덤은 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임진강 북쪽의 낮은 모래 언덕에 입지한다. 무덤은 홍수시 급류로부터 무덤 보호를 위하여 남사면과 동사면에만 시설한 축석시설과 매장주체부를 이루는 돌무지로 구성된다. 돌무지는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중앙 경계부를 중심으로 동반부와 서반부로 구분되는데, 돌무지 외곽을 따라 기단을 조성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매장주체부는 동반부에서 3기가, 서반부에서 1기가 노출되었으나, 서반부의 훼손 지역을 감안하면 2기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장주체부의 조영 방식은 개별 묘곽을 별도로 축조하지 않고 서로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석곽은 가공하지 않은 30~50cm 크기의 강돌을 이용하여 종평적하였다. 특이한 것은 장벽 한 면에만 큰 하천석을 일정한 간격대로 벽면에 잇대어 세워 놓은 것인데, 그 기능은 분명치 않다. 석곽 내부에서는 바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매장주체부 내부에서 타날문토기·낙랑계토기·구슬·청동방울·청동환이 출토되었으며, 적석시설에서는 토기 바닥에 사절흔이 있는 낙랑계토기와 경질의 회청색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토기·금박유리·청동방울·청동환 등의 낙랑 유물인데, 인접한 대방·낙랑 지역과의 교류의 산물로 판단된다.

보고문에 따르면 무덤 연대는 동반부의 매장주체부를 2세기 전반으로, 서반부의 매장주체부를 2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 연천 삼곶리 적석묘와 함께 임진강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적석묘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그림 10] 연천 학곡리 적석층 평면도 및 단면도(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연천 선곡리 삼거리 유적』.
- 전국대학교박물관, 2001, 『연천 원당리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2·3·4차)』.
- 경기도박물관, 2002, 『연천 삼거리 유적』.
-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 고인돌』.
- 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
-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횡산리적석층』.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연천 학곡리 적석층』.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3, 『全谷里 遺蹟發掘調査報告書』.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연천 남계리 구석기 유적』.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보성강·한탄강유역 구석기유적』.
- 백두문화재연구원. 2019, 『연천 임진강 삼거리 유적 I, II』.
- 서울대학교博物館, 1989, 『全谷里 -1986年度 發掘調査報告書-』.
- 서울대학교博物館, 2006, 『연천 전곡 농협 신축부지 일대 발굴조사 보고서』
- 영남대학교박물관, 1984, 『全谷里 發掘 中間報告』.
- 유용욱 2014, 「임진-한탄강유역 구석기의 다양성 - 석기의 크기 및 원석 활용 분석을 중심으로 -」, 『중앙고고연구』15, 중앙문화재연구원.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4, 『파주 적성면 어유지리-연천 군남면 남계리 37번 국도 신설 공사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7, 『문화유적분포지도- 연천군-』.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연천 학곡리 신석기유적』.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8, 『연천 남계리 구석기 유적 (III)』.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993, 『전곡리구석기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2년도-』.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996, 『전곡구석기유적 1994-'95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1, 『全谷舊石器遺蹟：2000-2001 전면시굴조사 보고서』.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합수리(H구역)·취우당지 유적』.



제 2 장

고대의 연천

- I. 삼한 소국의 성장과 연천지역
- II. 삼국의 각축전 전개와 연천지역
- III. 통일신라시기 연천지역의 동향

집필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의 최북단으로 동북쪽으로는 강원도, 서북쪽으로는 황해도와 연결하고 있다. 지형상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광주산맥과 마식령산맥 사이에 위치하는데, 두 산맥의 지맥이 군의 동부와 서북부 지역까지 뻗어내려 고대산(832m), 보개산(724m), 원통산(430m) 등 험준한 산봉우리가 즐비한 산악지대를 이룬다. 이로 인해 연천군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지의 비율이 높고 경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강석오 1971: 172-175, 임덕순 1992: 9-20).

연천군의 중앙부에는 마식령산맥에서 발원한 임진강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평강-철원평야를 지나온 한탄강이 군의 동남부를 감싸며 흐른다. 두 강은 도감포(都監浦) 부근에서 합류한 다음 서남쪽으로 유유히 흘러 서해로 흘러든다. 두 강 연안에는 구릉지대와 침식평야가 펼쳐져 있고, 특히 한탄강을 따라 평강-철원평야에서 시작된 용암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35). 인류는 일찍부터 이러한 침식평야와 용암대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는데, 전곡리 일대의 구석기 유적은 이를 잘 보여준다.

파주와 장단 사이를 흐르는 임진강 하류 구간은 서해 조수(潮水)가 연천군 서쪽의 고랑포(高浪浦) 일대까지 올라와 육상 교통로가 발달하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고대 시기에 임진강을 건너는 육상 교통로는 하류 방면에서 배를 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이 있는 호로고루 일대를 경유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48, 정요근 2005: 191-222). 한반도의 중서부와 서북한을 잇는 남북 종단로(縱斷路)가 연천군의 서쪽 일대를 경유한 것이다.

연천군 중심부로는 추가령구조곡이 동북-서남 방향으로 관통한다. 추가령구조곡은 원산만에서 시작해 평강·철원 평야를 지난 다음, 연천·동두천·의정부를 경유해 서울의 중랑천 일대로 이어진다(권혁재 2003: 51-60). 이 구조곡은 지형이 평탄해 일찍부터 한반도 중서부와 동해안을 잇는 교통로로 활용되었는데, 지금도 경원선 철로가 지나간다. 한반도의 중서부와 동해안을 잇는 동서 횡단로(橫斷路)가 연천군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천군은 한반도의 남북 종단로와 동서 횡단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로 인해 연천지역은 여러 정치체와 국가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고대사의 전개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상을 차지했다. 연천지역이 고대국가의 정치적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고조선의 멸망과 삼한의 성장, 백제의 국가형성과 영역확장, 고구려의 남진과 중부지역 진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북진, 삼국통일 전쟁 등 한국 고대사의 주요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고조선 멸망 이후 통일신라 시기까지 연천군 지역의 역사를 한국 고대사의 전개와 연관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I장에서는 고조선 멸망 이후 연천 등 임진강 유역에서

삼한 소국이 성장하던 양상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II장에서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삼국의 각축전 전개 양상을 다각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연천과 임진강 유역을 무대로 전개된 삼국통일 전쟁과 그에 이어진 나당전쟁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 다음, 통일신라 시기 지방제도의 정비와 수취체계의 운영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I. 삼한 소국의 성장과 연천지역

1. 청동기문화의 보급과 정치세력의 성장

1) 연천지역 청동기문화의 보급 양상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는 청동기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농경이 크게 발달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의 규모도 커졌다. 농경의 발달로 각 사회 내부에서는 경제적인 빈부 차이에 따라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각 마을 사이에는 식량의 탈취나 농경지 확보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점차 청동기를 많이 보유한 지배 세력이 등장하여 주변의 여러 마을을 통합·복속하며 각 지역의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각 지역 정치세력의 통합과 복속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이 성립했다. 고조선의 성립 시기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대략 기원전 7-5세기에는 산둥반도를 비롯해 중원지역과 교섭할 정도로 국가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또 고조선의 영역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한데, 대체로 요동지역에서 서북한 일대를 포괄했을 것으로 파악된다(노태돈 2014, 24-40).

연천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의 바로 외곽지역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연천지역에서 고대국가가 발흥하지는 않았지만, 고조선의 영향을 받으며 청동기문화에 바탕을 둔 정치세력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연천군 관내에서는 청동기 시대 유적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유물산포지를 포함해 청동기 시대 유적이 모두 35곳 확인되었고, 지식묘(지식묘군)도 11곳이 조사되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연천지역 곳곳에 터전을 잡아 삶을 영위하다가 무덤을 조영한 것이다.

연천지역의 청동기 시대 유적은 대부분 지표조사에 그친 유물산포지로 유적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입지나 유물의 채집 양상으로 보아 대부분 취락으로 추정된다(송만영 외 2002: 150). <표 1>에서 보듯이 청동기 시대 일반 유적의 경우, 총 35곳 가운데 29곳이 강변의 충적대지나 자연제방에 입지했고, 구릉지대나 산기슭에 분포한 경우는 6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강변의 충적대지나 자연제방에 입지한 유적에서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유물도 다수 확인된다.

이로 보아 연천지역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구석기 시대 이래 인류가 삶터로 이용했던 강변의 충적대지를 터전으로 삼아 마을을 이루어 농경을 영위하는 한편, 점차 구릉지대도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배기동 2000: 243-244). 실제 군남면 삼거리 유적 반경 6-9km 이내의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유적은 각기 21곳으로 같고, 대부분 임진강과 한탄

〈표 1〉 연천군 지역의 청동기-원삼국 시대 유적 현황¹⁾

	유적명	위 치	시기	유적 현황
연천읍	상리유적	상리 416 일대 차탄천 서쪽 구릉지대	청동기	마제석촉 등 유물 채집
전곡읍	전곡리 유물산포지1	전곡리 전606, 620-622 한탄강변 충적대지	신석기-조선	유물산포지: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 채집
	은대리 유물산포지2	은대리 전102·124 한탄강변 모래언덕	청동기-삼국	유물산포지: 무문토기 저부편, 경질토기편 등 채집.
	신답리 유물산포지2	신답리 아우리지마을 잡17-1, 17-44 한탄강변 구릉	청동기	유물산포지: 갈돌 2매 채집.
군남면	삼거리 유적1	삼거리 전720 주변 강변 대지 일대	구석기-청동기	신석기 시대주거지 6기, 청동기 시대 주거지 3기 등 유구 13기 조사
	삼거리 유적2	삼거리 775 주변 임진강변 충적대지	구석기-원삼국	주거지 노출, 구석기,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삼거리 유물산포지1	삼거리 전743-3 주변 임진강변 충적대지	신석기-원삼국	유물산포지: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우각형 파수 등 채집
	삼거리 유물산포지2	삼거리 답733 일원 임진강변 자연제방	구석기-원삼국	구석기,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편, 회색연질토기, 타날문토기편.
	진상리 유물산포지1	진상리 전709 임진강 동편 충적대지	구석기-청동기	유물산포지
	진상리 유물산포지2	진상리 전720-722 임진강 동편 충적대지	구석기-원삼국	유물산포지: 석기, 어망추, 타날문토기편 등 채집.
	황지리 유물산포지1	황지리 천625 임진강 지류 충적대지	청동기-원삼국	유물산포지: 경질무문토기편, 경질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 채집.
	선곡리 유물산포지	선곡리 840 주변 임진강변 대지 일대	구석기-원삼국	유물산포지: 구석기, 무문토기편, 경질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남계리유적	남계리 265/116-1일대 임진강 합류지점 한탄강 북안의 하안단구 대지	구석기-원삼국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 수습.
청산면	초성리유적	초성리 전316-3 한탄강변 충적대지	원삼국	원삼국 시대 주거지2기(경질무문토기, 연질타날문토기 등 출토)
	초성리 유물산포지1	초성리 답177 일대 한탄강변 충적대지	청동기	갈돌 1점 채집
	초성리 유물산포지2	초성리 전300-302 한탄강변 충적대지	청동기	환형석부, 몸돌 등 채집
	대전리 유물산포지2	대전리 전534·538 대전리산성 서남편 구릉	청동기-조선	유물산포지: 인화문토기편 채집. cf. 대전리산성과의 관련성.
백학면	학곡리 유물산포지	학곡리 답892 일원 임진강변 모래 언덕	구석기-원삼국	유물산포지: 구석기,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결질무문토기 등
	구미리 유물산포지1	구미리 답107 임진강변 단구상 경작지	구석기-원삼국	유물산포지: 구석기, 각종 토기편

1) 이 도표는 『연천군지』(상) 431-432쪽;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 『문화유적분포-연천군-』; 문화재청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https://intranet.gis-heritage.go.kr>)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백 학 면	구미리 유물산포지2	구미리 전42 임진강변 축적대지	원삼국	유물산포지: 경질무문토기편
	구미리 유물산포지3	구미리 전14 임진강변 축적대지	원삼국	유물산포지: 경질무문토기편, 연질타날 문토기편 등 채집
	구미리 유물산포지4	구미리 전226 임진강변 축적대지	원삼국	유물산포지: 경질무문토기편, 연질타날 문토기편 등 채집
미 산 면	우정리 유물산포지1	우정리 376 주변 임진강변 축적대지	원삼국	유물산포지: 경질무문토기편
	우정리 유물산포지2	우정리 전380 주변 임진강변 축적대지	구석기- 청동기	유물산포지: 구석기,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우정리 유물산포지3	우정리 잡214 주변 임진강변 축적대지	구석기- 원삼국	유물산포지: 구석기,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타날문토 기편 등
	등이리 유물산포지	등이리 천817 주변 임진강·한탄강 합류지점 강변 축적대지	구석기- 원삼국	유물산포지: 구석기,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
왕 징 면	북삼리 유물산포지1	북삼리36/40(외울 1/2) 임진강 동안 축적지대	청동기	마제석검 1점 채집
	북삼리 유물산포지2	북삼리 258 임진강 지류 축적지대	청동기	유물산포지: 경질무문토기편, 연질타날 문토기편 등 채집
	강내리 유물산포지3	강내리 산14-16 임진강 동안 구릉지대	청동기- 원삼국	유물산포지: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 채집
	강내리 유물산포지4	강내리 잡63-64 임진강 동안 축적대지	청동기- 원삼국	유물산포지: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 채집
	강내리 유물산포지5	강내리 잡63-64 임진강 동안 축적대지	청동기- 원삼국	유물산포지: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 채집
중 면	삼꽃리 유물산포지1	삼꽃리 산212 임진강 북쪽 구릉지대	구석기- 고려	유물산포지: 구석기, 무문토기편, 덧띠 무늬토기, 어골문기와
	삼꽃리 유물산포지5	삼꽃리 전421-423 주변 임진강 북안 축적대지	신석기- 삼국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편, 경질토기, 마제석부, 타날문토기 등
	삼꽃리 유물산포지6	삼꽃리 전406-408, 도404, 임진강변 축적대지	청동기- 삼국	유물산포지: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 채집.
	횡산리 유물산포지9	횡산리 잡185-186 임진강 인접 경작지	청동기	유물산포지: 회색 및 황갈색 무문토기 편, 타날문토기편
	횡산리 유물산포지10	횡산리 잡141·150 임진강 인접 경작지	청동기	유물산포지: 연질코기, 경질무문토기 채집
	횡산리 유물산포지11	횡산리 잡233·233-2 임진강변 자연제방	청동기	유물산포지: 황갈색 무문토기편, 흑회색 경질토기편
장 남 면	원당리 유물산포지1	원당리 임38 주월리유적 맞은편의 강변 구릉	청동기	유물산포지: 공혈토기, 호형토기, 석촉편, 반월형석도편, 굴지구 등.
	원당리 유물산포지3	원당리 임85-1	청동기	유물산포지: 석촉1점 채집.
	원당리 유물산포지4	원당리 답702-703 임진강변 축적대지	청동기- 원삼국	유물산포지: 마제석부, 마제속촉, 토제어망추 등 채집.

〈표 2〉 연천군 지역의 지석묘 분포 현황²⁾

읍면	유적명	위 치	시기	유적 현황
연천읍	차탄리 지석묘	차탄리 228-3 차탄천 서쪽 충적대지	청동기	1기 : 탁자식(?), 성혈흔,
	통현리 지석묘	통현리 87 차탄천 동쪽 구릉지대	청동기	1기 : 탁자식 (경기도 문화재자료 52호)
	통현리 지석묘군	통현리 254, 251, 197/199, 89번지 일대 차탄천 동쪽 구릉지대	청동기	지석묘 총 8기 1군(254): 3기, 형식 미상 2군(251): 2기, 개석식(?), 성혈흔 3군(197): 2기, 탁자식, 4군(89): 1기, 미상
전곡읍	전곡리 지석묘	전곡리 551 사슴농장 / 전곡 중학교 도로 남측 한탄강 내측 용암대지	청동기	지석묘 총 4기 사슴농장: 2기, 개석식 전곡중: 2기, 탁자식 다수 분포했을 것으로 추정.
	은대리 지석묘군	은대리리 잡582-12 신양농원 내 한탄강 북안의 용암대지	청동기	지석묘 총 2기 동편: 개석식, 장방형 묘곽 서편: 개석식, 장방형 묘곽 묘실 동쪽에서 석검편 출토.
	양원리 지석묘	양원리 임408-4, 420-1 한탄강 동남쪽 구릉지대	청동기	지석묘 총 2기 408-4번지: 탁자식, 성혈흔 (경기도 기념물 209호) 420-1번지: 개석만 확인. 대규모 지석묘군으로 추정
군남면	삼거리 지석묘	진상리 704-1 원위치는 삼 거리 섬마을의 임진강변 대지	청동기	1기: 개석 잔존, 형식 미상
	선곡리지석묘	선곡리 전292-2 임진강 동안의 구릉지대	청동기	1기: 형식 미상
	진상리지석묘	진상리 723-1 임진강 동안 충적대지	청동기	1기: 형식 미상 남쪽 강안에도 지석묘 분포.
청산면	초성리 지석묘군	초성리 288-9 한탄강 남안 충적대지	청동기	지석묘 총 2기
백학면	학곡리 지석묘군	학곡리 일대 임진강 북안의 충적대지 cf. 4호는 원위치 이동	청동기	지석묘 총 6기 1호(173-3): 탁자식, 성혈흔 2호(195): 탁자식 추정, 성혈흔 3호(25): 개석식, 원래 3기. 4호(264-1): 지석 잔존 (경기도 기념물 158호)
장남면	원당리지석묘	원당리 4반 전1123-1 임진강 북쪽의 산기슭	청동기	1기: 형식 미상, 마제석검 채집.

2) 이 도표는 『연천군지』(상); 최정필 외 2001;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 『문화유적분포-연천군-』; 문화재청 GIS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s://intranet.gis-heritage.go.kr>)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강 등 큰 하천 연안의 충적대지에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 큰 하천 연안의 충적대지를 벗어나 구릉지대나 차탄천과 같은 지류에도 유적이 형성되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다(송만영 외 2002: 150-152).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으로는 삼거리 유적이 대표적인데, 신석기 시대 주거지 6기와 함께 청동기 시대 주거지 3기, 소형유구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장방형이고, 바닥에 화덕자리가 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다양한 토기와 함께 반월형돌칼이 4점 출토되었는데, 농경이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토기 가운데 이중구연토기는 황해도 지역의 팽이형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돌돈은 대동강 이남의 팽이형토기문화권과 관련성이 높고, 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은 황해도 봉산 어수구(御水區) 출토품과 유사하다. 삼거리 유적을 통해 연천지역의 청동기문화가 황해도 지역의 팽이형토기문화권과 관련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송만영 외 2002: 158-161).

연천지역의 청동기 유적에서 채집된 유물의 전반적인 양상은 한강유역의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 보이는 석기나 토기의 양상과 유사하다. 또한 이 지역에서 채집되는 공열토기나 홍도는 함경도 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연관되는데, 추가령구조곡을 통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지역은 한반도의 남북 종단로와 동서 횡단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서북한의 팽이형토기문화권뿐 아니라, 한강유역과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가 복합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배기동 2000: 241-244).

이처럼 청동기 시대에 연천지역 곳곳에 마을이 형성되었다면, 이들 사이의 통합과 복속을 통해 세력집단이 성장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유적이 지석묘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지석묘는 모두 11곳 조사되었다. 지석묘의 형식은 개석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탁자식(복방식)이 많은 편이다. 또 청동기 시대의 일반 유적이 주로 강변의 충적대지에 분포하는 반면, 지석묘는 구릉지대에 입지한 비중이 높다. 지석묘의 이러한 입지는 피장자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되며,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세력집단이 성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천지역 지석묘는 인근의 파주나 포천 등의 지석묘와 연관된다. 다만 대형 지석묘가 거의 없고, 개석(蓋石)의 크기가 2-3m 내외인 중형이 주류를 이루고, 두께도 비교적 얇은 편에 속한다(배기동 2000: 242, 조유전 2000: 516-518). 또 <표 2>에서 보듯이 대규모로 군집을 이루는 곳도 없다(최정필 외 2001). 임진강 지류인 차탄천 유역의 차탄리-통현리 일대(직선거리 3.3km 이내)의 지석묘군이 10기로 가장 큰 규모이고, 전곡리-은대리 일대(직선거리 2.7km 이내)에는 6기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송만영 외 2002: 151-152). 현존하는 지석묘 가운데 상당수가 원위치에서 이동한 것에서 보듯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³⁾ 이를 고려하더라도 다

른 지역에 비해 무덤의 수가 적은 편이다.

이로 보아 연천지역은 남북과 동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고조선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청동기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이들 바탕으로 지식묘 축조집단 등 세력집단이 성장했지만, 그 관할범위는 매우 제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청동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연천지역 일대를 통괄하는 정치체가 등장했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다만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연천지역의 여러 세력집단은 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주변 지역과 활발하게 교섭하며 정치적 성장을 이루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고조선사의 전개와 연천지역 정치세력의 성장

연천지역 세력집단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고조선의 동향이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초에 전국(戰國) 연(燕)과 각축전을 벌이다가 패배하고 요동지역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고조선의 영역은 서북한 일대로 축소되고, 중심지도 평양 일대로 옮겨졌다. 더욱이 진(秦)·한(漢) 교체기인 기원전 194년에는 위만(衛滿)이 중국계 유이민을 규합해 준왕(準王)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 고조선에서 왕조 교체가 일어나 위만조선이 성립한 것인데, 이때 준왕은 바다를 통해 남쪽의 ‘한(韓)’ 지역으로 망명했다고 한다(노태돈 2014: 38-41).

기원전 3세기 초 이래 고조선을 둘러싼 정세가 여러 차례 급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원 대륙의 발달한 철기문화가 만주와 한반도 일대로 보급되었다. 특히 준왕의 남하와 더불어 한반도 남부지역에도 철기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주조철부와 세형동검 등이 출토되는 충남·전북의 분묘 유적은 이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보급된 초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중남부 각지에 삼한 소국(小國)이 성장했다고 보기도 한다(권오영 1996: 31-41, 이청규 2000: 37-40, 박순발 2002: 30-33). 다만 연천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초기 철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고조선의 정세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송만영 외 2002: 152).

이 시기 연천지역의 정치적 동향은 문헌사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사기』 조선열전에 따르면 위만(衛滿)은 고조선의 왕위에 오른 다음, 한(漢)과 외신(外臣) 관계를 맺어 주변 집단이 한의 변경을 침공하는 것을 통제하는 대신, 한으로부터 철제무기 등을 독점적으로 수입하며 군사력을 강화했다. 위만은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소읍(小邑)을 병합했는데, 진번(眞番)과 임둔(臨屯) 등이 모두 복속하여 그 영역이 사방 수천 리에 이르렀다. 특히 기원전 2세기

3) 가령 전곡읍 양원리 일대는 자연부락의 이름이 ‘권돌말’로 불린 것에서 보듯이 본래 지식묘가 다수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 사격장을 조성하며 지형이 많이 변형되고, 지식묘도 훼손되었는데, 지식묘로 보이는 석재들이 원 위치를 이탈하여 산재해 있다(최정필 외 2001: 49-50).

후반 위만의 손자 우거(右渠)는 한나라의 유망민을 받아들여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진번 부근의 ‘여러 국[衆國]’과 한나라의 교섭을 차단하며 양자 사이의 중개무역을 독점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노태돈 2014: 41).

위만이 복속시켰다는 진번의 위치에 대한 견해는 크게 북방설과 남방설로 나뉜다(이병도 1976: 102-117, 천관우 1989: 148). 이 가운데 북방설은 고조선의 중심지인 대동강 유역보다 북쪽에 자리했다고 보는 견해인데, 우거왕이 진번 부근의 여러 국과 한나라의 교섭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성립하기 어렵다. 진번이 고조선보다 북쪽에 위치하였다면 당시 한의 요동군에 인접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우거왕이 진번 부근의 국들이 한나라와 교섭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진번은 고조선의 중심지인 대동강 유역보다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일본학자들은 진번의 위치를 한강유역 이남의 충청-전라지역으로 비정하며 마한의 전신으로 보기도 하지만(今西龍 1971, 池內宏 1951),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 과거 진번이 있었던 곳에 진번군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서기 3세기 전반에 요동-서북한 일대를 장악한 공손씨(公孫氏) 정권은 중전의 진번군 지역에 대방군을 설치했다. 대방군에 소속된 현은 대방(帶方: 봉산), 열구(列口), 남신(南新), 장잠(長岑), 제해(提奚), 함자(含資: 서흥), 해명(海冥) 등인데,⁴⁾ 자비령 남쪽의 황해도 지역으로 비정된다(이병도 1976: 118-129).

이로 보아 고조선 말기의 진번 및 한이 설치한 진번군은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 중심지였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원전 45년에 작성된 낙랑군 호구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낙랑군 호구부에는 당시 낙랑군 소속 25개 현이 나온다. 이 가운데 2구역으로 분류되는 대방, 열구, 장잠, 해명, 소명(昭明: 신천), 제해, 함자 등 7개 현은 당시 낙랑군 남부도위 관할 지역으로 본래 진번군의 속현이었다. 이들 7개 현은 진번군의 핵심지역으로 낙랑군에 편입되었다가, 서기 3세기 전반에 대방군으로 분리된 것이다(윤용구 2010a: 187-196). 그러므로 고조선 말기 진번의 중심지역은 자비령에서 멸약산맥에 이르는 재령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으로 파악된다.

이로 보아 고조선 말기에 연천군 등 임진강 유역은 ‘진번’의 외곽지역에 해당했다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진번 곁의 여러 나라[衆國]가 글을 올려 (한의) 천자를 알현하려 했지만, (고조선의 우거왕이)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기』 조선열전의 기사가 주목된다.⁵⁾ 이 기사의 ‘중국(衆國)’이라는 표현은 판본에 따라 ‘진국(辰國)’으로도 나온다. 이에 고조선 말기에

4) 『晉書』 권14 地理上

5) 『史記』 권105 조선열전: “眞番傍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한반도 중남부에 '진국'으로 불린 연맹체나(이병도 1976: 238-239) 정치체가 존재했다고 보기도 했다(김정배 1986: 271-287, 천관우 1989: 227-262).

그렇지만 기원전 3-2세기경 한반도 중남부에는 이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연맹체나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정치체를 상정하기 쉽지 않다. 당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세형동검과 주조철 부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다수 정치체가 병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현혜 1984: 8-37). '진국(辰國)'보다는 '중국(衆國)'이라는 표현이 당시 한반도 중남부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파악된다(권오영 1996: 31-41).

고조선 말기에 한반도 중남부에는 '진번 곁의 여러 국(衆國)'으로 표현된 정치체가 다수 병존했고, 우거왕이 이들과 한나라의 교섭을 차단한 것이다. 이로 보아 한반도 중남부의 여러 국은 처음에는 고조선을 통해 한나라와 간접적으로 교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 후반에 들어와 이들이 한나라와의 교섭을 시도하자, 우거왕이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며 한나라와의 교섭을 차단한 것으로 짐작된다. 위만이 등장한 이후 고조선의 국가적 성장이 한반도 중남부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임진강 유역은 '진번'의 외곽지역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연천 등 임진강 유역에도 '진번 곁의 여러 국(衆國)'에 해당하는 정치체가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연천군 서부지역은 고조선의 중심부인 평양지역과 한반도 중부지역을 잇는 남북 종단로의 경유지이다. 고조선이 한반도 중남부의 여러 국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연천군 서부지역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고조선 말기에 연천지역에 '여러 국(衆國)'에 해당하는 정치체가 성장했다면, 처음에는 고조선과의 교섭을 통해 정치적 성장을 이룩하다가 기원전 2세기 후반에는 고조선의 통제를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고조선의 멸망과 연천지역 정치세력의 동향

1) 고조선의 멸망과 진번군의 설치·폐지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다. 한은 고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낙랑군(樂浪郡), 진번군(眞蕃郡), 임둔군(臨屯郡), 현도군(玄菟郡) 등 이른바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진번군은 연천군에 인접한 진번지역에 설치한 군이라는 점에서 한사군 설치 이후 연천지역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의 무제릉에서 발견되었다는 『武陵書』에 따르면 진번군의 속현은 모두 15개였고, 군의 치소(治所)는 삼수(三水) 유역의 삼현(三縣)이었다고 한다. 당시 재령강(서흥강)은 대수(帶水)로 불렸기 때문에⁶⁾ 삼수는 재령강보다 남쪽에 위치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삼수를 예성강이나

임진강으로 비정하는데(윤선태 2010: 257-258), 예성강을 건너뛰고 임진강 유역에 진번군의 군치를 설치했을 가능성은 낮다. 삼수(三水)는 임진강보다는 예성강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한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 진번군의 치소를 종래 '진번'의 중심지였던 재령강 유역이 아니라 더 남쪽인 예성강 유역에 전진 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재령강 유역의 황해도 일대에서는 진번군의 속현이 7개만 확인된다. 진번군의 속현은 모두 15개였다고 하므로 8개는 재령강 유역 이외 지역에 설치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군의 치소가 있는 예성강 유역에 두었겠지만, 예성강 유역의 면적으로 보아 8개의 속현을 모두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경우, 한이 한반도 중부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남북 종단로가 경유하는 연천군 서부지역에도 진번군의 속현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한나라는 한사군을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토착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장기간 진행된 정복 전쟁으로 인해 국가재정도 몹시 어려워졌다. 이에 한나라는 대외정책을 온건책으로 선회하며 정복지역에 설치한 변군(邊郡)을 대폭 축소했다. 한반도 지역에서도 기원전 82년 진번군과 임둔군을 폐지하여 낙랑군과 현도군에 병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한은 진번군을 폐지한 이후 진번군의 치소가 있던 '삼현(三縣)'을 '삼양장(三陽障)'이나 '삼양부(三陽部)'로 개편했다(윤용구 1990: 19-20).

'장(障)'과 '부(部)'가 소규모 군사시설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한이 '삼양(三陽)' 곧 '삼수(예성강)의 북쪽'에 군사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진번군 설치 이후 토착세력이 한의 군현지배에 강력하게 저항하자, 한이 진번군 폐지와 함께 군치가 있던 삼현도 폐지하고 예성강 북쪽 일대에 토착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윤선태 2010: 257-258). 그러므로 한이 임진강 유역에 진번군의 속현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토착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30년도 되지 않아 폐지한 것으로 짐작된다.

2) 연천지역 적석묘의 분포양상과 삼한 소국의 성장

고조선 멸망 이후 유민들이 대거 한반도 중남부로 이주했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의 발달한 철기문화가 한반도 중남부로 널리 보급되고, 각지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했다. 고고학계에서 '원삼국'으로 일컫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가 원삼국 문화를 바탕으로 삼한 소국이 성장했다고 파악한다.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 중남부 전역이 철기문화에 바탕을 둔 원삼국 시대로 진입하면서 각지에서 삼한 소국이 성장했다는 것이다(이현혜 1984: 133-164, 이희준 2000: 130-134, 김권구 2016: 163-164).

6) 『한서(漢書)』 지리지 낙랑군 함자현조: “帶水西至帶方入海.”

〈표 3〉 연천지역 적석묘의 분포 현황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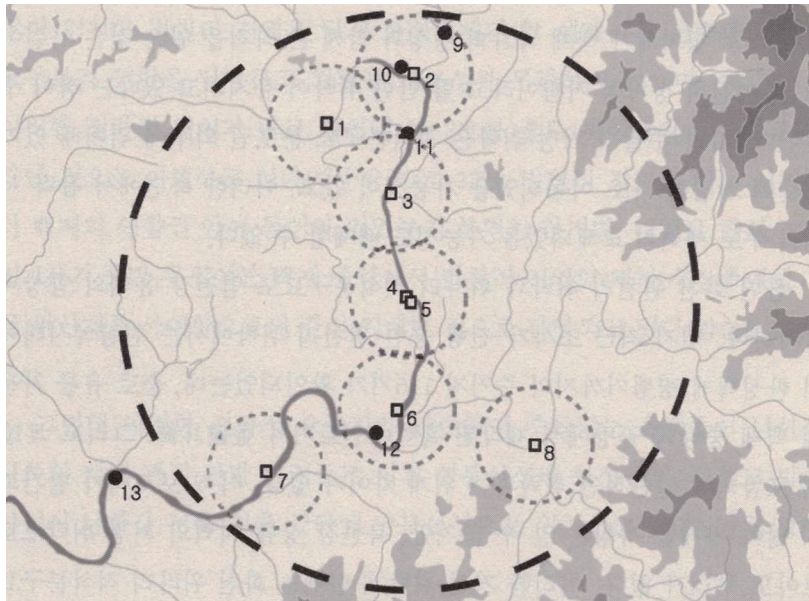
읍면	유적명	위 치	유적 현황	출토유물
진곡읍	전곡리 적석묘	전곡리 121 한탄강변 층적대지	강돌로 축조. 많이 교란되어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움.	
군남면	선곡리 적석묘	선곡리 임진강변 층적대지	20-30cm 크기 강돌로 축조. 방향은 서쪽으로 20도 기움. 잔존 규모 13.5-14m, 높이 3-4m	무문토기편, 백제토기편
미산면	우정리 적석묘1	우정리 381 임진강변 자연제방	취수탑 건설로 파괴. 하부만 잔존. 강돌로 축조. 잔존 장축길이 35m 단축길이 22m, 높이는 강변 3-4m, 제방쪽 1m.	석제옥, 연질토기편, 경질무문토기편.
	우정리 적석묘2	우정리 329 임진강변 자연제방	상부는 유실, 하부만 잔존. 길이 60m, 너비 25m, 높이 2-3m.	경질무문토기편, 승석문 연질타날문토기편, 청동팔찌.
	동이리 적석묘	동이리 66-1 임진강변 모래언덕	모래언덕은 길이 41m, 너비 24m, 높이는 2.5-6m. 모래언덕 중앙부에 길이 6m, 너비 6-8.5m의 적석묘 일부 잔존.	
중면	횡산리 적석묘	횡산리 임진강변 층적대지	30cm 크기 강돌로 축조. 남북길이 45m, 동서길이 16-24m, 높이 약 8m.	무문토기편, 연질토기편, 흑회색 경질토기편, 승석문 단경호편
	삼꽃리 적석묘	삼꽃리 421 임진강변 모래언덕	30-50cm 강돌로 2-3단의 기초부 조영. 두 기를 이은 표주박형 쌍분. 동서길이 20m, 남북길이 14m, 높이 1.5m. 무덤주체부는 석곽. 매장부와 북쪽 제단시설에서 유물 출토.	연질의 타날문단경호, 경질무문토기, 철촉.
백학면	학곡리 적석묘	학곡리 20-2 임진강변 자연제방의 모래언덕	30-40cm 크기 강돌로 축조. 장축길이 25m, 단축길이 10m, 높이 1m. 4기의 매장 주체부 확인. 동반부에 3기, 서반부에 1기 위치. 무덤방은 장방형. 1호 무덤방의 장축은 동서, 나머지는 남북 방향. 2호, 3호, 1호, 4호 순서로 조영. 조영연대: 동반부(1-3호)는 2세기 전반, 서반부(4호)는 2세기 후반	1호: 평저호 2점, 구슬 4점, 회백색토기편. 2호: 타날문토기편, 구슬 81점, 골제장신구 1점, 청동환 1점 3호: 평저호 1점, 구슬 32점, 철제낫 1점 4호: 평저호 2점, 구슬 18점, 청동방울 1점

7) 도표는 각종 보고서와 『연천군지』(상);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 『문화유적분포-연천군-』; 문화재청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https://intranet.gis-heritage.go.kr>)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연천지역은 고조선에 복속된 '진번'의 인접 지역일 뿐 아니라, 고조선 중심부와 한반도 중남부를 잇는 남북 종단로의 경유지이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는 진번군의 외곽으로 군의 서부지역에는 진번군의 속현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연천지역에도 고조선 멸망 이후 철기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삼한 소국에 해당하는 정치체가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표 1>에서 보듯이 연천지역에서는 원삼국 시대 유적이 26곳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23곳이 강변의 충적대지나 자연제방에 자리하는데, 청동기 유적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원삼국 시대에도 이 지역 주민집단은 주로 강변의 충적대지를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다.

연천지역 원삼국 시대 유적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회색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는데, 중부지방 원삼국 시대의 유물 조합상과 비슷하다. 무문토기는 호형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태토는 점토에 사립을 섞은 것으로 적색이나 갈색을 띠며, 동체 최대경이 위쪽에 있는 중도식(中島式) 토기에 속한다. 타날문토기는 연질에 격자문이 시문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처럼 연천지역의 원삼국 시대 유적은 이른바 중도 유형으로 한강유역 원삼국 문화권에 속한다(조유전 2000: 518). 또 주거지 분포상으로도 한강유역과 함께 '철(凸)자형' 주거지 분포권을 이룬다(박중국 2014: 4-5).

그러므로 연천지역에도 원삼국 시대의 개시와 함께 삼한 소국에 해당하는 정치체가 성장했



〈지도 1〉 연천지역의 적석묘와 취락유적 분포도(송만영 2013: 305쪽)

범례 : □ 적석묘, ● 취락유적, 1. 횡산리 적석묘, 2. 삼꽃리 적석묘, 3. 삼거리 적석묘, 4-5. 우정리 적석묘 1-2, 6. 동이리 적석묘, 7. 학곡리 적석묘, 8. 전곡리 적석묘, 9. 합수리 유적, 10. 삼꽃리 유적, 11. 강내리 유적, 12. 동이리 유적, 13. 파주 주월리 유적

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삼국지』 동이전 한전에 나오는 마한 소국의 기재순서가 주목된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3세기 초·중반에 존재했던 54개의 마한 소국이 열거되어 있는데, 대체로 중국군현에 인접한 북쪽의 예성강-임진강 유역에서 남하하면서 전남 해안 지역에 이르는 순서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천관우 1989: 373-376).

이에 따른다면,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로 비정되는 백제국(伯濟國)보다 앞에 기재된 원양국(爰襄國), 모수국(牟水國), 상외국(桑外國), 소석색국(小石索國), 대석색국(大石索國), 우후모탁국(優休牟涿國), 신분고국(臣濱沽國) 등 7개 소국은 대체로 대방군과 한강 유역 사이에 위치했다고 상정할 수 있다. 당시 대방군은 재령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에 설치되었으므로 이들 7개 소국은 예성강-임진강 유역 및 서해안에 자리했다고 파악된다.

실제 7개 소국 가운데 소석색국과 대석색국은 서해의 섬(이병도 1976: 263) 특히 교동도와 강화도로 비정된다(천관우 1989: 384-385, 이인철 2001: 417-419). 그러므로 7개 소국 가운데 적어도 1-2개는 임진강 유역의 연천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원양국이나 상외국(천관우 1989: 416-417), 신분고국(송만영 2003: 138, 김수태 2004: 32) 등을 연천지역으로 비정하기도 하는데, 명확한 논거가 제시된 상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연천지역에서 다수 조사된 2-3세기의 적석묘가 주목된다.

〈표 3〉과 〈지도 1〉에서 보듯이 연천지역에서는 7곳에서 총 8기의 적석묘가 확인되었다. 이들 적석묘는 모두 임진강변의 충적대지나 자연제방에 형성된 모래언덕에 입지하고 있는데, 외형상 주변보다 높다란 모래언덕을 최대한 활용해 20-50cm 크기의 강돌로 거대한 무덤을 조영한 점이 특징적이다. 출토 유물은 경질무문토기나 연질 타날문토기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연천지역의 원삼국 시대 유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시신을 안치한 매장 주체부는 학곡리 적석묘 발굴을 통해 확인되었다. 학곡리 적석묘는 동·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간적 선후를 달리하는 장방형 묘곽을 동반부에 3기, 서반부에 1기 등 총 4기를 조영했다. 누대에 걸쳐 조영한 다곽식 무덤인 것이다. 학곡리 적석묘에서는 평저호, 회백색토기편, 타날문토기편, 구슬, 청동환, 청동방울, 골제장신구, 철제낫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무덤의 조영시기를 동반부는 1호묘곽 출토 흑색 평저호와 연질 타날문토기를 근거로 2세기 전반, 서반부는 4호묘곽 출토 사격자 타날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를 근거로 2세기 후반으로 편년했다(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2004).

이러한 적석묘는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도 다수 분포한다. 종래 이들 적석묘는 대체로 고구려 적석묘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고구려 유이민들이 건국한 백제 초기의 영역을 반영한다고 보았다(최몽룡·권오영 1985, 권오영 1985). 이들 적석묘를 영서지역에 거주하는 예(穢)의 무덤으로 보기도 하지만, 백제 초기 영역으로 이해한 점은 동일하다(박순발 1998). 더욱이 백

제를 건국한 고구려 유이민들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임진강 유역에서 일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긴 유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임진강 유역이 백제 초기의 중심지였다는 것이다(문안식 1995·2002, 이현혜 1997, 임영진 2003).

그렇지만 임진강 유역 적석묘는 강변의 모래언덕을 이용하여 돌을 잇는 ‘즙석(葺石)’ 방식으로 축조했다는 점에서 평지에 돌을 차곡차곡 쌓은 고구려 초기 적석묘와 많은 차이가 난다(송호정 2007: 174-178). 출토 유물도 중도식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고구려나 백제와 곧바로 연결하기에 무리가 있다(송만영 2003: 135-136). 더욱이 학곡리적석묘의 조영시기는 2세기로 확인되었고, 연천지역의 다른 적석묘도 대체로 2-3세기로 편년된다(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2004, 유태용·박영재 2006: 301).

전술한 바와 같이 3세기 초·중반에 멸약산맥과 한강 유역 사이에는 삼한 가운데 마한 소국이 다수 존재했다. 이렇게 본다면 2-3세기로 편년되는 임진강 유역의 적석묘는 백제 초기의 묘제라기보다는 임진강 유역에 존재한 토착세력 곧 마한 소국과 관련한 유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송만영 2003: 137-138). 연천지역의 적석묘에서 원삼국문화를 대표하는 경질무문토기나 타날문토기가 출토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천지역 적석묘는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라 모두 7곳에 분포한다. 각 적석묘 사이의 거리는 대략 4km 내외로 일정한 양상을 보이며, 그 중심에 우정리 적석묘 1-2호분이 자리한다. 우정리 적석묘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적석묘의 분포범위는 직선 거리리 14-16km 내외인데, 이는 대체로 삼한 소국의 공간 범위에 해당한다. 연천지역에 마한 소국에 해당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했음은 거의 명확하다고 하겠다(송만영 2013: 305-306).⁸⁾

3) 연천지역 삼한 소국의 대외교섭과 흥망

연천군의 서부지역은 당시 중국군현이 자리했던 서북한과 한반도 중부지역을 잇는 남북 종단로가 경유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그러므로 연천지역에서 성장한 마한 소국은 남북 종단로의 경유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중국군현과 여타 삼한 소국의 교섭을 증대하며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 서기 1세기 초에 생존했던 염사치(廉斯鑿)라는 인물의 활동이 주목된다.

염사치는 서기 20-23년 무렵에 진한(辰韓)의 우거수(右渠帥)가 된 다음 낙랑군에 망명하러

8) 연천군 청산면의 초성리토성을 연천지역 마한 소국의 통치거점으로 상정하기도 한다(이도학 2000: 251). 초성리토성은 동서 150m, 남북 100m 내외의 장방형 구조로 둘레는 535m이다. 성 내부의 지표 아래에서 무문계 회색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지만, 축조시기를 확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이우형 1995: 547-54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0: 382~383).

가다가, 한(韓)의 노예가 된 낙랑인 호래(戶來)를 만났다. 이에 염사치는 호래를 데리고 함자현에 도착해 낙랑군에 망명했다.⁹⁾ 함자현은 황해도 서흥으로 비정되는데, 중부지역과 서북한을 잇는 남북 종단로 가운데 최단 코스인 평산-서흥로를 따라 예성강 유역에서 멸악산맥을 넘으면 처음 당도하는 곳이다.¹⁰⁾ 그러므로 염사치가 육로를 이용했다면 남북 종단로를 따라 연천군 서부의 호로고루 일대를 경유한 다음, 평산-서흥로를 경유해 멸악산맥을 넘어 함자현에 도착했을 것이다(김창석 2020: 288-290).

염사치의 낙랑군 망명 사건은 당시 연천군의 서부지역을 경유하는 남북 종단로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염사치가 멸악산맥을 넘은 다음 함자현에 도착해 낙랑군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사실에서 낙랑군이 남북 종단로를 활용해 삼한 소국과 교섭했고, 멸악산맥에 인접한 함자현을 전진기지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천지역의 정치세력은 남북 종단로를 통한 중국군현과 삼한 소국의 교섭을 도와주거나 증개하면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서기 2세기 후반 후한의 혼란을 틈타 한(韓)과 예(濊)의 세력이 매우 강성해졌다. 이로 인해 낙랑군이 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군현의 백성이 한·예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다. 군현의 백성이 한·예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낙랑군에 인접한 토착세력이 이러한 성장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반영한다(윤용구 1999: 121-125). 그러므로 2세기 후반에 낙랑군에 인접한 연천지역의 정치세력이 더욱 강성해졌다고 추정되는데, 이 지역의 거대한 적석묘는 이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송만영 2003: 137-139).

3세기 초에 공손씨 정권이 서북한까지 장악한 다음, 한·예 지역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낙랑군이 방치해두었던 황해도 지역에 대방군을 설치했다. 이때부터 낙랑군 대신 대방군이 삼한 소국과의 교섭을 담당했다. 이로 인해 예성강-임진강 유역의 마한 소국은 낙랑군보다 더 가까워진 대방군으로부터 더 강한 통제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삼한 소국과의 교섭을 맡은 중국군현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양자의 교섭을 더욱 적극적으로 증개하며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했을 수 있다(윤선태 2001: 13-17).

이 경우 연천지역 정치세력의 기반도 증전보다 더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 지역의 거대한 적석묘가 3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조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247년에 일어난 대방군 기리영 전투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 『삼국지』 동이전 한전에 따르면 조위가 동방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벌한 다음, 247년에 진한 8국에 대한 교섭권을 대방군에서 낙랑군으로 이전하려하자, 신책점한(臣愼沾韓)이 이에 불만을 품고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

9)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한전

10) 멸악산맥 일대의 교통로 현황에 대해서는 이 글의 II장 2절 참조.

했다가 오히려 괴멸되었다”고 한다.

이 기사의 ‘신책점한’은 명대(明代) 이래 판본에는 ‘신지격한(臣智激韓)’으로 나온다. 이에 종래 다수 연구자가 신지(臣智)에 해당하는 목지국의 주장(노중국 2018: 151-153)이나 백제의 고이왕(천관우 1989: 241-242, 이현혜 1997: 7-32) 등이 대방군 기리영 공격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신지격한(臣智激韓)’이라는 자가 송대나 원대 판본에는 신책점한(臣曠沾韓)으로 나오며, 이는 ‘신분고한(臣瀆沽韓)’의 오기로 파악된다(윤용구 1999: 101-107, 윤용구 2010b: 248-250).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한 주체는 ‘신지’라는 인물이 아니라, 마한 소국의 하나인 신분고국(臣瀆沽國)이라는 것이다.

신분고국은 『삼국지』 한전의 마한 54국 가운데 백제국 바로 앞인 7번째로 나오며, 멸약산맥과 한강유역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분고국이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한 가장 큰 이유는 대방군이 관할하던 진한 8국에 대한 교섭권을 낙랑군으로 이전하려 했기 때문이다. 진한 8국에 대한 교섭권이 낙랑군으로 이전되면, 대방군에 인접한 예성강-임진강 유역의 정치세력은 양자의 교섭을 도와주거나 중개하며 획득하던 정치·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진한 8국에 대한 교섭권을 이전하려는 조위의 조치에 반발해 신분고국이 예성강-임진강 유역의 정치세력과 함께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한 것이다.

최근 여러 연구자가 신분고국을 연천지역의 적석묘 축조집단으로 비정하기도 했는데(강현숙 2001: 133, 송만영 2003: 134-138),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연천지역의 적석묘 축조집단이 신분고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방군 기리영 공격에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했다고 짐작된다. 연천지역의 적석묘 축조집단은 대방군과 삼한 소국의 교섭을 중개하며 막대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는데, 진한 8국에 대한 교섭권을 대방군에서 낙랑군으로 이전하려는 조위의 조치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247년에 일어난 대방군 기리영 전투는 연천지역의 정치세력이 대방군과 삼한 소국의 교섭을 중개하며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전해준다.

그런데 신분고국은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했다가 ‘멸한(滅韓)’ 곧 멸망당했다고 표현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반면 한강 하류에 자리한 백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점차 주변의 마한 소국을 병합해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기리영 전투를 계기로 예성강-임진강 유역의 마한 소국이 몰락한 반면, 백제국이 주변 소국을 병합하며 점차 넓은 영역을 차지한 고대국가로 발돋움한 것이다(권오영 2001: 36-54). 이에 따라 연천지역의 마한 소국도 백제에 병합되어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3세기 말 이후 거대한 적석묘가 더는 축조되지 않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II. 삼국의 각축전 전개와 연천지역

1. 백제의 연천지역 진출과 지배거점 구축

1) 백제의 국가적 성장과 연천지역 진출

연천지역에는 3세기 중반까지도 마한 소국에 해당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했다. 임진강변의 모래언덕에 조영된 거대한 적석묘는 연천지역 마한 소국의 지배세력이 남긴 무덤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임진강 유역의 충적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성장을 이룩하는 한편, 서북한과 한반도 중부지역을 잇는 남북 종단로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중국군현과 삼한 소국의 교섭을 증개하며 정치·경제적 이득을 획득했다.

그런데 연천지역의 정치세력은 247년에 대방군 기리영 전투에 참여했다가 조위의 반격을 받아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기리영 전투를 계기로 연천지역 등 예성강-임진강 유역의 마한 소국이 크게 몰락하자, 한강 유역의 백제국이 주변 소국을 병합하며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권오영 2001: 36-54).¹¹⁾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백제국이 주변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며 넓은 영역을 확보한 고대국가로 발돋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제의 중심부인 한강 하류 일대뿐 아니라 동쪽으로는 북한한-남한강 유역, 북쪽으로는 임진강-예성강 유역, 남쪽으로는 경기남부 나아가 금강유역도 점차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연천지역도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말갈·낙랑과의 전투 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표 4>에서 보듯이 백제는 건국 초기에 말갈과 빈번하게 전투를 벌였다. 백제 초기에 등장하는 말갈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문안식 2006: 77-78), 대체로 동예(東濊) 계통으로 이해된다(유원재 1979, 김기섭 1991). 3세기 중반경 동예는 북으로 고구려·동옥저와 접하고 남으로 진한(辰韓)과 접했다. 동예가 원산만에서 태백산맥 좌우의 산간지대를 따라 강원도 남부에 걸친 넓은 지역에 분포한 것인데, 백제본기에 나오는 말갈은 이러한 동예 가운데 일부이다.

백제는 북쪽 방면에서 말갈=동예와 국경을 접했는데(온조왕 2년), 실제 말갈이 백제의 북쪽 국경을 침공한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온조왕 3년, 10년, 다루왕 28년, 구수왕 7년). 다만 온조왕 40년과 초고왕 49년에 말갈이 침공한 술천성(述川城)은 남한강 유역의 여주 흥천으로 비정된다(이병도 2012: 408, 천관우 1989: 310). 또 다루왕 29년에 말갈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우곡성(牛谷城)은 동부(東部)에 명해 쌓았다는 점에서 백제의 동방으로 비정되는데(천

11) 노중국 2018: 150-157쪽에서는 목지국이 대방군 기리영 공격을 주도했다고 보지만, 이 전투를 계기로 백제국이 다른 마한 소국을 병합하며 고대국가로 발돋움했다고 이해한다.



고목성=연천읍,
석두성=연천군 증면,
마수성=포천시 군내면,
적현성=이천군 안협읍,
사도성=고암산 남쪽,
대부현=평강읍,
칠중성=파주시 적성면

〈지도 2〉 백제 초기 임진강 유역 지명의 위치 비정(박승미 2022: 39)

관우 1989: 320-321, 양기석 2008: 47),¹²⁾ 기루왕 32년과 구수왕 16년에 말갈이 우곡 일대를 침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말갈=동예가 백제의 북방과 동방을 동시에 공격한 것으로 보아 백제의 동북방에 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문안식 2002: 155-156).

온조왕은 재위 8년에 도성(위례성)을 침공한 말갈을 대부현(大斧峴)까지 추격했고, 22년에는 부현(斧峴) 동쪽에서 수렵하다가 말갈적(靺鞨賊)을 만나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또 온조왕 40년에는 말갈이 부현성(斧峴城)을 습격했다고 나온다. 온조왕 8년의 위례성 침공 기사를 근거로 대부현(부현)을 도성인 위례성 부근이나(서영일 2004: 226-227, 위가야 2013: 23) 임진강 하류(임기환 2014: 40)로 비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현(부현)은 부양현(斧壤縣)과 같은 지명으로 임진강 상류의 평강 지역으로 비정된다(천관우 1989: 310, 이병도 2012: 403, 김기섭 1994: 7, 정구복 외 1997d: 599-600).

말갈이 부현성을 습격했다는 기사가 부현성이 백제 영역에 편입된 상황을 전한다면, 온조왕이 말갈을 추격해 대부현에 이르렀다는 기사 및 부현 동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말갈적을 만났다는 기사 등은 부현 일대가 양자의 접경지대였음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백제와 말갈의 전

12) 서영일 2004: 230-231에서는 춘천이나 양평 방면, 박승미 2022: 37-39에서는 경기도 이천 우곡리 등으로 비정했다.

〈표 4〉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말갈·낙랑과의 전쟁 기사

시기	기사 내용
온조왕 2년 (기원전 17)	정월에 왕이 군신에게 “말갈이 우리의 북쪽 국경에 연접해 있으니 그들을 방비할 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함.
온조왕 3년 (기원전 16)	9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공하자, 왕이 날랜 병사를 거느리고 급히 공격하여 대파했는데, 생환한 적이 10에 한둘에 불과함.
온조왕 8년 (기원전 11)	2월에 말갈적(靺鞨賊) 3천이 위례성(慰禮城)을 포위했다가 퇴각함. 왕이 정예병을 이끌고 추격해 대부현(大斧峴)에서 싸워 이기고 500여 명을 살해하고 노획함. 7월에 마수성(馬首城)을 축조하고, 병산책(瓶山柵)을 세우자, 낙랑태수가 사신을 보내 항의함.
온조왕 10년 (기원전 9)	10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노략질하자, 왕이 병사 200을 보내 곤미천(昆彌川)에서 방어했지만 아군이 패배하여 청목산(靑木山)에 의지해 지킴. 왕이 몸소 정예 기병 100을 거느리고 봉현(烽峴)으로 나가 구하니 적군이 물러감.
온조왕 11년 (기원전 8)	4월에 낙랑이 말갈로 하여금 병산책을 습격해 격파하고, 100여 명을 살해하게 함. 7월에 독산(禿山)과 구천(狗川) 두 목책을 설치해 낙랑 가는 길을 막음.
온조왕 13년 (기원전 6)	5월 왕이 신하들에게 나라의 동쪽에 낙랑이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걱정함.
온조왕 17년 (기원전 2)	봄에 낙랑이 침공하여 위례성을 불태움.
온조왕 18년 (기원전 1)	10월에 말갈이 몰래 이르자 왕이 병사를 거느리고 칠중하(七重河)에서 싸워 추장 소모(素牟)를 사로잡아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 적은 모두 생매장함. 11월에 왕이 낙랑의 우두산성(牛頭山城)을 습격하려고 구곡(臼谷)에 이르렀다가 대설을 만나 되돌아옴.
온조왕 22년 (4)	8월에 석두성(石頭城)과 고목성(高木城) 두 성을 축조했다. 9월에 왕이 기병 1천을 거느리고 부현(斧峴)의 동쪽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갈적을 만나 싸워서 격파하고 생구를 노획하였는데, 장졸에게 나누어줌.
온조왕 40년 (22)	9월에 말갈이 술천성(述川城)을 공격함. 11월에 (말갈이) 또 부현성(斧峴城)을 습격하여 백여 인을 살략(殺掠)하자, 왕이 날랜 기병 200에게 명하여 막게 함.
온조왕 43년 (25)	10월에 남옥저의 구파해(仇頗解) 등 20여 가(家)가 부양(斧壤)에 이르러 투항하자, 왕이 받아들여 한산(漢山)의 서쪽에 안치함.
다루왕 3년 (30)	10월에 동부 흘우(屹于)가 말갈과 더불어 마수산(馬首山) 서쪽에서 싸워 이겼는데, 매우 많이 살해하고 노획함.
다루왕 4년 (31)	8월에 고목성(高木城)의 곤우(昆優)가 말갈과 더불어 싸워 크게 이기고, 200여명을 참수함.
다루왕 7년 (34)	9월에 말갈이 마수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백성의 가옥을 방화하여 불태움. 10월에 (말갈이) 또 병산책을 습격함.
다루왕 28년 (55)	8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공함.
다루왕 29년 (56)	2월에 왕이 동부에 명해 우곡성(牛谷城)을 축조해 말갈에 대비함.
기루왕 32년 (108)	7월에 말갈이 우곡(牛谷)에 침입하여 백성을 약탈함.

기루왕 49 (125)	신라가 말갈의 침략을 받았다며 글을 보내 청병함. 왕이 5장군을 보내 구원함.
초고왕 45년 (210)	2월에 적현성(赤峴城)과 사도성(沙道城) 등 두 성을 축조하여 동부(東部)의 민호를 이주시킴. 10월에 말갈이 사도성(沙道城)을 공격했다가 이기지 못하자, 성문을 불태우고 달아남.
초고왕 49년 (214)	9월에 북부의 진과(眞果)에게 명하여 병사 1천을 거느리고 말갈의 석문성(石門城)을 습격하여 공취함. 10월에 말갈이 날랜 기병으로 침공하여 술천에 이름.
구수왕 3년 (216)	8월에 말갈이 적현성(赤峴城)을 포위했다가 성주가 강하게 방어하자 적이 물러감. 왕이 날랜 기병 8백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사도성(沙道城) 아래에서 격파했는데, 매우 많이 살해하고 노획함.
구수왕 4년 (217)	2월에 사도성(沙道城)의 곁에 목책 2개를 설치했는데, 동서의 거리가 10리였음. 적현성(赤峴城)의 병사를 나누어 지키게 함.
구수왕 7년 (220)	10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공하자, 병사를 보내 방어함.
구수왕 16년 (229)	11월에 말갈이 우곡(牛谷)의 경계에 침입해 사람과 물자를 약탈하자, 왕이 정예병 3백을 거느리고 방어했는데, 적의 매복병이 협공해 아군이 크게 패배함.
고이왕 13년 (246)	8월에 조위의 유주자사 관구검(毌丘儉)이 낙랑태수 유무(劉茂), 대방태수 왕준(王遵) 등과 함께 고구려를 정벌하자, 왕이 (군현의) 빈틈을 타서 좌장(左將) 진충(眞忠)을 보내 낙랑의 변경 백성을 습격하여 공취함. 유무가 이를 듣고 노하자, 왕이 침공을 당할까 두려워 그 백성을 돌려줌.
고이왕 25년 (258)	봄에 말갈의 장라갈(長羅渴)이 양마 10필을 바치자, 왕이 사자를 우대하여 위로하고 돌려보냄.
책계왕 원년 (286)	고구려가 대방을 정벌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함. 이에 앞서 왕이 대방왕의 딸 보과(寶菓)를 맞아들여 부인으로 삼았는데, 왕이 대방은 장인의 나라라면서 군대를 보내 도와줌.
분서왕 7년 (304)	2월에 몰래 군대를 보내 낙랑의 서현(西縣)을 습격하여 획득함. 10월에 왕이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의 해를 입고 사망함.
진사왕 3년 (387)	9월에 말갈과 관미령(關彌嶺)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함.
진사왕 7년 (391)	4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의 적현성(赤峴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킴.

투 기사는 비록 시조인 온조왕 시기부터 나오지만, 백제가 임진강 중하류 일대를 영역으로 확보하고, 임진강 상류의 대부현(부현) 곧 지금의 평강 일대에서 말갈=동예와 접경하던 시기의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연천군을 비롯해 임진강-예성강 유역에는 3세기 중반까지도 마한 소국에 해당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했다. 3세기 중반까지는 백제가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 다음 절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백제는 4세기 중후반에 예성강 서북방의 멸약산맥 일대에서 고구려와 각축전을 벌였다. 4세기 중반에는 백제가 임진강 유역을 넘어 예성강 유역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백제가 연천군을 비롯한 임진강 중하류 유역으로 진출하여

상류의 평강 일대를 경계로 말갈=동예와 접경한 것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의 상황으로 짐작된다. 연천지역이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 무렵에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2) 백제의 임진강 유역 방어체계 구축

연천지역은 한반도의 남북 종단로와 동서 횡단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다. 백제는 동서 횡단로인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연천지역을 경유해 평강 일대까지 진출했고, 말갈=동예도 이 루트를 따라 백제의 북방을 공격했을 것이다(이도학 1997: 165). 이와 함께 백제는 추가령구조곡을 통해 원산만 일대의 세력과 교섭하기도 했을 텐데, 남옥저의 구파해(仇頗解) 등이 온조왕 43년에 부양=평강에 이르러 백제에 투항한 사건은 이러한 양상을 잘 전해준다. 이처럼 백제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임진강 중상류로 진출하는 한편, 원산만 일대의 세력과 교섭했다.

이에 백제는 연천지역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 군사시설을 구축해 임진강 상류 방면에서 침공하는 말갈=동예를 방어하는 한편,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강 일대에서 백제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교통로는 크게 한탄강과 그 지류 연안을 따라 철원-포천을 경유하는 동남쪽 루트,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철원-연천을 경유하는 중간 루트, 임진강 지류인 평안천과 본류를 따라 안협-연천을 경유하는 서북쪽 루트 등이 있다. 백제가 말갈=동예의 침공을 방어하고 임진강 중하류 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세 루트를 잘 방어해야 했다.

〈표 4〉에서 보듯이 백제는 말갈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성곽과 목책 등을 조영했는데, 대체로 말갈의 침공 루트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조왕 8년에 백제가 마수성을 축조하고 병산책을 세우자, 낙랑태수가 사신을 보내 “우리 강역 가까이에 성책을 축조한 것은 영토를 잠식하려는 계책이 아닌가?”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왕이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고금의 상도(常道)이다”라며 맞대응했다고 한다.¹³⁾ 이러한 기사 내용만 놓고 본다면 마수성과 병산책은 낙랑의 침공을 대비해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온조왕 11년에 낙랑이 말갈로 하여금 병산책을 습격하도록 하였고, 다루왕 7년에는 말갈이 마수성과 병산책을 침공했고, 무령왕 3년에도 말갈이 마수책(馬首柵)을 불태웠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로 보아 마수성과 병산책은 백제에서 낙랑으로 나아가는 경로이면서 말갈=동예가 백제를 침공하는 루트에 자리했다고 파악된다. 이에 다수 연구자가 마수성을 음이 비슷한 통일신라 한주(漢州) 견성군(堅城君)의 옛 고구려 지명인 마홀군(馬忽郡) 곧 지금의 포천시 군내면 일대로 비정하고, 병산책도 그 부근에 있었다고 이해한다(酒井改藏 1970: 46, 김기섭 1994: 7,

13)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8년 7월조

정구복 외 1997c). 실제 포천시 지역은 말갈=동예가 평강에서 철원을 거쳐 한탄강과 그 지류 연안을 따라 침공할 수 있는 루트에 해당하며, 백제에서 연천을 경유해 낙랑군이 자리한 서북한 일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다.

다음으로 온조왕 22년에 석두성과 고목성을 축조했는데, 이 가운데 고목성은 통일신라 한주 철성군(鐵城君) 공성현(功城縣)의 옛 고구려 지명인 공목달현(功木達縣)과 음이 비슷하여 대체로 연천군 연천읍 일대로 비정한다(이병도 1977: 356, 천관우 1989: 311). 공목달현은 ‘웅섬산(熊閃山)’이라고도 일컬어졌는데(『삼국사기』 지리지4의 고구려조), 공목달의 ‘공목(功木)’은 곰 곧 ‘웅(熊)’, ‘달(達)’은 산(山)을 뜻한다(도수희 2005, 498-499쪽 및 507쪽). 공목달현=고목성은 큰 산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인데, 산간지대인 연천읍 일대의 지세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짐작된다.

고목성과 함께 축조한 석두성은 한주 토산군(兔山君) 삭읍현(朔邑縣)의 옛 고구려 지명인 소읍두현(所邑豆縣)과 음이 비슷하여 대체로 삭령(朔寧) 일대로 비정된다(이병도 1977: 356, 양기석 2008, 33-34). 그런데 소읍두현과 음이 비슷한 성곽으로 초고왕 45년에 축조했다는 사도성이 있다. 종래 석두성과 사도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읍두현과 같은 지명으로 보기도 했다(정구복 외 1997c: 626, 정구복 외 1997d: 605-606, 양기석 2008: 33·58). 그렇지만 두 성은 명칭이 다를 뿐 아니라, 축조 시기도 다르다. 이에 두 성을 구분하여 석두성의 위치를 고목성(연천읍)에 가까운 삭령현의 남쪽 경계로 연천군 증면 일대로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박승미 2022: 20-21).

이처럼 석두성이 삭령현의 남쪽 경계에 자리했다면, 음이 유사한 사도성은 삭령현 북쪽 지역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초고왕 45년에는 사도성과 함께 적현성(赤峴城)을 축조했다. 구수왕 4년에는 사도성 곁에 목책 2개를 설치한 다음, 적현성의 병사를 나누어 지키게 했다고 한다. 적현성도 사도성과 가까운 삭령현 북쪽 지역에 자리했음을 반영한다. 더욱이 구수왕 3년에는 왕이 적현성을 침공했다가 물러가는 말갈을 추격해 사도성 아래에서 대파했다고 한다. 사도성이 말갈의 근거지와 적현성의 사이에 자리했고, 적현성은 사도성보다 말갈의 근거지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한 것이다.

당시 백제와 말갈=동예는 평강 일대에서 접경했다. 평강에서 임진강 지류인 평안천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오면 과거 삭령현 북쪽 지역인 북한의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안협에 도착한다. 안협에서 방향을 바꾸어 임진강 본류를 따라 남하하면 연천군 관내의 임진강 중하류로 진입하고, 계속 서진하면 예성강 유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안협 일대는 평강에서 임진강 중하류나 예성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요충지이다. 이에 적현성을 안협으로 비정한 다음, 사도성을 안협과 평강 사이의 고암산 남쪽 일대(북한의 철원군 대전리-반석리)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박승미 2022: 15-18).¹⁴⁾

이처럼 마수성과 병산책이 평강에서 철원을 거쳐 한탄강과 그 지류(영평천-포천천)를 따라 포천 방면으로 침공하는 말갈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했다면, 고목성과 석두성은 평강에서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임진강 중하류로 진공하는 말갈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했다. 또 적현성과 사도성은 평강에서 평안천을 따라 임진강 중하류나 예성강 방면으로 진공하는 말갈을 막기 위해 조영했다. 백제가 평강에서 연천이나 그 부근 지역을 경유해 백제 중심부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마다 성곽과 목책을 축조하여 말갈의 침공을 방어하는 한편, 낙랑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다.

마수성과 병산책이 가장 남쪽인 포천시 일대, 석두성과 고목성은 현재의 연천군 관내, 적현성과 사도성은 연천군 관내보다 북쪽인 이천군 안협 일대에 각기 위치한 것이다. 이로 보아 백제가 가장 남쪽인 포천시 일대의 마수성과 병산책을 먼저 축조한 다음, 연천군 관내의 석두성과 고목성, 가장 북쪽의 적현성과 사도성 등의 순서로 조영했다고 짐작되는데, 실제 백제본기에는 이러한 순서로 축조한 것으로 나온다.¹⁵⁾

백제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다음, 연천군 관내에는 고목성과 석두성, 연천군 동남쪽의 포천시 일대에는 마수성과 병산책, 연천군 북쪽의 이천군 안협 일대에는 적현성과 사도성을 축조해 말갈=동예의 침공을 방어한 것이다. 실제 다루왕 4년에 고목성의 곤우(昆優)가 말갈과 싸워 크게 이겼다고 하며, 초고왕 45년과 구수왕 3년에 말갈이 적현성을 침공한 사례가 확인된다. 더욱이 온조왕 18년에 칠중하(七重河) 유역에서 말갈을 격퇴했다고 하는데, 칠중하는 칠중성(七重城: 파주 적성) 부근 즉 연천군 미산면-장남면 구간의 임진강이 일곱 차례 곡류(曲流)하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¹⁶⁾ 백제가 임진강 유역의 전략적 요충지마다 성곽을 축조하여 말갈=동예와 낙랑의 공격을 막기 위한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3) 백제의 지방지배와 연천지역 재지세력의 동향

백제가 임진강 유역에 축조한 성곽은 군사시설이었을 뿐 아니라, 연천군을 비롯해 임진강 유역을 통할하기 위한 지배거점의 기능도 수행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루왕 4년에 고목성

14) 사도성을 포천 부근(기김섭 1994: 9), 남한강 방면(서영일 2004: 230) 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15)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마수성과 병산책은 온조왕 8년, 석두성과 고목성은 온조왕 22년, 적현성과 사도성은 초고왕 45년에 축조했다고 나온다. 이들 기사의 연도가 각 성곽을 축조한 실제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 성곽을 축조한 선후 관계를 전한다고 생각된다.

16) 칠중성(七重城)은 본래 고구려의 지명으로 난은별(難隱別)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삼국사기』 권37 지리4), ‘난은(難隱)은 ‘7’을 뜻하는 순우리말 ‘나나’에 해당한다.

의 곤우가 말갈을 격파한 기사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곤우는 고목성을 기반으로 한 유력한 세력가로 파악되지만(양기석 2008: 45, 노중국 2018: 87), 현전하는 사료만으로는 토착 세력인지 백제의 지방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다루왕 4년 기사를 통해 곤우가 고목성에 상주했고, 일정 규모의 병력을 거느리고 말갈과 전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곤우는 고목성에 상주하며 말갈의 침공을 방어하는 한편, 백제 중앙과의 연계 아래 연천읍을 중심으로 연천군 일대를 다스렸다고 파악된다.

더욱이 초고왕 45년에는 적현성과 사도성을 축조한 다음 동부(東部)의 민호(民戶)를 이주시켰다고 한다. 이는 백제 중심부의 백성을 이주시켜 변경인 임진강 유역 일대를 개발하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지방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부의 민호를 이주시킨 적현성이나 사도성도 군사방어뿐 아니라 지방지배의 거점 기능도 수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다음, 포천시 지역의 마수성과 병산책, 연천군 관내의 고목성과 석두성, 이천군 안협 일대의 적현성과 사도성 등을 축조해 이 지역에 대한 지방지배를 도모했다고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연천군과 인접한 포천 자작리 유적은 중요한 시사를 준다. 포천 자작리 유적은 한탄강 지류인 포천천 유역에 위치하는데, 2000년과 2013년 두 차례 발굴했다. 2000년에는 주거지와 굴립주 건물지 등 13기, 2013년에는 주거지 24기를 포함해 총 134기의 유구를 조사했다. 주거지는 ‘ㅁ’자나 ‘ㅂ’자형 출입구가 달린 평면 육각형으로 백제 한성시기 상위 계층의 주거 유형이다. 다만 고배나 삼족기와 같은 전형적인 백제 중앙양식 토기가 확인되지 않고, 광구단경호편이나 직구호가 소량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작리 유적지는 대체로 3-4세기 지방 토착세력의 취락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2000년에 발굴한 자작리 1호 주거지에서는 4세기 초중반의 동진제 청자편, 2호 주거지에서는 통형기대와 다량의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당시로서는 최고급 위세품인 동진제 청자는 백제 중앙을 통해 확보했으며, 기와도 백제 중앙으로부터 사여받은 고급 위세품으로 파악된다. 자작리 1호와 2호 주거지에는 백제 중앙과 연결된 수장층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기도박물관 2004, 송만영 2013: 271-272). 포천 자작리 유적을 통해 백제가 3-4세기에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다음, 재지 수장층을 통해 지방지배를 강화하던 양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가 연천지역에서도 재지 수장층을 포섭하며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 연천읍 일대에 자리한 고목성과 그 부근의 석두성이 거점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더욱이 다음 절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4세기 중후반에 백제는 멸약산맥 일대에서 고구려와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했다. 백제가 4세기 중후반에는 임진강을 넘어 예성강

유역과 연백평야 일대까지 장악하고 멸악산맥을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한 것이다. 백제가 고구려와의 각축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병력과 병참을 원활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멸악산맥 일대의 교통로 현황이 주목된다. 한반도 중부와 서북한을 잇는 멸악산맥의 고개길은 크게 신계-수안로, 신계-서흥로, 평산-서흥로, 해주-재령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산간 내륙의 신계-수안로는 재령강 유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동강 유역과 연결되며, 이천-평강을 거쳐 영서지역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평산-서흥로는 해발이 170m에 불과한 지소고개를 통과하는데, 중부지역과 서북한을 잇는 최단 코스로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해주-재령로는 평탄하지만, 연백평야를 우회하기 때문에 육로보다 해로와 연계하여 많이 이용했다(서영일 2006: 43-45, 정요근 2008: 256).

이들 각 교통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가령 예성강 중류의 신계에서는 서북쪽으로 멸악산맥을 넘어 수안이나 서흥, 동남쪽으로 마식령산맥을 넘어 임진강 중상류의 이천-평강이나 토산-삭령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성강 하류를 따라 평산-개성을 지나 임진강 하류로도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신계에서 이천-평강을 거쳐 영서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성강 유역의 신계 일대는 여러 교통로가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다(서영일 2000: 492-499, 장창은 2014: 64-73).

그런데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육로를 이용해 멸악산맥 일대의 여러 교통로로 나아가려면, 호로고루 주변의 여울을 비롯해 연천군 관내의 임진강 도하로를 이용하여야 했다. 백제가 멸악산맥 일대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고구려와의 각축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후방 보급지에 해당하는 연천지역에 대한 지방지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백제가 4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의 각축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연천지역에 대한 지방지배를 더욱 강화했고,¹⁷⁾ 이 과정에서 연천지역의 재지세력은 백제 중앙의 후원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더욱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구려의 연천지역 영유와 지방지배

1) 고구려의 남진 개시와 백제와의 공방전

백제가 임진강 유역을 거쳐 예성강 유역까지 장악하던 4세기 초중반경, 고구려도 서북한 지

17) 연천군 미산면의 당포성, 청산면의 초성리산성이나 대전리산성 등을 백제가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했다고 보기도 하는데(이우형 1995: 542-551, 이도학 2000: 254), 후술하듯이 당포성은 고구려, 초성리산성과 대전리산성은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역으로 진출했다. 서진이 8왕의 난과 영가(永嘉)의 난 등으로 붕괴하자, 고구려가 313년과 314년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차례로 점령한 것이다. 이로써 고구려는 고조선 멸망 이후 400여 년간 지속된 중국군현을 축출했을 뿐 아니라, 서북한 평야지대의 경제력과 선진문물을 확보하여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한반도 중남부와 직접 교통하는 길도 열었다. 고조선 멸망 이후 중국 군현에 가로막혀 분리되었던 만주와 한반도의 정치체들이 하나의 역사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고구려는 더는 남진하지 않고 기수를 동북아의 중심지인 요동으로 돌렸다. 중국 대륙의 분열을 틈타 동북아의 중심 세력으로 웅비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고구려와 백제는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요동지역에는 이미 선비 모용부 곧 전연(前燕)¹⁸⁾이 영향력을 확대한 상태였다. 고구려는 여러 차례 요동을 공략했지만 결국 전연에게 패권을 내주었다. 고구려는 333-336년 무렵에 선비 모용부의 내분을 틈타 원부여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342년에는 전연의 침공을 받아 도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전연이 352년에 북중국의 동반부로 진출해 황제국을 선포함에 따라 고구려는 더는 전연과 대결을 벌이기 힘들었다. 그런데 전연도 고구려라는 위협 요소를 안은 채 남중국의 동진(東晉)이나 북중국 서반부의 전진(前秦)과 각축전을 전개하기는 힘들었다.

이에 양국은 355년에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고구려와 전연이 황제국이라는 전연의 국가적 위상과 고구려의 세력권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고구려는 전연을 이어 북중국을 장악한 전진과도 이러한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고구려는 요동 진출을 잠시 미루어야 했지만, 서방 국경지대를 안정시켜 한반도 중남부 등 다른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할 외교적 기반을 마련했다(여호규 2000). 고구려는 서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며 한반도 중남부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고구려의 남진이 본격화된 것이다.

고구려가 369년 9월 마침내 백제 방면으로 진공했다. 다만 369년 고구려 고국원왕은 군사 2만을 거느리고 백제 치양(雉壤, 牟乞壤)까지 진격했다가 패배했는데, 이때 백제군이 고구려군을 수곡성(水谷城) 서북까지 추격했다.¹⁹⁾ 371년에도 고구려가 패하(溍河)까지 진격했다가 백제군의 급습을 받아 패배했고, 이해 겨울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진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375년에는 고구려가 백제 수곡성을 함락시켰고, 377년 10월에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자, 다음 달에는 고구려가 반격을 시도했다.

18) 선비 모용부가 국호를 '연(燕)'이라고 일컫는 것은 337년부터이고, 이때부터 후연이나 북연과 구분하기 위해 '전연'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337년 이전에도 전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9) 370-380년대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 현황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의 기사에 의거해 서술했는데,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각 기사의 전거는 생략한다.

고구려가 369년부터 남진을 시도했지만, 백제의 반격에 밀려 실패하고 371년에는 고국원왕이 전사당하는 국가적 위기에 몰린 것이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공방전을 벌인 지명²⁰⁾ 가운데 치양은 연백평야의 황해도 배천(白川), 수곡성은 예성강 중류의 신계(新溪) 다울(多粟)로 각기 비정된다. 또한 패하(溟河)는 예성강을 지칭하지만, 구체적인 전투지점은 예성강 중류의 평산군 저탄(豬灘)으로 비정된다(문안식 2006: 63-65, 서영일 2006: 47-48). 평양성은 평양시 동북의 대성산성 일대로 비정되는데, 황해도 황주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는 백제군의 평양성 진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최종택 1990).

이처럼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까지 진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고구려가 멸악산맥을 넘어 예성강 유역의 치양이나 수곡성 등을 공격하면 백제가 반격하는 형태로 공방전이 진행되었다. 370-380년대에 고구려와 백제는 재령강-예성강의 분수령인 멸악산맥 일대를 경계로 공방전을 벌인 것이다. 백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진강을 넘어 예성강 유역과 황해도 남부의 연백평야까지 장악한 다음, 멸악산맥 일대에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한 것이다. 이에 백제는 멸악산맥 일대에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연천지역 등 임진강 유역 일대를 후방 보급기지로 삼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370-380년대 백제의 관방시설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백제는 373년 청목령(靑木嶺)에 성곽을 축조했고, 386년에는 “청목령으로부터[自靑木嶺] 북쪽으로 팔곤성에 이르고[北距八坤城],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는[西至於海]” 관방시설을 설치했다. 청목령이 당시 백제의 관방시설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청목령은 패수(溟水) 곧 예성강보다 동남쪽에 위치했는데, 마식령산맥 서남단인 개성-금천 경계의 청석동 일대로 비정된다.²¹⁾

그런데 386년에 조영한 관방시설의 경유지를 대체로 청목령을 중간 기준점으로 설정한 다음, 팔곤성을 청목령 동북방의 마식령산맥 일대, 서해를 청목령 서남방의 예성강 하구나 남쪽 해안지대로 비정한다. 백제가 예성강-임진강 분수령인 마식령산맥을 따라 관방시설을 구축했고, 예성강 일대를 방어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윤일녕 1990: 131-141, 문안식: 2006, 170-171, 서영일 2006: 51-52). 그렇지만, 백제가 390년대 초까지도 예성강 일대를 영유했음을 고려하면 상정하기 힘든 견해라고 생각된다.

386년 기사에 등장하는 청목령은 관방시설의 동쪽 기점, 팔곤성은 중간 경유지, 바다는 서쪽 종점으로 보아야 한다. 386년의 관방시설은 예성강 동남쪽의 청목령을 동쪽 기점으로 삼아 북쪽의 팔곤성을 경유해 서쪽 바다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가 멸악산맥을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한 상황을 고려하면, 팔곤성은 멸악산맥 일대, 종점인 서쪽 바다는 멸악산맥의

20) 지명 비정에 대한 제반 견해는 정구복 외 1997c·1997d; 양기석 2008 참조

21) 안정복 『東史綱目』 권1 馬韓 百濟始祖 10년조

서남단과 바다가 만나는 해주만 일대로 추정된다. 386년에 백제가 마식령산맥 서남단의 청목령에서 출발하여 마식령산맥과 멸악산맥을 따라 포물선을 그리며 예성강 중하류와 연백평야 일대를 감싸는 형태로 관방시설을 축조한 것이다.

370년대에 백제가 구축한 관방시설 가운데 북쪽의 팔곤성이나 서쪽의 바다 일대가 멸악산맥을 넘어 예성강 유역으로 진격하는 고구려군을 저지하기 위한 1차 방어선이라면, 청목령 일대는 마식령산맥을 넘어 임진강 유역으로 진격하는 고구려군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방어선이라 할 수 있다. 백제가 멸악산맥을 1차 방어선, 마식령산맥을 2차 방어선으로 삼아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한 것이다. 이에 백제는 마식령산맥 남쪽의 임진강 유역을 후방 보급기지로 삼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지방지배를 더욱 강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370-380년대에 고구려와 백제는 동쪽 지역에서는 동예를 매개로 임진강 상류의 평강 일대에서 대치했다.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백제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 임진강 중하류 일대까지 진출한 다음, 임진강 상류의 평강 일대에서 말갈=동예와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산만 일대를 비롯해 북쪽의 동예는 후한 말 이래 고구려에 예속된 상태였다. 이로 보아 백제가 임진강 상류의 평강에서 대치한 말갈=동예는 주로 고구려에 예속된 북쪽 지역의 동예라고 추정된다.

광개토왕이 즉위하던 391년에 말갈이 백제의 적현성을 공격했다. 전술하였듯이 적현성은 연천 북쪽의 안협 일대로 비정되는데, 평강에서 예성강과 임진강 유역으로 모두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아래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광개토왕 즉위 직후 고구려가 멸악산맥을 넘어 예성강-임진강 방면으로 대대적으로 진공한 사실을 고려하면, 391년 말갈의 적현성 공격은 단독작전이 아니라 고구려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연합작전이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와 백제는 370-380년대에 멸악산맥 일대에서 공방전을 벌이는 한편, 동쪽의 임진강 상류 방면에서 동예를 매개로 대치한 것이다.

2) 광개토왕의 백제 공격과 연천지역 점령

4세기 말경에 접어들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내부정세는 명암을 달리했다. 고구려는 왕위계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고국양왕 말년에는 국사(國社)를 세우고 종묘를 수건(修建)하는 등 제의 체계를 재정비하며 태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밖으로는 신라를 압박해 불모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하 외교관계를 맺었다(392년). 고구려 중심의 세력권을 구축할 외교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비해 백제는 침류왕 사망 이후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385년 침류왕의 아들 아신(阿莘)은 숙부인 진사(辰斯)에게 왕위를 빼앗겼고, 진사왕도 392년에 피살되고 아신왕이 즉위했

다. 내분으로 국력이 약화되자, 백제는 397년에 태자 전지(腆支)를 왜에 볼모로 보내고 왜로부터 군사력을 조달받았다. 이로써 백제-가야-왜를 연결하는 연합세력이 탄생했지만, 내분에 휩싸인 백제의 구심력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동북아 국제정세도 고구려에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당시 북중국의 동반부를 장악했던 후연(後燕)이 395-396년에 새롭게 흥기하던 북위(北魏)를 무리하게 정벌하다가 파멸을 자초한 것이다. 후연은 북위에게 쫓겨 요서까지 도망쳐 왔으나(397년), 내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배질서가 점차 와해되었다. 고구려를 강하게 압박하던 북중국 왕조가 잠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라이벌 백제는 내분으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강력한 북중국 왕조마저 사라졌으니 고구려로서는 세력 확장을 도모할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391년에 즉위한 광개토왕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활용해 정복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먼저 395년에 거란을 공격해 서북 국경지대를 안정시키고 후연을 견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리고는 남으로 기수를 돌려 백제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신라의 요청을 받아 400년에 멀리 낙동강 하구의 가야지역까지 진격했다. 아울러 400년에 후연의 요동지역 지방관이 반란을 일으킨 틈을 타서 요동평원 일대를 석권하고, 요하를 넘어 요서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이때 광개토왕은 백제도 대대적으로 정벌하여 연천지역 등 임진강 유역을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했다. 다만 광개토왕의 백제 정벌 과정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데, 기본 사료인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이하 ‘능비’로 줄임)조차 많은 차이가 있다. <표 5>와 <표 6>에서 보듯이 『삼국사기』에는 고구려가 392년 이래 백제를 여러 차례 공략했다고 나오지만, 능비에는 영락6년(396년)에 처음 공격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양국의 교전 지역 가운데 백제의 적현성은 연천 북쪽 안협 일대, 석현성(石峴城)은 임진강 하류의 파주시 파평면 일대로 비정된다(여호규 2012, 181-182). 392년 10월 고구려가 점령한 관미성(關彌城)은 “4면이 절벽이며 해수(海水)로 둘러싸인” 전략적 요충지인데, 종래 예성강 하구, 강화도[교동도 포함], 임진강-한강 하구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고구려가 392년 석현성을 점령한 다음 관미성을 함락시키자, 백제가 석현성 수복을 위해 393년 관미성을 포위했다고 한다. 관미성은 백제 방면에서 석현성으로 진격하는 길목에 위치했다고 보아야 한다(김윤우 1995: 241-242).

〈표 5〉 『삼국사기』의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 기사²²⁾

연도	기사 내용
391	4월 : 말갈(靺鞨)이 백제의 북쪽 변경인 적현성(赤峴城) 함락시킴. 8월 : 백제 진사왕이 횡악(橫岳) 서쪽에서 수렵함.
392	7월 : 고구려가 백제의 석현(石峴) 등 10여 성을 함락시킴. 한수(漢水) 북쪽 여러 부락 함락. 10월 : 고구려가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을 공취함.
393	8월 : 백제가 석현 등 5성을 수복하기 위해 먼저 관미성을 포위했지만 실패함.
395	7월 : 고구려와 백제가 수곡성(水谷城)에서 전투, 백제가 패배함. 8월 : 고구려가 국남(國南)에 7성을 축조하여 백제의 침공에 대비함.
395	8월 : 고구려와 백제가 패수(溟水)에서 전투, 백제가 패배함. 11월 : 백제가 패수 전투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청목령(靑木嶺)까지 진격했다가 퇴각함.
398	3월 : 백제가 쌍현성(雙峴城)을 축조함. 8월 : 백제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 한산(漢山) 북책(北柵)에서 출정하려다 큰 별이 떨어져 중단.
402	여름 : 백제에 크게 가뭄이 들어 왕이 횡악(橫岳)에서 친히 제사를 지냄.
409	7월 : 고구려가 국동(國東)에 독산(禿山) 등 6성을 축조해 평양의 민호를 옮김. 8월 : 고구려 광개토왕이 남쪽으로 순행함.

〈표 6〉 〈광개토왕릉비〉의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 기사²³⁾

연도	기사 내용
영락6 (396)	㉠ 병신년에 왕이 몸소 대군을 이끌고 잔국(殘國: 백제)을 토벌했다. 군대가 먼저 “1영팔성(寧八城) …… 6각미성(閣彌城) …… 8미사성(彌沙城) …… 10아단성(阿旦城) …… 16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 …… 24미추성(彌鄒城) …… 44고모루성(古牟婁城) …… 50구천성(仇天城), 51□□□□(숫자는 필자 보완)” 등을 공취했다. ㉡ 그 국성(國城)을 □하니 백제[殘]가 의(義)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출전하여 싸웠다.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阿利水)를 건너 정예병[刺]을 파견하여 도성을 압박하여 □□歸穴□ 곧 성을 포위했다. 이에 백제왕[殘主]이 곤핍(困逼)해지자 남녀 노비 천여명과 세포(細布) 천필을 바치며 왕에게 무릎을 꿇고 스스로 맹서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했다. (중략). 이에 58성 700 촌을 획득하고, 백제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거느리고 군대를 돌려 환도했다.
영락14 (404)	갑진년에 왜가 법도를 어기고 대방계(帶方界)를 침공했다. …… 왕이 몸소 □□를 이끌고 평양을 거쳐 …… 서로 만났다. 왕의 군대가 길을 끊고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니 왜구가 패배하여 붕괴했는데 무수히 참살했다.
영락17 (407)	정미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하시어 …… 만나 싸워 모두 다 참살했다. 획득한 갑옷이 1만여 벌이고, 각종 군수물자와 병장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귀환하면서 사구성(沙溝城), 누성(婁城) …… 등을 격파했다.

22) 이 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6과 백제본기3의 동일 기사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고구려본기의 광개토왕대 기사는 흔히 능비에 의거해 391년을 즉위년으로 보아 1년씩 소급하지만, 본고에서는 백제본기 기사와 합치시키기 위해 『삼국사기』처럼 392년을 즉위년으로 설정하여 연대를 표기했다.

23) 판독문은 노태돈, 1992 「광개토왕릉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을 수정 보완한 것임.

석현성이 임진강 유역인 파평면 일대로 비정되므로 관미성은 한강 하류의 백제 중심지에 서 파주 일대로 진입하는 길목인 임진강 하구 일대에 위치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387년 백제가 관미령(關彌嶺)에서 말갈과 전투를 벌였다. 관미성은 육지와 완전히 단절된 섬이 아니라 관미령에서 바다를 향해 돌출한 지점에 자리한 것이다(이도학 2006: 361). 이러한 지형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임진강-한강 합류 지점의 모두산성이다(김윤우 1995: 236-239, 윤일녕 1990: 152-154).

한편 398년 백제는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 쌍현성(雙峴城)을 축조했는데, 이와 유사한 기사가 개로왕대와 무령왕대에도 나온다.²⁴⁾ 특히 개로왕 15년 기사에 따르면 쌍현성을 수리하고, 청목령에 대책(大柵)을 설치했다고 하므로 백제 방면에서 쌍현성 → 청목령의 순서로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목령을 예성강-임진강의 분수령인 마식령산맥 남단의 청석동으로 비정한다면, 쌍현성은 마식령산맥과 임진강 사이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문안식 2006: 194-195).

이상과 같이 백제 적현성은 임진강 중류인 연천 북쪽의 안협 일대, 석현성은 임진강 하류의 파주, 관미성은 임진강 하구의 모두산성, 쌍현성은 임진강과 마식령산맥 사이 등으로 비정된다. 그런데 각 지명을 이렇게 비정하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발생한다. 392-393년에는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거쳐 한강 하구까지 진격했고 백제의 반격도 실패했는데, 394-395년에는 양국이 임진강보다 북쪽인 예성강 일대에서 교전을 벌였고, 398년에는 백제가 임진강 북쪽의 쌍현성에 방어시설을 구축한 것이다. 각 지명의 상대 위치로 보아 기사 상호 간에 착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양국이 370-380년대 멸악산맥 일대에서 대치한 사실을 고려하면, 광개토왕대 고구려의 남진은 대체로 다음 두 단계로 전개되었다고 파악된다. 첫 번째, 고구려가 멸악산맥을 넘어 예성강 유역을 점령한 단계인데, 394-395년 수곡성과 패하 전투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백제가 395년 11월 기사처럼 임진강-예성강 분수령의 청목령까지 진군하여 반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1차 방어선을 임진강-마식령산맥 사이의 쌍현성으로 후퇴시켰다. 그러자 고구려도 394년 8월 기사처럼 멸악산맥-마식령산맥 사이에 방어체계를 구축했다(최창빈 1990: 51-53). 이때 고구려는 말갈-동예를 동원해 임진강 상류에서 중하류 방면으로 진격했는데, 391년 말갈이 백제 적현성을 함락한 사건은 이를 보여준다.

두 번째는 고구려가 임진강 중하류 일대를 점령하고 임진강·한강 하구까지 진격한 단계이다. 392년 7월과 10월 기사처럼 고구려가 파주 등 임진강 하류 일대의 석현성 등 10여 성을 함락하고, 임진강·한강 하구의 관미성을 공취한 것이다. 이때도 고구려는 예를 동원했을 가능

24) 『삼국사기』 백제본기3 개로왕 15년 10월조 및 백제본기4 무령왕 23년 2월조

성이 있는데, 387년 말갈이 관미령에서 백제와 전투를 벌였다는 기사는 이를 시사한다. 이에 백제가 임진강 유역을 수복하기 위해 관미성을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이로 보아 고구려가 392년 7월에 함락시켰다는 석현성 등 10여 성에는 연천지역의 성곽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짐작된다. 『삼국사기』만 놓고 본다면, 고구려가 예성강을 넘어 연천지역을 점령한 시기는 392년 7월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두 단계에 걸쳐 예성강-임진강 유역을 점령하고, 임진강·한강 하구의 관미성까지 장악했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고구려가 한강 본류로 진격한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402년 백제 아신왕이 횡악(橫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는 도봉산-북한산 일대가 여전히 백제 영역이었음을 보여준다. 『삼국사기』만 놓고 본다면, 고구려는 임진강 하구까지만 진격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표 6>에서 보듯이 <광개토왕릉비>에는 고구려가 396년(영락 6년)에 백제 도성까지 진공해 58성 700촌을 공취했다고 나오며, 백제 도성 맞은편인 아차산 일대로 비정되는 아단성(阿旦城)도 나온다. 종래 영락6년조의 정복범위에 대해서는 임진강-한강 이북설, 예성강-임진강-경기 서해안설, 경기 동북부-충북 동북부설, 남한강 상류나 충남 내륙까지 진격했다는 견해 등 논란이 분분했는데(여호규 2012: 188-189 참조), 영락6년조의 문장구조가 중요한 시사를 준다.

영락6년조는 고구려가 공취한 성곽을 열거한 ㉠와 백제왕의 항복을 받는 ㉡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에 따르면 고구려가 아리수(阿利水)=한강을 건너 백제 도성을 공격했다고 한다. 고구려가 예성강-임진강 유역까지만 장악했다고 서술한 『삼국사기』와 달리, 능비에는 백제 도성이 자리한 한강 본류까지 진격했다고 명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 열거된 성곽은 고구려 군대가 백제 도성으로 향하던 진격로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

㉠ 가운데 6번 각미성(閣彌城)은 관미성으로 한강-임진강 하구의 오두산성, 10번 아단성(阿旦城)은 백제 도성 맞은편의 아차산, 24번 미추성(彌鄒城)은 미추홀(彌鄒忽)로 인천 문학산성 등으로 비정된다. 또 8번 미사성(彌沙城)은 통일신라의 사천현(沙川縣)인 동두천, 16번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은 고구려 공목달현(功木達縣)인 연천읍 등으로 비정된다(여호규 2012: 191-193 참조).²⁵⁾ 이처럼 ㉠의 성곽 가운데 상당수가 임진강 중하류, 한강 하류, 서해안 연안으로 비정되는데, 특히 고모야라성은 임진강 유역의 연천읍, 미사성은 한탄강 지류인 신천 유역의 동두천 등으로 비정된다.

능비를 통해서도 고구려가 광개토왕 시기에 연천군 등 임진강 유역을 점령한 사실을 확인할

25) 한편 이병도 1976: 382에서는 영락6년조의 58성 구모성(句牟城)을 연천 지역, 이도학 2000: 256에서는 구모로성(白模盧城)과 각모로성(各模盧城) 등을 연천 지역으로 각각 비정했다.

수 있다. 다만 영락6년조의 58성이 예성강-임진강 유역과 서해안 연안에 모두 위치했다고 보기에는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 58성의 각 성은 일정 영역을 포괄한 지역단위로 그 범위는 통일신라의 군현과 비슷했다고 추정된다(노태돈 1999, 임기환 2002: 3-6).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 한주조에 나오는 상기 지역의 군현은 45개 전후로 능비의 58성보다 적다. 이는 58성이 한주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분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고구려가 661년에 예[말갈]와 함께 술천성(述川城)을 공격하다가 여의치 않자 신라 북한산성을 공격한 사실이 주목된다.²⁶⁾ 술천성은 여주 흥천, 북한산성은 한강 하류의 아차산성으로 각기 비정된다. 다음 절에서 상술하듯이 7세기 중반 고구려가 임진강 일대에서 신라와 접경한 사실을 고려하면, 임진강 상류에서 북한강 수계를 경유해 남한강 본류의 술천성까지 진격한 다음, 한강 하류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광개토왕도 임진강 중하류를 거쳐 백제 도성으로 진격하는 한편, 임진강 상류에서 북한강 수계를 경유해 백제 도성을 공략했다고 추정된다.

영락6년조 ㉔의 후반부에는 북한강 수계를 경유해 백제 도성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성곽을 기재했다고 볼 수 있다. 370-380년대에 고구려가 임진강 상류의 평강 일대에서 백제와 대치했으므로 북한강 수계에서도 평강과 위도가 비슷한 양구-회양 경계지역에서 대치했을 것이다.²⁷⁾ 양구-회양 경계 남쪽의 북한강 수계에 위치한 삭주의 군현은 모두 14개이다. 이를 앞서 추산했던 한주 소속의 45개 군현과 합하면 총 59개로 영락6년에 공취했다는 58성에 근접한다. 그러므로 ㉔부분의 후반부에는 양구-회양 이남의 북한강 수계의 지명을 기술했다고 짐작되는데, 44번 고모루성은 대체로 북한강 수계로 비정된다(서영일 2000: 505-507).

백제는 『삼국사기』의 393년 기사에 보듯이 석현성 등 임진강 유역을 수복하기 위해 반격을 시도했다. 능비에도 백제가 영락14년에 왜병을 끌어들여 황해도 해안지대[대방계]를 공격하는 한편, 영락17년에는 사구성(沙溝城) 등 도성 동북방 지역에서 반격을 시도했다고 나온다. 고구려는 이러한 백제의 반격을 격퇴했지만, 한강 하류-서해안 연안에서 퇴각해야 했다. 특히 400년 이후 후연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기 때문에 백제 방면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한강 하류-서해안 일대는 다시 백제 영역으로 편입되고, 양국의 국경은 한강-임진강 분수령 지대에서 형성되었다.

결국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를 정벌해 예성강과 임진강 유역까지 영역으로 확보하고, 한강-임진강 분수령 지대에서 백제와 접경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영서지역에서는 평강-화천-춘

26) 『삼국사기』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조

27) 『삼국사기』 백제본기1 온조왕 13년 7월조에서 보듯이 춘천[走壤]까지는 본래 백제 영역이었고, 화천지역에서 3-4세기의 백제 주거지가 발굴된 데서 보듯이(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춘천 위쪽의 북한강 상류 방면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했다.

천-홍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북한강 유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연천지역 등 임진강 중하류 일대는 백제 영역에서 고구려 영역으로 바뀌었는데, 고구려가 백제의 석현성 등 10성을 함락했다는 392년(광개토왕 1년, 진사왕 8년) 7월에 연천지역도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3) 고구려의 지방지배와 연천지역의 행정구역

광개토왕을 이은 장수왕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하여 남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이 무렵 북위가 동방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므로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잠시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위가 439년 북중국 대륙을 통일한 이후에도 팽창적인 대외정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5세기 중반까지도 남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다.

450년대부터 신라가 백제와 연합해 고구려의 예속으로부터 이탈하려 하였고, 백제는 472년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해 고구려 정벌을 요청했다. 이에 고구려는 북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서북방 국경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475년에 3만 대군을 동원해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중부지역을 석권했다. 이로써 고구려는 신라와는 소백산맥, 백제와는 차령산맥 일대에서 접경하게 되었다. 연천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이 고구려의 전방에서 후방 지역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475년 이후에도 백제가 한강-임진강 유역을 영유하고, 예성강 일대에서 고구려와 각축전을 벌였다는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 이른바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한강영유 기사’인데, 부정설과 긍정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백제사 연구자를 중심으로 475-550년에 장기간이든 일시적이든 백제가 한강-임진강 유역을 영유했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연천지역도 475년 이후 다시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²⁸⁾

실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무령왕 3년(503년)에 말갈이 마수책(馬首柵)을 불태운 다음, 연천읍으로 비정되는 고목성(高木城)으로 진격하자, 왕이 격퇴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무령왕 6년에도 말갈이 고목성을 격파하고 6백여 명을 살해하거나 노획했다고 한다. 이에 백제가 무령왕 7년에 고목성 남쪽에 목책 2개를 설치하고 장령성을 쌓아 말갈에 대비했다고 한다. 백제가 무령왕 시기에 연천지역을 영유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그렇지만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한강영유 기사’는 실제 사실로 보기 힘들다. 이른바 한강영유 기사를 제외하면, 고구려와 백제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차령산맥 북방의 아산만 및

28) 각 연구자의 견해 정리는 여호규 2013: 130-133 참조.

금강 지류인 미호천 유역에서 계속 각축전을 벌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여호규 2013: 136-144). 더욱이 한강-금강 유역에서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고구려 성곽과 고분이 대거 조사된 반면(최종택 2008, 안신원 2010), 한강-임진강 유역에서는 이 시기의 백제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한강영유 기사'는 모종의 이유로 백제 초기의 말갈 관련 기사를 중복하여 게재했거나(임기환 2008: 6-20, 강종훈 2006: 26) 조작하거나 부회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도학 2009, 김영심 2003: 116-118).

그러므로 고구려가 475년 이후에도 한강유역을 비롯한 중부지역을 계속 영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다음 절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고구려는 551년 나제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한강유역을 상실하였다. 다만 이때 신라가 553년에 백제가 차지한 한강하류 유역까지 점령해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했지만, 더 북상하지 못하고 한강-임진강 분수령 일대에서 고구려와 국경을 접했다. 이러한 상황은 7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고구려가 광개토왕 시기 이래 7세기 초까지 200여 년 이상 연천지역 등 임진강 유역을 영유한 것이다.

한편 고구려가 중부지역을 계속 영유했지만, 영역지배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특히 여러 고고학자가 지방행정의 치소(治所)로 볼만한 중대형 산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영역지배를 구현하지 못하고 거점지배나 간접지배를 시행했다고 본다(심광주 2002: 483-490, 서영일 2007: 98-104, 안신원 2010: 90, 신광철 2011: 173-177, 이정범 2015: 94-96).²⁹⁾ 문헌사 연구자 중에도 주요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거점지배를 시행했다고 보거나(임기환 2007: 53-63) 군사적 거점지배를 시행하다가 점차 영역지배로 전환했다고 파악하는(김현숙 2008: 44-47) 견해도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 한주 소속의 '본고구려 군현명³⁰⁾' 가운데 내(內), 노(奴), 흘(忽) 등 고구려 계통의 어미가 다수 확인된다.³¹⁾ 특히 다음 절에서 상술하듯이 임진강이나 한강 유역에서는 마홀(馬忽: 포천 반월산성), 잉벌내(仍伐內: 서울 호암산성), 주부토(主夫吐: 인천 계양산성) 등 고구려계 지명 어미가 새겨진 통일신라 시기의 기와가 출토되었다(박성현 2008: 106-108). 한주 치소가 있었던 하남 선동[광주 선리]에서도 마홀(馬忽), 금만노(今万奴: 진천), 매소홀(買召忽: 인천 남구), 매성(買省: 양주 주내) 등 고구려계 지명 어미가 새겨진 통일신라의 기와가 다수 출토되었다(서울대학교 박물관 2002).

이처럼 고구려계 지명 어미가 통일신라 시기의 기와에 새겨진 것은 이러한 지명이 이 지역에

29) 신광철 2011: 173-177에서는 한강유역 이남은 영역지배를 시행하지 못했지만, 임진강 유역에 대해서는 영역지배를 구현했다고 보았다.

30)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계통 지명 현황은 임기환 2007: 54-57, 장창은 2014: 31 참조.

31) 내(內)나 노(奴)는 강[川]이나 땅[壤], 흘(忽)은 고을이나 성(城)을 뜻하는데, 백제의 부리(夫里)나 신라의 화·벌(火·伐)에 상응하는 표현이다(도수희 2003: 293-324).

〈표 7〉 연천군과 주변 지역의 고구려 시기 행정구역명 현황(『삼국사기』 지리지)

본고구려 군명(郡名)	본고구려 명칭	고구려 시기 이칭	경덕왕 시기 개정 명칭	고려시기 명칭	현재 위치 ³²⁾
철원군 (鐵圓郡)	철원군 (鐵圓郡)	모을동비 (毛乙冬非)	철성군 (鐵城郡)	동주 (東州)	철원군 철원읍
	양골현 (梁骨縣)		견성군 (堅城郡) 동음현 (洞陰縣)		포천군
	승랑현 (僧梁縣)	비물 (非勿)	동랑현 (幢梁縣)	승령현 (僧嶺縣)	연천군 신서면 (구 인목면)
	공목달현 (功木達縣)	웅섬산 (熊閃山)	공성현 (功成縣)	장주 (獐州)	연천군 연천읍
부여군 (夫如郡)	부여군 (夫如郡)		부평군 (富平郡)	김화현 (金化縣)	철원군 김화읍
	어사내현 (於斯內縣)	부양 (斧壤)	광평현 (廣平縣)	평강현 (平康縣)	평강군 평강면 (북한: 토산군 월산리)
	오사함달 (烏斯含達)		토산군 (兔山郡)	토산군 (兔山郡)	금천군 토산면
	아진압현 (阿珍押縣)	궁악 (窮嶽)	안협현 (安峽縣)	안협현 (安峽縣)	이천군 안협면 (북한: 철원군 철원읍)
	소읍두현 (所邑豆縣)		삭읍현 (朔邑縣)	삭녕현 (朔寧縣)	연천군 중면(구 삭령면) (북한: 철원군 삭녕리)
	이진매현 (伊珍買縣)		이천현 (伊川縣)	이천현 (伊川縣)	이천군 이천면 (북한: 이천군 이천읍)
우잠군 (牛岑郡)	우잠군 (牛岑郡)	우령(牛嶺), 수지의(首知衣)	우봉군 (牛峯郡)	우봉군 (牛峯郡)	금천군 금천읍
	장항현 (獐項縣)	고사야홀차 (古斯也忽次)	임강현 (臨江縣)	임강현 (臨江縣)	장단군 강상면 (북한: 장풍군 임강리)
	장천성현 (長淺城縣)	야야(耶耶), 야아(夜牙)	장단현 (長湍縣)	장단현 (長湍縣)	연천군 장남면
	마전천현 (麻田淺縣)	니사파홀 (泥沙波忽)	임단현 (臨端縣)	마전현 (麻田縣)	연천군 미산면

강하게 부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제계 지명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거의 전하지 않고 있는데, 고구려가 중부지역을 점령한 다음 종전의 백제 행정구역을 재편해 지방통치를 시행한 결과로 보인다. 고구려가 이러한 지방통치를 장기간 시행한 결과, 고구려계 지명이 백제계 지명을 대체하여 통일신라 시기까지 사용된 것이다.

32) 위치 비정은 이병도 1977, 정구복 외 1997d, 임기환 2007, 장창은 2014, 이정빈 2019 등 참조. 단 장천성현의 현재 위치는 정요근 2005: 203-204에 의거하여 연천군 장남면 일대로 비정함.

특히 551년에 나제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상황에 대해 『삼국사기』나 『일본서기』에서 신라가 “죽령(竹嶺)-고현(高峴) 사이의 10군(郡)”³³⁾ 백제는 “한성(漢城)과 평양(平壤) 지역의 6군(郡)”³⁴⁾을 각각 점령했다고 서술했다. 10군이나 6군은 나제연합군이 한강유역을 점령할 당시 고구려가 16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지배했음을 보여준다(노태돈 2005: 185-188, 여호규 2020: 235-244).³⁵⁾ <충주고구려비>에 나오는 고모루성수사(古牟婁城守事)는 이러한 행정구역을 다스리던 지방관의 실제 사례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200여 년 이상 장기간 영유한 연천지역에도 행정구역을 설치해 지방지배를 시행했다고 짐작된다. <표 7>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연천군과 그 주변 지역의 고구려 시기 행정구역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본고구려 행정구역명과 이칭(異稱)을 모두 고구려 시기의 지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연천군 미산면으로 비정되는 마전천현(麻田淺縣)의 이칭인 니사파홀(泥沙波忽), 장단군 북쪽으로 비정되는 장항현(獐項縣)의 이칭인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 등의 ‘홀(忽)’은 성(城)이나 고을을 뜻하는 고구려계 지명 어미이다. 또 연천군 관내는 아니지만 평강으로 비정되는 어사내현(於斯內縣)의 ‘내(內)’, 이천(伊川)으로 비정되는 이진매현(伊珍買縣)의 ‘매(買)’ 등도 각기 땅[壤]과 물[水]을 뜻하는 고구려계 지명 어미이다.

이로 보아 상기 도표에 나오는 본고구려 행정구역명과 이칭(異稱) 가운데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절반 이상은 고구려가 지방지배를 하던 시기의 행정구역명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 7>과 <표 11>을 비교하면 고구려와 통일신라 사이에 군(郡)의 수와 군·현(郡·縣)의 영속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고구려 시기에는 군의 수가 3개였는데, 통일신라 시기에는 고구려 부여군(夫如郡)에 소속된 오사함달현(烏斯含達縣), 아진압현(阿珍押縣), 소읍두현(所邑豆縣), 이진매현(伊珍買縣) 등이 토산군(兔山郡)으로 분리되어 4개로 늘어났다. 또 고구려 시기에 철원군에 속했던 양골현(梁骨縣)이 통일신라 시기에는 지금의 포천으로 비정되는 견성군(堅城郡)의 속현으로 바뀌었다(이정빈 2019: 45).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각 군현의 영속 관계는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시기의 양상을 반영한다(윤경진 2012: 166-168). 이러한 점에서 군현의 영속 관계뿐 아니라 행정단위도 고구려 시기의 것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군·현은 대략 1:2의 비율을 보이

33)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조 및 열전4 거칠부전

34) 『일본서기』 흠명기12년 시세조

35) 다만 고구려의 행정구역 명칭이 ‘군(郡)’이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당시 신라와 백제가 주군제(州郡制)나 방군제(方郡制)를 시행했으므로 고구려의 행정구역 명칭을 ‘군(郡)’으로 바꾸어 표기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상술하듯이 고구려측 기사에는 ‘+郡’이 ‘+城’으로 나오므로 ‘성(城)’이 고구려의 행정구역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고학계에서도 고구려가 영역지배를 시행했다고 보는 연구성과가 제기되었다(최종택 2008: 152-154, 양시은 2010a: 56-58).

는데, 이는 『구당서』나 『신당서』에 나오는 군급과 현급 고구려 성곽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이로 보아 『삼국사기』 지리지의 행정구역명에 기재된 군과 현은 고구려 시기 각 성곽의 위상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임기환 2008: 368, 이정빈 2019: 49).

〈표 7〉에서 보듯이 현재의 연천군 관내로 비정되는 행정구역명은 승량현(僧梁縣), 공목달현(功木達縣), 소읍두현(所邑豆縣), 장천성현(長淺城縣),³⁶⁾ 마전천현(麻田淺縣) 등 모두 5개이다. 모두 현급 행정구역명으로 군급에 해당하는 상위 행정구역명은 없다. 승량현과 공목달현은 철원읍에 치소를 둔 철원군, 소읍두현은 김화읍에 치소를 둔 부여군(夫如郡), 장천성현과 마전천현은 금천읍에 치소를 둔 우잠군(牛岑郡) 등에 소속한 것이다.

철원군은 치소(철원군 철원읍)와 3개의 영현을 거느리고 있는데, 치소와 영현의 위치는 대체로 한탄강과 그 지류 유역에 해당한다. 부여군은 치소(철원군 김화읍)와 5개 영현을 거느리고 있는데, 연천군 북쪽에서 이천(伊川)에 이르는 임진강 본류와 평안천 유역 등 넓은 지역에 해당한다. 우잠군은 치소(금천군 금천읍)와 3개의 영현을 거느리고 있는데, 임진강 하류 북안(北岸)에서 예성강 하류 동안(東岸)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한다. 고구려가 자연 지형을 최대한 고려해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계를 따라 행정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현재의 연천군 지역은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주변의 상위 행정구역에 분산하여 소속되는 양상을 띠었다. 즉 연천군 지역이 크게 동부의 한탄강 유역, 서북부의 임진강 중류 유역, 서남부의 임진강 하류 유역 등으로 나뉘어 각기 철원군, 부여군, 우잠군에 소속된 것이다. 연천군에 상위 지방행정의 중심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양상은 통일신라를 이어 고려와 조선 시기까지 이어진다.

4) 연천지역의 고구려 성곽과 지방지배 양상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임진강과 한탄강 연안에서는 고구려 보루성과 성곽이 다수 분포한다. 이러한 고구려 보루성과 성곽은 연천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방어체제와 지방지배 양상을 잘 보여준다. 〈표 8〉에서 보듯이 연천군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4기의 고구려 보루성과 성곽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아미성(전곡읍 늘목리)과 대전리산성(청산면 대전리)을 제외하면 모두 임진강과 한탄강 북쪽에 분포하며, 강 연안의 독립 구릉이나 산봉우리 정상 또는 하안단구의 대지에 위치한다.

이 가운데 독립 구릉이나 산봉우리 정상에 자리한 보루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둘레 100m 이하로 소형 군사시설로 추정된다. 고구려가 임진강과 한탄강 북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강

36) 정요근 2005: 203-204에서는 장천성현 곧 고려-조선 초기 장단현(長湍縣)의 치소를 연천군 장남면 호로고루 일대로 비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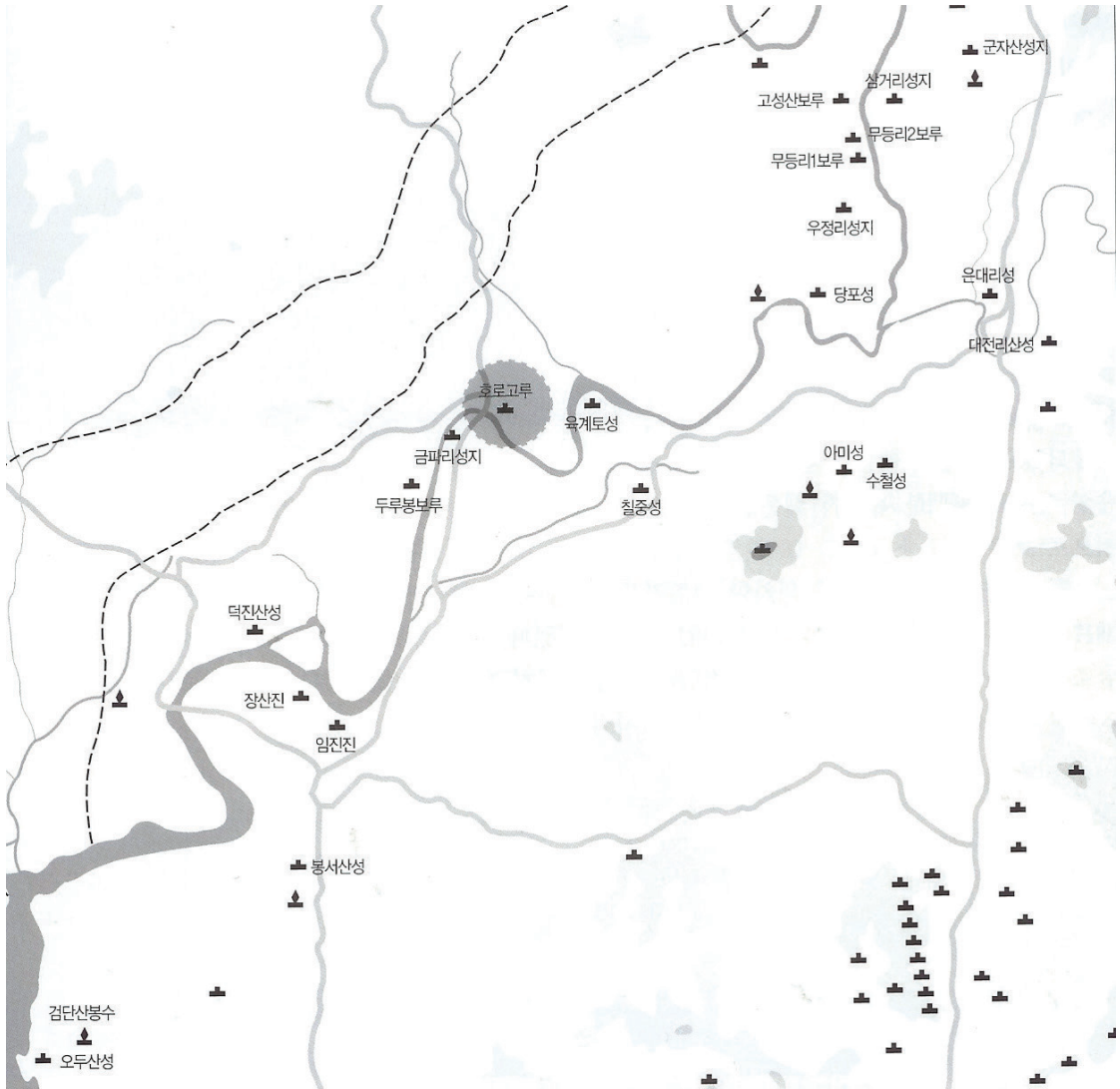
〈표 8〉 연천지역의 고구려 보루와 성곽 현황³⁷⁾

명칭	위치와 입지	형태와 규모	축조방식	주요 유구	주요 출토유물
두루봉 보루	장남면 반정리 임진강 서안의 두루봉 정상	장타원형 직경 10-15m 둘레 50m	석축(할석)		고구려 토기와 기와
호로 고루	장남면 고랑포리 (호로하 여울목 고랑포나루, 두지나루) 임진강 북안의 하안단구 대지	삼각형 평지성 둘레 401m	동벽: 목책(5세기) 석축(6세기)	수혈, 우물, 집수시설/지하식 벽체건물지, 기와 건물지	탄화곡물, 동물뼈, 토기, 각종 기와와 토기, 연화문 와당, 오수전, 토제북, 철축, 소칼, 철부, 철정 cf. 통일신라, 고려 유물
아미리 보루	백학면 구미리 임진강 북안의 봉우리 정상	원형, 직경 6m	석축(자연석)		
당포성	미산면 동이리 (당개 나루) 임진강 북안의 하안단구 대지	삼각형 평지성 둘레 약 450m	동벽: 토석혼축, 외향, 성벽 기동홈, 남벽: 석축	석렬유구 6기, 수혈유구 28기, 기타 5기 cf.고려 건물지	고구려 기와, 철모, 철촉, 문고리, 차축 두, 가위, 각종 철제편. cf. 경질무문토기편, 통일신라-조선 시기 기와편,
우정리 보루	미산면 우정리 임진강 서안의 매봉산 정상	장타원형	토석혼축	외환도(外環道)	고구려계 토기편
무등리 1보루	왕징면 무등리 (무등리 나루) 임진강 서안의 장대봉 남쪽	?	석축(할석)		고구려 기와편
무등리 2보루	왕징면 무등리 임진강 서안의 장대봉 북쪽	남북 방향의 긴 반달형	토석혼축 (할석·점토)		고구려 토기, 기와, 철촉, 탄화곡물(쌀과 조) 찰감 세트, 철제 슬래그
고성산 보루	왕징면 무등리 임진강 서안의 고성산 정상	원형, 둘레 30m	석축(할석)	내부 함몰부 동남쪽 통로	고구려 토기편 수습
광동리 보루	미산면 우정리 산봉우리 정상	테피식 보루 장타원형	토석혼축		고구려계 토기편 수습
강서리 보루	왕징면 강서리 해발 230m 인 산봉우리 정상	반구형, 둘레 70여m	정상부 삭토 축조		
은대리 성	전곡읍 은대리 (한탄강·차탄천의 합류지점) 한탄강 북안의 하안단구 대지	삼각형 복곽성 외성 1,005m 내성 230m	동벽: 토석혼축	문지 3기, 대형건물지1기, 치성 3기	고구려 토기(5세기 중엽) cf. 백제 토기, 청자편
전곡리 토성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 만곡처 하안단구 대지	방형 평지성 둘레 1.8km	토석혼축 (석심토축)		고구려 토기 cf. 고려시기 유물
대전리 산성	청산면 대전리 성재산 서남쪽 정상부	테피식 산성 둘레 약 970m	석축 (현무암제)	문지, 장대지, 건물지 2기	cf. 6세기 중반 이후 신라 토기, 통일신라 기와
아미성	전곡읍 늘목리 임진강 남쪽 산봉우리 정상	테피식 산성 둘레 302m	석축 (화강암제)		고구려 기와편 cf. 통일신라 토기편

37) 이 도표는 각종 보고서와 『향토사료집』; 『연천군지』(상);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 『문화유적분포-연천군-』; 문화재청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연안을 따라 보루를 촘촘히 축조한 것이다. 무등리 2보루의 경우 다른 출토 유물의 수량이 많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폐기한 결과이다. 다만 돌화 옆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찰갑세트는 이 보루가 군사시설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탄화곡물과 철제 슬래그도 다량 조사되었는데, 주변의 군부대에 군량이나 철제무기를 공급하던 군수기지 역할을 했다고 짐작된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168-169, 양시은 2016: 90-92).

이에 비해 호로고루(장남면 고랑포리), 당포성(미산면 동이리), 은대리성(전곡읍 은대) 등은 모두 평지에 위치하며 규모도 큰 편이다. 세 성곽 모두 임진강·한탄강과 지류가 만나며 형성한



〈지도 3〉 임진강 유역 고구려 보루·성곽 분포 현황(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7: 45)

하안단구의 삼각형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과 서북쪽은 현무암 용암대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으로 별도의 성벽을 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주로 동쪽에만 높은 성벽을 축조했다. 모두 삼각형 강안 평지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외형이 유사한데, 전체 둘레가 호로그루 401m, 당포성 450m, 은대리성 외성 1,005m 등으로 연천지역의 다른 보루성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다.

이들 성곽에서는 모두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호로그루와 당포성에서는 고구려 기와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호로그루에서는 집수시설, 집수시설을 개조한 지하식 벽체건물, 적심 초석을 갖춘 기와건물지, 유물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고, 탄화곡물(쌀, 조, 콩, 팥)과 동물뼈(소, 말, 개, 멧돼지, 사슴, 노루)를 비롯해 토기, 기와, 철기, 오수전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6엽 연화문와당과 치미, 착고 등 다양한 기와는 호로그루에 위계가 높은 관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시사한다.

실제 호로그루에서는 문서행정을 수행하며 사용했을 삼죽 벼루가 출토되었고, '상고(相鼓)명 토제북, "□小瓦七百十大瓦□百八十用大四百卅合千..."명 기와, '관일(官一)명³⁸⁾ 기와, '관(官)명 토기편 등 다수의 명문 자료가 확인되었다(심광주 2009). 이로 보아 임진강·한탄강 연안의 평지성인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지방지배의 거점 기능도 수행했다고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성곽의 위치가 주목된다. 호로그루의 경우, 인근 고랑포까지 서해의 밀물이 올라와 큰 배도 항행할 수 있었고, 하류와 상류 방면 부근에 고랑포 나루와 두지나루가 자리했다. 특히 호로그루 앞의 여울목은 임진강 하류 방면에서 배를 타지 않고 도하(渡河)할 수 있는 최초의 지점으로 남북 종단로가 통과했다. 조선시대에도 호로그루 일대는 장단을 통해 개성이나 평양으로 나아가는 주요 길목으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개성을 통과한 북한군 주력 전차부대가 이곳에서 임진강을 건너 의정부 방면으로 남하했다(이우형 1995: 552-55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48-50).

당포성은 임진강 하류에서 증상류로 올라가는 수운 교통의 요지인 당개나루(당포나루)에 자리하고 있다. 육상 교통상으로도 양주분지 일대에서 최단 거리로 임진강을 건너 북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고려나 조선 시기에 당포성의 배후인 연천군 미산면 일대에 마전현(麻田縣)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다스리는 한편, 개성이나 삭령 등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를 관할했다(이우형 1995: 550-55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179).

은대리성은 한탄강과 차탄천의 합류지점에 자리했다. 이곳은 추가령구조곡이 지나가는 지

38) 이 명문은 "작은 기와 710개, 큰 기와 80개 중에 큰 기와 430개를 사용하고, 남은 것이 모두 천..."로 해석할 수 있다.

접인데, 차탄천을 따라 조금만 거슬러 가면 고구려 시기의 공목달현(功木達縣)으로 비정되는 연천읍이 나온다. 연천읍내에서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차탄천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남쪽으로는 동두천·양주를 지나 서울 동부의 중랑천 일대에 이른다(이우형 1995: 540-54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175).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은 모두 임진강 수운이나 육상 교통의 요지에 자리한 것이다. 이들 성곽은 고구려가 연천지역에 대한 지방지배를 시행하며 수운과 육상 교통로를 관할하기 위해 조영한 것이다. 고구려가 광개토왕 시기에 연천지역을 영역화한 만큼, 5세기에는 이들 성곽을 축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은대리성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5세기 중엽 전후로 편년되며, 6세기대 토기는 발견되지 않는다(양시은 2016: 89). 은대리성이 5세기에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6세기 이후 폐기되었다고 짐작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로고루 동벽의 축조양상은 중요한 시사를 준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로고루 동벽은 처음에는 목책으로 축조되었다가 6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석축 성벽으로 개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구려는 551년에 나제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한강유역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임진강 유역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변모했고, 군사 방어시설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호로고루 동벽을 목책에서 석축성벽으로 개축한 것은 이러한 군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7: 298-303).

이로 보아 연천지역의 고구려 보루와 성곽은 6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후방 지역에 대한 지방지배의 거점으로 활용되다가, 6세기 중반 이후 군사방어성의 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임진강이나 한탄강 연안이나 그 주변의 산봉우리 정상에 자리한 소형 보루는 6세기 중반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군사방어를 강화하면서 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변의 평지에 자리한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은 5세기에 조영되어 지방지배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호로고루가 고구려 시기의 장천성현(長淺城縣: 耶耶, 夜牙)으로 비정되는 연천군 장남면, 당포성이 마전천현(麻田淺縣: 泥沙波忽)으로 비정되는 미산면, 은대리성이 공목달현(功木達縣: 熊閃山)이 자리한 차탄천 하구 등에 자리한 사실이 주목된다. 각 성곽과 행정구역이 일대일로 상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구려가 이들 성곽을 거점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방지배를 시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다.

실제 호로고루는 고려 시기나 조선 초기에 한양과 평양을 잇는 장단도로(長湍渡路)의 요충지인 장단도를 관할하며, 장단현(長湍縣)의 치소로 기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려 시기에 장단현은 개경의 동익(東翼)으로서 북쪽의 토산현과 임강현, 동쪽의 마전현, 남쪽의 파평현과 적성현, 서쪽의 임진현과 송림현 등 경기 7현을 관할하던 지방행정의 거점이었다(정요근

2005: 203-216).

『삼국사기』 지리지에 전하는 고구려 시기 행정구역명과 연천지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양상이 상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광개토왕 시기에 연천지역을 영유한 이후 임진강과 한탄강 연안의 요충지에 지방행정의 거점을 축조해 이 지역을 다스리는 한편, 임진강 수로와 육상 교통로를 관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구려가 6세기 중반 나제연합군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함에 따라 연천지역은 점차 전운이 감도는 전방으로 변모했다.

3. 신라의 복상과 고구려와의 대치

1) 신라의 복상과 한강 유역 진출

551년에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이 고구려가 영유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 이때 신라는 한강 중상류, 백제는 본래 도성이 있던 한강 하류 일대를 분할 점령했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서는 신라가 “죽령(竹嶺)-고현(高峴) 사이의 10군(郡)”,³⁹⁾ 백제는 “한성(漢城)과 평양(平壤) 지역의 6군(郡)”을⁴⁰⁾ 점령했다고 서술했다. 죽령은 현재의 죽령, 고현은 철령으로 비정된다(이병도 1976: 671). 신라가 죽령-철령 사이의 ‘10군’을 점령했다는 것인데, 실제 통일 신라의 삭주(朔州) 가운데 죽령-철령 사이의 군(郡, 주치, 소경 포함)은 모두 10개이다(서영일 1999: 177-178).

한편 신라는 552년에 고구려와 밀약을 맺고 백제와의 동맹을 꾀했다. 그런 다음 553년에 전격적으로 한강 하류 일대를 점령하였다(노태돈 1999: 429-435). 신라가 한강 유역 전체를 영유하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신라가 한강을 넘어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호영 1984: 19-21, 전덕재 2009a: 110, 장창은 2014: 172-177). 이에 따르면 연천지역은 6세기 중반에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거나 적어도 신라와 고구려가 대치하는 국경으로 변모했다고 보아야 한다.

신라가 553년에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했다고 보는 근거는 551년 백제의 점령지인 6군을 임진강 나아가 예성강-재령강 유역까지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⁴¹⁾ 그렇지만 『일본서기』의 “한성(漢城)과 평양(平壤) 지역의 6군(郡)”이라는 기사에 나오는 한성은 본래 백제 도성이었던 몽촌

39)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조 및 열전4 거칠부전.

40) 『일본서기』 흠평기12년 시세조

41) 이 견해는 ‘평양’의 위치 비정에 따라 다시 세분되는데, ‘평양’을 한강 하류로 비정하는 경우 ‘6군’을 임진강-예성강 일대로 설정하는 반면(노중국 2006: 33-35, 문안식 2010: 141-142), 재령의 ‘남평양’으로 비정하는 경우 예성강-재령강 일대로 상정한다(양기석 2008: 193-194). 6군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여러 견해는 윤성호 2017: 108, 김진영 2021: 313의 도표 참조.

토성 일대, 평양은 한강 북안에 설치한 고구려의 남평양을 지칭한다. 이 기사의 6군은 백제가 아산만 일대를 출발해 한강 하류까지 진격하며 점령한 지역으로 북한산 이남 지역에 해당한다(서영일 1999: 231-235, 임기환 2002: 18-19).⁴²⁾

신라가 한강 하류 일대를 점령한 다음 북한산에 정계비(定界碑)의 성격이 강한 ‘진흥왕순수비’를 건립한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박성현 2011: 83-85). 더욱이 최근 고고조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에 따르면 연천지역은 물론이고 그보다 남쪽인 양주분지나 포천분지 등에서도 6세기 중반경의 신라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포천 반월산성과 성동리유적을 비롯해 임진강 유역과 그 지류 일대에서 신라 유적이 나타나는 것은 대략 7세기 전반 후기 부터인데, 이는 문헌사료에 나타난 신라와 고구려의 각축전 양상과도 부합한다(김진영 2021: 314-318 및 345-347).

〈표 9〉는 7세기 초·중반 신라와 고구려의 전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는 552년에 밀약을 맺은 이래 50여 년간 휴전상태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양국의 국경선은 6세기 중반 이래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유지되었다. 고구려가 551년에 한강유역을 상실했지만, 연천지역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을 6세기 중후반에도 계속 영유한 것이다.

그런데 603년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며 양국의 휴전상태가 깨졌다. 고구려가 수에 맞서기 위해 종전의 세력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진 정책을 재추진한 것이다(여호규 2002). 고구려가 공격한 신라의 북한산성은 ‘북한산성(北漢山城)’명 기와가 출토된 한강 북안의 아차산성 일대로 비정된다(최종택 2014: 32, 윤성호 2019: 308). 이는 고구려가 임진강-한강 분수령 지대에서 출발해 중랑천이나 왕숙천을 따라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황보경 2015). 603년 곧 7세기 초까지도 연천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가 영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고구려와의 대치

신라는 7세기 전반 후엽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했다. 629년 8월의 낭비성(娘臂城) 전투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표 9〉에서 보듯이 629년 당시 낭비성은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종래 낭비성은 청주 일대로 많이 비정했지만(이원근 1976),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이 한강-임진강 분수령 일대를 따라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성립하기 힘들다. 또 칠중성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김윤우 1987), 불과 9년 뒤인 638년에 칠중성 전투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 견해도 성립하기 힘들다.

낭비성은 통일신라 한주 견성군(堅城郡)의 옛 고구려 지명인 비성군(臂城郡)에 해당하는데,

42) 상세한 논증은 여호규 2020: 239-244, 2021: 42-45 참조.

〈표 9〉 7세기 초·중반 신라와 고구려의 전투 현황⁴³⁾

연도	기사 내용
603	고구려가 장군 고승(高勝)을 보내 신라의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공격함. 신라 진평왕이 병사 1만을 이끌고 오자, 고구려의 고승이 두려워서 퇴각함.
608	2월에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변경을 습격해 8,000명을 사로잡음. 4월에 고구려가 신라 우명산성(牛鳴山城)을 쳐서 빼앗음.
629	8월에 신라가 대장군 김용춘(金龍春)과 김서현(金舒玄), 부장군 김유신(金庾信) 등을 보내 고구려 낭비성(娘臂城)을 공격하여 5천여 명을 참살하고 점령함.
638	7월에 칠중성(七重城) 남쪽에서 큰 돌이 저절로 35보 정도 이동함.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공격하자, 백성들이 놀라 산골짜기로 숨으니 왕이 대장군 알천(闕川)을 보내 백성들을 안정케 함. 11월에 신라의 장군 알천(闕川)이 칠중성 밖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침.
655	1월에 고구려가 백제,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33성을 점령함. 이에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함.
660	10월에 고구려가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했다가 퇴각함. ⁴⁴⁾
661	5월 9일(또는 11일)에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과 말갈 장군 생해(生儻)가 신라의 술천성(述川城)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북한산성을 공격함. 고구려가 20여 일 간 북한산성을 공격했으나 성주 동타천(冬陔川)이 백성과 함께 강하게 항전하였고, 고구려 진영에 큰 별이 떨어지고 천둥·벼락이 쳐서 두려워 퇴각함.
662	1월에 신라가 김유신과 김인문 등 아홉 장군에 명해 수레 2천여 대에 쌀 4천 석과 버 2만 2천 석을 싣고 당군이 주둔한 평양으로 감. 18일에 풍수촌(風樹村)을 지나고, 23일에 칠중하(七重河)를 건너 산양(蒜壤)에 이르렀는데 이현(梨峴)에서 고구려 병을 만나 격살했음. 2월 1일에 장새(筭塞)에 이르렀는데, 평양과의 거리가 3만 6천보임. 6일에 양오(楊陂)에 이르러 당군에게 군량미를 제공함. 소정방은 군량을 받자 곧바로 퇴각함. 김유신 등이 회군하다가 과천(鰲川)을 건널 때 고구려군이 추격해 오자, 김유신이 군사를 돌이켜 싸워 고구려군 1만여 급을 베고 소형(小兄) 아달해(阿達哈)를 사로잡고 무수한 병장기를 획득함.
664	7월에 신라가 장군 인문(仁問)과 품일(品日) 등에게 명하여 일선주(一善州)와 한산주(漢山州)의 군대와 웅진부성(熊津府城)의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 돌사성(突沙城)을 공격해 함락함.
667	9월에 (문무왕이) 한성정(漢城停)에 이르러 당의 이적(李勣)을 기다림. 10월 2일에 당의 이적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함. 이적이 이동혜촌(糸同兮村)의 촌주인 대나마 강심(江深)으로 하여금 아진함성(阿珍含城)을 거쳐 한성에 이르러 문무왕에게 출병을 독촉하는 편지를 전하자, 문무왕이 이에 따랐음. 11월 11일에 (왕이) 장새(筭塞)에 이르렀다가 이적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돌아옴. ⁴⁵⁾
668	6월 27일에 문무왕이 도성을 출발해 당군 진영으로 나아감. 7월 16일에 왕이 한성주에 도착하여 총관들에게 당군과 회합하라고 명함. 9월 21일에 당군이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보장왕 등 20여만 명을 데리고 귀국함. 문무왕이 고구려 평정 소식을 듣고 한성(漢城)을 출발해 평양을 향해 힐차양(勝次壤)에 이르렀다가 당군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성으로 돌아옴.

43)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 의거함.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전거를 생략함.

44) 이 기사는 『삼국사기』 권47 열전7 필부전(匹夫傳)에 나옴.

4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26일조의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에는 667년 신라군의 움직임을 “당이 고구려를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문무왕이 한성주에 가서 군사를 국경 부근으로 소집하였고, 간자(間者)를 보내 대군의 동정을 살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음을 파악한 다음,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어 당군의 도착을 기다리고자 하였는데, 성을 막 격파하려 할 무렵 이적이 보낸 강심(江深)이 와서 ‘성을 공격하지 말고 빨리 평양으로 와서 군량을 공급하라’고 말해, 군대의 행렬이 수곡성(水谷城)에 이르렀다가 당군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곧 빠져나왔다.”라고 기술했음.

마홀군(馬忽郡)으로도 불렸다.⁴⁶⁾ 그런데 포천군 반월산성(半月山城)의 장대지에서 ‘마홀’(馬忽)명 기와가 출토된 바 있다. 낭비성은 포천 반월산성 일대로 비정할 수 있는 것이다(서영일 1996, 1999: 243-249). 그러므로 629년 8월 낭비성 전투 개전 직전까지도 한탄강 지류인 포천천 일대는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가, 이 전투를 계기로 신라의 영역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629년 낭비성 전투를 계기로 신라가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넘어 본격적으로 임진강 유역으로 진격하기 시작한 것이다(김강훈 2020).

이러한 점은 638년 7월 칠중성 전투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638년 당시 칠중성은 신라의 북쪽 변경에 자리한 신라의 성곽이었는데, 고구려가 공격했다가 신라 장군 알천에게 격파당했다고 한다. 전술했듯이 칠중성은 현재의 연천군 미산면-장남면 구간의 임진강을 지칭하는 칠중하(七重河)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파주 적성면 중성산으로 비정된다. 신라가 638년에는 연천지역 맞은편의 임진강 남쪽 지역까지 진격한 것이다. 임진강 일대가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지대로 변모한 것이다.

그렇지만 신라는 고구려 멸망 직전까지도 임진강 북쪽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이는 662년 초에 신라의 김유신이 고구려 침공에 나선 당군(唐軍)에게 군량을 보급하던 과정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김유신은 풍수촌(風樹村) → 칠중하(七重河) → 산양(蒜壤)과 이현(梨峴) → 장새(獐塞) → 양오(楊隩) 등을 경유해 평양성 부근에 주둔한 당군에게 군량을 제공했다. 김유신의 경유지 가운데 칠중하는 임진강, 장새는 수안으로 비정된다. 신라가 고구려군의 요격을 피해 가장 험준한 신계-수안로를 선택한 것인데, 『삼국사기』 김유신전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661년) 12월 10일에 부장군 인문, 진복, 양도 등 아홉 장군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군량을 싣고 고구려의 경계(高句麗之界)로 들어갔다. 임술년(662년) 정월 23일에 칠중하(七重河)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오르려 하지 않았다. 이에 김유신이 “너희들이 만약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어찌 같이 여기에 왔는가?”라고 말하며, 마침내 먼저 스스로 배에 올라 건넜다. 이에 여러 장수와 병졸들이 서로 쫓아 강을 건너 고구려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고구려인이 큰길에서 요격할까 염려하여 험하고 좁은 길로 가서 산양(蒜壤)에 이르렀다.

신라의 병사들이 고구려 국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 칠중하 도하 직전에 배에 오르려 하지 않자, 김유신이 먼저 배에 올라 칠중하를 건넜다고 한다. 이에 다른 장수와 병졸도 김유신을 따라 강을 건넜는데, 이를 “고구려 경역으로 들어갔다[入高句麗之境]”라고 묘사했다. 특

46)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한주조 및 권37 지리4 한산주조

히 신라군이 회군할 때 과천(瓢川)을 건넜는데, 고구려군이 이곳까지 추격했다. 과천(瓢川)은 표하(瓢河)⁴⁷⁾나 호로하(瓢瀟河)⁴⁸⁾로도 나오는데, 호로고루 일대를 흐르는 임진강을 지칭한다. 662년에도 신라와 고구려가 연천군 미산면-장남면 구간을 흐르는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한 것이다(장창은 2016: 73, 이정빈 2019: 60-61).

한편 667년 10월에 당의 이적(李勣)은 고구려 평양성 부근에 도착한 다음, 이동혜촌의 촌주인 대나마 강심(江深)을 보내 한성에 주둔하던 문무왕에게 출병을 독촉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때 강심은 아진함성(阿珍舍城)을 거쳐 한성에 이르렀다. 이에 문무왕은 장새(獐塞)까지 이르렀다가 당군의 퇴각 소식을 듣고 회군했다. 강심이 경유한 아진함성은 고구려의 아진압현(阿珍押縣)으로 통일신라의 토산군 안협현(安峽縣)에 해당하는데, 연천군 북쪽의 이천군(伊川郡) 안협면으로 임진강 중류 연안에 위치한다(〈표 8〉 참조). 문무왕이 도착한 장새는 662년 김유신군이 경유한 곳으로 수안으로 비정된다. 강심과 문무왕은 모두 연천지역을 통과해 신라와 고구려 영역을 왕래한 것이다.

그런데 671년에 문무왕이 당의 설인귀에게 보낸 답서에는 667년 신라군의 움직임과 관련해 “당군이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음을 파악한 다음,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어 당군의 도착을 기다리고자 하였는데, 칠중성을 막 격파하려 할 무렵 이적이 보낸 강심(江深)이 와서 ‘성을 공격하지 말고 빨리 평양으로 와서 군량을 공급하라’고 말해 수곡성(水谷城)까지 이르렀다가 당군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퇴각했다”고 서술했다. 이에 따른다면 고구려 멸망 직전인 667년 10월 무렵에는 고구려가 임진강 남쪽의 칠중성을 영유했다고 보아야 한다. 662년 이후 칠중성의 주인이 신라에서 고구려로 바뀐 것이다. 고구려 멸망 직전까지도 임진강 일대는 신라와 고구려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국경지대였다.

이상과 같이 신라는 629년에 고구려 낭비성(포천 반월산성)을 점령한 다음, 임진강 유역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630년 이후 신라와 고구려는 연천군 미산면-장남면 구간의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 멸망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다. 630년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임진강 하류 일대가 신라와 고구려가 대치하는 국경지대로 변모한 것이다(전덕재 2016: 103-107).

이에 고구려와 신라는 임진강 북안과 남안에 각기 성곽과 보루 등을 축조해 군사방어를 강화했을 것이다. 〈지도 3〉에서 보듯이 연천지역의 고구려 보루와 성곽은 하류인 장남면-미산면 일대에서는 임진강 북안, 중류인 미산면-왕징면 일대에서는 임진강 서안을 따라 촘촘히 분포하는 양상을 띤다. 연천지역의 고구려 보루와 성곽은 남쪽이나 동쪽 방면에서 임진강을 도

47)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전 중

4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하하려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영된 것이다(최종택 1999, 심광주 2002, 서영일 2002, 백종오 2006a, 신광철 2011). 이러한 점에서 연천지역의 보루와 성곽 가운데 상당수는 임진강 유역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지대로 변모한 630년대를 전후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무등리 2보루에서 쌀과 좁쌀 등 탄화곡물이 다량 조사된 사실이 주목된다. 무등리 2보루는 무등리 나루 인근에 위치했다. 임진강은 일찍부터 수로로 널리 활용되었는데, 20세기 전반에는 소형 선박이 이천군 안협까지 운행했다(朝鮮總督府 1920: 448-450, 강석오 1971: 107). 630년대 이후 임진강 하류의 남쪽 지역은 신라가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고구려는 임진강 상류 방면에서 연천지역의 성곽이나 보루에 군량을 보급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탄화곡물이 다량 발견된 무등리 2보루는 임진강 상류 방면에서 수로를 통해 중하류 일대로 군량을 보급하던 군수기지였다고 추정된다.

한편 연천지역에서 조사된 신라의 성곽으로는 전곡읍 양원리의 수철성, 군남면 옥계리의 옥녀봉산성 등이 있다. 또 고구려 성곽 가운데 임진강 남쪽의 대전리산성이나 아미성 등에서는 신라의 토기나 기와 등이 출토된다. 연천군 관내는 아니지만 파주 적성의 칠중성도 신라 성곽이다. 신라가 임진강 남쪽에 집중적으로 성곽을 축조한 것인데, 630년대부터 임진강을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하였기 때문이다. 7세기 중반경 연천지역 일대는 고구려와 신라의 대치로 늘 전운이 감도는 국경지대였던 것이다. 연천지역을 둘러싼 전운은 고구려 멸망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나당전쟁의 격화와 함께 재연된다.

Ⅲ. 통일신라시기 연천지역의 동향

1. 나당전쟁의 전개와 연천지역

1) 나당전쟁의 개시와 당군의 임진강 방면 진격

신라는 648년 12월에 당과 군사동맹을 맺은 다음, 660년 7월에 백제, 668년 9월에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신라가 삼국의 각축전에서 최종 승자가 된 것이다. 신라의 김춘추와 당 태종은 648년에 군사동맹을 맺으며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 도성인 평양을 경계로 점령지역을 분할하기로 밀약했다. 이에 따르면 백제 지역뿐 아니라 고구려 영토 가운데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어야 했다.

그런데 당은 밀약과 달리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비롯한 5개 도독부를 설치하여 당의 영토로 삼으려 했다. 663년에는 신라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雞林州大都督)에 책봉하는 한편, 665년에는 의자왕의 셋째 왕자인 부여융(扶餘隆)을 웅진도독을 삼아 문무왕과 회맹(會盟)하여 신라와의 국경을 획정하도록 강요하였다. 당이 백제 고지(故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신라까지 영토로 삼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신라는 겉으로는 당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며 고구려 공격을 준비하는 한편, 고구려 멸망 이후에 전개될 당과의 결전에 대비하였다. 대내적으로 친당(親唐) 세력의 형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적대관계였던 왜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당시 왜는 나당연합군이 일본열도까지 공격할까 봐 전전긍긍하던 상황이었다. 이 점을 간파한 신라가 고구려 멸망 직전인 668년 9월 12일에 왜에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었다. 신라가 왜라는 배후의 위협 요소를 우군(友軍)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668년 9월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가 우려하던 상황이 일어났다. 당군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평양성으로 향하던 문무왕을 기다리지 않고 보장왕을 비롯한 고구려 왕족과 귀족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귀국했다. 그리고는 고구려 고지를 9개 도독부로 재편하는 한편, 평양에 동방지역을 총괄할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었다. 당이 백제나 고구려 고지뿐 아니라 신라를 포함한 동방지역 전체를 통할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⁴⁹⁾

신라로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만약 당의 안동도호부가 동방지역에 대한 통할력을 강

49) 나당동맹의 결성, 백제·고구려의 멸망 과정, 당의 동방정책과 신라의 대응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노태돈 2009: 135-220, 노태돈 2014: 164-170 참조.

력하게 구축한다면, 당의 야욕대로 신라마저 당의 영토로 편입될 수도 있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멸망 이전부터 내밀하게 준비한 대내외 정책을 바탕으로 669년 4월경에 전격적으로 당군이 관할하던 백제 고지로 진격하는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당의 무방비 상태를 틈타 신라가 선제공격하는 형태로 나당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이 무렵 고구려 고지에서 신라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이 고구려 멸망 직후 고구려 고지에 대한 기미지배(羈靡支配) 정책을 수립했지만, 각지에서 유민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하기 힘들었다. 이에 당이 반당적(反唐的)인 고구려 유민을 대거 당의 내지로 이주시키는 등 정지작업을 진행한 다음, 67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미지배를 시행했다. 그렇지만 당의 기미지배가 본격화된 이후, 고구려 유민의 항거는 더욱 거세졌다.

신라로서는 당군의 남진을 저지할 우군을 만난 것이다. 이에 신라는 670년 3월에 사찬 설오유(薛烏儒)를 보내 정예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부흥군을 이끌던 태대형 고연무(高延武)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 오골성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들이 당군을 크게 격파함에 따라 요동 각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신라로서는 당군의 남하를 저지해 백제 고지에 대한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라는 당의 지원군을 차단하며 백제 고지에서 군사작전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671년 7월에는 종전의 백제 중심부를 대부분 장악해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했다. 신라가 당이 관할하던 백제 고지를 점령하려는 1차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반면 당은 오골성 전투 이후 요동 각지의 고구려 부흥군을 진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당군은 요동 일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평정한 뒤, 672년 7월에야 비로소 평양성에 진주했다⁵⁰⁾

이때 동주도행군총관(東州道行軍總管) 고간(高侃)과 말갈 출신의 연산도행군총관(燕山道行軍總管) 이근행(李謹行)이 당군과 말갈병 4만을 이끌고 평양성에 도착했는데, 군영을 8곳에 설치해 서북한 일대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평정할 준비를 했다. 신라는 이때도 고구려 부흥군을 적극 지원했는데, 당군이 멸악산맥을 넘어 중남부로 남진하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와 당이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격돌한 것이다.

당군은 672년 8월에 대동강 하류의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을 공취한 다음, 황해도 방면으로 남하해 재령강을 거슬러 백수성(白水城: 황해도 서흥)으로 진격했다. 이에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이 당군을 물리친 다음, 석문(石門: 황해도 봉산)까지 추격했다가 오히려 대패했다. 이해 12월에는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이 백수산에서⁵¹⁾ 당군에게 대패하고, 횡수(橫

50) 『삼국사기』 신라본기6 문무왕 11년(661년) 9월조에도 고간과 이근행이 평양성에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신라본기 7 문무왕 12년(662) 7월조와 중복 기사이다(노태돈 2009: 250).

51) 백수산은 『자치통감』 권202, 『책부원구』 권358) 백수성 부근의 산이다. '백빙산(白氷山)'(『삼국사기』 권22), '천산(泉山)'(『신당서』 권220 고려전, 『육해』 권191) 등으로도 표기되는데, 오각(誤刻)이다.

〈표 10〉 나당전쟁기 임진강-예성강 유역의 전투 현황

시기	기사 내용	전거 ⁵²⁾
673. 윤5	5월 13일에 연산도총관 대장군 이근행(李謹行)이 호로하에서 ⁵³⁾ 고구려인을 격파해 수천 명을 노획함. 나머지 무리는 신라로 망명함.	구당서5 고본10
673. 9	9월에 왕이 대야찬 철천(徹川) 등을 보내 병선 1백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함. 당군이 말갈·거란의 군사와 함께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했는데, 모두 9번 싸워 신라가 이기고 2천여 명을 참수함. 호로(瓠瀟)와 왕봉(王逢) 두 강에 빠져 죽은 당군의 수가 무수히 많았음.	신본7
673. 겨울	겨울에 당군이 고구려의 우잠성(牛岑城)을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거란·말갈 군사는 대양성(大楊城)과 동자성(童子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킴.	신본7
674	함형 5년에 (유인궤가) 계림도대총관이 되어 신라를 정벌함. 군대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호로하(瓠瀟河)를 건너 그 북방의 대진인 칠중성을 격파함.	구당서84 신당서108
675. 2	2월에 (당의) 유인궤(劉仁軌)가 칠중성에서 신라 군대를 격파함. 인궤는 병사를 이끌고 돌아가고, 조서를 내려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鎮撫大使)로 삼아 경략함. (중략) 백제 땅을 많이 차지해 마침내 고구려 남쪽 경계에 이르러 주·군으로 삼음. 당군이 거란·말갈 병사와 함께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홉 부대를 보내 대기함.	신본7
675. 2	2월에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신라의) 무리를 격파함. 또 말갈로 하여금 해로로 남쪽 경역을 경략하게 하여 많은 무리를 참수하고 노획함. 인궤는 군대를 이끌고 귀환하고,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아 신라의 매소성에 주둔하여 경략하게 함. 3번 싸워 모두 이김. 이에 신라가 조공하여 사죄하자 용서하고 관작을 복구해 줌. 그러나 백제의 땅을 많이 공취해 마침내 고구려의 남쪽 경계에 이르러 9주를 설치함.	신당서220 책부원구 986 옥해191 태평환우기 174
675. 9	9월에 (당의) 설인궤(薛仁貴)가 숙위학생 풍훈을 향도로 삼아 천성(泉城)을 침공함. 장군 문훈(文訓) 등이 싸워 이겼는데, 1,400명을 목 베고 병선(兵船) 40척을 빼앗음. 설인궤가 달아나자 전마(戰馬) 1,000필을 획득함.	신본7
675. 9	9월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買肖城)에 ⁵⁴⁾ 주둔함.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격퇴하고, 전마(戰馬) 3만 380필을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도 그 정도가 됨. / 안북하(安北河)를 따라 관(關)과 성(城)을 설치하고, 철관성(鐵關城)을 축조함. / 말갈이 아달성(阿達城)을 침범하여 노략질하자, 성주 소나(素那)가 맞서 싸우다가 사망함. ⁵⁵⁾ / 당군이 거란·말갈 군사와 함께 칠중성을 포위했지만 이기지 못하였는데, 소수(小守)인 유동(儒冬)이 전사함. / 말갈이 적목성(赤木城)을 포위해 함락시켰는데, 현령 탈기(脫起)가 백성을 거느리고 방어하다가 힘이 다하여 모두 전사함. / 당군이 석현성(石峴城)을 포위해 함락했는데, 현령 선백(仙伯)과 실모(悉毛) 등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함. / 또한 신라군이 당군과 크고 작은 전투를 18차례 벌여 모두 이겼는데, 6,047명을 참수하고, 전마 200필을 획득함.	신본7

52) '고본'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신본'은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지칭함.

53)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冊府元龜』 권358 장수부19 李謹行, 『太平御覽』 권202 봉건부5 부인 등에는 '호로하의 서쪽(瓠瀟河之西)', 『신당서』 권220 고려전에는 '발로하(發盧河)로 나옴.

54)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하에는 '매소천성(買蘇川城)'으로 나옴.

55) 『삼국사기』 열전7 소나전에는 675년 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음.

水: 서흥강)에서도 패배하였다.

당군이 재령강 유역을 거의 모두 장악하고, 멸약산맥을 넘어 한반도 중남부로 진격할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실제 <표 10>에서 보듯이 당의 이근행은 673년 윤5월에 호로하(瓠瀾河) 즉 연천군 호로고루 일대까지 진격해 고구려 부흥군을 격파했다. 이에 고구려 부흥군 가운데 잔여 세력이 신라에 망명했다고 한다. 당군의 남하로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임진강 유역이 나당전쟁의 전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임진강 유역마저 당군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당군의 예봉은 임진강-한강 분수령을 넘어 한강 유역으로 향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신라는 673년 9월에 전국 각지에 성곽을 축조해 군사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대아찬 철천(徹川) 등을 보내어 병선(兵船)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했다. 신라가 육상과 해상 두 방면에서 당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는 673년 9월에 임진강 유역의 호로하 및 한강 하류의 왕봉하(王逢河: 경기 고양)에서 당군과 말갈군을 크게 무찔렀다.

호로하에서 대패한 당군은 예성강 방면으로 퇴각했는데, 673년 겨울에 당군이 고구려의 우잠성(牛岑城)을 공격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잠성은 통일신라의 한주 우봉군으로 예성강 유역의 금천군 우봉면(북한의 황해북도 금천군 현내리)으로 비정된다. 당군이 임진강 북쪽의 예성강 유역으로 물러나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인데, 신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군을 임진강에서 예성강 방면으로 물리치고 연천지역 일대를 수복한 것이다.

한편 한강 하류의 왕봉하 일대에서 대패한 말갈군은 한강 하류 일대에 잔류하며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673년 겨울에 거란과 말갈 군사가 동자성(童子城)을 침공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동자성은 고구려의 동자홀현(童子忽縣), 통일신라의 한주 장제군 동성현(童城縣)으로 김포시 하성면 일대로 비정된다. 말갈 군사가 왕봉하 일대에서 대패한 다음에도 한강 하류 일대에 잔류하며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한편 이때 거란과 말갈 군사가 대양성(大楊城)도 침공했다고 하는데, 대양성은 고구려 대양관군(大楊管郡), 통일신라의 삭주 대양군으로 북한강 상류의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하현리 일대(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현리 일대)로 비정된다. 위치로 보아 이곳을 침공한 거란과 말갈 군사는 당이 원산만 방면에서 철령을 통해 새롭게 투입한 병력으로 추정된다. 당군이 673년 겨울에 전열을 재정비하여 예성강 유역, 한강 하류, 북한강 상류 등 세 방면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하며 신라의 중심부로 진격할 교두보 마련에 나선 것이다.⁵⁶⁾

56) 고구려 부흥운동과 나당전쟁의 초기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서영교 2006: 100-179, 노태돈 2009: 233-263, 이상훈 2012: 59-176, 여호규 2017: 75-87 등 참조. 왕봉하, 우잠성, 동자성, 대양성 등의 지명 비정은 정구복 외 1997c: 235 참조.

2) 신라의 당군 격퇴와 매소성 전투

〈표 10〉에서 보듯이 당군은 674년에는 별다른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는데,⁵⁷⁾ 한반도 방면 원정군을 대대적으로 재편했기 때문이다. 당은 674년 1월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편성했던 동주도행군총관부와 연산도행군총관부를 해체하는 한편, 설인귀가 이끌던 계림도총관부를 계림도대총관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유인궤(劉仁軌)를 계림도대총관에 임명하고, 연산도행군총관을 맡았던 이근행을 계림도부총관으로 삼았다. 동주도행군총관을 맡았던 고간의 행적은 보이지 않는데, 당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당이 673년 연말까지의 군사작전을 통해 고구려 고지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진압했다고 판단한 다음, 고구려 부흥군을 평정하던 행군 조직을 해체하고 계림도대총관부에 흡수 통합해 신라와의 전면전에 착수한 것이다. 『신당서』 고구려전의 “평양(고구려)의 패잔병들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모두 신라로 망명했는데, 이로써 4년 만에 평정되었다.”라는 구절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이 670년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된 고구려 부흥운동을 만 4년만인 673년에 모두 평정했다고 자평한 것이다(여호규 2017: 84-85).

이로써 고구려 부흥군을 매개로 전개되던 나당전쟁이 양국의 전면전으로 전환되었다. 나당전쟁의 전장(戰場)도 고구려 고지에서 신라의 영토로 바뀌었는데, 675년에 재개된 나당전쟁의 양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은 674년에 신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한 원정 준비를 한 다음,⁵⁸⁾ 675년 2월에 신라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표 10〉 참조). 이때 신라와 당은 연천지역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구당서』와 『신당서』 유인궤전에 따르면 유인궤가 674년(함형 5년) 계림도대총관이 된 다음 군대를 거느리고 호로하(瓠瀾河)를 건너 신라 북방의 대진(大鎭)인 칠중성을 격파했다고 한다. 〈표 10〉에서 보듯이 유인궤가 칠중성을 공격한 시점은 675년 2월이다. 다만 유인궤전을 통해 유인궤가 서북한에서 육로를 통해 멸악산맥과 예성강을 경유한 다음, 호로하 즉 호로그루 일대의 임진강을 건너 칠중성을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당군이 연천지역을 통과해 임진강을 도하한 다음, 칠중성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로 보아 신라와 당의 전면전은 당군이 임진강을 건너는 순간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674년에도 임진강이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으로 인식된 것인데, 673년 겨울에 “당군이 고구려의 우잠성을 공격했다”는 기사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잠성은 통일신

57) 『구당서』와 『신당서』 유인궤전에는 함형5년(674)에 계림도대총관이 되어 신라를 정벌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675년 2월 이후에 전개한 군사작전을 일컫는다(노태돈 2009: 263).

58) 당이 674년에 신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않은 데는 토번의 공격도 큰 영향을 미쳤다(서영교 2006: 188-196). 다만 이해 1월에 한반도 방면의 행군 조직을 전면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신라와의 전면전 수행을 위한 준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2012: 194-197).

라의 한주 우봉군으로 예성강 유역의 금천군 우봉면(북한의 황해북도 금천군 현내리)으로 비정된다. 673-674년 무렵에도 신라인들이 임진강 북쪽 지역을 여전히 고구려의 영토로 인식한 것이다.

이에 당도 임진강 북쪽 지역에서는 고구려 부흥군을 평정하기 위한 행군 조직을 중심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다가, 임진강 남쪽으로 진군하여 신라와의 전면전을 전개하기에 앞서 행군 조직을 신라 정벌군인 계림도대총관부로 재편한 것이다. 670년대 초반에 신라와 당이 임진강을 여전히 국경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천지역이 나당전쟁의 전개뿐 아니라 양국의 국경 인식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칠중성 전투 이후 유인궤는 귀국하고, 이근행이 안동진무대사(安東鎭撫大使)를 맡아 신라 경략을 총지휘했다. 이근행은 675년 9월 29일경에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買肖城)에⁵⁹⁾ 주둔하며 신라와의 결전을 준비했다. 이 무렵 당의 설인궤가 천성(泉城)을 공격했는데, 천성은 ‘천정구(泉井口)’로 불린 임진강·한강 하구의 오두산성으로 비정된다(장학근 2000: 199). 당시 나당전쟁이 임진강 유역에서 전개되었음을 고려하면, 설인궤는 임진강 수로를 통해 당군에게 군수품을 보급하고(서영교 2006: 227-233), 임진강 유역 곳곳에 주둔한 신라군을 압박하기 위해(이상훈 2012: 212-220) 천성을 공격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설인궤가 공격한 천성이 임진강 하구의 오두산성이라는 사실은 나당전쟁 최대 격전지인 매소성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준다. 매소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연천 대전리산성설과⁶⁰⁾ 양주 대모산성설이⁶¹⁾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상훈 2021: 122-124). 전자는 대체로 당시 전황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매소성(買肖城)’의 글자 형태가 지금의 양주로 비정되는 통일신라의 매성현(買省縣)과 유사할 뿐 아니라,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나오는 ‘매소천성(買蘇川城)’도 경덕왕대에 개명한 ‘내소군(來蘇郡)’과 글자가 겹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는다. 양자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표 10>에서 보듯이 당의 유인궤가 675년 2월에 임진강 남쪽의 칠중성을 대파했지만, 675년 9월에도 여전히 신라가 영유하고 있었다. 당군이 675년 2월에 칠중성을 대파했지만, 이를 점령하지 못한 것이다. 칠중성은 임진강 유역에서 감악산 서쪽 루트를 통해 양주분지로 나아가는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당군이 칠중성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주 분지까지 진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시 전황상 매소성은 양주 대모산성보다는 연천 대전리산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이상훈 2021: 131-134).

59) ‘買肖城’의 ‘肖’는 ‘초’와 ‘소’의 두 가지 음이 있는데,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에 ‘매소천성(買蘇川城)’으로 표기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매소성’으로 읽는다(정구복 외 1997c: 237).

60) 민덕식 1988: 655-658, 이우형 1995: 549, 이도환 2000: 265, 이상훈 2012: 205, 권창혁 2019: 311-314

61) 이병도 1977: 537, 정구복 외 1997c: 237, 노태돈 2009: 266, 김병희 2014: 197-215

〈표 8〉에서 보듯이 연천 대전리산성은 신천이 한탄강으로 흘러드는 합류 지점에 자리하는데, 성재산의 서남쪽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어 한탄강, 신천 및 전곡 일대의 넓은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체 둘레 약 970m로 대형 산성은 아니지만, 주변에 대군을 수용할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북으로는 한탄강을 건너 임진강 중상류를 통해 서북한 지역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서쪽으로는 한탄강과 임진강 하류를 따라 칠중성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남쪽으로는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동두천-양주를 거쳐 한강유역으로도 비교적 쉽게 진출할 수 있다(이우형 1995: 548-549, 심광주 2000: 537-539).

당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구려 부흥운동을 평정하고 확고하게 점령한 서북한 방면에서 군수보급을 받으며, 임진강 하류나 상류 방면 나아가 한강 유역 방면으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소성은 연천 대전리산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당전쟁 최대의 격전이 연천지역의 한탄강 일대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매소성 전투에 대해 신라측과 당측의 사료는 다소 상반된 내용을 전한다. 〈표 10〉에서 보듯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매소성에서 벌어진 본 전투와 그 이후에 전개된 후속 전투를 구분하여 서술했다.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는 당군을 격파하고 전마 3만 380필과 무수한 병장기를 획득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18차례의 전투를 모두 승리해 6,047명을 참수하고 전마 200필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당서』 신라전 등 중국 측 기록에서는 이근행이 매소성에 주둔하며 3번 싸워 모두 이겼고, 신라가 조공하여 사죄하자 용서하고 관작을 복구해주었다고 기술했다.

신라와 당 모두 자국의 군대가 승전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양측의 이러한 상반된 기록은 매소성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반영한다. 양국이 진퇴를 거듭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각자 승전한 내용만 기록한 것이다. 그렇지만 매소성 전투의 최종 승자는 신라였다. 이는 매소성 전투에 이어진 후속 전투의 전개 양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표 10〉에서 보듯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당군이 매소성 전투 이후에 칠중성(七重城)과 석현성(石峴城), 그리고 적목성(赤木城)을 공략했다고 한다.

칠중성은 임진강 남안의 파주 적성면의 칠중성으로 비정된다. 석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데, 제반 사료를 종합하면 파해평사(波害平史)라고도 불린 통일신라 한주 내소군의 파평현, 즉 지금의 파주시 파평면 일대로 비정된다(여호규 2012, 181-182). 적목성은 고구려 시기의 적목진(赤木鎭), 통일신라 삭주 연성군(連城郡)의 단송현(丹松縣)으로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 현리 일대(북한의 강원도 세포군 현리)로 비정된다.

매소성을 기준으로 보면, 칠중성과 석현성이 임진강 하류를 거쳐 서해나 예성강 하류로 나

아가는 경유지라면, 적목성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원산만 일대로 나아가는 경유지라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매소성 전투에 이어진 칠중성, 석현성, 적목성 등의 전투는 임진강 하류나 추가령구조곡 방면으로 퇴각하던 당군이 군량 확보나 임시진지 마련을 위해 벌인 전투라고 생각된다.⁶²⁾ 당군이 매소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 임진강 하류와 추가령구조곡 등 최소한 두 방면을 통해 퇴각하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매소성 전투는 나당전쟁 최대의 격전이었을 뿐 아니라, 육지에서 벌어진 최후의 결전이었다. 신라는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20만 대군을 격파함으로써 나당전쟁을 승전으로 이끌 승기를 잡았다. 신라는 이듬해 11월에 금강 하구의 기벌포(伎伐浦)를 침공한 당의 수군을 대파함으로써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나당전쟁에서 승리로 마무리하였다. 신라가 한반도를 통째로 지배하려는 당의 야욕을 꺾고 삼국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나당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연천지역은 삼국통일의 생생한 역사적 현장이라 할 수 있다.

2. 연천지역의 행정구역 편제와 수취체계

1) 통일신라의 연천지역 영역화 과정

신라는 삼국통일을 전후해 중앙정치제도와 지방통치조직을 재정비했다. 중앙의 관서조직은 당의 6전 조직에 준하는 형태로 정비하였고, 각 관서는 4-5등급의 관직체계를 갖추었다. 신라가 삼국시기에 비해 중앙의 관료조직과 행정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지방통치조직은 주·군·성제를 주·군·현제로 재편하였다. 군관구(軍管區)의 성격이 강했던 주(州)를 명실상부한 광역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각급 행정구역의 영속(領屬) 관계를 강화했다. 주는 자체적으로 영현(領縣)을 두는 한편 다수의 군을 관할했고, 각 군 아래에 몇 개의 영현을 두는 형태로 지방제도를 재정비했다.

이와 함께 수도와 각 주의 주치를 연결하는 교통로의 요지에 지방에 자리한 작은 서울인 '소경(小京)'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685년(신문왕 5)에 완산주와 청주의 설치를 끝으로 전국을 9주로 편제하였다. 또 같은 해에 남원소경과 서원소경을 설치하고, 국원소경을 중원소경으로 개칭하여 5소경 체제도 완비했다. 통일신라시기 지방통치조직의 근간인 이른바 9주 5소경체가 완비된 것이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연천지역도 신라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라가 9주 5소경을 완비한 685년에 연천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편제를 마무리했

62) 칠중성, 석현성, 적목성 전투를 당군이 매소성을 거점으로 주변 지역을 공략한 전투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상훈 2012: 223-224).

다고 보기는 어렵다. 630년대 이래 연천지역은 임진강을 경계로 신라와 고구려가 대치하던 국경지대였다. 이러한 양상은 나당전쟁 시기에도 이어졌는데, 673년 당이 공격했던 예성강 지역의 우잠성(牛岑城)을 ‘고구려 우잠성’이라고 표기한 것이나 675년 2월 유인궤가 호로하(임진강)를 도하한 다음 ‘신라 북방의 칠중성’을 공격했다고 기술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표 10〉 참조). 나당전쟁 시기에도 신라인들은 임진강 북쪽 지역을 고구려 영토로 인식했고, 당도 임진강을 경계로 그 남쪽 지역을 신라 영토로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신라는 676년에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당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했지만, 곧바로 임진강 북쪽 지역으로 진격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라가 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잠시 임진강 북쪽 지역으로의 북상을 유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은 나당전쟁에서 패배한 다음, 676년 2월에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성으로 옮겼다가 677년 2월에는 다시 신성으로 옮겼다. 외형상 당이 한반도에서 철군하며 신라 원정을 포기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지역에 대한 병탄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당은 677년에 보장왕을 요동주도독·조선군왕(遼東州都督·朝鮮郡王)에 임명해 요동지역으로 귀환시키는 한편, 당의 내지로 강제 이주했던 고구려 유민도 요동으로 귀환시켰다. 이와 함께 요동의 건안성(建安城)에 웅진도독부를 교치(僑置)하고, 백제 유민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 당이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활용해 요동지역을 안정시킨 다음, 신라 공격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한 것이다(노태돈 1981: 82, 여호규 2017: 85).

실제 당은 678년 9월에도 신라를 정벌하려다가 티벳고원에 자리한 토번(吐蕃)의 침공을 우려해 그만두었다. 신라도 당이 한반도 병탄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라가 사력을 다해 겨우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했는데, 다시 당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신라는 당에게 침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양국이 국경으로 인식하던 임진강의 북쪽 지역으로 진격하는 것을 당분간 유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678년 당 조정에서 신라 정벌을 논의할 때, 시중 장문관(張文瓘)이 “신라가 비록 불순하다고 하지만 아직 일찍이 변경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⁶³⁾ 장문관이 언급한 ‘변경(邊)’은 나당전쟁 시기에 양국이 국경으로 인식했던 임진강을 지칭하며, 신라가 변경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진강을 건너 북상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신라가 나당전쟁 직후에 임진강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잠시 보류한 것이다.

신라는 신문왕대까지도 임진강 북쪽으로 북상하지 않다가, 효소왕대 이후 점차 영토로 편입하기 시작했다. 694년(효소왕 3) 겨울에 예성강 방면으로 진출하여 송악성(松岳城: 개성시)

63) 『자치통감』 권202 의봉3년 9월 신유: “車駕還京師。上將發兵討新羅。侍中張文瓘臥疾在家。自輿入見。諫曰:“今吐蕃爲寇。方發兵西討。新羅雖云不順。未嘗犯邊。若又東征。臣恐公私不堪其弊。”上乃止。”

과 우잠성(牛岑城: 금천군 우봉면)을 축조했다. 713년(성덕왕 12)에는 개성(開城: 개풍군 개풍읍)을 축조하여 임진강-예성강 하류 일대에 대한 지배를 굳건히 하는 한편, 해주 방면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이기동 1984: 211, 정요근 2006: 199-200).

신라가 효소왕-성덕왕대에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에 송악성, 우잠성, 개성 등을 축조하여 임진강 유역에 대한 영유를 확고히 하는 한편, 서북한 방면 진출의 전진기지를 구축한 것이다. 이로써 630년대 이래 신라 북방의 국경으로 고구려나 당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연천 등 임진강 유역이 신라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연천지역에 지방행정구역을 설치할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 한산주 도독 관내에 여러 성곽을 축조한 718년 10월에는 연천지역에도 지방행정의 거점을 구축했을 것이다.

한편 732년 발해가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하자, 당은 신라를 끌어들이며 발해를 견제하려고 했다. 당이 733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발해를 공격하라고 요청하자, 신라는 이해 겨울에 발해의 남쪽 국경을 공략했다. 신라는 발해 공략에 나섰다가 큰 눈을 만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당의 현종이 735년에 신라 성덕왕에게 패강(溟江: 대동강) 이남의 땅을 준다는 조칙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패강 곧 대동강 이남의 땅을 둘러싼 신라와 당의 대립이 해소되었다. 신라로서는 더는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임진강 북쪽으로 북상하여 대동강 남쪽 지역까지 영토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신라는 736년 11월에 김유신의 손자인 윤충(允忠) 등을 파견해 평양주(平壤州: 한강 이북의 한산주)와 우두주(牛頭州)의 지세를 살펴보게 했다. 신라가 임진강-대동강 일대에 행정구역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 다음 신라는 748년(경덕왕 8)에 예성강 유역에 대곡군(大谷郡: 永豐郡, 평산), 수곡성현(水谷城縣: 檀溪縣, 신계), 동삼홀군(冬三忽郡: 海臯郡, 연백 연안), 도랍현(刀臘縣: 雒澤縣, 연백 은천) 등 4개 군·현을 설치했다. 762년에는 서북방으로 더 나아가 해주에 지성군(池城郡: 內米忽郡·瀑池郡), 예성강 상류에 장새군(獐塞郡: 수안)과 덕곡군(德谷郡: 十谷郡·鎭湍縣, 곡산), 재령강 유역에 오곡군(五穀郡: 五關郡, 서흥), 휴암군(鵝巖郡: 栖巖郡, 봉산), 한성군(漢城郡: 息城郡·重盤郡, 재령) 등 6개 군을 설치했다. 헌덕왕대에는 대동강 하류에 취성군(取城郡, 황주), 토산현(土山縣, 중화 상원), 당악현(唐岳縣, 중화 당정), 송현현(松峴縣, 중화 해암) 등을 설치했다(이기동 1984: 212-215, 전덕재 2016: 116-120).

신라가 경덕왕대에 예성강과 재령강 유역에도 군·현을 설치한 다음, 헌덕왕대에는 대동강 하류 일대에까지 군·현을 설치한 것이다. 이로써 신라가 임진강에서 대동강 유역에 이르는 서북방 지역을 영역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물론 영역화 작업과 더불어 연천지역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작업도 병행했을 것이다. 제반 사료를 종합하면 송악성,

우잡성, 개성 등을 축조하는 효소왕-성덕왕대에는 임진강 유역에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짐작된다.⁶⁴⁾

2) 통일신라시기 연천지역의 행정구역 편제

〈표 11〉은 연천군과 그 주변의 통일신라시기 행정구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천군 관내로 비정되는 통일신라의 행정구역명은 고구려 시기와 마찬가지로(〈표 7〉 참조) 동량현(幢梁縣: 僧梁縣), 공성현(功城縣: 功木達縣), 삭읍현(朔邑縣: 所邑豆縣), 장단현(長湍縣: 長淺城縣), 임단현(臨端縣: 마전천현(麻田淺縣) 등 모두 5개이다. 모두 현급 행정구역명으로 군급의 상위 행정구역명은 없다. 5개 현 모두 한산주 소속인데, 동량현과 공성현은 철원읍에 치소를 둔 철성군(鐵城郡), 삭읍현은 금천군 토산면에 치소를 둔 토산군(兔山郡), 장단현과 임단현은 금천읍에 치소를 둔 우봉군(牛峯郡) 등의 영현(領縣)이다.

〈표 11〉의 통일신라시기 연천군 일대의 지방행정구역을 〈표 7〉의 고구려 시기 행정구역과 비교하면 몇 가지 변화가 확인된다. 먼저 고구려의 철원군에 속했던 양골현(梁骨縣: 洞陰縣)이 통일신라시기에는 포천군에 치소를 둔 견성군(堅城郡)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 고구려 시기에는 부여군(夫婁郡)이 영현을 5개 거느렸는데, 이 가운데 부여군 치소(부평군: 김화)와 어사내현(부양, 광평현: 평강) 이외에 임진강 중상류 지역을 분리하여 토산군(兔山郡)을 새롭게 설치하고, 연천군 관내의 소읍두현(삭읍현)도 소속을 변경시켰다. 고구려 시기에는 연천과 그 주변에 군을 3개 설치했다고 하지만, 통일신라 시기에는 부여군을 부평군과 토산군으로 분리하여 모두 4개를 설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탄강 유역은 철성군, 한탄강과 평안천 상류의 김화와 평강은 부평군, 임진강 중상류의 본류 연안은 토산군, 임진강 하류 북안(北岸)에서 예성강 하류 동안(東岸)에 이르는 지역은 우봉군에 속하게 되었다. 신라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자연 지형을 최대한 고려해 각 하천의 수계를 따라 행정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토산군이나 우봉군의 치소는 관내 지역에서 가장 서북방에 설치한 점이 주목된다. 8세기 초엽 신라는 예성강을 건너 재령강-대동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토산군이나 우봉군 등을 재령강-대동강 방면 진출을 위한 교두로로 삼기 위해 가장 서북방에 치소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정요근 2005: 203-206).

64) 한편 『삼국사기』 열전7 소나전에는 675년 봄에 급찬 한선(漢宣)이 아달성(阿達城) 태수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 기사의 아달성을 한주 토산군의 영현인 안협현(安峽縣) 즉 아진압현(阿珍押縣)으로 비정한 다음, 신라가 나당전쟁이 전개되던 675년 무렵에 이미 임진강 유역과 예성강 하류에 군·현을 설치했다고 보기도 한다(전덕재 2016: 112-115).

〈표 11〉 연천군과 주변지역 통일신라 시기 행정구역 현황(『삼국사기』지리지)

통일신라 군명(郡名)	경덕왕 시기 개정 명칭	본고구려 명칭	고려시기 명칭	현재 위치 ⁶⁵⁾
철성군 (鐵城郡)	철성군 (鐵城郡)	철원군 (鐵圓郡)	동주 (東州)	철원군 철원읍
	동량현 (幢梁縣)	승량현 (僧梁縣)	승령현 (僧嶺縣)	연천군 신서면 (구 인목면)
	공성현 (功成縣)	공목달현 (功木達縣)	장주 (獐州)	연천군 연천읍
부평군 (富平郡)	부평군 (富平郡)	부여군 (夫如郡)	김화현 (金化縣)	철원군 김화읍
	광평현 (廣平縣)	부양현 (斧壤縣)	평강현 (平康縣)	평강군 평강면
토산군 (兔山郡)	토산군 (兔山郡)	오사함달현 (烏斯含達縣)	토산군 (兔山郡)	금천군 토산면 (북한: 토산군 월산리)
	안협현 (安峽縣)	아진압현(阿珍押 縣), 궁악(窮嶽)	안협현 (安峽縣)	이천군 안협면 (북한: 철원군 철원읍)
	삭읍현 (朔邑縣)	소읍두현 (所邑豆縣)	삭읍현 (朔寧縣)	연천군 증면(구 삭령면) (북한: 철원군 삭녕리)
	이천현 (伊川縣)	이진매현 (伊珍買縣)	이천현 (伊川縣)	이천군 이천면 (북한: 이천군 이천읍)
우봉군 (牛峯郡)	우봉군 (牛峯郡)	우잠군 (牛岑郡)	우봉군 (牛峯郡)	금천군 우봉면 (북한: 금천군 현내리)
	임강현 (臨江縣)	장항현 (獐項縣)	임강현 (臨江縣)	장단군 강상면 (북한: 장풍군 임강리)
	장단현 (長湍縣)	장천성현 (長淺城縣)	장단현 (長湍縣)	연천군 장남면
	임단현 (臨端縣)	마전천현 (麻田淺縣)	마전현 (麻田縣)	연천군 미산면

결국 연천군 지역은 고구려 시기처럼 통일신라 시기에도 단일 행정구역을 이루지 못하고, 주변의 상위 행정구역에 분산하여 소속된 것이다. 연천군 지역이 크게 동부의 한탄강 유역, 서북부의 임진강 중류 유역, 서남부의 임진강 하류 유역 등으로 나뉘어 각기 철성군, 토산군, 우봉군에 소속된 것이다. 다만 연천군 관내에 설치된 현급 행정구역의 수가 고구려 시기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일신라도 종전의 거점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하였듯이 연천군 장남면의 호로그루에는 고구려 시기의 장천성현(長淺城縣: 長湍縣), 미

65) 위치 비정은 이병도 1977, 정구복 외 1997d, 임기환 2007, 장창은 2014, 이정빈 2019 등 참조. 단 장단현의 현재 위치는 정요근 2005: 203-204에 의거하여 연천군 장남면 일대로 비정함.

산면의 당포성에는 마전천현(麻田淺縣: 臨端縣), 은대리성에는 공목달현(功木達縣: 高木城) 등의 치소가 각각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표 8>에서 보듯이 호로그루와 당포성에서는 통일신라 시기의 유물도 다량 출토되고 있다. 통일신라도 고구려처럼 호로그루와 당포성에 각기 장단현과 임단현의 치소를 설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호로그루 일대는 남북 종단로인 장단도로(長湍渡路)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고, 바로 서쪽의 고랑포까지는 서해의 밀물이 올라와 큰 배들이 항행할 수 있었다. 또한 호로그루 좌우에는 임진강 수상과 육상 교통의 결절점인 고랑포나루와 두지나루가 있었다. 당포성 일대도 임진강 하류에서 중상류로 올라가는 수운 교통의 요지인 당개나루가 있었고, 양주분지에서 최단거리로 임진강을 건너 북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처럼 연천지역에 대한 지방 지배와 더불어 임진강 수로와 육로를 관할하기 위해 호로그루와 당포성에 각기 장단현과 임단현의 치소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은대리성에서는 통일신라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 이로 보아 통일신라 시기에 공성현(公城)의 치소는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은대리성 맞은편의 대전리산성이나 현재의 연천읍 일대가 유력한 후보지이다. 이 가운데 대전리산성은 나당전쟁 최대의 격전지인 매소성 전투의 전장이었고, 통일신라의 기와도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만 놓고 본다면 대전리산성이 공성현의 치소일 가능성이 높지만, 공성현의 관할구역인 연천읍 일대와 다소 떨어져 있어서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처럼 신라는 8세기 초에 연천군 지역에 5개의 현을 설치하여 지방지배를 시행했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임진강과 한탄강 연안의 요충지에 지방행정의 거점을 축조해 이 지역을 다스리는 한편, 임진강 수로와 육상 교통로를 관할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남면의 호로그루와 미산면의 당포성은 고구려에 이어 통일신라 시기에도 지방지배의 거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양자 모두 임진강 연안 수운교통의 요지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가 임진강 수로를 적극 활용하며 지방지배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임진강 수로를 활용한 수취체계 운영

임진강은 일찍부터 내륙 수로로 널리 활용되었다. 소형 선박은 이천군 안협(安峽)까지 항행할 수 있고, 서해 밀물이 들어오는 고랑포(高浪浦)에는 대형 선박도 운항할 수 있었다. 평수시에는 당포성이 위치한 미산면(마전), 갈수기에도 호로그루 인근의 고랑포까지 항행이 가능했다(朝鮮總督府 1920: 448-450, 강석오 1971: 107). 호로그루는 갈수기의 가항종점이자 대형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고랑포, 당포성은 평수시의 가항종점인 미산면(마전)에 위치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가 통일신라 시기에 호로그루나 당포성을 중심으로 연천지역을 다스리며 임진강

수로를 적극 활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 한주의 치소가 있었던 하남 선동[광주 선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기의 명문 기와가 주목된다. 이곳의 명문기와에서는 북한산(北漢山: 아차산성), 고봉(高峰: 고양 벽제), 황양(荒壤: 양주 주안), 매성(買省: 양주 주내), 천구(泉口: 파주 교하), 왕봉(王逢: 고양 덕양), 양골(梁骨: 포천), 굴압(屈押: 황해도 금천), 송악(松岳: 개성), 개성(開城: 개풍), 부여(夫如: 철원 김화), 동자(童子: 김포), 양평(楊根: 양평), 매소홀(買召忽: 인천 미추홀구), 수성(水城: 수원), 울목(栗木: 과천), 개산(皆山: 안성 죽산), 백성(白城: 경기 안성), 금만노(今万奴: 충북 진천) 등⁶⁶ 많은 지명이 확인되었다(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김규동·성재현 2011: 564-567, 윤성호 2017: 283, 박성현 2021: 38-40).

명문의 문장은 “지명(△△)+受+國+蟹口+船家+草” 또는 “지명(△△)+受+國+蟹口”로 복원된다. 이 가운데 ‘국(國)’은 국영이라는 뜻이고, ‘해구(蟹口)’는 해천(蟹川: 계내천)의 하구라는 뜻으로 이성산성 북쪽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금의 고덕천으로 비정된다. 선가(船家)는 ‘선우(船宇)’라고 새겨진 사례도 있는데, 나루터나 조선소를 지칭한다. 초(草)는 ‘와초(瓦草)’로 새겨진 사례도 있는데, 지붕을 이는 ‘새’나 ‘디새’ 곧 기와를 일컫는다(박성현 2021: 41-42).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먼저 “계내천 나루터 부근의 국가가 관할하는 (가마에서) 제작한 기와를 어떤 곳(△△)에 보낸다”(김규동·성재현 2011: 569-570), 그리고 “어떤 곳(△△)에서 (해구의) 나루터에서 기와를 받았다(△△+受+國+蟹口+船家+草)”나 “어떤 곳에서 해구에서 만든 기와를 받았다(△△+受+國+蟹口)”(전덕재 2015: 319-321)⁶⁷ 등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한주 소속의 각 군·현이 한주의 국영 가마에서 제작한 기와를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문장의 ‘수(受)’를 ‘할당받다’라는 뜻으로 보아 “한주 소속의 각 군·현에서 할당받아 제작한 국영 해구(蟹口) 선가(船家)의 기와”로 풀이하는 견해이다. 각 군현이 한주로부터 할당받아 납품한 선가(船家) 건물용 기와라는 것이다. 같은 군현명의 기와는 제작방식이나 명문을 새긴 방식이 1~2가지 유형으로 일정하지만, 다른 군현의 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吉井秀夫 2017: 1133-1138, 박성현 2021: 42-44).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한주의 주치와 각 군·현 사이에 기와 공급체계나 수급체계가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아차산성에서 ‘북한수국해구(北漢受國蟹口)’명 기와, 포천 반월산성에서 ‘마홀수해구초(馬忽

66) 그밖에 馬城(馬忽?: 포천), 所口仍, 所日, 豆射所馬, 唐白(唐恩?: 남양), 丁忽, 童城(童子?: 김포) 등의 지명이 있다.

67) 전덕재 2002: 29-30에서는 “△△이 國營의 蟹口에서 운영하는 배(船)에서 (기와를) 받았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受蟹口草)명 기와, 고양 고봉산성에서 '고(高)명 기와 등이 출토된 바 있다. 한주의 치소인 선리 일대에서 기와를 생산하여 각 군·현에 공급했거나(전덕재 2011: 30, 김규동 성재현 2011: 570-573), 반대로 각 군·현에서 기와를 제작하여 한주에 납품했거나(박성현 2021: 41-43) 어느 경우이든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반영한다.

기와 명문에 나오는 지명에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수로를 통해 기와를 운송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특히 철원군 김화로 비정되는 '부여(夫如)'는 한탄강 상류에 위치했다. 그러므로 각 군현이 한주에서 제작한 기와를 공급받은 경우라면, 최대한 임진강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기와를 운송한 다음, 이곳에서 육로를 이용하여 부여현까지 운송했을 것이다. 만약 평수기였다면 연천군 미산면의 당개나루 일대, 갈수기였다면 장남면의 고랑포 일대까지 임진강 수로를 이용한 다음, 각기 이곳에서 육로를 이용해 부여현으로 기와를 운송했을 것이다. 반대로 각 군현이 할당받아 제작한 기와를 한주의 치소에 납품한 경우라면, 먼저 부여현에서 육로를 이용해 당개나루나 고랑포까지 운송한 다음 임진강과 한강 수로를 이용해 한주의 주치로 운송했을 것이다.

평수기나 갈수기의 가항중점인 당개나루나 고랑포 일대가 한주의 주치와 관내의 각 군·현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로 보아 한주 관내의 각 군·현에서 수취한 세곡(稅穀)이나 각종 물자를 주치로 운송할 때도 당개나루와 고랑포 일대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연천군 관내에는 비록 상위 행정구역인 군의 치소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실제 한주 관내의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각종 수취물자를 운송하는 과정에서는 임진강 수로를 따라 위치한 현급 행정구역의 치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통일신라가 임진강 수로를 활용해 한주와 연천 일대에 설치한 행정구역의 치소를 연결하며 지방통치를 시행하며 수취체계를 운영한 것이다.

- 강석오, 1971, 『신한국지리』 새글사
- 강종훈, 2006,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 강현숙, 2001, 「한강유역 1-3세기대 묘제에 대한 일고찰-적석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1-3세기의 주거와 고분』 국립문화재연구소
- 경기도박물관, 1999, 『파주 주월리 유적』
- 경기도박물관, 2001, 『임진강』 Vol. 2
- 경기도박물관, 2004, 『포천 자작리유적I-긴급발굴조사 보고서』
- 경기도박물관, 2007, 『아미성·수철성-정밀 학술조사 보고서-』
-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 2015 『漣川 大田里山城I-시·발굴조사 보고서-』
-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경기도 고구려 유적 종합정보 기본계획』
- 고려문화재연구원, 2014, 『연천 대전리산성-2차발굴조사 결과 약보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 권오영, 1986, 「初期 百濟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 『韓國史論』 15
- 권오영, 1996, 『삼한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권오영, 2001, 「백제국에서 백제로」 『역사와현실』 40
- 권창혁, 2019,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 권혁재, 1995, 『한국지리-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법문사
- 권혁재, 2003, 『한국지리-우리 국토의 자연과 인문』 (제3판) 법문사
- 今西龍, 1971, 「眞番郡考」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연천 학곡리 적석총 :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지역 내 발굴조사 보고서』
- 吉井秀夫, 2017, 「광주 선리 명문기와의 고고학적 재검토-이마니시 류 수집자료의 검토를 중심으로-」 『佛智光照』 (청계정인스님정년퇴임기념논총)
- 김강훈, 2020,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 김권구, 2016, 「영남지역 읍락의 형성과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82
- 김규동·성재현, 2011, 「선리 명문과 고찰」 『고고학지』 17
- 김기섭, 1991,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靺鞨과 樂浪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청계사학』 8
- 김기섭, 1994, 「백제 근초고왕대의 북경」 『군사』 29
- 김병희, 2018, 「나당전쟁의 종료 시점에 대한 재검토 및 매소성 전역의 과정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30
- 김병희·서영교, 2021, 「나당전쟁기 칠중성과 매소성 전투 -매소성의 위치 비정 및 말갈 수군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118
- 김수태, 2004, 「한성 백제의 성장과 낙랑, 대방군」 『백제연구』 39
- 김영심, 2003, 「웅진·사비기 백제의 영역」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문화사
- 김윤우, 1987, 「낭비성과 낭자곡성고」 『사학지』 21

연 천 의
선 사 시대고 대 의
천고 려 시 대 의
연 천조 선 시 대 의
연 천근 대 시 대 의
연 천연 천 의
현 대 사 와
한 국 전 쟁

- 김윤우, 1995, 「광개토왕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 『고구려 남진경영사 연구』 백산자료원(원재 1989, 『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 김정배, 1986, 『한국 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진영, 2020,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진영, 2021,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경문화사
- 김창석, 2020, 「진번의 변천과 백제 건국집단의 출자」 『한국고대사연구』 99
- 김태식, 1995, 「三國史記 地理志新羅條의 史料의 檢討- 原典편찬 시기를 중심으로-」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김태식, 1997, 「三國史記 地理志高句麗條의 史料의 檢討」 『역사학보』 154
- 김현숙, 2008, 「고구려의 한강유역 영유와 지배」 『백제연구』 50
- 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 노태돈, 1981, 「고구려 유민사 연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노태돈, 2005,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노태돈, 2014, 『한국고대사』 경세원
-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 도수희, 2005, 『백제어 어휘 연구』 제이엔씨
- 문안식, 1995, 「백제 연맹왕국 형성기의 대중국 군현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안식, 2002,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 문안식, 2010,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서울지역의 동향」 『서울학연구』 39
- 민덕식, 1988, 「매소성지고」 『손보기 박사 정년 기념 고고인류학논총』
- 박성현, 2008, 「신라 성지 출토 문자자료의 현황과 분류」 『목간과문자』 2
- 박성현, 2011,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현실』 82
- 박성현, 2021, 「신라 통일기 한주(漢州)의 물자 이동과 조운(漕運)-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21
- 박순발, 1998, 「백제 국가의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순발, 2002, 「춘락의 형성과 발전」 『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춘락과 도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박승미, 2022, 「백제 초기의 동·북방 경역과 동부·북부의 성격」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중국, 2014, 「원삼국~삼국시대(백제 한성기) 중부지역의 시공적 정체성 - 중도문화를 중심으로 -」 『중부고고학회 2014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배기동, 2000, 「제2편 역사 제1장 선사시대」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 백종오, 2005,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 백종오, 2006a,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 백종오, 2006b, 『高句麗南進政策研究-臨津江에서 錦江까지-』 서경

-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 서영일, 1996,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解空口單’銘 기와의 考察」 『사학지』 29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서영일, 2000, 「중원고구려비에 나타난 고구려 성과 관방체계」 『고구려연구』 10
- 서영일, 2002,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문화사학』 17
- 서영일, 2004, 「한성시대의 백제 북방 교통로」 『문화사학』 21
- 서영일, 2006,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사학지』 38
- 서영일, 2007, 「高句麗의 百濟攻擊과 南進路」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 서영일, 2009, 「연천 은대리성 축조공법과 성격」 『문화사학』 31
-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2,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명문기와』
- 서울대학교 박물관, 2013, 『연천 당포성 성외부공사 구역내 시굴조사 약보고서』
- 서울대학교 박물관, 2015, 『연천 무등리 2보루』
- 서울대학교 박물관, 2019,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보고서』
- 서인한, 1999,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 송만영, 2003, 「중부지방 원삼국 문화의 전개과정과 한에 정치체의 동향」 『강좌 한국고대사』(10) 가라국사적개발연구원
- 송만영, 2010, 「六角形 住居址와 漢城期 百濟聚落」 『한국고고학보』 74
-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 송만영·이소희·박경신, 2002, 『漣川 삼거리 유적』 경기도박물관
- 송호정, 2007, 「제2절 고고학자료를 통해본 백제의 기원」 『백제의 기원과 건국』(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2)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신광철, 2011,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한국상고사학보』 7
- 신광철, 2022, 「고구려의 남진과 임진강」 『삼국 각축의 현장, 임진강』(한국고대사탐구학회·한성백제 박물관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심광주, 2000, 「제3편 문화재 제3장 역사유적」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 심광주, 2002,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연구』 12
- 심광주, 2005, 「고구려와 백제의 성곽문화」 『高句麗研究』 20
- 심광주, 2009,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출토 명문자료에 대한 검토」 『목간과문자』 4호
- 안신원,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고구려발해연구』 36
- 양기석, 2008, 「삼국사기」 『백제사자료역주집(한국편 I)』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양시은, 2010a,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 양시은, 2010b,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
- 양시은, 2011,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 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현실』 36
- 여호규,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대수관계(對隋關係)

- 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6
- 여호규,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현실』 84
- 여호규, 2013,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 여호규, 2017, 「유민묘지명을 통해본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 『동양학』 69
- 여호규, 2020,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한성 별도도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
- 여호규, 2021, 「고구려의 ‘남평양(南平壤)’ 건설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79
-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漣川郡誌』 上
- 예맥문화재연구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유적 보도자료〉, 2010. 11. 3
- 위가야, 2013, 「백제 온조왕대 영역확장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학보』 50
- 유원재, 1979, 「三國史記 僞靺鞨考」 『사학연구』 29
- 유태용·박영재, 2006, 「백제 적석총의 분포와 성격」 『白山學報』 75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3, 『연천 당포성 발굴조사 보고서』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6, 『연천 청산-백의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발굴 조사보고서』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 -漣川郡-』
- 윤경진, 2012, 『高麗史地理志의 分析和 補正』 여유당
- 윤선태, 2001, 「마한의 진왕과 신분고국」 『백제연구』 34
- 윤선태, 2010, 「낙랑군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낙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부」 『낙랑 호구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윤성호, 2017,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윤성호, 2019a,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韓國史學報』 74
- 윤성호, 2019b,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 윤성호, 2022, 「신라의 북진과 임진강」 『삼국 각축의 현장, 임진강』 (한국고대사탐구학회·한성백제박물관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윤용구, 1990, 「낙랑 전기 군현지배세력의 종족계통과 성격」 『역사학보』 126
- 윤용구, 1998, 「『삼국지』 한전 대외관계기사에 대한 일검토」 『마한사연구』 충남대학교 출판부
- 윤용구, 1999, 「삼한의 대중교섭과 그 성격-조위의 동이경략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85
- 윤용구, 2010a, 「낙랑군 초기의 군현 지배와 호구 파악」 『낙랑 호구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윤용구, 2010b, 「『三國志』 판본과 「東夷傳」 교감」 『한국고대사연구』 60
- 윤일녕, 1990, 「관미성위치고」 『北岳史論』 2
- 이기동, 1984,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 이도학,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 이도학, 1997, 「고대국가의 성장과 교통로」 『국사관논총』 74
- 이도학, 2000, 「제2편 역사 제2장 삼국 및 신라의 통일시대」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 이도학, 2009, 「백제 웅진기 한강유역 지배문제와 그에 대한 인식」 『향토서울』 73

- 이민수, 2022, 「662년 평양성 전투와 임진강변 전투」 『삼국 각축의 현장, 임진강』 (한국고대사탐구학회·한성백제박물관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병도, 1977,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 이병도, 2012, 『국역 삼국사기』(두계이병도전집 11) 한국학술정보
- 이상훈, 2012a,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 작전」 『국방연구』 55-3
- 이상훈, 2012b,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 이상훈, 2021, 『신라의 삼국통일』 민속원
- 이상훈, 2022,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위상」 『삼국 각축의 현장, 임진강』 (한국고대사탐구학회·한성백제박물관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이우형, 1995, 『향토사료집』 연천문화원
- 이원근, 1976, 「백제 낭비성고」 『사학지』 10
- 이인철, 2001, 「1-3세기경 백제의 군사전략과 영토확장」 『군사』 44
- 이정범,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 51
- 이정빈, 2019,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 경기도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34
- 이청규, 2000, 「‘國’의 형성과 多鈕鏡副葬墓」 『先史와 古代』 14
- 이현혜, 1984, 『三韓社會 形成過程 研究』 일조각
- 이현혜, 1997, 「3세기 마한과 백제국」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이형우, 1995, 『鄉土史料集』 연천군문화원·이화상사
- 이호영, 1984,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문제」 『사학지』 18
- 이희준, 2000, 「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韓國考古學報』 43
- 임기환, 2002, 「고구려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 임기환, 2007,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 임기환, 2008a, 「웅진시기 백제와 고구려 대외관계 기사의 재검토」 『백제문화』 37
- 임기환, 2008b,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고구려 군현의 성격」 『漢城百濟史(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임기환, 2014, 「백제의 동북방면 진출(문헌학적 측면) -한성기 백제의 북계와 동계의 변천」 『근초고왕 때 백제 영토는 어디까지였나』 한성백제박물관
- 임덕순, 1992, 『우리 국토 전체와 각 지역(II)』 법문사
- 임영진, 2003, 「적석총으로 본 백제 건국집단의 남하과정」 『선사와고대』 19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진출사』 경인문화사
- 장창은, 2016,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
- 장학근, 2000, 「신라의 정복지 지배·방어전략 -대당전쟁을 중심으로-」 『군사』 41
- 전덕재, 2002,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명문기와 고찰」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명문기와』 서울대학교 박물관

- 전덕재, 2009,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향토서울』 73
- 전덕재, 2015, 「한주의 지배영역과 경영 방식」 『서울2천년사 7(신라의 삼국통일과 한주)』 서울역사편찬원
- 전덕재, 2016, 「신라의 북진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73
- 정구복 외, 1997c,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구복 외, 1997d,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요근, 2005,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長湍渡路」 『韓國史研究』 131
- 정요근, 2008, 「고려-조선 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호섭, 2019, 「고구려의 州·郡·縣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33
- 朝鮮總督府, 1920, 『治水及水利踏査書』 (<https://dl.ndl.go.jp/info:ndljp/pid/957074>)
- 朝鮮總督府, 1929, 『朝鮮河川調査書』 (<https://dl.ndl.go.jp/info:ndljp/pid/1218357>)
- 조유전, 2000, 「제3편 문화재 제2장 선사유적」 『漣川郡誌』(上) 연천군지편찬위원회
- 酒井改藏, 1970,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 池内宏, 1951,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滿鮮史研究(上世第一冊)』 吉川弘文館
- 천관우, 1976, 「삼한의 국가형성(하)」 『한국학보』 3
-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 연구』 일조각
- 최몽룡·권오영, 1985,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본 백제 초기의 영역 고찰」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 최정필 외, 2001, 『연천지역 고인돌 시·발굴 조사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연천군
- 최종택, 1990, 「黃州出土百濟土器例」 『韓國上古史學報』 4
- 최종택, 1999,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關防體系」 『高句麗研究』 8
- 최종택, 2007,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성격」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 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 47
-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 최종택, 2014,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 최종택, 2014,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사충』 81
- 최종택, 2016, 「湖西地域 高句麗遺蹟의 調査現況과 歴史的 性格」 『百濟研究』 63
- 최창빈, 1990, 「4세기 말 - 5세기 초 고구려의 국남7성과 국동6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0-3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3, 『漣川 瓠蘆古壘II (第1次 發掘調査報告書)』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2007, 『漣川 瓠蘆古壘III (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연천군, 2014, 『漣川 瓠蘆古壘IV (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 황보경, 2015,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韓國史學報』 58



제 3 장

고려시대의 연천

I. 나말여초 궁예·왕건의 활동과 연천지역

II. 고려전기 연천지역의 성장

III. 고려후기 연천지역의 변화

집필

박재우(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통일신라 시기 변방에 위치해 있던 연천지역은 나말여초에 궁예의 철원과 왕건의 송악이 각각 태봉과 고려의 도읍으로 정해져 한반도의 중부지역이 역사의 중심지로 등장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달라졌다. 후삼국 전쟁기에는 태봉과 고려가 한강 이남으로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군사로서 크게 기능하였다.

성종 이후 지방통치제도가 정비되면서 연천지역 일부가 개성부와 경기에 소속되어 수도 개경을 호위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군사로 교통로로서 기능이 활발하여 개경에서 동북면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남경으로 가는 길에 장단나루가 널리 이용되었다. 강조의 정변과 거란 전쟁을 둘러싸고 목종과 현종은 장단나루를 건넜고, 적성의 감악산은 거란의 군사를 막아낸 국가를 수호하는 산신으로 영험을 떨쳤다.

예종 이후 연천지역의 고을에는 감무가 설치되었고 충선왕대에 장주가 연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공양왕대에는 연천지역 대부분 경기에 포함되었다. 문종 이후 개경에서 남경으로 내려가는 임진나루가 새로 개척되어 활발히 운영되었으나 장단나루 역시 통행로로서 기능이 유지되었다. 고종대에 거란 유종의 침략에서 외적의 군사로가 되거나, 우왕대에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내려간 군사로가 되기도 했다. 왜구의 침략으로 개경이 위기에 처하자 천도의 논의와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내륙에 있었던 연주가 천도의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고려시기 연천지역의 변천을 고려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나말여초 궁예·왕건의 활동과 그것을 둘러싸고 연천지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둘째는 고려전기 연천지역의 성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지방통치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연천지역의 위상이 형성되는 모습과, 장단나루를 둘러싼 교통로로서 연천지역의 기능을 검토하고, 고려-거란 전쟁과 관련하여 연천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는 고려후기 연천지역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감무가 설치되고 연천지역 대부분이 경기에 소속되는 양상을 검토하고, 임진나루가 새로 개척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통행로와 군사로서 기능하는 장단나루를 중심으로 연천지역의 모습을 설명하며, 왜구의 침략과 약탈로 도움을 내륙으로 옮기려는 시도 속에서 연주가 천도의 후보지가 되었던 사정을 살펴볼 것이다.

I. 나말여초 궁예·왕건의 활동과 연천지역

1. 궁예의 철원 진출과 연천지역

1914년 3월 1일에 조선총독부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규정에 따라 연천군은 연천군의 동면·군내면·남면·북면·관인면, 삭녕군의 군내면·서면·남면·동면, 적성군의 남면·동면·서면, 마전군의 군내면·동면·서면·강신면·북면·장신면·하신면, 양주군의 영근면, 장단군의 고남면, 토산군 일부가 통합되면서 성립했다(조병로, 2000). 당시 연천군에 포함된 지역 중에 규모가 컸던 곳은 연천(漣川)·삭녕(朔寧)·적성(積城)·마전(麻田)으로 이들 지역이 연천군의 중심 지역이 되었는데, 이러한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변화를 거쳐 오늘날 연천군이 되었다.

이로 보면 연천지역은 조선시기에 연천·삭녕·적성·마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삭녕은 1403년(태종 3)에 태조비 신의왕후의 외향이라 하여 지군사로 삼고 승령(僧嶺)을 소속시켜 규모를 크게 했다. 1414년에 안협현을 혁파하여 내속시키면서 삭녕군의 규모가 더 커지자 안삭군으로 개칭했다. 1416년에 다시 안협현을 독립시켜 현감을 두면서 삭녕군으로 복구했다.¹⁾ 조선의 삭녕군은 고려의 삭녕현과 승령현을 합친 것이다. 그러므로 연천지역은 고려시기에는 장주·삭녕·승령·적성·마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5개 지역은 서로 이웃한 고을이었기 때문에 고려 역사의 전개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연천군의 지리 공간적 범주에 대한 고려시기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므로 이들 장주·삭녕·승령과 적성·마전을 모두 검토할 것이며, 이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는 연천지역이라 부를 것이다.

고려초기 연천지역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신라 말에 이들 지역이 지방통치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라시기 연천지역의 통치구조가 나말여초의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고려초기에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고, 이러한 점은 연천지역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라의 지방통치에서 연주지역이 어떻게 편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자. 신라는 통일기에 9주 아래에 각각 영군과 영현을 설치하는 형태로 지방통치체도를 정비 운영했다(이인철, 1993). 연천지역은 한주(漢州)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경덕왕대 영속관계를 보면 철성군 아래에 동량현(幢梁縣)[고려의 승령]·공성현(功成縣)[장주], 내소군 아래에 중성현(重城縣)[적성]·파평

1)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철원도호부, 삭녕군.

현, 토산군 아래에 안협현·삭읍현(朔邑縣)[삭녕]·이천현, 우봉군 아래에 임강현·장단현·임단현(臨端縣)[마진]을 두었다.

이를 보면 경덕왕대에 연천지역은 군(郡)이 아니라 현(縣)에 편성되어 군현제의 운영과 관련된 주-군-현의 영속관계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였다. 영속관계도 동량현과 공성현이 철성군에 함께 소속되었을 뿐 나머지 고을은 각각 내소군·토산군·우봉군에 따로 소속되어 있어, 신라 통일기의 연천지역은 서로 다른 영속관계로 흩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이 지역은 삼국통일 전쟁기에는 중요한 전쟁터였다. 임진강의 칠중하를 사이에 두고 칠중성과 호로그루가 위치하여 신라와 고구려, 신라와 당나라가 전투를 벌인 중요한 전쟁터였다(전덕재, 2016). 이들 칠중성 및 호로그루와 관련된 장단현과 증성현[적성]이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이다(정요근, 2005).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삼국이 통일된 후에 연천지역은 수도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정치 군사적 위상이 약화되었다. 그러다가 신라의 패강진 개척과 관련하여 경주에서 평주로 가는 교통로로서 장단현과 증성현을 연결하는 임진강의 장단나루가 크게 활용되었다.

나말여초는 귀족사회의 분열과 왕위쟁탈전, 지배층의 수탈과 농민층 몰락, 유망의 확산과 도적의 발생, 골품제의 폐기와 새로운 질서의 추구 등으로 국가 사회가 몰락해 갔던 반면에, 호족들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자위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사회로 전환되고 있었다(노명호, 2009). 연천지역은 신라 통일기의 통치구조 속에서 위상이 높지는 않았지만 나말여초에 이들 역시 지역 단위의 자위공동체를 형성하고 호족들이 자치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의 외곽에서 후백제, 태봉, 그리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연천지역의 위상이 변화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태봉이 철원에, 고려가 송악에 도읍을 하여 한반도의 중부 지역이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궁예는 신라 헌안왕 또는 경문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죽임의 위기에서 살아났다(조인성, 2007; 이재범, 2007).²⁾ 젊은 시절 영월의 세달사에서 승려로 생활하다가 까마귀가 떨어뜨린 상아에 새겨져 있던 '왕'자의 도참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당시 진성왕의 실정과 중앙 정부의 수탈로 인해 지방 세력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나 신라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대에 편승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궁예는 891년 죽주 세력인 기훤(箕萱)의 부하로 들어갔으나 기훤의 호의를 얻지 못해 세력을 키우지는 못했다.

2) 『삼국사기』 권50, 열전 10, 궁예.

이에 궁예는 892년 복원(원주)을 기반으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양길(梁吉)의 휘하로 들어갔다. 양길은 그를 신임하여 군사를 내주었고, 궁예는 주천, 나성[영월], 울오[평창], 어진[울진] 등을 정복하고, 894년 6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명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궁예의 군사는 3천5백 명으로 늘어났고 군사들의 신임을 얻어 장군으로 추대되었다. 당시 호족들은 성주 또는 장군으로 불렸으므로(윤경진, 2001; 최종석, 2004) 궁예가 장군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은 양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궁예는 895년 저족[인제], 성천[화천], 부약[김화], 금성을 정복하고 철원으로 진출했다. 궁예가 이처럼 세력을 크게 떨치자 그와의 대립을 피하고자 했던 패서 호족인 박지윤 세력이 궁예의 휘하로 들어왔다. 궁예는 896년 철원을 도읍으로 삼았고 개국하여 왕이 될 수 있겠다고 자부하면서 중앙과 지방에 관직을 두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송악 호족인 왕융과 왕건 부자도 항복해 왔다. 이해에 궁예는 승령현과 임강현을 공격했고, 897년에는 인물현[덕수]이 항복해 왔다.

이처럼 연천지역은 궁예가 철원으로 진출하면서 궁예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삼국사기』 지리지, 철성군 조항을 보면, 철성군[철원]은 고구려의 철원군으로 경덕왕이 철성군으로 개칭한 지역이다. 아래에 동량현과 공성현 2개의 영현을 거느리고 있었는데,³⁾ 동량현은 고려의 승령현이고, 공성현은 장주였다. 이로 보면 철성군이 궁예의 휘하에 들어가면서 연천지역도 그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궁예는 896년 철원에 도읍하고 같은 해에 동량현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량현이 공격을 받은 것은 철원이 궁예에게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량현은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공성현에 대한 공격 언급이 없는 것은 궁예가 철원으로 진출하자 그에게 항복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철성군의 영현이라 해도 지역 사회가 독자적으로 자립을 추구하는 나말여초의 상황에서 공성현과 동량현의 호족 세력은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다. 철원이 함락되었을 때에 공성현은 같이 항복했으나 동량현은 버티다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천지역은 철원과 함께 궁예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성현과 동량현이 도읍인 철원과 함께 궁예의 세력권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정치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궁예가 897년 송악 호족들을 활용하기 위해 왕융의 권유를 받아들여 송악으로 천도했기 때문이었다. 철원이 도읍으로서 영향력이 커지고 공성현과 동량현이 철원을 호위하는 방식의 통치제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궁예는 송악으로

3) 『삼국사기』 권35, 잡지 4, 지리지 2, 신라, 철성군.

천도했고(이재범, 2005), 그래서 철원과 함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던 기회가 없어진 것이었다.

궁예가 철원에 도움을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자 송악으로 천도했던 것은 송악 지역과 패서 지역의 호족 세력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하여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궁예는 송악에 도읍한 후에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공암, 검포[김포], 혈구[강화]를 격파했고, 이러한 진출을 견제하려 했던 양길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결과 궁예는 남쪽으로 세력을 더욱 떨칠 수 있게 되었다. 898년 왕건의 군사적 활약에 힘입어 전주·양주를 공략했고, 900년 광주와 당성을 장악하여 한강 하류를 확보했으며, 국원[충주]까지 차지하면서 후삼국의 쟁패에서 궁예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궁예가 한강 이남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연천지역의 호족들이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양주·전주에 대한 공격을 기점으로 태봉의 남하에 왕건의 전투 역량이 크게 발휘되었다. 이는 영토 확장에서 송악 호족이나 패서 호족의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비해 철원 인근의 연천지역 호족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토가 확장되고 정치력이 성장하자 궁예는 901년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으로 칭했고, 반신라 정책을 표명하고 부석사에 행차하여 신라왕의 초상을 칼로 찢기도 했다. 904년에 국호를 마진이라 하고, 연호를 무태라 했으며, 광평성을 비롯한 관료제를 정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궁예는 송악 호족과 패서 호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래서 청주인 1천 명을 철원에 옮기고 다시 도읍으로 삼고, 905년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송악에 도읍한 이후 영향력이 커져갔던 송악 호족이나 패서 호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조치였다.

철원으로 다시 도읍을 옮긴 이후 궁예는 상주 등 30여 성을 차지하였고, 공주장군 홍기(弘奇)와 평양성주 검용(黔用)이 항복해 올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패서 지역을 13진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라를 멸도(滅都)라고 부르고 신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등 반신라 정책을 분명히 했다. 911년에 국호를 태봉, 연호를 수덕만세라 했다. 또한 미륵불이라 자처하고 915년에 신통력이 있다고 하며 부인 강씨가 간통했다고 죽이기도 했다. 결국 918년 왕건의 휘하 장수들이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를 건국했다.

그런데 궁예는 말년에 사람들을 의심하여 죽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양[평강]·철원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철원으로 다시 천도한 것이 처음에는 철원의 정치적 위상을 높인 것이었다고 해도, 궁예가 반신라 정책과 미륵불을 자처하며 자의적인 정치를 행하면서 도리어 위협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부양·철원 사람들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은 철원과 가까운 인근 지역의 피해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철성군의 영현이던 공성현과 동량

현 역시 송악에서 철원으로의 천도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태봉 말년에 정치적으로 불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연천지역의 호족들은 고려의 건국을 지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려 건국과 연천지역의 위상 변화

고려 건국 이후 후삼국의 전쟁은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에서 이루어지면서 연천지역이 직접 전장이 되지는 않았으나 군사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고려의 군사들이 견주와 양주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개경으로 돌아올 때에 빈번하게 이용한 지역이 삼국통일 전쟁기와 신라 통일기에 널리 활용된 장단나루였다.

왕건은 태봉 시절에 한강 이남의 진출과 영토 확장, 후백제와의 전투에 커다란 활약을 했다. 뿐만 아니라 고려 건국 후에도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김명진, 2014). 이때 왕건은 상당수 장단나루를 거쳐 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왕건이 장단나루를 이용했던 것은 『고려사』 지리지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장단나루, 강가 양쪽에 푸른 석벽이 수십 리에 걸쳐 서 있는데 바라보면 그림 같다. 세상에 전하기를 태조가 행차하여 노닐던 땅이라 하는데, 민간에는 아직도 그 노래가 전한다.⁴⁾

왕건이 행차하여 노닐던 땅으로 기억되며 조선 초기에도 민간에 그와 관련된 노래가 전하던 곳이 장단나루였다. 임진강을 건너 연전연승한 왕건의 군사 활동과 행차하여 노닐었던 자취가 오랜 기억의 전승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은 태조대에 이루어진 연천지역 고을들의 지명 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고려에 들어 공성현을 장주(漳州), 삭읍현을 삭녕현(朔寧縣), 동량현을 승령현(僧嶺縣)으로, 고려초에 증성현을 적성현(積城縣), 임단현을 마전현(麻田縣)으로 개편한 것으로 나타난다.⁵⁾ 이들 개편 시기가 고려 또는 고려초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태조대에 개칭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읍호의 변천과 함께 읍격의 변화가 보이는데, 다른 고을은 현의 읍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공성현은 장주로 개편하여 차이가 난다. 태조대에 주(州)의 호칭 부여는 고려에

4)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개성부, 장단현.

5)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 개성부, 적성현; 마전현: 권58, 지리지 3, 교주도, 동주, 장주현; 삭녕현; 승령현.

귀부하거나 협조한 호족들의 지위를 올려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는데(김갑동, 1986), 그렇다면 장주의 호칭은 고려의 건국이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이 지역의 호족세력이 고려에 적극 호응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라 경덕왕 이래로 연천지역을 관할했던 영군들이 태조대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보면 철성군은 태조가 즉위하여 도움을 송악으로 옮기면서 동주(東州)로 고쳤고,⁶⁾ 내소군은 고려초에 견주(見州)로, 토산군과⁷⁾ 우봉군은 그대로 사용했다. 다시 말해 종래의 영군들도 모두 주의 호칭을 받은 것은 아닌 상황에서 공성현이 장주가 되면서 영군이던 동주와 같은 주의 호칭을 받았다는 것은 장주의 호족세력이 고려에 호응한 정도가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태조가 주부군현의 명칭을 개편하면서도 신라의 군현제를 그대로 채택하여 군과 현 사이에 영속관계를 설정하여 운영했다고 하므로(윤경진, 1996), 비록 통일전쟁의 와중에 호족들이 지역 단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각자 역량을 발휘했다고 해도 현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연천지역의 경우에 그들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주의 위상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나말여초의 사회변동 속에서 호족들은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일으켰고 역사의 중심지는 신라의 경주에서 태봉의 철원과 고려의 개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원과 개경 가까이 위치한 연천지역의 정치적 위상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보이는 공성현은 장주로 개편되었다.

6) 『고려사』 권, 지리지 3, 교주도, 동주.

7) 토산(兔山)은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표제어가 토산군으로 나타나는데, 『고려사』 지리지는 표제어가 토산현으로 되어 차이가 난다. 그런데 고려시기에 토산군을 토산현으로 개편하였고 990년(성종 9)에 토산현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개편 시점이 나타나지 않아 태조대에 개편된 것인지 알 수 없다.

II. 고려전기 연천지역의 성장

1. 지방통치제도의 정비와 연천지역

1) 성종대 개성부 성립과 연천지역

고려는 성종-현종대에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수립하면서 지방통치제도를 정비했다. 그런데 지방통치제도의 형태가 중앙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치를 존중하고 지역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나말여초에 지방사회에서 이루어진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지방통치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신라말 중앙의 지배체제가 약화되고 지역세력이 자립하면서 지역 단위의 자위공동체가 성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삼국이 건국되고 후백제와 태봉, 후백제와 고려가 중심이 되어 통일전쟁이 이루어졌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지역세력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통일 후에도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일방적인 수립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사정은 광종과 경종대를 거치면서 중앙으로 진출한 호족세력이 상당히 약화된 성종대도 마찬가지였다. 성종은 3성 6부의 관료제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수립하면서도 지방통치제도의 구축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입장과 자치를 존중하였다. 이러한 점은 연천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종이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고려의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983년(성종 2)에 12목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변태섭, 1968). 최승로가 시무책에서 향호(鄉豪)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한 건의를 수용한 것이었다.⁸⁾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사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를 구현하기에는 12개의 지역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12목에 설치된 지방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성종대 지방통치제도는 많은 지방관을 파견하여 전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성종은 지방관을 파견한 해인 983년에 주부군현의 이직(吏職)을 개편했다. 나말여초 이래로 지역세력들의 독자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된 관반(官班)을 지방사회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향리제로 개편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종은 지방관을 파견하면서도 전국의 지방을 모두 직접 통치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세력을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자치적 성격을 존중하면서 향리로 개편했던 것이다. 이로써 983년의 연천지역은 장주

8) 『고려사』 권93, 열전 6, 최승로.

의 주(州)이든, 삭녕현·승령현·적성현·마전현의 현(縣)이든 읍격과 상관없이 지방관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지역세력들이 향리로 개편되어 지역을 통치하고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연천지역의 지역적 위상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995년(성종 14)의 지방통치제도 개편이었다. 성종은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태조대의 개주(開州)를 개성부(開城府)로 고쳐 적현(赤縣) 6개와 기현(畿縣) 7개를 관할하게 했고, 관내도·중원도·하남도·강남도·영남도·영동도·산남도·해양도·삭방도·패서도 등 10도를 두고 아래에 128주·449현·7진을 관할하게 했다.⁹⁾ 이들 중에 패서도에 소속된 14주·4현·7진을 제외한 나머지 9도는 주와 현만 두는 형태로 주현제를 운영했는데, 주는 독립된 단위군현이 아니라 몇 개의 현을 관할하는 상위영역으로 존재했다(윤경진, 2001). 그리고 주에는 절도사·도단련사·단련사·방어사·자사 등의 군사적 성격의 지방관을 포함하여 64곳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연천지역의 변화는 우선 개주를 개성부로 개편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고려는 건국한 다음 해인 919년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 남쪽으로 옮기고 송악군과 개성군에 걸쳐 도읍을 정하여 개주라고 하고 이곳에 궁궐을 창건하고 시전을 만들었다. 성종은 이러한 개주를 개성부로 개편하고 아래에 적현과 기현을 두었는데, 적현은 수도 개경이 위치한 송악현과 송림현·강음현·개성현·덕수현·임진현으로, 기현은 정주·장단현·임강현·토산현·마전현·적성현·파평현으로 구성하였다(윤경진, 2009; 박종진, 2017). 이렇게 되면서 개성부는 수도인 개경과 적현, 기현을 관할했다.

이들 개경을 호위하는 개성부의 지리적 공간은 동쪽으로 임진강, 서쪽으로 예성강, 남쪽으로 조강, 동남쪽으로 감악산과 파평산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예성강과 임진강, 조강의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은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고려 시기 내내 개경을 호위하는 범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적현은 대부분 태조 이래로 개주의 관할 아래 있던 고을이고, 기현은 신라 경덕왕대 군현제에서 한주(漢州) 소속으로 영속관계가 규정된 고을이었다. 내소군 아래의 증성현[적성현]·파평현, 토산군, 우봉군 아래의 임강현·장단현·임단현[마전현] 등이 그들이다.

주목할 것은 연천지역인 마전과 적성이 기현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비록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않았으나 신라의 외곽 지역에 있다가 개경이 역사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개경을 관할하는 개성부에 소속된 기현의 위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신라 군현제에서 연천 지역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던 토산군도 토산현이 되어 기현에 함께 속해 있는데, 이는 나말여초의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개성부가 설치된 시점에서 본다면 마전·적성과 토산 사이에 차별을

9)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4년 추7월.

둘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고려로 들어와 지방통치제도 상 마전·적성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천지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995년의 지방통치제도에서 군사적 성격의 지방관이 파견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연천지역 가운데는 개성부 소속의 마전·적성은 물론 삭녕·승령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반면에 장주에는 단련사가 설치되었다. 장주가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태조 이래로 연천지역을 관할하던 동주·견주·토산군·우봉군의 경우도 동주만 단련사가 설치되었고 다른 지역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태조대에 동주(東州)와 함께 주(州)의 읍격을 받았던 장주(漳州)는 995년에도 함께 단련사가 파견되는 고을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연천지역은 신라의 외곽 지역에 있다가 고려로 들어와 995년을 기점으로 마전·적성은 개성부의 기현으로 소속되고, 장주는 지방관인 단련사가 설치되면서 고려의 지방통치체제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고려시기 연천지역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다.

2) 현종대 경기의 형성과 연천지역

하지만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만든 이러한 지방통치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995년의 주현제는 거란의 침략을 계기로 지방관의 파견을 늘려 지역사회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었으나 집권력의 한계로 지방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영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윤경진, 2001). 결국 1005년(목종 8) 절도사·도호부사·방어사를 남기고 도단련사·단련사·자사 등을 폐지했고 이렇게 되면서 장주에 파견된 단련사도 함께 없어졌다.

1012년(현종 3) 절도사를 폐지하고 5도호와 75도안무사로 개편했고, 1018년에는 안무사도 없애고 대신 4도호·8목·56지군사·28진장·20현령을 설치하면서 지방통치제도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렇게 되면서 고려의 지방통치제도는 군사적인 성격에서 민사적인 성격으로 크게 바뀌었고 지방관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는데, 이러한 지방통치제도 운영의 핵심 원리는 주현과 속현 제도였다.

주현과 속현 제도는 전국의 고을마다 설치된 읍사(邑司)에 소속된 향리들이 지역실무를 담당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들 고을을 지방관을 파견하는 주현(主縣)과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는 속현(屬縣)으로 구분하고 주현이 몇 개의 속현을 묶어 관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통치제도였다(박종진, 2017).

이러한 배경에서 연천지역에 소속된 고을의 위상도 달라졌다. 개경을 둘러싼 지역도 주현과 속현 제도로 편제되면서, 개성부를 폐지하고 송악현에 위치한 개경을 독립하여 편제하는 동시에 개성현과 장단현에 현령을 설치하여 주현으로 만들고, 개성현 아래에 정주·덕수현·강음현

등 3개 고을을, 장단현 아래에 송림현·임진현·토산현·임강현·적성현·파평현·마전현 등 7개 고을을 각각 속현으로 두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경기(京畿)의 명칭으로 편제하고 상서도성이 관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서 적성·마전은 장단현의 관할을 받으면서 수도 개경을 호위하는 경기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995년에 단련사를 설치했던 동주 역시 1005년에 단련사를 폐지했다가, 1018년에 지동주사를 설치하여 주현으로 만들고 아래에 김화군·삭녕현·평강현·장주·승령현·이천현·안협현·동음현 등의 속현을 두었다. 이렇게 되면서 연천지역인 장주·삭녕·승령은 동주에 소속되었다. 다시 말해 연천지역은 1018년 지방통치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경기도에 속한 장단현의 속현인 적성·마전 영역과 교주도 소속 동주의 속현인 장주·삭녕·승령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경기에 속했던 적성·마전은 1062년(문종 16) 개성부의 설치로 영속관계가 또다시 변화되었다. 당시 개성현을 개성부로 개편하고, 개성현 아래에 있던 정주·덕수현·강음현과 장단현과 그 아래에 있던 송림현·임진현·토산현·임강현·적성현·파평현·마전현 그리고 서해도 평주의 속현이던 우봉군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를 관할하게 했다. 수도 개경을 둘러싼 경기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달로 이들을 함께 묶어 관할할 필요가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경기의 장단현 아래에 속하여 기현으로 편제되었던 적성·마전은 개성부의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다.

2. 교통로로서 장단나루와 연천지역

1) 성종대 역로망의 형성과 연천지역

연천지역은 파주지역에 설치된 칠중성과 임진나루에 비견되는 호로그루와 장단나루가 위치한 군사 교통 요충지였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군사적 비중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패강진이 개척되면서 내소군에서 임진강을 건너 임강현을 거쳐 토산군이나 우봉군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후삼국 통일전쟁기에는 태봉과 고려가 남하하는 군사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후삼국통일로 전쟁이 끝나자 연천지역은 군사로서 기능하지는 않았으나 개경 인근에 위치한 까닭에 교통로로서 비중은 더욱 주목받았다. 고려는 후삼국통일 이후 신라와 후백제의 영토는 물론 새로 개척하는 북방 지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역로망을 확충해 갔다. 그러나 건국 초기는 국가 차원에서 역로망을 일원적으로 관할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승려들이 사적으로 이용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로망을 정비한 것이 성종이었다(정요근, 2008; 한정훈, 2013).

성종은 역로망을 일원적으로 정비하고 편제했다. 983년(성종 2) 외국 사신이나 지방 사행

등과 같은 공무에 오고가는 도로의 이용도에 따라 역로(驛路)를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로 구분하고, 해당 도로의 역(驛)이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의 토지를 차등 있게 지급했다.¹⁰⁾

당시에 소로는 전국의 도로에 지정했지만 대로와 중로는 양계 지역과 개경에서 서북면의 서경과 동북면의 등주까지의 도로에만 지정했다. 건국 이후 북방 진출과 영토 확장, 여진·거란과의 접촉으로 양계 지역의 외교 군사적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개경에서 등주로 가는 교통로에 연천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성종이 처음 역로망을 정비하던 시기부터 연천지역은 교통로로서 중요하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거란과 전쟁이 발발하여 군사적 필요가 크게 대두하자 성종에서 현종 초반까지 양계지역의 역로망을 강화하여 이른바 6과체제로 정비했다(여은영, 1982). 6과체제는 개경에서 양계까지 149개 역을 대상으로 역역을 담당할 정호(丁戶)의 많고 적음에 따라 6과로 구분하는 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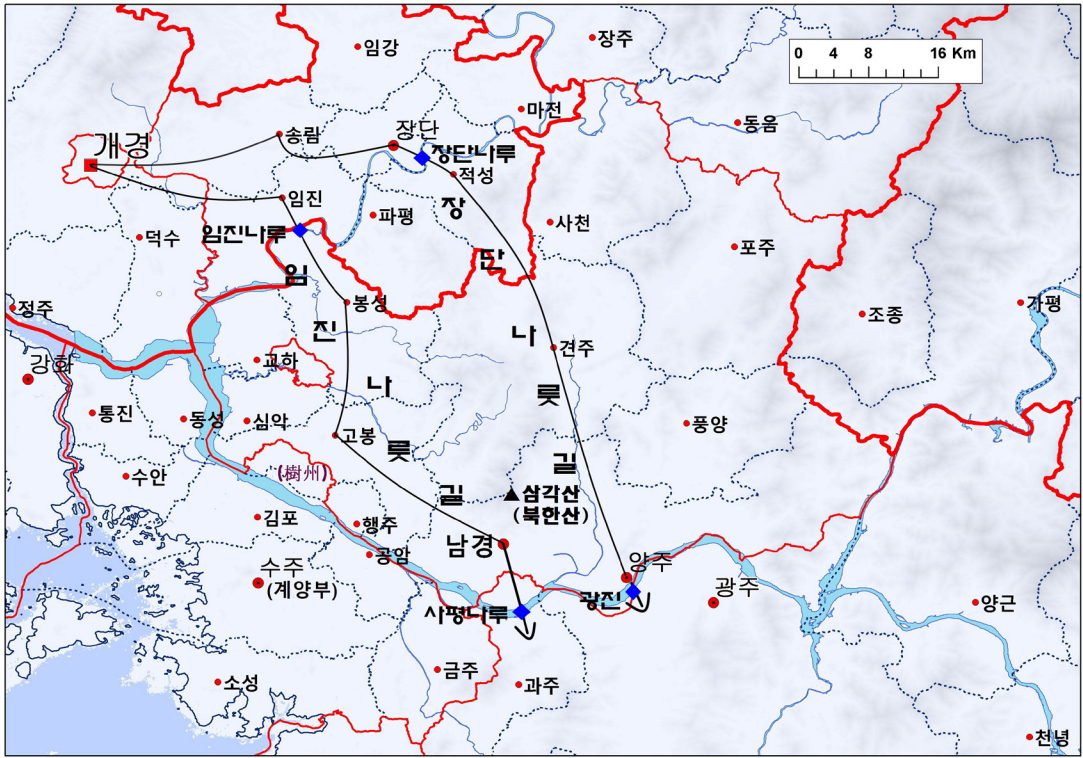
1과는 75정(丁)이 배치된 개경에서 서경까지 역이고, 2과는 60정이 배치된 서경에서 흥화진(興化鎭)까지 역이며, 3과는 45정이 배치된 개경에서 화주(和州)까지 역과 북계의 귀주(龜州) 등의 역이고, 4과는 30정이 배치된 서경에서 연주(連州)까지 역과 교주(交州) 인근의 역이다. 그리고 5과는 12정, 6과는 7정이 배치되어 양계·서해도·교주도·양광도 등지의 역에 설정했다. 1과-4과의 역이 주로 군사적 행정적 비중이 컸던 개경과 양계 지역에 걸쳐 있었다면 5과-6과는 그보다 비중이 낮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연천지역은 개경에서 화주까지 연결된 3과에 옥계역[장주]이, 6과에 승령현역과 삭녕현역이 배치되어 있었다. 옥계역은 개경에서 동주를 거쳐 화주로 가는 간선도로에 있었고, 승령현역과 삭녕현역은 간선도로에서 벗어난 지선도로이자 우회로였다. 다만 6과체제는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개경에서 양계까지 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도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6과체제가 개경과 양계 지역의 역을 중심으로 정비되었다고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교통로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개경에서 장단을 거쳐 적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중요성은 여전히 컸다. 1001년(목종 4) 11월 목종은 지역을 순행하며 증원부[충주]에 행차했다.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단에 도착하자 그곳이 시중 한언공(韓彦恭)의 본관이라 하여 단주(端州)로 승격시켰다. 증원부에서 장단을 거쳐 개경으로 올라오는 길은 적성에서 장단으로 넘어가는 장단나루를 거치는 교통로였다.¹¹⁾ 장단나루를 활용한 길은 이 시기에도 국왕의 행차에

10) 『고려사』 권78, 식화지 1, 전제, 공해전시.

11) 『고려사절요』 권2, 목종 4년 동11월.



[그림 1] 장단도로와 임진도로

(전거: 정요근, 2018, 「남경의 영역과 남경으로 통하는 길」 『쉽게 읽는 서울사-고려편』, 서울역사편찬원, 61쪽)

이용되는 중요한 교통로였던 것이다.

고려는 6과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525역을 22역도로 정비하였다(한정훈, 2002). 22역도는 통일신라와 후삼국시기 이래로 성립되고 성종-현종대에 제도적 정비를 거친 교통로와 이후 새로 편입된 영토의 교통로를 모두 포함하는 12세기 전반에 완성된 전국적인 역로망 운영체제였다. 기본적으로 개경과 역도 내의 대응을 연결하는 직로(直路)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북방지역은 거란과 여진을 방어한다는 군사적 목적에 대비하고, 남방지역은 계수관, 주현과 속현으로 이루어진 지방통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행정적 목적을 충족시키려 했다.

22역도는 개경을 중심으로 X자형 역로망을 형성하였다. 개경 이북의 서북쪽은 금교도-절령도-흥교도-흥화도, 동북쪽은 도원도-삭방도, 개경 이남의 동남쪽은 청교도-광주도-경구도-상주도-경주도, 서남쪽은 청교도-충청주도-공전주도-승나주도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왕의 행차, 사신의 왕래, 군대의 출정, 외관의 파견 경로였는데, 특히 개경에서 서경까지 역로인 개경-평주-절령을 연결하는 금교도(金郊道)와 절령-서경을 연결하는 절령도(岫嶺道)가 가장 중시되

었다(정요근, 2008).

연천지역은 개경에서 동북면으로 개경-장단-동주-교주-철령으로 연결되는 도원도(桃原道)와, 개경에서 남쪽으로 개경-임진-남경 또는 개경-장단-적성-견주-남경을 연결하는 청교도(靑郊道)에 포함되었다. 도원도에 포함된 역으로는 옥계역[장주]·삭녕역·봉곡역[승령] 등이 있었고, 청교도에 포함된 역으로는 단조역[적성]이 있었다.

역로망 가운데 개경에서 서경으로 가는 금교도·철령도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개경에서 동북쪽으로 연결되는 도원도와 개경에서 남도로 내려가기 위해 경유하는 남경까지 연결되는 청교도의 위상도 결코 낮지 않았다. 특히 개경의 중앙 관청에서 지방의 고을에 공첩(公貼)을 보낼 때는 상서성에 보고하여 가부를 확인받은 후에 반드시 청교도의 출발점인 청교역을 거쳐 내려 보냈다.¹²⁾ 그만큼 청교도의 비중이 중요하였다. 연천지역은 개경에서 동북쪽이나 남경으로 출발하는 중요한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청교도에서 개경-장단-적성-견주-남경으로 내려가는 장단나루를 건너는 도로는 고려 전기까지 남도로 내려가는 교통로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문종 이후 경기 지역의 개발이 진전되고 남경이 새로운 거점으로 설치되면서 개경-임진-봉성-고봉-남경으로 이어지는 보다 빠른 교통로인 임진나루를 건너는 도로가 새롭게 운영되었다. 이렇게 해서 임진나루가 개경에서 남방지역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교통로가 되면서 장단나루의 비중은 약화되었다. 하지만 장단나루는 비중이 낮아졌을 뿐 폐기된 것은 아니었고 임진나루의 우회로나 군사로서 계속 활용되었다(정요근, 2005). 교통의 중심지로서 연천지역의 위상은 여전히 높았던 것이다.

3. 고려-거란 전쟁과 연천지역

1) 동아시아 정세와 거란의 침략

907년 당의 멸망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크게 요동쳤다. 5대 10국의 시대가 열렸고 북방 민족이 크게 성장하였다. 936년 후진은 거란의 도움을 받아 후당을 멸망시켰는데 거란이 후진의 석경당(石敬瑭)을 황제로 책봉하자 후진은 연운 16주를 제공했다. 이는 이후 중원을 통일한 송과 거란의 전쟁에 불씨가 되었다. 당시 고려는 후삼국 통일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했고, 태조는 거란에 의해 멸망당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유민을 이끌고 오자 그들을 포용했다(추명엽, 2017; 이미지, 2018).

고려는 건국 이후 북진정책을 시행하여 서경 이북으로 영토를 확장해갔고 청천강을 넘어 압

12) 『고려사』 권82, 병지 2, 참역.

록강으로 향했다. 이러한 북진정책은 태조대만 해도 우호 관계에 있었던 여진과 고려 사이에 긴장 관계를 만들었다. 성종은 984년(성종 3) 압록강 유역을 확보하기 위해 강변에 성을 쌓다가 여진의 반발을 받았다. 압록강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자 고려는 여진을 더욱 경계했다(최덕환, 2012). 여진은 거란이 내분으로 압록강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력을 확대하여 거란과 대립하고 있던 송과 무역을 했고 거란 영토를 침범하기도 했다. 그래서 거란은 여진을 공격하여 986년 포로 10여만 명, 말 20여만 필을 획득했다. 여진의 피해가 컸다.

송이 증원을 통일한 후 연운 16주를 회복하기 위해 거란을 공격하면서 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985년 송은 거란을 공격하기 위해 고려에 군사를 요청했으나 고려는 시간을 끌며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이에 송은 986년 거란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패배하면서 거란 관계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송은 991년 거란에 보복하기 위해 군사를 요청하는 여진의 요구에 답하지도 않았다(추명엽, 2017). 이렇게 되자 여진도 혼자 힘으로 거란을 적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993년(성종 12) 거란의 소손녕이 고려를 침략했다.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소손녕은 80만 대군으로 자칭하며 고려를 침략했다(안주섭, 2003).¹³⁾ 거란의 1차 침략이다. 고려는 시중 박양유(朴良柔)를 상군사, 내사시랑 서희(徐熙)를 중군사, 문하시랑 최량(崔亮)을 하군사로 임명하여 출정군을 편성했다. 고려의 선봉군이 봉산군에서 거란과 싸웠다가 패배하자, 성종은 서경을 거쳐 안북부[안주]까지 행차했다가 다시 서경으로 돌아왔다. 서희가 봉산군에 나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소손녕이 항복을 요구했다.

고려는 군신회의에서 항복론과 할지론이 제기되었고, 성종은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주고 황주에서 절령까지 지역을 변경으로 삼자는 할지론을 선택했다. 그러다가 서희와 이지백이 항전론과 강화론을 제시하자 성종은 이를 수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손녕이 청천강을 건너 안용진을 공격했다가 고려에 패배했다. 소손녕이 주춤하는 사이에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 회담이 열렸고 고려는 압록강 인근의 여진을 몰아내면 조회를 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거란의 양해하에 강동 6주를 개척하고 거란과는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거란 1차 전쟁은 청천강 인근에서 전투가 끝나 거란군은 개경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연천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고려는 994년에 거란 연호를 사용하는 동시에 거란에 보복하기 위해 송에 군사를 요청했다. 송이 허락하지 않자 고려는 송과 국교를 단절했고, 996년에는 거란의 책봉을 받았다. 1004년 거란이 송을 공격하여 전연의 맹약이 체결되었고, 송은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냥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제질서에서 거란의 우위가 확인되자 거란은 1010년(현종 1) 강조의 정변을

13) 동경유수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자칭했으나 동경유수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최대 6만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분으로 40만 대군으로 다시 고려를 침략했다.

2) 강조의 정변과 현종의 남행

1009년(목종 12) 연등회 때 대부시의 기름 창고에 불이 난 것을 계기로 목종은 병이 나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목종의 병이 심각해지자 재상들을 비롯한 신료들이 대기해 있었는데 무엇보다 왕위계승의 문제가 심각했다. 목종은 종실 흥덕원군 왕규(王圭)의 딸 선정왕후와 궁인 김씨가 있었으나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목종의 모후 천추태후가 김치양(金致陽)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추대하려 했으나 목종은 대량원군을 태조의 유일한 혈통이라고 하면서 후계자로 삼고자 했다. 또한 목종은 천추태후의 동향에 위기를 느끼고 서북면도순검사 강조(康兆)를 불러 궁궐을 호위하게 했다. 강조는 김치양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생각하여 개경으로 군사를 이끌고 와서 김치양 세력과 천추태후의 족당을 제거했다. 그리고 목종을 폐위하고 대량원군을 옹립했다. 현종이었다.

목종은 천추태후와 함께 궁궐에서 나와 충주로 향했다. 어항인 나주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목종과 천추태후는 개경에서 나와 장단(長湍)에서 장단나루를 건너 적성(積城)으로 내려갔다. 목종이 적성에 도착했을 때에 강조가 관료를 시켜 독약을 바치니 목종이 먹지 않으려 했다. 관료는 호종하던 중금(中禁)을 시켜 살해하고 강조의 지시대로 목종이 자살했다고 보고했다. 중금군은 문짝을 뜯어 관을 만들고 객사에 빈소를 차렸고 적성현 남쪽에서 화장을 했다.¹⁴⁾ 이렇게 해서 적성은 고려 목종이 시해된 비극의 고을이 되었다. 목종이 사망하자 천추태후는 본관인 황주로 돌아갔다.

강조의 목종 살해는 거란 성종(聖宗)이 고려를 정벌하는 명분이 되었다. 거란의 침략이 현실화되자 1010년 10월 고려는 참지정사 강조(康兆)를 행영도통사, 이부시랑 이현운(李鉉雲)과 병부시랑 장연우(張延祐)를 부사, 검교상서우복야 상장군 안소광(安紹光)을 행영도병마사, 어사 중승 노정(盧頌)을 부사, 형부상서 최사위(崔士威)를 통군사로 임명하고 30만 대군을 삼군(三軍)으로 편성하여 통주에서 거란의 공격에 대비했다.¹⁵⁾ 거란 2차 전쟁이었다.

거란은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에서 순검사 양규(楊規)의 저항을 받자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남하했고, 귀주 인근에서는 승리하고 통주에서 강조의 고려군과 대치했다. 강조는 통주성 밖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방심했다가 거란군의 기습을 받고 패배했다. 고려군의 희생이 매우 컸으나 거란은 통주성을 함락하지는 못했다. 거란은 계속 남하하여 광주와

14) 『고려사절요』 권2, 목종 12년 정월.

15) 『고려사』 권4, 현종 원년 10월 병오삭.

안주를 함락했고 이어 서경을 공격했으나 여기서도 항복을 받지 못했다. 거란이 우회하여 개경으로 진격하자 현종은 피난을 결정하고 나주로 내려갔다.

1011년 거란은 개경을 함락하고 태묘, 궁궐과 민가에 방화를 저질렀다. 현종은 하공진(河拱辰)을 보내 거란이 철수하면 국왕이 직접 조회를 하겠다고 했고, 이를 수용한 거란은 개경에서 철수하여 귀주와 흥화진을 경유하여 회군했다. 흥화진의 양규는 거란군이 개경으로 내려간 후에 후방을 공격하여 거란에게 함락된 고을들의 군민을 다수 구출하고 거란이 철수하는 과정에도 타격을 입혔으나 무기가 떨어져 싸우다 전사했다.

이 때 연천지역도 전쟁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갔다. 특히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오는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현종은 장단에서 적성으로 가는 장단나루를 이용해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적성에서 위기에 처했다. 현종과 후비가 개경을 떠나 적성현 단조역(丹棗驛)에 도착했는데 채충순(蔡忠順)·지채문(智蔡文)이 금군 50여 명과 함께 호종했다. 밤에 군졸들이 역인(驛人)과 함께 활시위를 당기며 행궁을 범하려 했다. 중랑장 지채문이 말을 타고 활을 쏘자 도망했고 다시 서남쪽의 산에서 튀어나와 길을 막았으나 이번에도 지채문이 막아냈다.¹⁶⁾ 위기가 이것만은 아니었다. 창화현(견주)에서는 향리가 국왕을 위협했고 말과 안장을 훔쳐갔다. 현종은 양주·광주(廣州)·양성(안성)·천안부를 경유하여 공주에 이르렀고 전주를 거쳐 나주에 도착했다. 거란이 조회를 하겠다는 고려의 뜻을 수용하여 철수하자 현종도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도 같은 교통로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1011년 2월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주에 있을 때였다. 감찰어사 안홍점(安鴻漸)의 건의로 적성의 감악산(紺岳山) 신사(神祠)에 보은의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을 내렸다. 거란군이 장단에 도착하여 임진강을 건너 남하하려 했으나,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치면서 감악산의 신사에 마치 깃발을 든 병사와 군마가 있는 것 같아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일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¹⁷⁾神明(神明)이 도왔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현종이 남하한 장단과 적성을 연결하는 길로 추격해온 거란군을 감악산 산신이 막아냈다는 생각에서 나온 포상이었다(김갑동, 2017).

거란군이 장단과 적성 사이의 임진강을 건너려 했던 것은 임진강 유역에서 이곳이 갈수기(渴水期)에는 도보로도 횡단할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정요근, 2005: 22). 다시 말해 장단나루는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지점이었던 것이다.

사실 거란 성종이 통솔했던 거란군의 본진은 천천히 남하하여 개경에 들어와 있다가 철수했던 반면에, 선봉대는 현종이 양주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창화현까지 추격해와 있었다. 다만

16) 『고려사절요』 권3, 현종 원년 12월.

17) 『고려사』 권63, 예지 5, 길례, 소사, 잡사.

그들은 현종의 위치를 몰랐다. 현종은 양주에서 거란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하고 하공진을 통해 거란 황제에게 표문을 보냈다. 하공진이 선봉대를 찾아가자 거란군이 현종의 위치를 물었다. 하공진은 현종이 강남으로 갔으므로 있는 곳을 알 수 없고 강남은 너무 멀어 몇 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봉대는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¹⁸⁾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현종이 살아났기 때문에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감악산 산신의 극적인 도움이 부각되면서 감악산 신사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원래 감악산은 신라 때에 소사(小祀)로 규정되어 국가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영험 있는 장소로 유명했다. 신라인들이 당의 장수 설인귀를 산신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다는 곳이다(변동명, 2013). 이러한 감악산은 현종대의 사건을 계기로 고려에서도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에서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는 산전은 사전(祀典)에 등록하고 봄과 가을에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를 지냈는데(김철웅, 2007), 감악산도 그러한 제사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고려는 국왕의 친조(親朝)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반면에 거란 황제의 공격을 물리친 고려의 외교 군사적 역량이 확인되면서 여진족과 철리국이 고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왔다(추명엽, 2017). 거란으로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현종의 친조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침략해 왔고, 흥화진·통주·곽주·영주[안북부]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나 그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1018년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왔다. 고려는 평장사 강감찬(姜邯贊)을 상원수, 대장군 강민첨(姜民瞻)을 부원수로 임명하고 20만 8천 명을 삼군으로 편성하여 영주(寧州)에서 대비했다. 거란군은 흥화진을 함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우회하여 삼교천을 통과했다. 이러한 전술을 간파한 강감찬은 소가죽으로 물을 막아 독을 만들어 기다렸다가 터뜨리고 매복시켜 두었던 기병 1만 2천 명으로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거란군은 개경으로 직진하기 위해 고려 출정군이 대기하고 있던 영주를 우회하여 남하했고, 강감찬은 강민첨·조원(趙元)을 보내 이들을 추격하여 내구산·마탄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1019년 거란군이 개경에 가까워지자 강감찬은 김종현(金宗鉉)을 속히 보내 개경 방어를 도왔다. 거란군은 신은현까지 내려왔으나 고려가 청야전술을 사용하며 대비하자 개경 공략을 포기하고 군사를 돌렸다.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므로 동쪽 들판에서 기다리던 강감찬의 고려군이 공격하여 접전을 벌였으나 승패를 알기 어려웠는데, 김종현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크게 승리하였다.¹⁹⁾ 귀주대첩이었다. 이후 고려는 거란 연호를 사용하고 책봉을 받았으나 국제사회에서 고려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18) 『고려사』 권94, 열전 7, 하공진.

19) 『고려사』 권94, 열전 7, 강감찬.

Ⅲ. 고려후기 연천지역의 변화

1. 감무 설치와 연천지역의 변화

1) 예종대 감무파견과 연천지역

연천지역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예종대 감무(監務)의 파견이다(김동수, 1989; 김병인, 1994). 고려는 문종대에 관료제를 크게 정비했으나 이자의(李資儀)의 정변과 숙종의 즉위, 여진 정벌과 실패 그리고 문벌의 성장과 지배층의 인구 증가, 관료 진출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예종 초반에 드러났는데 특히 지방사회의 동요가 컸다.

1105년(예종 즉위)에는 지방관 중에 청렴하여 백성을 근심하고 구휼하는 자가 열에 한둘도 없고 뇌물을 좋아하고 사적 이익을 꾀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므로 백성이 유망하여 열 집에 아홉이 비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다.²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06년 상당수의 속현에 감무가 파견되었는데 연천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얼마 전에 담당 관청이 아뢰기를 서해도의 유주·안악·장연 등의 현에서 사람들이 유망하고 있다고 하므로, 처음으로 감무관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안무하게 했더니 드디어 유민이 점차 돌아왔고 산업이 날로 번성해졌다. 지금 우봉·토산(兔山)·적성(積城)·파평·사천·삭녕(朔寧)·안협·승령(僧嶺)·동음·안주·영강·가화·청송·인의·금성·제주·보령·여미·당진·정안·만경·부윤·양구·낭천 등의 군현에서 사람들이 유망할 형세가 있으니 마땅히 유주의 사례에 따라 감무를 설치하고 불러 위무하라”고 했다.²¹⁾

여기서 감무가 파견되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다. 당시 속현은 주현에 의해 수탈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 감무를 파견하여 지방관의 수탈을 막고 유민을 방지하고 정착시켜 공부(貢賦)를 안정적으로 수취하려 했던 것이다. 이들 고을은 주로 개성부 소속의 경기와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개경과 가까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감무의 파견은 종래의 주현-속현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려의 지방 통치제도는 현종 이래로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主縣)이 아래에 여러 속현(屬縣)을 관할하도

20) 『고려사』 권12, 예종 즉위년 12월.

21) 『고려사』 권12, 예종 원년 하4월 경인.

록 운영되었다. 그런데 감무가 파견된 지역은 비록 지방관이 배속되기는 했어도 속현을 거느리지 않았고, 기존 주현과의 관계에서 속현으로서의 위상도 달라지지 않았다(윤경진, 2000).

연천지역에서 이들 감무가 파견된 고을로는 적성·삭녕·승령이 확인되는데, 당시에 적성현에 감무를 두었고, 승령현은 감무를 설치하여 삭녕현까지 겸하게 했다. 그리고 1108년에도 토산(土山) 등 41개의 현에 감무를 설치했다고 하는데,²²⁾ 감무 설치의 시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은 마전현은 이때 감무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면 개성부 소속의 적성·마전과 동주 소속의 승령·삭녕은 예종대에 감무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무 설치는 예종대에 이어 인종-의종대도 이루어졌으나 감무 파견이 더 많았던 것이 명종대였다. 당시의 감무 설치는 무신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의방 정권기인 1172년(명종 2) 집권무신 이의방(李義方)의 형인 이준의(李俊儀)의 건의로 53개 현에 감무를 설치했고, 정중부 정권기인 1175년과 1176년에도 일부 현에 감무를 설치했다. 주로 양광도와 경상도, 전라도에 많이 파견되었다.²³⁾

그런데 1173년에 3경·4도호·8목부터 군현과 관역(館驛)까지 지방에 무인들을 외관으로 등용하도록 내린 조치를 보면,²⁴⁾ 감무에도 다수의 무신들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신정변 이후 무신들은 3성 6부의 관료제 상의 문반 관직을 받아 국정운영에 참여했고, 나아가 문신들이 임명되던 지방관에도 임명되었다. 명종대 무신들의 지방관 파견은 무신들의 세력 확장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는데 감무의 파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김병인·이바른, 2010).

이때 연천지역도 변화가 있었는데, 정중부 정권기인 1175년(명종 5) 장주(漳州)에 감무를 설치하여 승령현을 겸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승령현은 앞서 1106년에 감무를 설치하고 삭녕현을 겸하게 했었기 때문에 장주에 감무를 설치할 무렵에 승령현의 감무는 폐지되고 장주가 승령현을 관할하도록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예종대에 마전현에 감무를 설치했다가 얼마 뒤에 적성현(積城縣)에 병합했는데,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역시 마전현의 감무는 폐지되고 적성현의 감무가 마전현까지 관할했음을 의미한다.²⁵⁾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도 명종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처럼 명종대의 연천지역은 개성부 소속의 적성과 동주 소속의 장주는 감무가 설치되었던 반면에 승령·삭녕·마전은 감무가 설치되지 않았다.

22) 『고려사』 권12, 예종 3년 추7월 신유.

23) 예종에서 명종까지 감무 설치의 지역 분포를 보면 예종대는 개경 인근의 경기와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가 중심이었다면 인종-의종대는 경상도, 전라도로 확대되고, 명종대는 양광도와 경상도, 전라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4) 『고려사』 권19, 명종 3년 동10월 임술.

25) 『고려사』 오행지에 1289년(충렬왕 15) 8월에 마전현·적성현·흥의역에 홍수가 났다는 기록이 있으므로(『고려사』 권53, 오행지 1, 수), 마전현이 적성현에 병합되었다는 기록은(『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 개성부, 마전현) 마전현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106년(예종 1)에 설치된 적성현의 감무가 이후 마전현까지 관할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충선왕대 장주에서 연주로 개칭

이러한 상황에서 장주(漳州)의 명칭을 연주(漣州)로 개칭했는데, 이는 충선왕의 복위와 관련이 있었다. 충렬왕은 몽골과의 오랜 전쟁을 끝내고 강화를 맺은 원종의 아들로서 원 세조의 사위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몽골과의 전쟁과 삼별초의 봉기를 경험하였다. 국왕이 된 후에는 원의 요구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부원세력을 몰아내 고려의 국가적 독립성과 왕권의 안정을 상당 부분 이루어냈다. 그러나 측근세력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 가 충렬왕의 비호를 받은 그들의 폐단이 심했다(이익주, 1988).

충선왕은 1298년(충렬왕 24)에 즉위하여 사림원(詞林院)을 중심으로 개혁정치를 단행하면서 부왕인 충렬왕의 측근세력과 대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의 간섭으로 폐위되어 원에 억류되었다(이기남, 1971). 충렬왕이 복위한 후에 원의 간섭은 심해지고 충렬왕 측근세력과 충선왕 지지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충선왕은 원 무종과 인종을 응립하는 데 공로를 세우는 동시에 충선왕비인 계국공주(薊國公主)를 개가시켜 자신을 모해하려 했던 충렬왕 측근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박재우, 1993). 그 결과 1308년(충렬왕 34) 7월에 복위했다.

고려는 국왕이 즉위하면 국왕의 이름과 음이 같은 글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피휘(避諱)의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충선왕이 복위하자 그의 이름인 장(璋)과 음이 같은 글자의 사용을 금지했다.

왕의 이름과 음이 같은 글자의 사용을 금지했다. 장주(漳州)는 연주(漣州)로, 창선(彰善)은 흥선(興善)으로, 장산(章山)은 경산(慶山)으로, 장도(曠島)는 영원(寧源)으로, 장항사(曠項寺)는 흥제사(弘濟寺)로 고쳤고, 장(韓)과 장(樟) 두 글자의 사용도 금지했다.²⁶⁾

이를 보면 당시에 장주를 연주로 개칭한 것 외에도 음이 같은 다양한 지명과 글자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를 계기로 장주는 연주로 지명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명칭을 개칭한 것일 뿐이며 동주의 속현으로서 감무가 설치된 연주의 지방통치제도 상의 위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같은 1308년에 개성부가 설치되면서 연천지역에 다시 변화가 생겼다. 고려는 개성부를 두고 급전도감(給田都監)과 개경의 오부(五部)를 병합하여 도성 내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대신 도성 밖은 개성현령을 두어 관할했다. 이렇게 되면서 종래에 개성부에 소속된 경기의 고을들은 모두 개성현령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 연천지역인 적성·마전도 감무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개성현령의 관할을 받게 되었다.

26) 『고려사』 권33, 충선왕 복위년 12월 계미.

3) 공양왕대 경기의 개편과 연천지역

연천지역의 위상이 마지막으로 달라진 것은 1390년(공양왕 2) 경기를 좌도와 우도로 구분하고 확대하면서였다. 당시 고려는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麻田)·적성(積城)·파평을 경기좌도로, 개성·강음·해풍·덕수·우봉을 경기우도로 편성했다. 여기에 더하여 양광도의 한양·남양·인주·안산·교하·양천·금주·과주·포주·서원·고봉, 교주도의 철원·영평·이천·안협·연주(漣州)·삭녕(朔寧)을 경기좌도로, 양광도의 부평·강화·교동·김포·통진, 서해도의 연안·평주·배주·곡주·수안·재령·서흥·신은·협계를 경기우도에 속하게 했다.²⁷⁾ 이처럼 경기를 확대하고 도관찰출척사를 장관으로 삼고 수령관이 보좌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서 연천지역은 기존의 경기에 속해 있던 마전·적성은 물론 교주도의 동주에 소속된 연주·삭녕까지 모두 경기에 포함되면서 경기좌도 소속이 되었다.

이와 함께 연천지역의 마전현에 다시 감무가 설치되었다. 1389년(공양왕 1)에서 1391년까지 41개의 속현에 감무를 파견했는데 경기와 경상도·전라도에 주로 설치되었다. 공양왕대 감무는 이전의 감무와는 성격이 달랐는데, 무엇보다 감무가 설치되면서 속현을 이속 받거나 겸하는 형태가 많았다. 이는 감무가 설치되더라도 속현을 이속 받거나 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기존의 주현과 속현의 관계가 유지되었던 종래의 감무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었다(윤경진, 2000). 이런 상황에서 1389년에 종래 적성현 감무가 병합했던 마전현에 감무가 새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다만 마전현은 다른 속현을 이속 받거나 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고려 말 시점에는 연천지역인 마전·적성과 연주·삭녕은 개경을 보위하는 경기에 속하게 되었고 적성·마전·연주에는 감무가 설치 운영되었다. 연천지역은 신라의 외곽에서 고려 건국 이후 여러 변화를 거쳐 수도 개경을 호위하는 경기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2. 통행로와 군사로서 연천지역

1) 최씨정권의 수립과 장단나루

연천지역의 장단나루는 임진강을 건너기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문종 이후 임진에서 봉성을 거쳐 남경으로 내려가는 임진나루가 교통로로서 크게 활용되면서도 장단나루 역시 통행로로서 기능은 계속 담당하였다. 고려 지배층이 장단나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은 여럿 있다. 그 중 하나가 최충헌(崔忠獻)의 동생 최충수(崔忠粹)가 최충헌과 대립했다가 장단을 거쳐 파평으로 내려가 사망한 사건이다.

27)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 개성부.

1196년 최충헌과 그의 동생 최충수는 이의민(李義旼)을 제거하였고, 1197년 9월에 명종을 폐위하고 신종을 즉위시키며 권력을 장악했다. 이러한 최충헌과 최충수는 얼마지 않아 서로 불화했는데, 최충수가 딸을 태자비로 들이려 하자 최충헌이 이를 반대하면서 생겨난 일이었다.

1197년 10월 최충수는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들이기 위해 혼인하여 태자비로 있던 창화백 왕우(王祐)의 딸을 내쳤다. 최충헌은 최충수를 찾아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지금 우리 형제가 권세는 일국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계가 본래 한미하니 만약 딸을 동궁의 배필로 삼는다면 비난을 받지 않겠는가. (중략) 이의방(李義方)이 딸을 태자의 배필로 삼았다가 마침내 다른 사람의 손에 죽었는데 지금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옳겠는가.”²⁸⁾라고 했다. 이는 권력의 장악과 상관없이 집권무신도 전통적 신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왕실과 통혼을 어렵게 생각했음을 의미한다(나만수, 1990). 이의방의 몰락이 딸을 태자와 혼인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최충수는 처음에는 최충헌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가 다시 혼인을 추진했고 그래서 둘 사이에 정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 최충헌은 최충수가 딸을 동궁의 배필로 삼고자 하는 것은 역모를 도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박진재·김약진·노석승 등의 족당들과 함께 최충수와 대립했다. 흥국사 남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배한 최충수는 장단을 건너 파평의 금강사로 도망했으나 그를 추격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최충수가 장단을 건넜다고 하므로 장단에서 적성으로 연결되는 장단나루를 건너 파평으로 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단나루는 고려 지배층이 긴급하게 임진강 남쪽으로 이동할 때에 활용하는 통행로였던 것이다.

2) 거란 유종의 침략과 연천지역

장단나루는 군사로도도 기능하여 고려군의 이동에도 유용했지만 외적들 역시 장단나루를 이용하여 임진강을 도하하였다. 고종 초반에 침략해온 거란 유종도 장단나루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거란 유종의 침략은 멀리는 1206년 몽골의 쿠릴타이에서 테무친이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어 정복전쟁을 시작한 것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몽골은 동쪽으로 서하와 금을 공격하고 서쪽으로 서요(西遼)와 호라즘을 공격했다. 1210년 당구트의 서하를 정복하였고, 1211년 여진의 금을 공격하여 1214년 5월에 수도 연경을 함락하고 항복을 받았으나 금은 변경으로 수도를 옮겨 몽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몽골은 금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8) 『고려사절요』 권13, 신종 즉위년 10월.

1215년부터 다시 금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1216년에는 서요를 공격하여 1218년에 멸망시키고, 1219년 호라즘 정벌을 시작했다(추명엽, 2017).

금이 약화되자 금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의 야율유가(耶律留哥)가 반기를 들어 10만 명을 거느리고 몽골에 항복의 뜻을 전하면서 요왕(遼王)이라 자칭했다. 그러다가 부장 야율사포(耶律斯布)가 배반하자 몽골에 의탁했다. 1216년 야율사포가 칭제(稱制)하고 대요수국(大遼收國)을 세웠다가 사망한 후 거란족은 몽골과 야율유가의 공격을 받아 고려 영토로 도망해 들어왔다. 이른바 거란 유종의 침략이었다(신안식, 2011).

거란군은 크게 둘로 나뉘어 고려를 침략했다. 1216년(고종 3) 8월 아아(鵝兒)와 절노(乞奴)의 거란군이 먼저 압록강을 건너 영삭진·정용진을 비롯하여 의주·정주·삭주·창주·운주·연주와 선덕진을 공격해 왔다. 거란군은 함께 움직이지 않고 부대별로 흩어져 여러 지역을 나누어 공략했는데, 처자를 데리고 다니며 곡식과 소와 말을 약탈했다. 그리고 금산(金山)과 금시(金始) 두 왕자가 이끄는 거란군이 뒤이어 들어왔다.

고려는 상장군 노원순(盧元純)을 중군병마사, 상장군 오응부(吳應夫)를 우군병마사, 대장군 김취려(金就礪)를 후군병마사로 임명하고 3군을 조직하여 출정했다.²⁹⁾ 고려군은 조양진·연주(延州)·창주·운주·귀주 등에서 거란군과 전투를 벌여 성과를 거두었다. 김취려의 활약으로 다시 연주에서 크게 승리하자 거란군은 서북면의 청새진을 통해 여진 지역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해서 아아·절노의 거란군은 청천강 부근에서 더 내려오지 못하고 일단 물러났다.

이에 비해 금산·금시 왕자는 거란군을 이끌고 남하했다. 고려군은 연주에서 박주로 이동하여 거란군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서경 인근의 성주(成州)에 거란군이 출몰하였다. 또한 고려군이 박주에서도 진을 치고 거란군과 싸웠으나 거란군은 청천강을 건너 서경으로 내려왔다.

위기를 느낀 개경에서는 정숙첨(鄭叔瞻)을 행영중군원수, 조충(趙冲)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군사 수만 명을 선발했다. 정숙첨과 조충은 전장에 나설 군사를 점검했는데 최충헌 집권기에서 날쌔고 용감한 자는 모두 최충헌과 최우의 문객이 되었으므로 관군은 늙고 약한 자들뿐이었다.³⁰⁾ 거란군은 서경을 지나 황주·염주로 내려왔다. 상황이 매우 긴급하게 변하자 최충헌과 최우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호위하면서 가병(家兵)을 2-3리나 늘려 세워 과시하며 은병으로 모집하였고, 문객 중에 종군을 청하는 경우에는 유배를 보내며 군사를 통제했다.³¹⁾ 거란군이 황주를 거쳐 염주·백주를 공격하고 개경을 치려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최충헌 부자는 다시 군사 수만 명으로 스스로를 호위하였다.

29) 『고려사』 권22, 고종 3년 8월 기사.

30) 『고려사절요』 권14, 고종 3년 11월.

31) 『고려사절요』 권14, 고종 3년 12월.

1217년 거란군이 개경 근처로 접근하자 관료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지키게 하고 성 밖의 인가를 헐고 해자를 팠다. 이렇게 되자 거란군은 고려의 관군과 최씨정권의 사병이 집결해 있는 개경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정숙침을 대신하여 임명된 정방보(鄭邦輔)와 조충은 염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으나 안주에서는 크게 패배했다. 이때 거란군 일부가 우봉과 임강을 거쳐 장단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서 연천지역이 전장이 되었다. 고려는 오군(五軍)을 편성하여 출정하는데 거란군이 적성(積城)에 있다는 첩보를 받고 군사를 이끌고 갔으나 그곳에 없었다. 당시 거란군은 동주를 함락하고 교하로 내려가기 위해 장주(漳州)의 징파도(澄波渡)를 거쳐 지나갔고 이어 고려군과 싸웠으나 패배했다. 하지만 거란군은 계속 남하하여 풍양을 거쳐 남경의 노원역을 공격했고, 원주로 들어갔다가 황천을 거쳐 지평까지 이르렀다. 원주를 함락한 거란군은 충주로 내려가다가 고려군과 만나 크게 패배하고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명주로 물러났고, 동북면의 교주·등주와 함주를 거쳐 여진 지역으로 도망했다.

여기서 보면 우봉·임강을 거쳐 개경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란군이 장단으로 내려왔고 이어 동주로 갔는데, 장단에서 동주로 가는 군사로는 연천지역인 장주(漳州)를 경유하는 길이었다. 또 동주에 머물던 거란군이 교하로 내려가기 위해 거쳤던 곳도 장주의 징파도였다. 당시 징파도 인근의 저촌(柵村)에서 벌어진 거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고려군은 오군이었으나,³²⁾ 장주의 향리들도 지역 단위의 방어체계를 동원하여 장주를 방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진 지역으로 물러났던 거란군이 여진 병력을 보충하여 동북면으로 다시 들어왔다. 예주(豫州)·위주(渭州)에서 고려군과 접전했고 고주(高州)·화주(和州)를 공격했으며 영인진·장평진을 함락했다.

1218년 4월 거란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어 양주(楊州)를 공략하고 곡주(谷州)에서 고려군과 접전했다. 고려는 조충을 서북면원수, 김취려를 병마사로 임명하고 출정군을 파견했다. 그들은 동주(洞州)를 거쳐 성주(成州)에 주둔하며 거란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 거란군은 퇴로가 차단될까 염려하여 강동성으로 들어갔다.

고려군이 강동성에 들어간 거란군을 물리친 것은 몽골군·동진군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몽골군과 동진군이 고려의 국경으로 들어온 것은 고려가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1218년 12월 몽골 원수 카진(哈眞)과 자라(札剌)가 몽골군 1만 명과 동진군 2만 명을 이끌고 거란 유종을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고려의 국경으로 들어왔고, 화주·맹주·순주·덕주를 함락하고 강동성으로 향했다. 당시 금의 치하에 있던 거란족의 야율유가가 반란을 일으킨 것

32) 『고려사』 권103, 열전 16, 김취려.

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때 금은 포선만노(蒲鮮萬奴)를 보내 야율유가를 진압했으나 오히려 패배하였다. 이에 포선만노는 금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 스스로 자립하여 동경[요양]에서 대진(大眞)을 건국했다. 몽골과 야율유가가 함께 공격하자 포선만노는 간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하(東夏)를 건국했다. 이것이 이른바 동진국(東眞國)이다. 몽골은 카진과 자라를 보내 동진국을 정벌하여 복속시키고, 동진군과 함께 거란 유종을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고려의 국경을 넘어 왔던 것이다.

몽골군과 동진군은 눈이 많이 와서 군량미를 구하기 어렵자 고려에 군량미를 요청하고 몽골 황제의 명령이니 형제맹약을 맺자고 요구했다(이개석, 2010; 고명수, 2015; 이익주, 2016; 고명수, 2021). 이에 고려는 이적(夷狄) 가운데 가장 흉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몽골과는 그동안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다. 그러나 몽골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충이 결단하여 쌀 1천 석을 보냈다.

이러한 첫 번째 접촉이 있는 후 1219년 1월 카진이 강동성 공격을 위해 고려군과 연합을 요청해 오자 김취려가 직접 가서 카진을 만나 형제관계를 맺었다. 이어 강동성 공략 방법을 논의하여 카진은 성의 남문에서 동남문까지, 완안자연(完顏子淵)은 서문 북쪽, 동문 북쪽은 김취려가 맡아 해자를 파서 거란군이 도망하지 못하게 했다. 거란군은 퇴로가 막히자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이로써 고려군은 몽골군·동진군과 연합으로 거란 유종의 침략을 막아냈는데, 이른바 강동성 전투이다(김상기, 1985).

이처럼 거란 유종의 침략은 고려군이 몽골군·동진군과 연합하여 물리쳤고 이를 계기로 고려와 몽골의 외교관계가 성립했다. 그러나 이는 고려-몽골 전쟁의 단초를 여는 사건이 되었다. 고려-몽골 전쟁 기간에 있었던 연천지역의 동향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후 몽골군은 개경 이북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개경을 지나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진출하여 고려의 국토를 유린했다(윤용혁, 1991). 이때 개경에서 남경을 거쳐 충청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군사로는 임진나루나 장단나루를 건너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몽골 전쟁에서 연천지역이 입은 피해를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와 몽골이 강화를 맺고 전쟁이 종결되어 고려가 몽골에 복속된 후에는 연천지역이 군사로서 활용될 기회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충렬왕대에 원에서 동방 3왕가의 나안(內顔)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충렬왕이 군사를 내어 출정하는 과정에서 연천지역이 활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당시 나안은 원 세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1287년(충렬왕 13) 6월 고려는 군사를 동원하여 돕겠다고 요청했고 원이 받아들여 출정하게 되었는데, 이 때 감약산신(설인귀)의 영험에 기대는 일이 있었다.

당시 고려는 감악산신의 둘째 아들을 도만호로 임명했는데 군사의 출정에 은밀한 도움을 바랐기 때문이었다고 한다.³³⁾ 감악산신은 현종대에 군마를 거느리고 거란군을 물리친 영험을 보인 적이 있었으므로, 감악산신의 아들을 군사지휘관인 도만호에 임명하여 함께 출정하려 했던 것이다.

현종 이후 감악산 산신에 대한 제의는 국가 차원에서 봄가을에 지냈는데, 그만큼 영험 있는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감악산은 개경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관료들도 감악산에 직접 찾아가서 개인적인 영험을 바라며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다. 1311년(충선왕 복위 3) 4월 지중문사 민유(閔儒)와 전 소윤 김서지(金瑞芝)가 감악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장단나루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사헌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감악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금지하였다.³⁴⁾

고려중기 이후 남경이 개발되면서 장단나루보다 임진나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했으나 장단나루가 통행로로서 이용이 적지 않았던 것에는 감악산 산신에 대한 제사 행렬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3) 왜구의 침략과 장단나루

연천지역이 군사로서 활용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왜구의 침략 때이다. 왜구의 침략은 무신정권기부터 있었던 일이나 본격적인 것은 1350년(충정왕 2) 이후의 일이다.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가 새로 등장하고 황실이 남북으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중앙의 통치권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고 백성들은 곤궁에 빠져 있었다. 특히 여원연합군의 정벌이 있었던 큐슈 지역과 대마도(對馬島)·일기도(壹岐島)·송포(松浦) 등은 더욱 심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적이 발생하여 고려와 중국 해안을 침탈했다. 그들은 경제적 곤궁을 해결하기 위해 조운선이나 조창(漕倉)을 공격하여 미곡을 약탈했으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팔거나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채우려 했다(이영, 2007).

왜구의 침략은 공민왕대는 115여회, 우왕대는 378회나 되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규모로는 20척 정도의 작은 선단도 있었으나 50척 또는 100척이나 200척 내외의 선단도 많았고 500척 규모의 선단도 있었다. 많을 때는 수백, 수천 명의 규모로 침략해 왔다.

고려는 왜구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거나 무력으로 격퇴하려 했다. 1366년(공민왕 15) 김교중(金交中)·랑장 김일(金逸)을 일본에 보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을 만나 해적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33) 『고려사』 권30, 충렬왕 13년 6월 기묘.

34) 『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3년 하4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³⁵⁾ 1377년(우왕 3)에는 대사성 정몽주를 보내 왜구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고 큐슈의 절도사 이마가와 료준(今川了俊)을 만나 그의 협조를 받아 고려인 수백 명을 돌려받았다.³⁶⁾ 이외에도 고려는 왜구를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우왕대는 왜구의 침략과 약탈이 거셌던 만큼 왜구와의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1376년(우왕 2) 왜구가 부여·공주를 거쳐 연산의 개태사에 침입하여 약탈하자 최영(崔瑩)이 출정하여 홍산(鴻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1383년에는海道원수 정지(鄭地)가 전함 47척으로 나주와 목포에 정박해 있다가 왜구의 선박 120척이 경상도 방향으로 진출하므로 남해의 관음포로 가서 싸워 왜구의 대선(大船) 20척 중에 17척을 불태워 승리를 거두었다. 1389년(창왕 1)에 경상도원수 박위(朴葦)가 병선 100척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여 적선 300척을 침몰시키고 포로 1백여 명을 구해 돌아왔다(이현중, 1974; 나종우, 1994).

이러한 왜구와의 싸움에서 왜구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1380년(우왕 6)의 황산(荒山) 전투였다. 왜구가 500척이나 되는 대규모의 선단을 조직하여 진포에 정박하고 해안을 약탈하자海道원수 나세(羅世)와 심덕부(沈德符)·최무선(崔茂宣)이 최무선이 제작한 화포로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 그런데 남은 왜구들이 육지로 상륙하여 육지에 있던 왜구와 합류하여 황간·어모와 중모·화령·공성·청리, 상주·선주를 불태우고 살육하고 약탈했다. 삼도(三道) 연해의 땅이 쓸쓸하고 텅 비어 왜란이 있는 이래로 가장 참혹했다고 할 정도였다.³⁷⁾

이에 고려는 이성계를 양광전라경상도 도순찰사, 찬성사 변안렬(邊安烈)을 체찰사로서 부사가 되게 하여 남쪽으로 내려 보냈다. 군사가 장단(長湍)에 도착했는데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므로 점치는 자가 승전할 징조라고 했다.³⁸⁾ 여기서 이성계는 장단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는 장단과 적성을 연결하는 장단나루를 통해 남하했음을 의미한다. 군사로서 연천지역의 효용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연천지역은 왜구의 침략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려의 군대가 왜구와 싸우기 위해 개경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이용한 중요한 군사로였다.

왜구는 남원을 함락하지 못하자 운봉을 공략하고 인월역에 주둔했다. 이성계는 남원으로 내려가 운봉을 넘어 황산에서 왜구와 싸워 크게 승리했다. 이를 계기로 왜구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35) 『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11월 임진; 공민왕 17년 춘정월 무자.

36) 『고려사』 권117, 열전 30, 정몽주.

37) 『고려사절요』 권31, 우왕 6년 8월

38) 『고려사』 권126, 열전 39, 간신, 변안렬.

3. 천도의 추진과 연천지역

1) 풍수사상과 궁궐의 창건

고려 말 왜구의 침략과 약탈로 고려의 국가와 영토, 인민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조운이 원활하지 않아 녹봉과 국용 등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연해지방이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백성들은 유리했다. 왜구의 침략은 고려의 국가적 운명이 쇠퇴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고 천도의 추진도 그러한 시도의 하나였다.

고려는 풍수사상이 널리 유행하여 국가의 기업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궁(離宮)이나 별궁(別宮)을 건설하거나 천도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이병도, 1980). 고려 전·중기에는 이궁이나 별궁을 창건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천도를 시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처음으로 천도를 추진한 것은 정종이었다. 정종은 도참설을 믿고 서경으로 천도하기 위해 궁궐을 짓고 개경의 민호를 옮기기도 했으나 국왕의 사망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³⁹⁾ 문종대에 남경을 건설하고 남경과 서경에 이궁을 창건하기는 했으나 천도 논의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숙종대는 김위제(金謂礪)가 남경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자 국왕이 직접 지세를 살펴보고 또 남경개창도감을 설치하여 터를 살펴보게 했으며 삼각산 남쪽이 적당하다는 보고가 있자 그곳에 궁궐을 창건했다. 그러나 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예종대에는 서경에 용언궁(龍嚶宮)을 창건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 궁궐을 창건하여 순행하였고, 인종대는 묘청 일파의 주장으로 서경에 대화궁(大花宮)을 창건하고 행차하기도 했으나 이때에도 천도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묘청 일파는 서경천도를 주장하며 정변을 일으켰고 이것이 실패하면서 천도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되자 고려는 다양한 이궁이나 별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개경의 지기(地氣)를 보완하고자 했다(김기덕, 2006). 의종대는 복자(卜者) 영의(榮儀)가 주장하여 궁궐 동쪽에 수덕궁(壽德宮)을, 태사감후 유원탁(劉元度)의 건의로 백주(白州)에 중흥궐(中興闕)을 창건했고, 명종대는 좌소(左蘇) 백악산(白岳山), 우소(右蘇) 백마산(白馬山), 북소(北蘇) 기달산(箕達山)에 연기 궁궐조성관을 두고 궁궐을 창건하도록 했다.⁴⁰⁾ 고종대는 술사 이지식(李知識)의 건의를 최충헌이 받아들여 좌소 백악산에 새로운 궁궐을 창건했고, 또 남경에 새로운 궁궐을, 강화 마리산 남쪽에 이궁을 건설했다. 원종대도 낭장 백승현(白勝賢)의 주장에 따라 강화 삼랑성과 신니동에 가궐(假闕)을 창건했다.

39) 『고려사』 권2, 정종 4년 3월 병진.

40) 『고려사』 권77, 백관지 2, 제사도감각색, 삼소조성도감.

2) 천도의 추진과 연주 지역

이와는 별개로 고려는 몽골의 침입이라는 외부적 조건을 바탕으로 강화 천도를 실제로 단행했다. 그러나 개경으로 환도하고 몽골에 복속한 이후에는 천도가 논의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천도에 대한 논의와 추진은 원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공민왕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공민왕은 1356년(공민왕 5)에 천도를 위해 남경의 궁궐을 수리하도록 명령하고 천도의 가부를 점쳤고, 1366년에는 보우(普愚)의 건의로 한양에 궁궐을 건설하고 태묘에서 천도의 가부를 점치기까지 했으나 불길하다는 점괘가 나오자 포기했다. 1360년에는 좌소 백악산에 새로운 궁궐을 건립하여 이어(移御)하기도 했다.

홍건적이 침입하자 안동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1362년에 강화로 천도하려 했다. 개태사의 태조진전에서 점쳐 불길하다고 나오자 포기했으나 다음 해에 다시 점쳐 길하다는 점괘를 얻었다. 하지만 신료들의 반대로 천도를 단행하지 못했다. 당시 개경이 홍건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하자 몽골의 침입 때에 강화에 천도했던 것과 같은 시도를 하려 했던 것이다. 1367년에 신돈이 서경 천도를 건의했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369년에 신돈은 다시 충주로 천도할 것을 주장했다. 이 역시 진전되지 않자 평양·금강산·충주에 순행하고 평양·충주에 이궁과 공주에 혼전(魂殿)을 건설하라고 했으나 불길하다는 점괘가 나와 취소되었다(김기덕, 2005).

우왕대는 왜구의 침략과 약탈이 심각하였고 개경 가까이 접근하자 개경에 계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서 천도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다. 1375년(우왕 1) 서운관의 요청으로 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영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1377년 우왕이 정당문학 권중화(權仲和)를 시켜 철원에 궁성을 건축하게 했으나 이 역시 최영의 반대로 천도 시도가 무산되었다.

이때 철원이 천도의 후보지로 거론된 것은 개경이 바다와 가까이 있어 내륙으로 천도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인데, 연천지역이 천도의 후보지로 떠올랐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장지연, 2000). 우왕은 연주(漣州)가 천도에 적합한 지역인지 알아보기 위해 승경부윤 진영세(陳永世)를 보내 연주의 지세를 살피게 했다. 그러나 연주는 오역(五逆)의 땅이어서 도움을 정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⁴¹⁾ 평가가 내려져 무산되었다.

하지만 천도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378년(우왕 4) 공민왕 때 건립했던 좌소 백악산의 궁궐을 살펴보게 했으나 진전되지 못했고, 북소 기달산을 살펴보고 북소조성도감(北蘇造成都監)까지 설치했으나 산골짜기라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이에 다시 좌소 백악산에

41) 『고려사』 권133, 열전 46, 우왕 3년 7월.

천도하기 위해 조성도감을 설치했으나 이 역시 중단되었다. 1379년에는 좌소의 위치가 백악이 아니라 회암(檜巖)이라는 서운관의 주장이 있어 살펴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천도가 이루어진 지역은 한양이었다. 1381년 한양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서운관의 주장에 따라 1382년에 우왕은 한양천도를 단행하였다. 다만 6개월 만에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다. 1390년(공양왕 2)에도 서운관의 주장에 따라 한양천도를 추진했는데 신료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공양왕은 한양천도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오래 있지 못하고 5개월 만에 개경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조선 건국 후에 한양천도가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우왕대에 연주가 천도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왜구의 침략과 약탈이라는 위기 속에서 국가의 기업을 연장하기 위해 내륙으로 천도하려 했던 고려 지배층의 고민에서 나온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제 2 권

연 천 의
선 사 시 대

고 대 의
연 천

고려시대의
연 천

조선시대의
연 천

근대시대의
연 천

연 천 의
현 대 사 와
한 국 전 쟁

『고려사』, 『고려사절요』, 『삼국사기』

- 이병도, 1980, 『개정판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 김상기, 1985,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용혁, 1991, 『고려대몽항쟁사연구』, 일지사.
- 윤경진, 2000, 『고려 군현제의 구조와 운영』,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안주섭, 2003,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 조인성, 2007,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 이재범, 2007, 『후삼국시대 궁예정권 연구』, 혜안.
- 이영, 2007, 『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
- 김철웅, 2007,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 정요근, 2008, 『고려-조선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한정훈, 2013,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 변동명, 2013, 『한국 전통시기의 산신·성황신과 지역사회』, 전남대학교출판부.
- 김명진, 2014,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 김갑동, 2017, 『고려의 토속신앙』, 혜안.
- 박종진, 2017,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미지, 2018, 『태평한 변방』, 경인문화사.
-
- 변태섭, 1968, 「고려전기의 외관제」 『한국사연구』 2.
- 이기남, 1971, 「충선왕의 개혁과 사림원의 설치」 『역사학보』 52.
- 이현중, 1974, 「왜구」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 여은영, 1982, 「려초 역제 형성에 대한 소고」 『경북사학』 5.
- 김갑동, 1986, 「고려초의 주에 대한 고찰」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 이익주, 1988, 「고려 충렬왕대의 정치상황과 정치세력의 성격」 『한국사론』 18.
- 김동수, 1989, 「고려중후기의 감무파견」 『전남사학』 3.
- 나만수, 1990, 「고려 명종대 무인정권과 국왕」 『성대사림』 6.
- 박재우, 1993, 「고려 충선왕대 정치운영과 정치세력 동향」 『한국사론』 29.
- 이인철, 1993, 「신라 통일기의 지방통치체제」 『신라정치제도사연구』, 일지사.
- 김병인, 1994, 「고려 예종대 감무의 설치배경」 『전남사학』 8.
- 나중우, 1994,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 윤경진, 1996, 「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 『역사와 현실』 22.

- 장지연, 2000, 「여말선초 천도논의에 대하여」 『한국사론』 43.
- 조병로, 2000, 「제2장 인문환경-제1절 시대별 행정구역 변천」 『연천군지』 상.
- 윤경진, 2001, 「나말여초 성주의 존재양태와 고려의 대성주 정책」 『역사와 현실』 40.
- 윤경진, 2001, 「고려 성종 14년의 군현제 개편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27.
- 한정훈, 2002, 「고려전기 역도의 형성과 기능」 『한국중세사연구』 12.
- 최종석, 2004, 「나말여초 성주·장군의 정치적 위상과 성」 『한국사론』 50.
- 이재범, 2005, 「궁예정권의 철원정도 시기와 전제적 국가경영」 『사학연구』 80.
- 정요근, 2005,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장단도로」 『한국사연구』 131.
- 김기덕, 2005, 「고려 중후기 천도논의와 풍수도참설」 『역사민속학』 20.
- 김기덕, 2006, 「한국 중세사회에 있어 풍수도참사상의 전개과정」 『한국중세사연구』 21.
- 노명호, 2009, 「지역자위공동체의식과 국가체제」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윤경진, 2009, 「고려전기 경기의 편성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33.
- 이개석, 2010, 「여몽형제맹약과 초기 여몽관계」 『대구사학』 101.
- 신안식, 2011, 「고려 고종초기 거란유종의 침입과 김취려의 활약」 『한국중세사연구』 30.
- 최척환, 2012, 「993년 고려 거란 간 갈등 및 여진문제」 『역사와 현실』 185.
- 변동명, 2013, 「감악산신 설인귀와 적성」 『한국 전통시기의 산신·성황신과 지역사회』, 전남대학교출판부.
- 고명수, 2015, 「몽골-고려 형제맹약 재검토」 『역사학보』 225.
- 이익주, 2016, 「1219년 고려-몽골 형제맹약 재론」 『동방학지』 175.
- 전덕재, 2016, 「신라의 북진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73.
- 박종진, 2017, 「고려초기 지방제도의 개편과 주현속현제도의 성립」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추명엽, 2017, 「동아시아 세계의 다원적 국제환경」 『고려시대사』①, 푸른역사.
- 김갑동, 2017, 「산신신앙」 『고려의 토속신앙』, 혜안.
- 박종진, 2017, 「고려초기 지방제도의 개편과 주현속현제도의 성립」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고명수, 2021, 「몽골-고려 형제맹약 두 번째 재검토」 『동방학지』 197.



제 4 장

조선시대의 연천

I. 조선 전기 연천지역의 행정과 사회문화

II. 양란의 전개와 연천지역의 전투

III. 조선후기 연천지역의 제도 개편과 사회경제

집필

I절 : 정재훈(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II절, III절 : 임성수(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교수)

조선의 건국과 함께 왕조국가의 틀을 다시 정비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다. 고려의 다원적인 도제는 일원적인 8도 체제로 개편되고, 신분적, 계층적인 군현 구획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지방통치체제의 근간인 군현제는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정비되었고 마침내 15세기에 들어서 획기적으로 개혁되었다. 대체로 개편의 방향은 고려의 지방 통치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조선후기의 체제와도 달랐다.

8도 체제의 정비 아래 조선초기 연천현 역시 정비되었다. 현재 연천지역에 해당하는 연천현, 마전현, 삭녕군 지역은 주로 연천과 마전이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형태를 거듭하기도 하였다. 15세기 말에는 연천의 읍면의 구성이 대체로 현내면·동면·남면·서면·북면·상수면의 6개의 면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전기에 연천 지역의 인구는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다. 연천 일대가 조선 전기의 경우 국왕의 사냥과 군사훈련의 무대인 강무장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대체로 서울에서 의주로 가는 의주로와 경흥으로 가는 경흥로를 좌우로 끼고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러나 큰 도회가 없고 간선도로도 비껴서 지나갔기 때문에 원의 설치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또 육로만이 아니라 수로도 임진강과 그 지류인 한탄강이 지나서 수로교통도 활발한 곳이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전기에는 개성에서 서울까지의 지역이 비교적 사람들이 활발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여서 많은 인몰들이 이곳에 관련되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의 태조를 비롯한 네 왕과 충신을 모신 곳인 승의전이 위치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태종의 후궁이나 사위 등 왕실 관련 인물의 묘소가 많았고, 문신과 무신의 묘소나 집터도 적지 않았다.

1592년(선조 25)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豊臣秀吉)은 30여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부산진을 통해 상륙한 일본군은 하루 만에 동래부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였다. 충주에서 패배한 조선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 서울을 내쫓고, 다시금 온전히 국토를 회복하는데 7년간의 긴 세월이 걸렸다. 오랜 전쟁은 조선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국토는 황폐해지고, 농사에 종사할 백성들이 다수 사망하면서 국가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졌다.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국가 제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관습과 문화도 변하였다.

지방행정과 백성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단연 부세 제도의 변화였다. 전세 제도는 세종 연간에 제정된 공법(貢法)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 면적을 계산하고, 매년 풍흉의 정도에 따라 세액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왜란 이전부터 연분을 최하 등급인 하지하(下之下)나 하지중(下之中)으로 징수하는 관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왜란 이후에는 전쟁 이후 어려워진 농민들의 경제적 여건과 제반 상

황을 고려하여 이것이 제도화되었다. 그 결과 농민들은 풍흉에 무관하게 논밭에서 연간 쌀이나 콩을 4두에서 6두를 납부하게 되었다.

각 고을의 특산품을 상납하던 공납제(貢納制)는 대동법의 시행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 지역에서 출발하여 100여 년의 시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대동법은 그간 다양한 현물을 상납하던 방식을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품목을 단일화한 제도였다. 대동법의 시행은 단순히 공물 납부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에 일대 전환을 불러왔다. 대동미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공물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상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노동력을 조달하는 시장도 성장하였다. 서울의 배후지였던 연천은 임진강을 활용한 수운 교통이 유리했기 때문에 서울의 상업 발달에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다.

한편, 긴 전쟁 끝에 일본군을 몰아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을 둘러싼 대외적 요건은 불 안했다.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조선은 북방의 방어가 시급해졌다. 조선은 전쟁의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지도 못한 채 군사시설을 복구하고, 방어체제를 정비하였다. 누르하치의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명나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던 시기에 조선에서는 국왕이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옹립한 이른바 '인조반정'이 벌어졌다. 인조반정은 성공하였지만, 또 다른 반란의 불씨가 되었다. 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李适)은 논 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던 평안병영의 병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이 거침없이 서울로 진격하자 인조는 도성을 버리고 공주의 공산성까지 파천하였다. 반란은 곧 진압되었지만, 인조와 집권층의 불안감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선은 북방은 물론, 서울의 방어체제 정비에도 힘을 기울였다.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 5군영 체제가 마련되었고, 많은 군인이 서울에 상주하게 되면서 서울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총융청은 북한산성을,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수비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었고, 도성 주민과 경기 인근 백성들은 두 산성의 방비에 동원되었다. 연천군은 총융청에 배속되어 북한산성의 방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연천은 북방의 적이 서울로 진입하는 경로 가운데 하나였고, 임진강 방어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다.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방어체제 개편에도 착수하였다. 일련의 변화 과정 속에서 연천도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기 연천의 변화양상을 지방제도, 경제, 군사제도,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조선 전기 연천지역의 행정과 사회문화

1. 지방제도의 정비와 행정구역

1) 8도제와 군현제의 정비

조선전기의 연천 지역의 지방제도와 행정구역 및 사회와 경제, 문화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건국과 함께 이루어진 지방제도의 개편과 군현제의 정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 선왕조의 성립 이후 고려의 다원적인 도제는 일원적인 8도 체제로 개편되고, 신분적, 계층적인 군현 구획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지방통치체제의 근간인 군현제는 신라와 고 려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정비되었고 마침내 15세기에 들어서 획기적으로 개혁되었다.

속현(屬縣)과 향(鄉)·소(所)·부곡(部曲)·처(處)·장(莊) 등 임내(任內)의 정리, 소현(小縣)의 병 합, 군현 명칭의 개정 등을 단행하였다. 또한 고려의 사심관제(事審官制)가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되어 발전하기도 하였고, 임내의 소멸과 직촌화(直村化) 및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촌의 성장과 함께 군현의 하부 단위로 새로운 면리제가 점차 정착되어 갔다. 또한 종래의 안렴사(按 廉使)와 감무(監務)를 2품 이상의 관찰사와 사류(士類) 출신의 현감으로 대치하는 등 감사와 수령의 직급을 올리고 외관구임법(外官久任法)과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의 실시를 통 하여 왕권의 대행자인 외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종래 향읍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 에 있던 향리를 점차 지방 관서의 행정 사역인으로서 격하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고려시대의 지방 통치체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으며, 조선후기의 체 제와도 다른 것이었다. 예를 들어 8도 체제가 확립되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감사의 임기가 남쪽 6개도와 북쪽 양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 양계는 ‘솔권겸윤(率眷兼尹)하는 것에 비해 6도 의 감사는 ‘단신도계(單身到界)’하여 1년 동안 관내 군현을 늘 순력(巡歷)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임내 역시 조선 전기에는 전국적으로 85개(속현 72, 부곡 11, 향 1, 소 1)나 존속해 있어서 후기처럼 면리제가 전국에 일제히 실시되지 못하고 지방에 따라 직촌과 임내가 병존하 였다. 또 향리의 권한도 이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조선 후기에 비교해 볼 때는 그 위상이 유지되어 그리 떨어지지 않는 않았다. 재지사족의 분포 역시 아직 일부 지방에 치우쳐 있었다. 경재소도 각기 해당 읍의 유향소를 거느리고 지방통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완전히 혁파되었다.

요컨대 조선 초기의 군현제 정비는 위로는 8도 체제와 아래로는 면리제를 확립시키는 방 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지방의 통치는 군현을 중심으로 펼쳐졌고, 지방행정은 수령을 중심

으로 행해졌다. 읍격(邑格)과 수령의 직급은 여러 단계로 구분되었으나 행정 체계상으로는 모두 병렬적으로 직속 상관인 감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 다만 수령이 겸대하는 군사적으로 인해 수령 사이에 상하의 계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중앙집권적인 지방 통치체제가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왕-감사-수령으로 이어지는 관치 행정적 계통과, 경재소-유향소-면리임(面里任)으로 연결되는 사족 중심의 자치적인 향촌지배체제 및 이들 중간에 개재한 경저리(京邸吏)·영리(營吏)·읍리(邑吏)의 향리 계통 등 세 방면에서 다양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었다.

8도 체제와 군현제의 정비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지방사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는 본격화되었다. 이때부터 각 도의 행정장관으로서 안찰사 대신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관찰사·안렴사(按廉使)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1398년(공양왕 원년)에는 전임관으로 제수되었고 전임 행정기구도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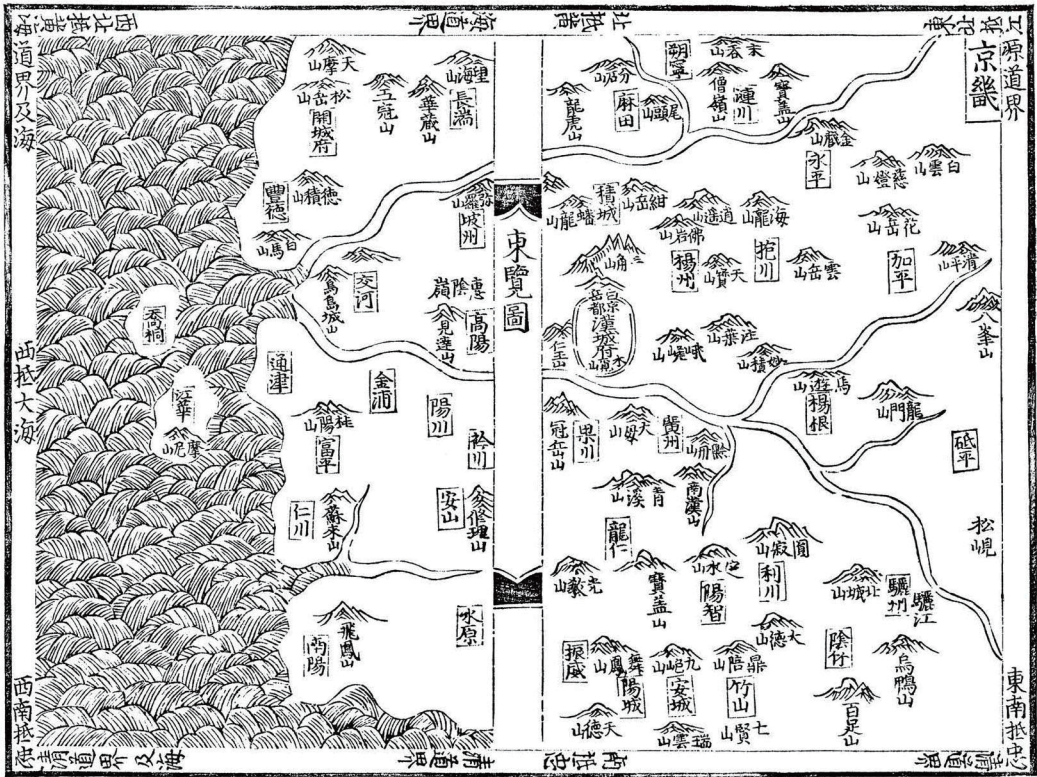
8도제는 경기를 제외한 7개 도의 도명을 도내 계수관 읍명의 첫 글자를 인용하여 개정하면서 태종대에 이르러 대체적인 완성을 보게 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경상도와 전라도 외에, 1356년(공양왕 5)에 양광도가 충청도로 개칭되고, 조선 태조 초기에 교주강릉도가 강원도, 서해도가 풍해도(豊海道)로 개칭되었으며, 충청·강원·풍해도는 1395년(태조 4)에 각각 관찰사를 두고 충주·원주·해주에 개영(開營)하였다. 그리고 조선 초기까지 동북면·서북면으로 불리던 북방 변경지역은 태종 13년에 각각 영길도·평안도로 개칭되었고, 1416년(태종 14)에는 경기좌도와 우도를 합쳐서 경기도라 함으로써 비로소 조선의 8도가 완성되어 그 체제가 갖추어졌다.

8도제의 확립은 군현제의 발달을 촉진해서 조선왕조의 지방행정 체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15세기 초에는 고려시대에 일반 군현제 하부에서 개별적 편성을 보이던 속현·향·소·부곡·장·처 등이 혁파됨에 따라 그들 단위 임내 지역들이 그 특수성에서 벗어나 일반 군현제 안에서 단위 지역 형태로 재편되었다. 아울러 호구에 따라 군현의 등급을 조정하고 군소 군현을 병합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속현을 없애고 그곳에 감무를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부터 있었으나 조선 태종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가나 귀족, 혹은 호족적 특수 수요나 연고관계와 관련되어 특별한 관리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가혹한 수취체제에 묶여 있었던 임내 지역 농민들도 이 시기에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일반 군현의 주민들과 다름없는 상태로 향상해가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농민파악 방식도 감무관 등의 관리를 직접 파견하여 일반 군현제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1415년(태종 13)의 지방제도 개혁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8

新增東國輿地勝覽圖



[그림 1] 경기도 전도(『신증동국여지승람』)

도 아래에는 1유도부, 6부, 5대도호부, 20목, 74도호부, 73군, 154현 등 모두 333개 읍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구분, 정비되었고, 부·목·군·현에는 각각 부윤(府尹),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 도호부사(都護府使, 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 등의 수령이 파견됨에 따라 ‘관찰사-수령’의 지배체제를 통하여 중앙의 정령을 전국의 지방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전달하며 일원적인 지배와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수령은 군현 단위의 지방행정체제에서 전국의 토지와 호구를 같은 원칙에 따라 파악하여 각종 부세와 신역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전세는 5결 단위로 부과하고, 공물은 군현의 토지와 호구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현물로 수납하였다. 신분적으로는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은 모두 국역 부과 대상으로서 군역은 호적을 근거로 작성한 군적에 따라 징발하였다. 요역은 처음에는 인정(人丁)에 따라 일꾼을 내야 했으나 세종 때 계전법(計田法)을 시행한 이후 토지를 기준으로 징발하였으며, 15세기 후반부터는 토지 8결을 단위로 한 명의 일꾼을 내는 팔결출일부제(八結出一夫制)를 시행하였다.

한편 자연촌이 성장하여 면리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군현의 지배는 향리의 도움

을 받는 수령의 지휘 아래에 권농관(勸農官)·이정(里正)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곧 군현에 부과된 부세는 향리가 면·리에 할당하면 면에서는 권농관이, 리에서는 이정이 책임을 맡아 거두어들였고 군역이나 요역도 동일하였다. 또 의창(義倉)이나 환곡도 향리와 면리제를 매개로 운영되었다. 군현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1455년(세조 1)에는 진관체제(鎭管體制)의 실시로 군사제도 역시 정비됨에 따라서 관찰사-수령의 행정체제와 병사(兵使)·수사(水使) 아래 지휘관을 두는 군사체제가 중첩되어 농민을 통제하였다.

2) 연천 지역의 행정구역

조선 전기의 연천 지역의 행정구역을 살피기 전에 연천이 소속되었던 경기도 행정구역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말 ‘과전경기(科田京畿)’의 원칙과 새 왕조의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짐에 따라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접한 다른 도의 구역에 대한 개편도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1390년(공양왕 2)에 경기를 좌·우도로 나누어 장단(長湍)·임강(臨江)·토산(兔山)·임진(臨津)·송림(松林)·마전(麻田)·적성(積城)·파평현(坡平縣)을 좌도로, 개성(開城)·강음(江陰)·해풍(海風)·덕수(德水)·우봉(牛峯)을 우도로 하고, 여기에 다시 경기권을 확장하여 양광도·교주도·황해도(서해도)의 일부를 좌·우도에 귀속시키는 한편, 좌·우도에 각각 도관찰출척사와 수령관[경력(經歷) 또는 도사(都事)]을 두었다.

1394년(태조 3) 한양에 천도한 다음해에 다시 도역을 조정하여 평산(平山)·배천(白川)·곡산(谷山)·수안(遂安)과 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峽溪)는 수도의 남하에 따른 거리의 원격으로 인해 황해도에 이속시키고, 그 대신에 양광도의 광주(廣州)·수원(水原)·양근(楊根)·쌍부(雙阜)·용구(龍駒)·처인(處仁)·이천(利川)·천녕(川寧)·지평(砥平)은 경기도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광주·수원부 소관 군현을 좌도, 양주(楊州)·부평·철원·연안부 소관 군현을 우도로 개편한 데 이어 태조 7년에는 충청도의 진위현(振威縣)을 경기좌도에 이속시켰다.

태종 2년에는 경기 좌·우도를 합쳐 경기좌우도성(京畿左右道省)이라 하고 관찰사와 도사를 두었다. 동왕 13년에는 다시 사방의 거리를 참작하여 연안·배천·우봉·강음·토산을 황해도로 이속시키고, 이천(利川)을 강원도에 귀속시킨 대신에 충청도의 여흥(驪興)·안성(安城)·음죽(陰竹)과 강원도의 가평현(加平縣)을 내속(來屬)시킨 다음 좌·우도로 나누지 않고 그냥 경기도라 하여 수원에 감영을 두었다.

경기도 행정구역의 개편에서 충청도 영역의 일부가 경기도에 편입되자 1399년(정종 원년)에 영월(寧越)을 강원도에 할속시키는 동시에 원주목의 임내인 영춘현(永春縣)을 충청도에 이속시키고, 태종 13년에는 여흥 등 5읍이 경기도에 이속됨에 따라 경상도 상주목 관내의 옥천(沃

川)·황간(黃澗)·영동(永同)·청산(靑山)·보은(報恩)을 충청도에 귀속시켰다. 강원과 충청 양도가 영월과 영춘을 서로 교환한 것은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를 정리하려는 조치였다. 태종 13년에 가평현을 경기도에, 동왕 16년에 함경도 소속 갑산군(甲山郡) 서면(西面)과 여연(閔筵) 등지를 평안도에 이속시킨 것도 같은 취지였다.

옥천 등 5개 읍이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간 것은 경기도역의 확장에 따른 연쇄반응이란 의미도 있지만, 도계나 읍계의 구획에는 산천을 경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었다. 즉 추풍령이라는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역과 금강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양도의 분계점으로 했다.

조선초기 도의 행정구역과 군현의 행정구역 개편의 결과 조선 전기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소재 ‘경기도 전도’에 의거하여 경기도의 산천 분포와 도내의 군현 구획을 보면, 비록 현재의 지도와는 다르지만 한강과 임진강의 본류와 지류의 유역에 따라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군현들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기도는 조선왕조의 수도인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왕실 또는 중앙정부의 울타리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도로서 역할을 하였다.

1434년(세종 16)에 경기도 소속의 철원과 안협(安峽)이 강원도에, 충청도의 죽산현(竹山縣)이 경기도에 이속되었다. 당시 철원은 봄가을에 강무(講武)를 하던 곳으로서 요역(徭役)과 지공(支供)이라는 이중의 부담 속에서 피폐해짐이 심해져서 병조가 이를 강원도에 이속시키고, 그 대신 충청도의 죽산을 경기도에 이속시켰다. 이처럼 경기도의 행정구역에서 신축되었던 현상은 과전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세종은 강력한 과전억압책으로 하나로 동왕 13년에 신과전법(新科田法)을 제정함과 동시에, 태종 17년 하삼도에 이급(移給)하였던 경기 사전(私田)의 3분의 1을 다시 경기도에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시대 연천현의 명칭은 본래 공목달(功木達, 고구려), 공성(功成, 통일신라), 장주(漳州, 고려) 등으로 불리었다가 고려 충선왕 때에 연천(漣川, 漣州)으로 개칭되었다. 1175년(명조 5)에 현감으로 감무를 두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며, 1413년(태종 13)에 현감으로 개정되었다. 1414년에는 마전현(麻田縣)과 병합하여 마연현으로 되었다가 동왕 16년에 다시 분리, 복구되어서 연천현으로 되었다. 이후 1662년(현종 3)에는 전패(殿牌)를 분실한 사건으로 인하여 현이 혁파되고 마전군에 통합되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복구된 적도 있었다.

연천현의 영역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동쪽으로 영평(永平)까지 12리, 서쪽으로는 임강까지 15리, 남쪽으로 양주까지 10리, 북쪽은 철원까지 20리로 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쪽으로 영평현 경계까지 18리, 남쪽으로 양주 경계까지 13리, 서쪽으로는 마전군 경계까지 15리, 북쪽으로는 삭녕군 경계까지 27리, 강원도 철원부 경계까지 16리, 경도(京都)와의 거

리는 143리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5세기 말에는 읍면의 구성이 대체로 현내면·동면·남면·서면·북면·상수면의 6개의 면으로 이루어졌다. 지방관은 『경국대전』 외관직 규정에 따라 현감 1인 및 훈도 1명이 파견되었고, 연천현감은 장단진관병마절제도위(長湍鎭管兵馬節制都尉)를 겸임하였다.

조선 전기에 현재 연천지역에 해당하는 연천현, 마전현, 삭녕군의 토성(土姓)과 망성(亡姓), 그리고 속성(續姓)에 대해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15세기 토성·망성·속성

군현	토성(土姓)	망성(亡姓)	속성(續姓)
연천현	이(李)·김(金)·정(鄭)·박(朴)·송(宋)·김(金)	정(井)·최(崔)·방(房)·형(邢)·조(曹)·전(田)·손(孫)	-
마전현	-	전(田)·송(宋)·류(柳)·차(車)·어(於)	서(徐)
삭녕군	신(申)·김(金)	송(宋)·조(曹)·오(吳)	박(朴)

* 『세종실록』 지리지에 근거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조선 초기 연천 지역의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삭녕군이 7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전현과 연천현의 순서였다. 경기도의 다른 군현들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데, 연천현의 인구는 360명에 불과해 당시 경기도 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현이었다. 마전현의 인구도 484명으로, 적성(380명)·안협(410명)·영평(419명)·장단현(467명)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현이었다. 곧 연천현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의 군현들은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희박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490년(성종 21) “영평·철원·평강·연천 사이에는 인가에서 나는 연기가 드물고 역새가 들을 덮었으니, 급하게 사민(徙民)하는 것이 마땅하다”(『성종실록』 권236, 성종21년 1월 정축조)는 임중(林重)의 상서(上書)에서도 알 수 있다.

〈표 2〉 조선시대 연천 지역의 인구 추이(단위 명)

시기	연천	마천	삭녕
세조 연간	360	480	722
18세기 중엽	4,024	2,632	10,691
1907년	11,014	10,315	22,131

* 자료 : 『세종실록』 지리지, 『輿地圖書』, 『韓國戶口表』(1907)

조선 전기까지 연천 일대의 인구가 희박하였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도 연천 일대가 조선 전기 내내 강무장(講武場), 곧 국왕의 사냥과 군사훈련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제한받은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역대 국왕들이 사냥을 위해 연천을 자주 찾은 기록이 등장한다. 특히 세종은 봄, 가을로 자주 연천에 내려와 가사평(袞裳坪)이나 불견산(佛見山) 등지에서 사냥하고 송절원(松折院)에서 유숙하였으며, 세조나 성종 등도 사냥을 위해 연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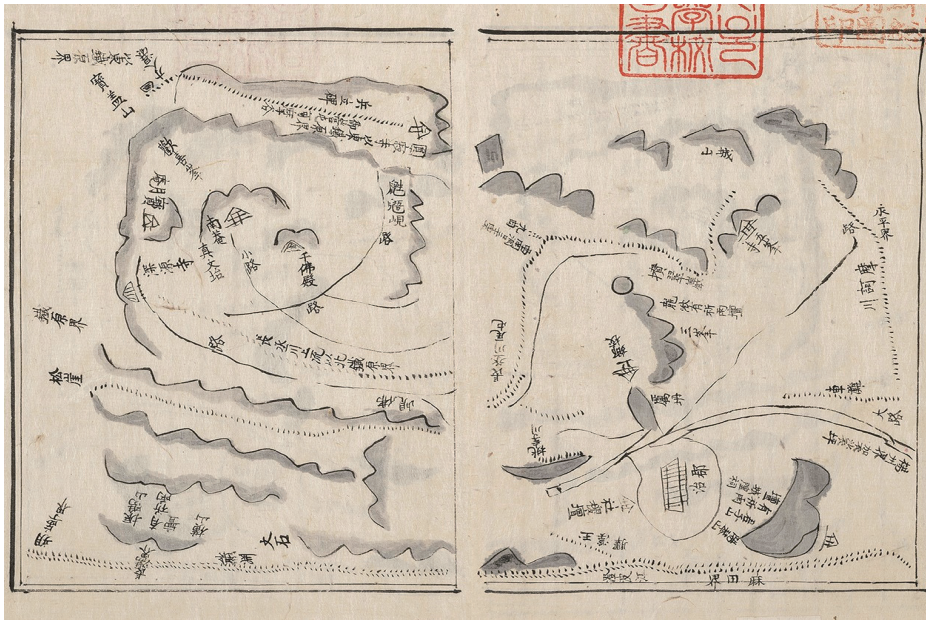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편으로는 연천의 강무장을 부분적으로 혁파하여 백성들이 농지를 개간하여 정착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내려지곤 하였지만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인구가 희박했던 지역의 특성 때문에 1435년(세종 17) 경기감사 성개(成概)는 “마전현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어서 연천과 적성 사이에 끼어 있으며, 연천은 곧 무예를 연습하고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니 마땅히 연천에 합쳐야 한다”(『세종실록』 권 69, 세종 17년 7월 22일(신묘))라고 하여서 마전과 연천의 병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현재 연천지역에 해당하는 조선 전기의 연천과 마전, 삭령의 일부에서 취락은 대체로 리별로 수십 명에서 수 백 명에 이르는 규모였다.¹⁰⁹⁾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취락은 대체로 연천·마전·삭령 등 각 군현의 읍치로 볼 수 있다. 삭령의 읍치인 중면(中面) 삭녕리(朔寧里)는 현재 휴전선 이북에 위치하며, 연천의 읍치(연천읍 읍내리)와 마전의 읍치(미산면 마전리)도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였다.

다만 지리지와 고지도를 통해 옛 모습을 복원해 보면, 연천의 읍치는 군자산(君子山, 327.8m)을 주산(主山)으로, 동쪽으로 차탄천(車灘川)을 바라보며 남동향으로 열린 골짜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중앙에 관아가 있었으며, 그 서쪽에는 사직단, 동쪽에는 향교, 북쪽에는 여단(厲壇), 남쪽에는 성황사(城隍祠)가 배치되어 있었다.¹¹⁰⁾ 특징적인 점은 읍치의 입구 부분에 ‘築壘’이라 불리는 수구막이를 위한 숲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숲은 현재 읍내리 개천말 부근에서 효자문까지 남북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읍치의 지형이 동쪽에 있는 차탄천으로 인하여 재물이 빠져나가는 형국이 되어 수구(水口)를 막는 역할의 축동나무를 심었는데, 현재는 아무런 자취도 남아 있지 않다.

109) 조선후기에는 리별 인구규모에 대해 『여지도서』 등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조선전기에는 리별로 인구를 파악하기 어렵다.

110)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연천현읍지』에 따르면 관아의 건물로는 객사·동헌·책방(冊房)·관수고(官需庫)·공방고(工房庫)·삼문(三門)·내아(內衙)·향청(鄉廳)·무청(武廳)·사령청(使令廳)·사창(司倉)·좌기청(坐起廳)·군기고(軍器庫) 등의 건물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漣川縣邑誌』(규장각소장본 奎17371) 참조. 그러나 이것은 조선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조선전기에는 이보다는 규모가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연천군지도(『연천군읍지』(1899) 수록)



[그림 3] 연천현지도(1872년 지방지도 수록)

2. 교통과 산업

1) 연천지역의 교통

조선 전기의 연천 지역의 교통로는 크게 육로와 수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육로의 경우는 현재 연천읍에서 남북으로 뻗어 있는 3번 국도와 전곡읍에서 동서로 뻗어 있는 37번 국도가 연천군 도로망의 기본적인 골격이다. 3번 국도는 조선시대에 '삼방로(三防路)'를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현재 '평화로'로 불리기도 한다. 이 도로는 조선 전기에도 그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김정호(金正浩)가 저술한 『대동지지(大東地志)』(1864)의 「정리고(程里考)」에는 10개의 간선도로가 소개되어 있는데, 연천군 서편으로는 제1로인 서울~의주 간 의주로(義州路)가, 동편으로는 제2로인 서울~경흥(함경도 서수라까지) 간 경흥로(慶興路)가 뻗어 있다.

경흥로의 경로는 서울을 기점으로 누원·의정부·축석령을 넘어 포천·김화·금성·회양을 지나고, 회양에서 철령·원산을 지나 두만강 하구 부근의 함경북도 경흥까지 이어진다. 경흥로의 분기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에서 시작하여 연천을 관통, 평강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다. 추가령을 넘는 이 노선은 북어 산지로 유명한 원산을 경흥로 본선보다 더 빠르게 연결하였을 뿐 아니라 철령을 경유하는 것보다 수고로움이 적었다. 이에 18세기경부터 이 도로는 북어의 유통을 중심으로 서울과 관북지방을 잇는 상업로로 크게 성장하였다.

조선시대의 연천의 치소(治所)는 연천읍 읍내리였지만 삼방로는 관아를 거치지 않고 차탄리를 경유, 3번 국도 노선 그대로 철원·평강까지 이어졌다. 삼방로는 평탄한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놓여 있으므로 철령과 증현을 넘어야 하는 경흥로보다 빠르고 편했다. 즉 이 길은 관북 동해안의 원산 등지에서 서울로 오는 지름길이었으므로 18세기 중엽부터 북어 상인들이 애용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평탄화되었고, 더구나 개성에서 황해·평안도 일원과의 연결에도 수월했다.

이외에 연천의 주요 도로로 삼방로의 분기로인 연천~이천(伊川) 간 도로도 있었다. 이 노선은 옥계역을 지나 고내현·승령점·안협을 경유하여 이천까지이다. 또 다른 주요 도로는 의주로의 경유지인 파주로부터 고랑진·사미천장·진평점·감물리현·대문치·우화정진·삭령을 지나 토산까지의 도로를 들 수 있다. 경로 일부 구간이 파주와 연천군 백학면과 왕징면 일대를 경유하지만, 나머지는 북한 땅으로 편입되었다.

조서후기의 『여지도서』(1760년)에는 연천의 도로망을 6개의 '대로'로 표기하였다. 6개의 도로 중 '철원대로'와 '양주대로'는 곧 삼방로를 말하며, '삭녕대로'는 삼방로의 분기로인 연천~이천 간 도로이다. '마전대로'는 『여지도서』 마전현 도로조에 우정리를 경유하는 것으로 표기되

어 있으므로 372번 지방도로이며, ‘영평대로’는 현 차탄리·통현리·고문리를 경유한 후 한탄강을 건너 신흥리·고소성리·영평리로 이어지는 길이다.

도로변의 대표적인 숙박 시설로는 역과 원이 있었다. 역의 기본적인 기능은 행정 및 군사 공문서 전달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외에 왕의 거동이나 사신의 왕래, 임관의 부임, 관물 수송 등 공식적인 절차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천군에는 군남면 옥계리의 옥계역(玉溪驛, 연천), 백학면 갈산리의 도원찰방역(桃源察訪驛), 백학면 백령리의 백령역(白嶺驛), 왕징면 구화리의 구화역(仇和驛, 이사 장단) 등 도원도 소속의 역이 있었는데, 도원역은 찰방역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지 않았다. 옥계역은 연천에서 삭령~안협~이천, 백령역은 파주에서 삭령에서 이어지는 도로변에 설치되었다. 역은 병부(兵部) 소속의 공적인 기관이었기에 비록 관리라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는 이용할 수 없었다.

비공식적인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한 역할은 원이 담당하였다. 하지만 원 역시 사설기관은 아니었고 조선 초에는 역의 보조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조선의 원은 고려의 사원(寺院)에서 유래한 것이 많은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역원조에 의하면 전국의 원의 숫자는 총 1,309개로서 총 역의 숫자인 549에 비해 약 2.4배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15세기 중반에 1,309처나 될 정도로 많았던 원은 조선후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급격히 감소하는데, 주점 등이 이를 대체하였다.

연천에는 큰 도회가 없고 간선도로도 비켜 지나가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도 원의 설치가 활발하지 않았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연천에는 현 동쪽 10리에 송절원(松折院)이 있었고, 마전에는 징파도 강기슭에 동지원(東指院)이 있었다. 고려 때 관북지방에서 개성과 서울로 가는 갈림길에 설치한 것이 송절원이다. 이곳은 특히 세종이 연천의 가사평이나 철원 일대에 사냥하러 나오면 유숙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세종실록』 권16, 세종 4년 4월 3일(기축)) 두 개의 원은 조선후기에 없어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찍부터 폐지되었거나 그 기능을 상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장단군 소속의 석주원(石柱院)이 백학면 석주원리에 있었다.

2) 연천지역의 산업

연천에는 ‘점말’이라고 불리는 곳이 많은데, 이는 점(店)에서 유래한 것이다. 점이란 행상처럼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자리에서 소비자를 기다리는 상인 또는 건물, 나아가 그 점종(店種)을 취락명으로 일컫는 예도 있는데, 그들이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 주점·옹기점·사기점·떡점 등의 이름이 붙었다. 이 가운데 왕징면 고잔하리·기곡리·무등리와 전곡읍 늘목리·청산면 초성리 등지에서 주막거리라는 지명을 찾을 수 있다. 고잔하리는 장경대나루가, 무등리에는 유진나루가 있는 포구마을이었기 때문에 각종 물화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연천 내의 점말이라는 지명은 대부분 옹기점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이것이 옹기 제작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판매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옹기는 연천의 특화 상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서면 도신리와 연천읍 옥산리, 전곡읍 고릉리의 옹기점과 사기막은 삼방로 변에, 미산면 아미리, 왕징면 귀존리, 중면 삼꽃리 등은 수로 변에, 이외에 백학면 갈현리, 고장하리 등은 주요 분기로의 주변에 있었다. 옹기 요지(窯址)는 연료 획득을 위해 얇은 산골짜기나 구릉지에 자리 잡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제품 파손의 위험 때문에 가능하면 도로 혹은 수로에 가깝게 입지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점말들은 조선후기 이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 전기부터 이 가운데 일부는 존속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연천은 육로만이 아니라 수로도 발달해 있었던 곳이다. 임진강 유역에서 약간 남쪽에 치우쳐 있지만, 삼방로와 임진강이 종관하고 있고, 가까운 경흥로가 지나고 있으며, 임진강의 제1지류인 한탄강이 동쪽에서 합류해 들어온다. 주요 육로와 수로가 연천을 중심으로 결절하고 있는 모양이다. 연천은 경지가 협소하여 큰 읍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유통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고랑포·징파도 등 포구를 중심으로 상업과 장시가 발달하였다.

임진강 유역은 다른 하천에 비하여 포구의 입지 조건이 불리했다. 한탄강과 임진강 하류 지역에 형성된 용암대지 지형은 선박의 접안이 쉽지 않은 조건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징파도와 고랑포진은 조선 후기에 임진강 수운에서 대표적인 2대 포구라고 할 수 있다. 포구 중에 연천 읍에서 가장 가까운 징파도는 ‘고려 때 개성에서 함경도로 가는 대로 위의 진도(津渡)로 어음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고랑포 역시 임진강 밀설물 구간의 상한점에 위치하여 마치 한강의 마포와 비유할 수 있는 임진강 최대의 포구였으며, ‘상류 및 부근 지방의 화물을 모으고 이들 지방에 소금·어류·해초(海草)·의류(衣類)·잡화를 공급하는 가장 긴요한 시장’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두 포구는 이미 조선 전기에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과 경기도의 인구나 군정, 전답에 대해 15세기의 지방관의 조사에 따라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규모는 대체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라 살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 41개 군현의 총 호구는 20,892호, 50,352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시위군과 선군(船軍)을 합하여 5,158명의 군정이 파악된다. 연천현의 경우는 186호, 360명으로 파악되며, 군정은 시위군이 23명, 선군이 21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경기 전체에서 각각 0.9%(호), 0.9%(명), 0.9%(군정)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천은 호구로 볼 때도 매우 작은 규모의 읍이었다.

또 경기도 소재 전답의 경우도 경기도 전체의 194,270결 가운데 연천현의 전답은 1,939결로서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가운데 전이 1,508결, 답이 431결로서 답의 비율은 연천현 전답의 22%에 불과하여 당시 경기 전체의 전답에서 답이 차지하는 38%의 비율보다 절반의 수준으로서 밭 중심의 경작지대가 주 생산이었음을 보여준다. 연천 지역의 농업생산물로는 벼·조·기장·피·콩·팥·뽕나무·삼[麻] 등이 있고, 특산물로는 실·도

기(陶器)·오미자·자초(紫草)·순채(蓴菜)·쏘가리·누치 등이 있었다.

조선왕조에서 대체로 무본억말(務本抑末)의 정책에 따라 농업을 위주로 장려하였고, 상업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상품화폐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상인의 상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중앙과 지방에서의 상품유통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세종 때에는 임금이 '지금 우리나라는 경도(京都)에는 시(市)가 있으나 각도의 주군에는 모두 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향촌 사회의 현장에서는 유통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초기 상업체제는 15세기 후반인 1470년 무렵 전라도 일원에서 농촌시장이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성종 원년에 닥친 흉년으로 인해 전라도 지역의 농민들이 서로 모여 시포(市舖)를 열고 스스로 장문(場門)이라고 칭하였다는 것은 장시의 성립을 알리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처럼 장시는 전라도 서해안지역인 나주·무안 등의 읍에서 성립한 이후 16세기 초인 1516년에는 충청도의 장시가 정부의 허락 아래 개설되고, 곧이어 경상도에서도 성립되어 1518년(중종 13)에는 '방방곡곡에 저자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지속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시의 발달과 농촌에서의 유통경제가 확대된 데에는 시비술의 발달과 수리시설의 개선으로 휴한농법이 극복되고 연작상경농법을 널리 행하는 것으로 집약되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서 농가의 수공업 분야인 직조수공업과 자기수공업이 전국적으로 농촌에서 발전하여 상품생산의 단계까지 진전되었다. 점차 자기 수요 외에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얻는 수익이 커지면서 세종대에 이미 '농민들이 공상의 이익 때문에 몰리고 있어 농민이 날로 감소한다'라고 할 정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시는 경기도 지역의 농촌 유통경제에도 정착하게 되었다. 16세기 말에는 경기지방의 여기저기에 장시가 출현하였으며, 임진왜란을 거친 후에는 부쩍 성하게 되었다. 이항복(李恒福)은 임진왜란 이후 경기 내의 장시의 남설 현상을 말하여, '근년 이래 장시가 속속 개설되었으며,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기지역에도 장시가 개설되어 그 수가 더욱 늘어났다. 그리하여 한성 도성과의 상품유통의 길이 더욱 막히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기도 하였다.

원래 경기의 농민들은 각기 토산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바꾸어 교역하는 것을 습속으로 삼았다. 경기지역은 왕실의 울타리로서 경중과 기전(畿甸)이 서로 의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군현제의 한 측면이었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서 장시의 남설은 특히 금지됐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장시는 확대 증가하고 있었다. 경기지방에서의 물자의 유통은 주로 시전과 서울의 부상(富商)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는데, 이런 유통망이 장시의 증가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지역의 광주분원의 도자기수공업 생산, 경기 남부지방에서의 유기수공업 생산, 경기 서부해안지대에서의 제염수공업 생산체제가 활성화되고 전업화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다른지역에서의 농가와 마찬가지로 경기지역의 농가에서도 직조수공업이나 자기수공업 생산 등 소상품 농가 수공업 생산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생산의 결과 상품의 유통의 활발해지는 것은 명백한 현상이었다.

3. 군사 편제와 군민의 역

1) 조선 전기 경기도의 군사편제

조선왕조의 지방군제는 고려말의 전임(專任) 도절제사(都節制使)를 지방에 파견하던 체제를 그대로 이어서 군사구역, 즉 군사 단위로서의 병마도(兵馬道)의 위치가 계속 유지되었다. 즉 고려말에 나누어졌던 경기좌도(京畿左道)·경기우도(京畿右道)·양광도(楊廣道)·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서해도(西海道)·강릉도(江陵道)의 8도는 군사행정과 군사 활동에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사 단위의 도는 1397년(태조 6) 5월에 일단 폐지되었다. 즉 각도에 2 내지 4개의 진(鎭)을 설치하여 첨절제사(僉節制使)의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도(道)보다 작은 단위의 군사구역을 설정하고 그 중심 거점인 진을 위주로 하여 방위체제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태조 7년 10월에 도절제사가 부활하였다. 이는 다시 군사 단위로서의 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때의 가장 큰 변화는 도절제사가 고정적으로 상주(常駐)할 수 있는 영(營)과 직할 병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사실상의 도절제사영이 이루어졌고 영군(營軍)의 설치도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행정구역과 같은 구분이었던 군사 단위의 도절제사 도(道)는 1409년(태종 9) 10월에 11개 도로 정비되었다. 즉 상주진주도(尙州晉州道)·계림안동도(雞林安東道)·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淸道)·경기좌도(京畿左道)·경기우도(京畿右道)·풍해도(豊海道)·동북면(東北面)·평양도(平壤道)·안주도(安州道)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외정세와 대응하여 취해진 것인데, 11도의 명칭과 함께 도절제사와 그 보좌역인 절제사·첨절제사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함길도·평안도가 곧이어 정비되어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풍해도와 더불어 행정구역으로서의 8도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고, 병마도(兵馬道)도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정비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8도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기에는 평상시에 관찰사는 있었으나 도절제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도가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여 있고 그 중앙에 수도 한성이 있어 오늘날 수도권과 같은 형태로 묶여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수도 한성이 경기도의 중앙지역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중앙군을 동원하고 별도의 지역방어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

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는 1414년(태종 14) 1월 관제개혁 때 경기좌우도를 아예 '경기(京畿)'로 개칭하고 '도(道)'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이후 '경기·기전(畿甸)' 혹은 '기내(畿內)' 등으로 불리고 『세종실록』 지리지나 『경국대전』에도 아예 도를 생략하였으며, 공식적인 문서에는 으레 경기도만 표기하였다. 이로 보아 경기를 다른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으로 인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에는 상경 숙위하는 시위군(侍衛軍)과 수도 해구(海口)를 지키는 선군(船軍)은 있지만 지방군의 대표적인 병종인 영진군(營鎭軍)은 없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7월, 사간원에서 “경기는 나라의 근본으로 사변이 있으면 경기 안의 군사를 먼저 징집해야 하는데, 본래 영솔자(領率者)가 없어 체통이 없으니 도내의 수령 중에 장략(將略) 있는 자를 택하여 절제사의 직임을 겸하게 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자.”라고 하였으나 의정부에서 “경기는 다른 도와 달라서 본래 절제사의 직(職)이 없고 감사가 겸임하고 있으니 반드시 절제사를 따로 둘 것이 없고 또 경기도 군액(軍額)의 군적(軍籍)은 병조에서 이미 만들었다.”고 반대한 것으로 보아서, 경기의 군사행정에는 감사가 하지만 군적은 중앙군과 마찬가지로 병조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관제(鎭管制) 성립 이전의 경기에는 수영은 있었지만 영진은 없어 영진군은 없고, 육수군은 중앙에 번상하는 시위군만 있었던 것이다. 1454년(단종 2) 9월 병조에서 올린 정문(摺文)에 따라 의정부에서 계(啓)한 것을 보면, “경기도는 영·진이 없으니 제읍(諸邑)의 감사를 연해 각 고을에 분속시켜 만약 적변(賊變)이 있으면 이들을 징소하여 대응하도록 요구”하여 허락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사시에는 경기에 거주하는 중앙군인 감사 등이 응변하는 등 중앙군과 기전군(畿甸軍)의 구분이 없었다. 경기의 시위군은 때로 강무(講武)나 타위(打圍)에 구군(驅軍·모리군)으로 동원되고 번상(番上)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군화한 중앙군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방지역의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를 도입하게 되었다. 지방군체제의 일대 혁신인 군익도의 전국화는 1455년(세조 원년)에 이루어졌다. 즉 평안도(平安道·서북면)와 함길도(咸吉道·동북면)에 설치된 군익도 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남방지역에는 종래 적이 침입이 가능한 연해의 요해 지역에만 진(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외침을 받아 이곳이 무너지면 내륙지방은 무인지경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륙지방에도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그 주위의 여러 고을을 나누어 속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각도는 다시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어지고, 각 군익도는 중(中)·좌(左)·우(右)의 3익(翼)으로 이루어졌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기도에는 선군 이외에 영진군이 없고 서울에 번상하는 시위군만 있었으나 처음으로 군익도에 편성되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경기도의 군익도 체제

거진(巨鎭)	광주도(廣州道)	중익 : 광주·이천·양근·양지 좌익 : 여흥·천녕·지평·음죽 우익 : 안성·진위·양성·용인·죽산
	양주도(楊州道)	중익 : 양주·원평·포천·적성·가평 좌익 : 삭녕·마전·영평·연천 우익 : 풍덕·장단·임진·임강
	부평도(富平道)	중익 : 부평·인천·양천·금천·고양 좌익 : 수원·남양·안산·과천 우익 : 김포·교하·통진
독진(獨鎭)	교동(喬桐)	
	강화(江華)	
	개성부(開城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는 3개의 거진과 3개의 독진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거진은 그 부근의 고을들을 중·좌·우익에 편입시켜 경기 전체를 하나의 군사 단위로 조직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의 도(道)와 군사조직 단위인 도가 혼동을 가져와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1457년(세조 3) 10월 전국적인 군익도체제를 진관체제(鎭管體制)로 개편하였다. 즉 종래 전국의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좌·우익으로 편성했던 체제를 익(翼)이나 도(道)가 아닌 거진(巨鎭)으로 개편해서 나머지 여러 진(諸鎭)이 이들 거진에 소속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개편에 따라 경기의 진관은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수원진 : 부평·인천·금천·안산·남양·진위·안성·양성
 광주진 : 양근·지평·천녕·여흥·음죽·죽산·이천·양지·용인
 양주진 : 연천·마전·적성·원평·교하·고양·영평·포천·가평
 강화진 : 김포·양천·통진·교동
 개성진 : 삭녕·임진·풍덕

위의 경기 진관에서 보는 바와 세조 원년 당시 광주도(廣州道)가 광주진(廣州鎭)으로 개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진관체제에서의 진(鎭)은 고려 건국 이래 지방군의 파악단위로 써 왔고 조선에서도 군익도체제를 정비하면서 여전히 도를 군사 단위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진관체제로의 개편에서는 행정단위인 도와 혼동될 수 있었던 군사적 도의 명칭을 지양하고 군사상의 용어인 진으로 바꾸어 행정구역의 도와 구분되게 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 진으로의 개편은 종래 지방 군사상 요해지(要害地)였던 진의 계열과 연결해, 요새지(要塞地) 혹은 군사지로서의 거점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려 이래의 지역적 인상의 도를 버리고 거점적 인상이

크게 느껴지는 진으로 개편한 것이다.

1458년(세조 4) 1월 3일 병조의 건의로 제도(諸道) 제읍(諸邑)의 중·좌·우익을 혁파하고 진을 두었다. 수령의 직함도 주진 당상관은 모주진병마절제사(某州鎭兵馬節制使), 3품은 첨절제사(僉節制使), 4품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제읍에 분속한 것은 모주도병마단련사(某州道兵馬團鍊使)·부사(副使)·판관(判官)이라 칭하게 되었다. 다시 세조 5년에는 군익도를 행정구역의 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진관체제를 갖추어 일단 지방 군사제도를 전국화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진관체제 아래의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병종(兵種)을 1464년(세조 10)에 정병(正兵)으로 합칭하여 육·수군의 명칭을 단일화시킴으로써 진관체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확립된 진관체제는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한편 각도·각진관의 병마책임자도 1466년(세조 12)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각관의 수령이 절제사(節制使) 이하를 겸임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경국대전』 속의 경기 육군과 수군의 진관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경기 진관 편성표

구분	병·수사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만호
육군	병사 1 (관찰사 예겸)	광주진관	여주·이천·양근	광주·여주·지평 음죽·양지·죽산·과천	
		수원진관	부평·남양·인천· 안산·안성	수원·진위·양천·용인· 금천·양성·통진·김포	
		양주진관	파주·고양	영천·포천·적성·교하·가평	
		장단진관	강화·풍덕·삭녕·마전	연천·교동	
수군	수사 2 (관찰사 예겸, 경기수사)	월곶진관	-		영종포· 초지량· 제물량· 정포·교동량

2) 연천군민의 군역과 요역 부담

연천현의 현민이 일반 양인으로서 국가에 대해 지는 의무적인 역(役)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즉 하나는 인정(人丁)을 단위로 하는 군역(軍役)이고, 또 하나는 전결(田結)을 단위로 하는 요역(徭役)이다. 『경국대전』 「호전(戶典)」 요부조에 ‘요역은 전(田) 8결에 1부(夫)를 내고 한 해에 6일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요역이 비록 전결을 단위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자는 농민이었기 때문에 인정 중심의 군역의무자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에서는 인정 중심의 군역이나 전결 중심의 요역이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적 약속인 한 해에 6일 이상 요역에 동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적어도 경기도 한해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경기에는 각

품(各品) 과전(科田)을 비롯한 수신전(守信田)·별사전(別賜田)·공신전(功臣田)은 물론 나머지도 군자전(軍資田) 등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경기도의 백성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에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경기 자체가 나라의 중앙에 있고, 그 중앙에 또 수도인 한성이 있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경기군이나 경기민은 국가의 역이 있을 때는 손쉽게 징발할 수 있어 무조건 동원되었다.

평화로운 때 무비(武備)를 잊지 않고 무예를 익히기 위해 춘수(春蒐)·하묘(夏苗)·추선(秋獮)·동수(冬狩) 등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춘하추동의 사계절에 대열(大閱)·강무(講武)·열무(閱武)·타위(打圍) 등의 군사훈련이 행해졌다. 이를 통해 군사훈련에서 잡은 짐승을 종묘(宗廟)에 바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대열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개 강무나 열무, 타위 등의 이름으로 사냥이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강무제도는 1396년(태조 5) 11월에 마련되었다. 강무장은 수도와 가까운 경기나 충청도, 강원도 등지에서 정하고 실행되었으나 대개의 경우 수도 한성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에서 강무장을 구하여 사냥을 곁들여서 군사훈련을 겸하였다. 이러한 군사훈련을 겸한 강무 등에는 으레 경기 소속의 군현에서 군사들이 10일이나 15일의 식량을 싸서 모리군(驅軍)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 없이 이리저리 옮겨가며 강무를 할 수는 없어서 상설 강무장이 필요하였다.

강무장(講武場)은 1415년(태종 15) 2월, 태종이 직접 전지(傳旨)를 내려 강원도와 풍해도 및 경기 지역에 설정하였다. 당시 정해진 경기의 강무장은 연천과 가까운 임강(臨江)가 장단(長湍) 외에 수회(水回)·마성(馬城)·칠장(七牆)과 (개성)유후사(留後司)의 태정곶이(答井串)·덕련동구(德蓮洞口)·안협(安峽)·광주(廣州)·양근(楊根) 등으로 이듬해 8월에는 강무장의 표지(標識)를 세웠다. 이들 강무장은 이후 여러 차례 치폐(置廢)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일단 강무장으로 정해지면 그 지역 안에서 그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과 이미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곳 이외에 새로 거주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나 새로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것은 물론, 나무나 풀을 베는 것과 사사로이 수렵하는 것도 일절 용납되지 않았다. 따라서 강무장으로 정해지는 지역의 백성들은 강무장 근처에서 땀나무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고통스러웠다. 세종 10년에는 강무장의 산전(山田) 개간은 허용하였으나 사렵 등은 여전히 금지되었다. 1485년(성종 16) 7월에 연천 근처의 양주·포천·영평 등지의 강무장 주변의 벌목(伐木)을 호소했으나 성종은 금망(禁網)을 한 번 열면 참벌(斬伐)이 자행된다고 하여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짧은 기간이기는 하였지만 1505년(연산군 11) 5월에는 왕경에서 동서남북 100리로 금표(禁標)를 설정한 일도 있었다. 이때 설정된 금표는 동쪽은 용진(龍津), 남쪽은 용인(龍仁), 북쪽은 대탄(大灘), 서쪽으로는 임진(臨津)에 이르렀다. 경기 내의 땅이 반이 넘게 금표 안에

〈표 5〉 조선전기 연천현 행행 및 강무 관련 기록

시기	왕대	관련기록	비고
1414	태종14	어가(御駕)가 연천(漣川)의 대탄(大灘)에 머뭄	
1416	태종16	(임금이) 연천에 머뭄	
1419	세종1	어가(御駕)가 연천에 머뭄	
1422	세종4	임금의 행차가 연천(漣川) 송절원(松折院) 언덕에 이르러 잠	강무
1424	세종6	연천(漣川)의 가사평(加士平)과 불로지산(佛老只山)에서 물이하고 낮참으로 연천에서 머뭄	강무
1425	세종7	연천(漣川)의 가여평(加兒平)과 부로지산(夫老只山)에서 물이함	강무
1426	세종8	낮참에 연천(漣川)의 공성(孔城)에 머무르고, 불현산(佛見山)에서 물이, 저녁에 송절원(松折院) 들에 이르러 머뭄	강무
1431	세종13	연천(漣川) 송절원(松節院) 들에서 머뭄	강무
1434	세종16	연천(漣川) 언덕에서 사냥하고 송절원평(松折院平)에서 머뭄(2/7), 연천(漣川)·철원(鐵原)의 산골짜기에서 사냥함(2/8)	강무
1434	세종16	연천 평원에서 사냥을 구경, 연천현 송절원(松折院) 들에서 숙소를 정함(9/29)	강무
1437	세종19	연천과 철원(鐵原)의 경계에서 사냥하고, 송절원(松折院) 들에 유숙함	강무
1440	세종22	불견지산(佛見只山)에서 사냥하다 송절원(松折院)에서 유숙함	강무
1462	세조8	어가(御駕)가 연천현(漣川縣) 가아평(加兒平)에 이르러, 고구(高丘)에 나가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저녁에 송절원평(松折院平)에 머뭄	강무

들어가기도 하였다. 금표 안의 백성들을 금표 밖으로 옮기는 동시에 양주진의 군정도 다른 고을로 옮겨야 했다.

이러한 강무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리군이였다. 실제 강무에 동원되는 모리군은 모두 다 실록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강무의 규모에 따라서는 4~5천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모리군으로는 해당 강무장이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경기의 다른 지역의 군민이 필요에 의해 언제나 수시로 동원되었다. 연천 지역의 경우 1433년(세종 15) 포천 보장산(寶藏山)에서의 강무와 모리군의 선발에 관한 논의에서 그 실상을 알 수 있다.『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 10월 3일(임자)

세종은 보장산에서의 강무에 쓸 모리군을 연천과 철원, 포천, 영평 등지에서 뽑게 하였다. 그러나 도승지 안승선의 의견대로 기후가 불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사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일 때문에 강무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강무가 시행되는 인근 지역의 군현 민들이 모리군으로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리군에 동원되는 군민들은 10일에서 15일 정도의 양식을 싸서 참가해야 하므로 고역이었다. 따라서 세종 15년에는 춘추에 모리군으로 동원된 경기의 시위패에게 번상을 면제해 주기

도 하였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무기(武器)와 마필(馬匹)을 전연 정비하지 않고 수령도 검찰하지 않아 기내의 정병은 유명무실하다고 하고 있으니 경기도 소속의 군인들은 국방을 위한 군역보다는 고단한 각종 잡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무장을 강원도 등지에도 정했으나 역대 국왕은 대개의 경우 임진도(臨津渡)·정금원평(鄭金院坪)·녹양평(綠楊坪)·살곶이[箭串] 등지에 진을 치고 그 주위의 강무소에서 강무와 타위를 행하였다. 조선전기에 연천현에 임금의 행차와 관련된 강무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강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임금의 행차 곧 행행(幸行)이 있는 경우에 군민의 동원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왕실 역대의 능원(陵園)이 거의 경기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종 5년 9월에는 이듬해 1월에 황해도 개풍군에 소재한 제릉(齊陵: 태조의 정비 신의왕후의릉), 후릉(厚陵: 정종과 정안왕후의릉)에 전배(展拜)하기 위해 경기에서 4,700명은 16일치 양식을 가지고 양철평 앞뜰에서, 개성부의 700명, 황해도의 4,100명은 12일치 양식을 가지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연천현의 경우에도 종종 때에 제릉을 행행할 때에 도중에 거치게 되는 각 고을의 효자(孝子)·순손(順孫)·열녀(烈女)·절부(節婦)들을 귀향(饋享)할 것을 이미 하교하였는데, 여기에 더해 승의전(崇義殿)에 모시고 있는 왕씨(王氏)의 묘에도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을 청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종종 대에도 연천을 지난 것을 알 수 있다. 『중종실록』 권77, 중종 29년 8월 1일(을미))

4. 사회와 문화

1) 승의전의 설치와 운영

조선전기에 연천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았으며, 사서에 기록될 만한 일이 많지는 않았다. 다만 『세종실록』에 나오는 연천 지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마전현(麻田縣)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어서 연천(漣川)과 적성(積城)의 사이에 끼어 있으며, 연천은 곧 무예(武藝)를 연습하고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이니, 마땅히 마전을 연천에 합쳐야 할 것이며(하략)”(『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 9월 29일(계묘))라고 언급될 정도로 연천 지역은 무예 연습과 사신 접대의 장소로 인식되었다.

무예 연습은 주로 강무(講武)로 이곳을 자주 찾았던 세종이나 세조 때의 일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신 접대의 경우 태상왕(太上王: 태조)가 징파도(澄波渡)에서 사신 온전을 대접한 일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¹¹⁾

연천지역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개성에서 서울로 가는 사이에 있던

곳이므로 조선전기에는 많은 인물이 거쳐 가거나 묘소가 위치하기도 하였다. 고려 때 원 순제(順帝)의 황후였던 기황후(奇皇后)의 묘터로 전해오는 곳이 연천읍에 위치하였던 것 역시 고려 때부터 이 지역이 묘지로 위치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천의 승의전 역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당이다. 고려 태조를 비롯한 4왕과 고려조의 충신 16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인 승의전은 원래 마전현에 마련되었다. 조선 왕조가 건립된 후에 곧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던 양암사(仰巖寺, 마전 담동리)에 있었던 태조묘에 기원을 두고 있다. 곧 1397년(태조 6)에 고려 태조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한 것이 지금의 승의전의 시초이다.

태조 이성계는 양암사에 왕씨인 왕우(王瑀)를 귀의군(歸義君)으로 봉군(封君)하고 이전 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왕우는 유교적 명분에 따라 끊긴 왕조의 제사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또한 이곳에는 개경으로부터 태조 왕건의 동상이 옮겨져 왔다. 태조묘는 조선 정부의 결정에 따라 고려의 혜종, 현종, 원종, 충렬왕, 성종, 문종, 공민왕의 제사를 같이 지내는 곳이 되었다. 이 내용은 『경제육전(經濟六典)』에 들어가 법제화되었다. 태조묘 시절의 제사 방식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승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식의 방식도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태조묘는 1398년(태조 7) 1차 왕자의 난과 왕우의 사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마전현에 사당을 세우는 한편, 태조묘 제사를 국가의 사전체계 속의 중사(中祀)로 편입시켰다. 또한 제사의 대상은 태조, 현종, 공민왕을 제외하고 없애 버렸다. 조선에서는 종묘가 5살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 태조묘 제사의 대상 숫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었다. 이 태조묘가 국가의 사전 체계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제사의 주체는 왕우가 아니라 국가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곳은 미산면 임진강 변의 아미산 자락 정상부 못 미쳐 조성된 아늑한 평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임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한눈에 조망된다.

태조묘에 대한 제사 방식은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첫째 제사 지내는 날짜는 서운관이 잡는데, 중춘(仲春)과 중추(仲秋) 상순(上旬)을 택한다. 둘째 재계(齋戒)의 경우 집사관은 제향 전 5일 전부터 치재(致齋)를 하는데, 이때 잠자고 먹고 마시는 일, 형벌 관련 일과 오락 등을 피하도록 한다. 셋째, 진설(陳設)인데, 제를 올리기 이틀 전에 해당 관사는 주변을 청소하고 여러 시설을 설치한다. 그리고 하루 전에 희생을 끌고 가며, 제례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설정한다. 그리고 시각에 맞추어 희생을 죽여서 익히고, 축판(祝版) 등을 올린다. 또한 각각의 제기 등의 설치와 위치, 그리고 올리는 제수(祭需) 물품의 수량

111)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0월 27일(정축) 참조.

과 목록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을 맨 앞에 놓고 이후 어수(魚鱸)·건조(乾棗)·울황(栗黃) 등의 순서로 놓는다는 등의 상세한 규정이다. 넷째, 행례(行禮)로 제례 당일의 규정이다. 제례는 축시(丑時) 1각(刻)에 하도록 하였으며, 행사의 절차를 상세하게 명기하였다. 그에 따라 제례는 시조인 태조에게 먼저하고, 뒤이어 현종과 공민왕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제사에 관한 규정은 단군에 대해 지내는 제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규정이 이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계승되었던 점이다. 다만 『국조오례의』에서는 현종, 공민왕과 같은 구체적 제사 대상에 대한 규정을 수록하지 않았다.

한편 세종 때에는 태조묘에 대해 위패 자리 등에 대한 정비가 있었다. 이 정비는 태조묘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전국의 악(獄)·해(海)·독(瀆)·산천(山川)의 단묘(壇廟)와 신평(神牌) 제도를 자세하게 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따라 마전현에 있던 태조묘는 태조를 남향, 현종을 동쪽, 문종은 서쪽, 충경왕(원종)을 동쪽에 두고, 면장(面帳; 앞에 늘인 휘장)과 좌자함(座子函)에 칠하는 것은 경기도가 이를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

송의전의 설치는 제사 주체에 대한 문제와 사전 체계 속에 편입된 것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문종은 왕씨의 후손인 왕우지(王牛知)를 충청도 공주에서 찾아내서 제사를 맡겼으며, 지역 수령은 마전현에서 마전군으로 올려서 제사에 필요한 희생 등의 준비를 맡겼다. 아울러 제사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향과 축문을 가지고 갔다. 이는 제사에 대한 국가의 참여와 일정한 간섭을 의미하였다. 즉 왕씨 후손에게는 제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왕씨 후손인 왕우지는 송의전부사(崇義殿副使)에 임명되었으며 성씨는 임씨로 변경하도록 조치하였다.

세조는 왕우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고, 2품관의 위상으로 대우하였다. 그러나 세조 이후로는 송의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점차 멀어졌으며, 최고 관직 역시 종 3품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송의전을 뒷받침할 노비나 토지 등의 경제적 대우 역시 열악해졌다. 따라서 이후부터 왕씨의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현관이 되어 제사의 주체가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송의전에 대한 관리나 제사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사주체인 왕씨 후손을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았으며, 동반(東班) 관직자에 따른 특권으로 서얼 임명 문제가 따라오기도 하였다. 이미 송의전 제사는 명종 때부터 제대로 거행되지 못했던 상태였다. 아울러 조선 정부는 송의전에 모셔 있는 위패의 축문 내용도 고쳤다. 성리학적 명분에 따라 ‘대왕’이라는 호칭이 문제가 되었다.

송의전 제사에 관한 관심은 영조대에 부활하였다. 영조는 중앙관료를 파견하여 제사를 맡게 하였으며, 다시 왕씨의 임용에도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경우에 왕씨와 중앙관 가운데 누

가 현관을 맡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의 관품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제사의 주체는 국가였을 가능성이 크다. 송의전 관료에 왕씨의 임용과 승진은 정조대에 잠깐 폐지되었다가 복귀되었지만 결국 고종대에 없어졌다. 제사는 국가가 임명한 왕씨 후손의 참봉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 송의전은 다른 시조묘와 달리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것에서 동일한 지위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송의전의 정전에는 고려 태조, 현종, 문종, 원종 4왕이 봉안되어 있다. 배신청에는 복지겸, 홍유, 신승겸, 유금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 16공신이 봉안되어 있다. 송의전은 조선시대에 1605년(선조 38), 1727년(영조 3), 1789년(정조 13), 1868년(고종 5), 1908년(순종 2) 등 총 5차례에 걸쳐 개수와 중수를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중에 전소하였으며, 이를 1972년에 사적으로 지정하고 다음해에 복원, 건립하게 되었다.

2) 조선전기 주요 인물과 묘소

송의전 외에도 연천 지역에는 고려와 관련된 인물의 흔적이 적지 않다. 고려의 왕실 관련 인물로는 송의전의 제사 관리자였던 왕순례(王循禮; 왕우지의 개칭 이름)가 있고, 조선 왕실의 경우에도 조선초기의 왕실 관련 인물의 묘소가 있다.

특히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서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 고려에 충절을 바친 인물이나 조선왕조에 개창에 협조하여 공신에 참여하거나 문신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묘소가 곳곳에 존재한다. 송의전 부사 왕순례의 묘는 미산면 마전리에서 아미리의 송의전으로 가는 염창굴고개의 산마루 도로변에 묘표와 함께 서향하여 있다. 왕순례(?-1485)는 본명이 왕우지(王牛知)이고, 고려 현종의 원손으로 왕휴(王休)의 후취인 오씨의 소생 왕미(王美)의 아들이다. 조선시대 초대 송의전 부사를 역임했다. 기록에 따르면 1452년(단종 즉위년) 7월 2일 송의전부사에 임명되었으며, 1459년(세조 5)에는 방자한 태도로 인하여 처벌받았다가 1463년(세조 9)에 복직되었다. 세조와 성종대에 수차례 궁중 행사에 초대되어 참석하기도 하였다. 왕순례가 본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이 죽자 첩에게서 난 서자에게 계승하게 하였고, 조정에서는 부의와 조제의식을 베풀어 송의전 봉사에 대한 의례를 행해주었다.

조선초기 태종의 후궁이나 사위가 둘이나 이곳에 잠들었고, 양녕대군의 셋째아들, 성종의 장인, 태종의 증손 역시 이곳을 묘소로 삼았다. 의빈권씨(懿嬪權氏)는 태종의 후궁으로, 정혜옹주(貞惠翁主)의 생모이다. 처음 궁인으로 궁중에 들어와 태종의 총애를 받아 궁주에 봉해지고, 정혜옹주를 출산하여 의빈(懿嬪)으로 진봉(進封)되었다. 1422년(세종 4) 태종이 죽자 비관하여 세종에게 고하지 않고 머리를 깎아 증이 되어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면서 선왕의 명복을

빌었으므로 후궁들이 본받아 앞을 다투어 머리를 깎았다.

조선은 승유억불 정책을 펼칠 때였지만, 궁중에서는 심하게 금지하지 않아서 범패와 공양의 도구를 준비해두고 밤낮으로 예불하였다. 이후에는 세종의 여섯째아들 금성대군(金城大君) 유(瑜)를 맡아서 길렀다. 1453년(단종 1) 늙고 병들자 금성대군이 사저에서 한가로이 지낼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혜빈궁(惠嬪宮) 양씨(楊氏)의 처소로 옮겨 지냈다. 1457년(세조 3) 선왕을 위하는 왕의 특별 배려로 궁호를 '영수궁(寧壽宮)'으로 고치고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게 하였다. 의빈권씨의 무덤은 민통선 내 주한미군 사격장 안에 위치한다.

태종의 사위 운성부원군 박종우(朴從愚 ?~1464)는 조선초의 문신이다. 본관은 운봉(雲峰)이고 찬성 박신(朴信)의 아들이다. 1419년(세종 1) 태종의 서녀(庶女) 정혜옹주(貞惠翁主)와 결혼하여 운성군(雲城君)에 봉해졌고, 곧이어 자헌대부로 승품하였다. 1423년(세종 5) 사은사(謝恩使)로 명에 다녀온 뒤 정2품인 정헌대부 삼군장수, 호조판서, 지중추원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1447년(세종 29)에 이조판서 좌찬성을 거쳐 1453년(단종 원년)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이 되고 운성부원군(雲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집이 대대로 부유하여 윤사로(尹師路)·윤사군(尹士畇)·정인지(鄭麟趾)와 더불어 '사부(四富)'라고 불렸다. 1455년(세조 원년)에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어 정1품인 유록대부에 올랐으며 시호는 '성열(成烈)'이다. 묘역은 반정리의 민통선 내 주한미군 사격장에 위치하며, 정혜옹주의 묘도 합장되어 있다.

태종의 사위인 이완(李完, 생몰년미상)은 태종의 딸인 경신옹주(敬愼翁主)에게 장가들어 전성위가 되었고 사후 양효(良孝)의 시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횡산리 보건진료소를 지나서 필승교 방면에 전의이씨(全義李氏) 묘역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묘소 두 개의 봉분 가운데 우측의 것이 전성위 이완과 그의 부인 경신옹주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원형이며 호석이 둘러있는데 호석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양녕대군 이제(李穰, 1394-1462)의 셋째 아들인 연천 서산군 이해(李諱, 생몰년 미상)의 묘는 미산면 백석리의 나지막한 구릉 말단에 3단으로 높은 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남향하여 있다. 이해는 1438년(세종 20)에 서산군으로 봉해졌다. 생몰년 및 생애에 관한 자료는 전해오지 않아 알기 어렵다. 묘는 양천군부인 안산김씨와의 쌍분이다.

성종의 장인인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 윤호(尹壕, 1424-1496)의 묘는 미산면 아미리의 구릉 상에 남서향하여 위치한다. 평정공(平靖公) 윤호는 숙보(叔保), 본관은 파평이며, 1447년(세종 29) 생원시에 합격하여 균기시주부·의금부도사·신창현감·밀양부사·양주목사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472년(성종 3) 춘장문과(春場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병조참판을 지냈으며, 그 이듬해 성종이 그의 딸을 왕비로 삼아 정현왕후(貞顯王后)가 되자 국구(國舅)로서 영원부

원군에 봉해졌다. 1488년 영돈녕부사에 이르고 이듬해 사복시제조를 겸하였다. 1495년(성종 25) 우의정이 되면서 기로소에 들어가고 궐장을 하사받았으며, 다시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저서로는 아들 윤탕로(尹湯老, 1466-1508)와 공저인 『파천집』과 『구급간이방』이 있다. 평정(平靖)은 사후에 받은 시호이다. 봉분은 원형으로 높이 44cm의 호석을 두르고 용미를 갖추고 있다.

태종의 증손인 축산군(竺山君) 이효식(李孝植, 1452-1497)의 묘도 연천에 있다. 이효식의 자는 수보(秀寶), 태종 공정대왕(恭定大王)의 증손이며, 왕자 혜령군(惠寧君) 이지(李祉, 1407-1440)의 손자이다. 1497년 7월 장의양(長依羊)에 장사지냈다. 묘역에는 봉분 앞에는 상석과 묘비가 나란히 있고, 그 앞에 목이 없는 문인상 2기가 마주보고 있다.

조선 초기 왕실의 인물만이 아니라 고려왕실에 절의를 지킨 인물이나 조선왕조의 개창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 등의 문신으로서 연천에 묘가 있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양소(李陽昭)는 고려의 신하로서 조선의 조정으로 나가지 않고 절개를 지켜 후세 사람들이 전곡읍은 대리에 은거했던 김양남, 조건, 남을진, 원천석 등과 함께 5처사로 불리던 인물이다. 이양소의 자는 여건(汝健), 호는 금은(琴隱), 시호는 청화(淸華),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조선 초에 진사에 합격했으며, 태종 이방원(李芳遠)과 더불어 곡산(谷山)의 청룡사(靑龍寺)에서 공부하여 친교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이방원과 함께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나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연천의 도당곡에서 은거하였다. 태종이 즉위한 뒤 친히 연천에 행차하여 이양소에게 곡산군수(谷山郡守)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임지에서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또한 태종이 저택을 하사하였으나 안분당(安分堂)이라는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태종이 이후에도 여러 번 불렀으나 사양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 죽을 때에 스스로 명정(銘旌)에 쓰기를 '고려진사이 양소지구(高麗進士李陽昭之柩)'라 하였다. 부음을 전해들은 태종은 장지를 지정해주고, 시호는 청화(淸華)로 내려주었다.

5처사의 하나였던 김양남(金揚南, 생몰년 미상)은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초의 인물로 호는 '일노정(逸老亭)'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고려 말 공조판서를 역임한 김추(金錘)의 아들로 태어나 1382년(우왕 8)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으며, 특히 함께 등과한 이방원과 교우가 두터웠다. 고려가 망하자 전곡읍 은대3리 반곡에 칩거하며 매일같이 한탄강 건너에 있는 산에 올라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성을 향해 통곡하며 재배하였다. 집 근처에 정자인 학소정(鶴巢亭)을 짓고 산수와 더불어 평생을 옛 고려 신하로서 절의를 지키다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태종이 그의 인품에 감동하여 지평을 제수하는 등 여러 번 불렀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현재는 고려 말 5충신을 모시는 의정부 송산사(松山祠)에 배향되어 있다. 김양남의 묘역은 고릉리요지1에서 고릉리요지2 방향으로 400m 가다가 군부대가 있는 좌측 계곡을 따라 850m 정도 가면 해발

77m 정도에 위치한다.

조선왕조의 공신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 심덕부 묘는 조선의 개국공신인 심덕부의 묘로서 미산면 아미리 장양마을의 나지막한 구릉 말단사면에 마련된 2단의 높은 대지 위에 남서향하여 있다. 심덕부(沈德符, 1328-1401)의 자는 득지(得之), 시호는 공정(恭靖)·정안(定安), 본관은 청송이다. 우왕 때 지문하부사로서 서해도원수를 겸하여 여러 차례 왜구토벌에 공을 세웠다. 특히 1380년 도원수 나세(羅世, 1320-1397)와 함께 최무선(崔茂宣, 1325-1395)이 제조한 화포를 처음 실전에 사용하여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1385년 문하찬성사로서 동북면상원수를 겸하면서 이성계(李成桂, 1335-1408)와 함께 동북면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는 데도 공을 세웠으며 같은 해 겨울, 하정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청성부원군에 봉해졌다. 1388년의 요동 출병 때는 서경도원수로서 조민수(曹敏修, ?-1390)와 함께 좌군에 속하여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도왔다. 조선 개국 이후 좌명공신의 호와 문하시중의 벼슬을 받고 청성백에 봉군되었으며, 1394년에는 신도궁궐조성도감의 판사가 되어 한양의 궁실과 종묘를 영건하는 일을 총괄하여 신도건설에 큰 역할을 하였고, 1399년(정종 1)에는 좌정승이 되었다. 심덕부의 묘역은 후손들이 봉헌해 새로 세운 것과 원래 있던 것 등 각종 석물을 여럿 세워 호화롭게 꾸며져 있다.

홍길민(洪吉旼 1353~1407) 역시 개국공신이다. 그는 여말선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으로 자는 '명부(明夫)'이며, 문음(門蔭)으로 전법정랑(典法正郎)에 임명되고, 장령을 거쳐 1392년 조선 건국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개국공신 2등에 책훈되었다. 또한 '추성협찬개국공신(推誠協贊開國功臣)'의 훈호 및 남양군(南陽君)으로 봉해졌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으나 검소한 생활을 하였고, '문경(文景)'의 시호를 받았다. 묘역은 민통선 내의 봉곡동 초소를 통과하여 남향하는 나지막한 구릉의 정상에 위치한다. 3기의 묘가 있는데, 이 중 2기는 좌우로 1기는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아래의 묘는 홍길민의 아들 홍여방(洪汝方)의 묘이며, 위의 2기 중 서쪽은 아내인 청주 경씨(淸州慶氏)의 묘, 동쪽이 홍길민의 묘이다.

이밖에도 조선 전기의 주요 문신으로서 연천에 묘소를 두고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판서 홍여방(洪汝方)의 아들로서 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하고 공신의 적장(嫡長)으로 강녕군(江寧君)에 습봉된 홍원용(洪元用, 1401~1466)의 묘는 장남면 판부리에 있다. 신호(申浩, ?-1432)는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서 형조전서와 풍해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전라도·풍해도관찰사로 재임시 효로써 치민의 근본을 삼아 주민을 감화시키고 기근에 곡식을 풀어 이농을 막고 때로는 부자의 곡식을 기민에게 주고 환납은 가을에 하는 등 특례를 썼다. 그의 묘는 미산면 유촌리에 있다.

연천에 유배를 왔다가 사망한 방강(方綱, 1400~1456)은 승정원 좌승지를 지냈으나 1456

년 부인 순천 김씨(順天金氏)가 김종서의 둘째 아들 참판 승의 딸이었다는 여화(餘福)로 연안 온천 천복현으로 유배를 당하여 그곳에서 57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글씨를 잘 써 경복궁 보현당 현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의 묘는 전곡읍 양원리에 있다.

왕징면 강내리에는 진주강씨의 묘역이 있다. 고려 말기의 명신인 강희백과 강석덕, 강석덕의 두 아들인 강희안, 강희맹의 묘가 이곳에 있다. 강희백(姜淮伯, 1357~1402)은 공양왕 때에 세자의 스승이었고 이성계 일파인 조준(趙俊), 정도전(鄭道傳) 등과 반목하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한 뒤 진양(晉陽)에 귀양갔다. 뒤에 동북면도순열사(東北面都巡閱使)를 지냈다. 조선 초기 명신인 강석덕(姜碩德, 1395~1459)은 강희안과 강희맹의 아버지로서 세종조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이조·형조판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등을 지냈다. 시와 글씨에 능하였다.

조선 세종 때의 명신인 강희안(姜希顔, 1419~1464)은 세종 때에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인수부윤(仁壽府尹)을 지냈다. 세조를 폐하고 단종을 옹립하려던 사육신의 난이 일어나 이에 연루되었으나 성삼문(成三問)의 변호로 참화를 면했다. 시서화(詩書畵)에 모두 능해 세종이 '體天牧民永昌後嗣'란 8자를 내려 옥새로 쓰도록 전서를 부탁하였을 정도로 필체가 뛰어났다. 조선 초기의 명신인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1447년(세종29) 문과에 급제, 세조 때 형조판서, 예종 때 남이(南怡)를 죽인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이 되고 성종 때 이조판서(吏曹判書), 좌찬성(左贊成)을 지냈다. 경사(經史)에 밝고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5대 손이자, 참판 이계번(李繼藩)의 아들인 이윤인(李尹仁, 1415-1471)의 묘는 미산면 백산리에 있다. 그는 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임지에서 병사했다. 여러 관직을 거치는 동안 청렴결백과 공정한 업무처리로 이름이 높았다. 세조 때 음직으로 출사하여 광주목사, 강원도관찰사, 형조참판을 역임하고, 성숙(成淑)·성준(成俊)·성건(成健)의 세 아들로 인해 영의정에 증직된 성순조(成順祖, 1418~1473)의 묘는 장남면 자작리에 있다.

연천에는 무신들의 묘도 많은데, 특히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공을 세운 인물들이 적지 않다. 우선 신서면 답곡리 공장골에서 태어난 무신인 김우서(1521~1590)의 묘는 답곡리에 있다. 그는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어려서 무예를 닦아 1536년(중종 31) 무과에 급제하여 외직으로 갑산·부령·경원·회령·회양·여흥·영변·교동 등에 근무하였고, 1569년(선조 2) 북병사를 세 차례나 역임하면서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 후 평양·충청·전라병사를 거쳐 70세에 이르러 가선(嘉善)의 품계에 올라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과 지훈련원사가 되었다. 사후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경원의 거사대와 종성에 승전비가 있다.

문신이지만 홍세공(洪世恭, 1541~1598)은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이조판서 홍여방(洪汝方)의 후손으로서 선조 때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평안도구황경차관(平安道救荒敬

差官) 등으로 왕의 신임을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평안도조도사가 되어 명나라 군사의 군수조달을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함경도도순찰사, 전라도관찰사 등을 부임하며 지방의 적정을 보고하고 양곡을 모집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다시 평안도조도사가 되어 군량조달에 힘쓰던 중 지병이 재발하여 군중에서 죽었다. 사후에 호성선무원종공신(扈聖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영의정의 추증과 함께 당성부원군(唐城府院君)에 추봉되었다. 그의 묘는 장남면 자작리에 있다.

문신이었던 우복룡(禹伏龍, 1547~1613)도 임진왜란 때에 공을 세운 인물로서 미산면 백석리에 묘가 있다. 관직 재임 중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왜적과 수차례 싸워 고을을 지킨 공이 인정되어 안동부사로 승진하였고 강화유수, 홍주·나주·충주목사와 강원도·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문신이었던 윤인함(尹仁涵, 1531~1597) 역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인물로서 청산면 백의2리에 묘가 있다. 그는 임진왜란 때 경주부윤으로 재직 중 적군을 방어하지 못하여 좌천당하였으나 경주성이 함락되고 의병을 모집하여 경주성 회복에 큰 공을 세워 선무원종호성공신(宣武原從扈聖功臣)이 되었다. 1597년에 영위사(迎慰使)가 되어 평양으로 명나라 장수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객사하였다.

임진왜란 때 부산진 첨사로 왜군에 맞서다가 죽은 정발(鄭撥, 1553~1592) 장군의 묘는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에 있다. 전사 후에 정발장군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지만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이 투구와 갑옷을 물고 와서 그것으로 의관장(衣冠葬)을 치렀다고 한다. 늘 흑의를 입고 다녀 흑의장군(黑衣將軍)이라 불렸다고 하며 죽은 후에 좌찬성의 벼슬에 추증됐다. 충장(忠壯)이란 시호와 함께 부산의 충열사와 낙안서원에도 제향되고 있다.

백학면 두일리에는 선조 때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과의 전투에서 큰 업적을 세운 의열공 박진(朴晉, 1560~1597)장군의 묘가 있다. 그는 무신 집안의 출신으로 비변사에 있다가 1589년(선조 22) 심수경의 천거로 등용되어 선전관을 거쳐, 1592년(선조 25)에 밀양부사가 되었다. 이해 4월 왜적이 침입하여 부산·동래 등이 함락되는 상황에서 싸우다가 포위되자 밀양부를 소각하고 후퇴하였다. 이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남은 병사들을 모았고, 별장 권응수를 파견하여 영천의 의병을 지휘하게 하여 영천성을 탈환하였다. 이어서 안강에서 16개읍의 병력을 모아 경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한달 뒤 군사를 재정비하여 경주성을 다시 공격했으며 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1593년(선조 26) 독포사가 되어 밀양·울산 등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경상우도·전라도·황해도 등의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뒤에 참판에 올랐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1736년(영조 12) 의열(毅烈)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II. 양란의 전개와 연천지역의 전투

1. 임진왜란의 전개와 연천지역의 전투

1) 왜란의 발발과 전투

15세기에 새 왕조를 안정적으로 경영했던 조선은 16세기 들어 훈구와 사림의 갈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이었다. 15세기에 유지되던 국가 중심의 공적 원리에 기반한 국가의 틀은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사림 세력은 아직 정치 권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여 년에 걸친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국내 통일에 성공한 그는 지방의 세력가인 다이묘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고, 신흥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대륙 진출의 야망을 품었다. 일본은 조선에 승리를 위장한 정탐꾼을 보내 지리와 정치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양의 총포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조총으로 군사들을 무장시켰다. 그리고 일본은 명나라를 치러 가는 데 필요한 길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조선에 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당연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바로 원정군을 편성하여 조선을 침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나고야에서 군사를 지휘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해인 1592년(선조 25) 1월에 일단 수륙침공군의 군대편성을 정하고 다시 3월에 재편성하였다. 그 내용은 육군은 침공군인 1번대(番隊)에서 9번대까지 총 158,700명이었고, 나고야에 10만 명, 교토에 3만 명이 남아 수비하도록 하였다.

당시 각 부대를 지휘한 주장과 병력은 다음과 같다. 제1대는 주장이 고니시(小西行長)이며, 병력은 18,700명, 제2대는 주장 가토(加藤清正)로 병력 22,800명, 제3대는 주장 구로다(黑田長政)로 병력 11,000명, 제4대는 주장 모리(毛利吉成)·시마즈(島津義弘) 두 사람이며, 병력 14,000명, 제5대는 주장 후쿠시마(福島正則)로 병력 25,000명, 제6대는 주장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로 병력 15,000명, 제7대는 주장 모리(毛利輝元)로 병력 30,000명, 제8대는 주장 우키다(宇喜多秀家)로 병력 10,000명, 제9대는 주장 하시바(羽柴秀勝)로 병력 11,500명이었다. 이 가운데 8·9번대 병력 21,500명은 각각 대마도와 일기도에 주둔하게 하였음도 임진왜란 초 침입왜군의 총수는 137,200명이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선봉대로 최전선에 투입된 병력은 고니시·가토·구로다의 병력 등 52,500명이었다.

이밖에 구키(九鬼嘉隆)·도오도오(藤堂高虎) 등이 이끄는 수군 9천 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구니베(宮部長熙) 등이 이끄는 12,000명이 전후로 바다를 건너 후방경비에 임했다. 이외에도 하야가와(早川長政) 등이 부산에 침입하여 선척(船隻)을 관리하는 등 정규군 외에

막대한 병력이 출동하여 전체 병력은 20여 만 명이 되었다.

일본군의 침입에 대한 징후는 1592년 4월 13일에 처음 감지되었다. 이날 오후 5시경 경상도 가덕도 응봉 봉수대는 “왜선이 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90여 척이 가덕도 남쪽에서 부산포를 향하여 항해 중인데 그 뒤를 따라 계속 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침략군을 실은 700여 척의 병선이 4월 13일 오전 9시경에 대마도의 오우라항을 출항하여 때마침 불어 오는 순풍을 타고 그날 오후 5시경에 부산포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한 상황보고였다.

일본군의 전면적인 침입은 부산포에서 저지되지 못하고 경상좌수영군은 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궤멸하였다. 다음날인 14일 침략군의 선발대인 1번대의 주장 고니시가 이끄는 병력 18,000명이 부산성을 공격하니 부산의 군민(軍民)들은 침사 정발(鄭撥)의 지휘 아래 장렬하게 싸웠으나 패하여 끝내 함락당하였다. 이어 다음날 동래부를 침공하였고 이곳 역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의 지휘 아래 치열하게 전투하였으나 송상현과 군민들 모두 몰사하였다. 이후 고니시의 부대는 조선 관군의 변변한 저항을 받지 않고 양산과 밀양을 거쳐 대구, 선산을 통과하여 상주에 이르렀다. 이때 순변사 이일(李鎰)이 상주를 지키고 있다가 적군을 맞았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여 단신으로 탈출하였다.

침략군의 후속부대는 계속 상륙하여 4월 18일에는 가도의 2번대 22,000명이 부산에, 3번대 구로다의 11,000여 병력은 다대포를 거쳐 김해에 상륙하여 침공을 이어갔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계속하여 후속부대가 상륙하여 수군 병력 약 9천 명과 합하여 일본 침략군의 병력은 총 20만 명에 이르렀다.

이후 세 길로 나누어 침략군은 서울을 향해 북상하였다. 부산·동래를 함락한 고니시의 1번대는 중로(中路)를 택하였는데, 이 길은 동래-양산-청도-대구-인동-선산-상주-조령-충주로 가는 길이고, 가도가 이끄는 2번대는 좌로(左路)를 택하였는데, 이 길은 동래-언양-경주-영천-군위-용궁-조령-충주로 가는 길이었다. 구로다의 3번대는 우로(右路)로 북상하였는데, 이 길은 김해-성주-무계-지례-추풍령-영동-청주-경기도로 가는 길이었다. 이밖에 수군 등의 지대는 연안 지대로 서진하려고 하였다.

침략한 왜군에 대한 소식이 서울에 전해진 것은 4월 17일 새벽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으로부터 부산진성이 함락되었다는 장계에 이어, 그것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으면서부터이다. 이 급보가 전해지자 조정은 물론 백성들까지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경상도의 여러 고을이 함락되었다는 급보가 올라오게 되자 조정에서는 급히 신립(申瑬)을 도순변사(都巡邊使), 이일을 순변사, 김여물(金汝唭)을 종사관에 임명하여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김성일(金誠一)을 경상우도 초유사(招諭使), 김륵(金玊)을 좌도 안집사(安集使)로 삼아 민심의 수습과 항전을 독려하게 하였다.

당시 조정과 백성들은 신립을 주축으로 한 장수들이 북상 중인 왜군을 조령 등지의 요충지에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4월 25일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4월 28일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기다렸으나 거듭 패전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4월 25일 구로다가 이끄는 3번대와 모리가 이끄는 4번대도 성주에 이르렀고, 추풍령을 넘어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경기도로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였다. 한편 고니시가 이끄는 1번대는 4월 26일 문경새재를 넘어 충주에 이르렀는데, 이때 신립은 8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왜적들이 조총을 쏘며 삼면에서 포위망을 좁혀오자 제대로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단기로 두어 차례 돌진해 보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침내 달천강에 투신 자결하였으며 전군은 패배하였다.

왜군이 계속해서 북상한다는 급보가 날아들자 조정에서는 서천(西遷)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서울을 사수하자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이에 선조는 28일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2자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백관에게 명하여 용복(戎服)을 입도록 하였다. 다음 날인 29일 밤 충주로부터 패전의 급보가 이르자 종실과 대신들은 시비를 따질 겨를없이 천도를 결정하였다. 마침내 4월 30일에 선조는 서천길에 올랐다.

왜군이 서울에 침공한 때는 5월 2일~3일이었다. 이때 한강을 수비하고 있던 도원수 김명원은 적의 조총탄이 지휘본부인 제천정(濟川亭)에 떨어지자 한강 수비가 어렵다고 보고 임진강으로 퇴각하였다. 따라서 유도대장 이양원도 도성의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선조는 왜군이 도성을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5월 7일 개성을 떠나 평양에 이르렀다. 그 뒤 김명원의 임진강 방어마저 실패하여 개성이 함락되고 개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6월 1일에 개성에서 출발하여 간선도로를 따라 북상을 계속하였다.

원래 선조의 계획으로 서천의 한계는 평양까지였다. 그러나 왜군이 계속하여 북상하여 오자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런 와중에 마침내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이원익을 시켜서 평양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정의 의지는 평양부민들의 평양사수를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왜군이 급진격하여 대동강 연안에 이르게 되니 다시 북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에 윤두수·김명원·이원익에게 평양성을 방어하게 하고, 선조는 6월 11일 평양을 떠나 안변에 이르러 함경도로 가려고 하였으나 이항복과 이덕형의 의견에 따라 의주로 향하였다.

선조가 정주에 머물 때에 평양성 함락의 패보를 들었다. 광해군은 박천에서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영변으로 향하였다. 선조는 6월 23일 의주의 용만관(龍灣館)에 이르렀고, 의주목사의 거소를 빌어 행궁으로 정하였다. 평양성을 수비하던 윤두수, 김명원은 6월 13일 고니

시군이 대동강에 이르자 다음날 새벽 정병을 뽑아 기습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성 방어를 포기하고 후퇴하니 3도(都)로 일컫던 서울·개성·평양이 모두 함락되고 전국도가 왜적의 손에 놓이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 연천지역의 임진강 전투

임진강전투는 1592년(선조 25) 3월 17일에서 18일에 도원수 김명원 등이 임진강에서 관군을 이끌고, 왜군의 북침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패배한 전투이다. 그 경과를 보면 5월 2일에 적의 1번대가 동대문으로, 2번대가 남대문으로 서울에 침략해 들어오고, 며칠 뒤 3번대와 4번대도 연이어 서울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중순쯤에 총지휘관 우키타가 들어와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북진계획을 논하였다. 여기에서 가토가 이끄는 2번대는 함경도 방면으로 진격하고, 4번대는 강원도 방면으로 들어가서 2번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가토가 지휘하는 2번대 선봉이 5월 10일에 서울을 떠나 파주를 지나서 임진진(臨津鎭)에 도착하여 보니,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들은 모두 강 건너 언덕에 올려놓아져 있고 강물의 물살은 급하였으므로 대치만 하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곳의 상황을 상당히 낙관하고 있었다. 12일에는 도원수 김명원이 장계(狀啓)를 올려 말하길, “신이 이빈, 유극량 이하 장수 20여명과 군사 천여 명을 거느리고 임진강을 지키면서 벽제 등 여러 곳에 매복을 시켜 참획한 것이 많습시다.”라고 하였다. 또 16일경에 이르기를, “이양원이 이빈과 신각 이하의 여러 장수 10여명과 병력 5천여 명을 데리고 대탄(大灘; 연천 부근)에 위치하여 방금 진격을 도모하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더해 13일에 경기감사 권징(權徵)이 장계를 올려, “적들은 후원이 없이 깊이 들어와 고립되고 발에 쯡기가 나고 기운이 피로하여 그 세가 이미 꺾였사오니 원수(元帥)에게 명령을 내려 급히 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니 조정에서도 모두 이 말을 믿고 김명원에게 계속하여 교지를 내리면서 나가 치지 않는 것을 책망하였다.

14일에 선조는 한응인(韓應寅)에게 말하기를, “이제 적의 형세가 이미 흩어졌는데도 도원수 김명원이 오래도록 아무 것도 하는 바 없으니 경은 기일을 작정하고 적을 무찌르되 명원의 절제(節制)를 받지 말고 기회를 잃지 말라.”고 하면서 진격을 재촉하였다.

이때에 전(前)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석원, 순변사 이일, 전 부원수 신각(申恪) 등은 대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원수 김명원, 도순찰사 한응인, 경기감사 권징, 방어사 신할, 조방장 유극량 등은 임진에 진을 치고 있었다. 김명원은 모든 군대를 강 언덕에 배치하여 놓고 북상하는 적을 막고 있었으며, 강 위에 떠 있던 배들을 모두 거두어 북쪽 강 언덕에 집결시켜 놓았다. 적들은 강의 남쪽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으나 배가 없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로 대치 상태가

며칠 지속하였다. 하루는 적이 강가에 설치했던 야전 막사를 불태우고 숙영 도구와 무기를 거두어 거짓 퇴각하는 간계를 꾸몄다. 방어사 신할은 이러한 적의 간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사실로 믿고 추격하기 위하여 경기감사 권징과 17일에 회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도순찰사 한응인이 강변사병(江邊士兵) 3천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이 사병들은 북쪽 여진족과 여러 번 싸운 경험이 있어 전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 가운데 한 장령(將領)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들이 멀리서 와서 피로하고 아직 먹지도 못하였으니 무기도 정비하고 잠시 쉬었다가 적정도 살피고 후원군이 도착한 뒤에 계책을 세워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한응인은 왕께서 빨리 진격하라는 교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자들 몇을 불러내어 베어버렸다.

이때 도원수 김명원은 도순찰사 한응인이 북경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임진 전선에 왔을 뿐만 아니라, 왕이 특히 자신의 지휘를 받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충고의 말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조방장 유극량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무인이었으므로 경솔하게 강을 건너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러자 방어사 신할은 그가 반대하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곡해하여 베어버리려고 겁에 손을 대었다. 유극량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종군하였는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것인가. 다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국가 대사를 그르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분개하면서 진중으로 돌아갔다. 그때서야 김명원도 유극량의 말이 옳다고 하여서 신할에게 그 불가함을 말하였으나 신할은 끝내 듣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가기로 하였다.

유극량은 방어사 신할이 강을 건너가자 “내 비록 뜻이 같지 않다고 하여도 어찌 뒤떨어질 수 있으랴”하면서 군사를 수습하여 뒤따라 건너니 한응인도 전 병력에 속히 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강을 건넌 부대가 적의 제1선 보루에 쳐들어가서 수 명의 적을 죽이니 적들이 급히 후방으로 도망하였다. 이 광경을 강 북쪽에서 바라보고 있던 도원수 김명원과 검찰사(檢察使) 박충간(朴忠侃) 등은 아군의 승리라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조금 뒤에 적의 진영에서 적병 7~8명이 상반신을 나체로 하여 큰 칼을 들고 아군의 진으로 들어와 충격을 가하더니 그 뒤를 이어 복병이 순식간에 일어나 달려들었고, 이에 우리 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너져 내렸다. 이때 노장 유극량은 말에서 내려 땅에 앉아 탄식하길, “여기가 나의 죽을 곳이로구나.”하고 활을 휘어잡고 적 수 명을 쏘아 넘어뜨리고 전사하였다. 신할도 도망쳐 나와서 말을 탄 채로 강을 건너려 하다가 익사하였다. 남은 군사들은 후퇴하였으나 강을 건너지 못하여 강에 몸을 던지는 자가 부지기수였으며 더 많은 사람이 적에게 죽었다. 원래 5천여 명의 군사가 재 집결하였을 때는 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임진강 상류인 대탄에서 효수된 신각(申恪) 역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고도 처형된 안

타까운 인물이다. 신각은 본관이 평산(平山)으로서 무과에 급제한 후에 영흥부사 등을 거쳐 1587년(선조 20) 경상도 방어사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던 인물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4월 29일 서울의 수비를 위해 중위대장(中尉大將)으로 임명되어 도원수 김명원 휘하에 부원수로서 한강을 사수하다가 5월 2일 패전하여 유도대장 이양원을 따라 양주로 후퇴하였다.

이때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훈(李渾), 인천부사 이신언과 흠어진 병사를 규합하여 북상 중인 적과 양주 해유령(蟹踰嶺)에서 맞아 싸우게 되었다. 해유령은 현재 양주군 백석면 연곡리 고개인데, 신각을 중심으로 한 조선군은 당시 한성에 들어왔던 적의 일부가 한성 근교 및 양주 일대에서 약탈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유령 부근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왜군을 공격하였다. 당시 왜적은 약탈한 식량과 우마 등을 이끌고 해유령을 넘어 한성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전투태세가 해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군은 지형과 지물을 이용한 기습작전을 펼쳐서 해유령 부근에서 적을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을 가하였다. 뜻밖의 기습을 받은 왜적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패하였다.

조선군은 왜적 70여 명을 쓰러뜨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신각과 이훈의 활약으로 인해 그동안 위축되었던 조선군의 사기를 높이고 백성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다. 그후 5월 16일, 해유령전투에서 승리한 신각과 이양원, 순변사 이일 등은 대탄을 지키기로 하고, 이훈은 철령 방면으로 가서 적이 함경도 방면으로 가는 것을 저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강에서 패전하여 임진강으로 도망가 있던 도원수 김명원은 자기 명령에 불복종한 죄를 이유로 그를 무고하는 장계를 올렸다. 이에 우의정 유희은 장계의 내용을 믿고 신각의 참형을 청하였고, 이에 조정에서는 5월 18일 선전관을 파견하여 대탄의 백사장에서 그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처형 명령을 내린 뒤에서야 해유령전투에서의 승전을 접한 선조는 곧 선전관을 파견하여 처형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서 신각은 효수된 뒤였다.

2. 이괄의 난과 연천

광해군은 임진왜란 도중 급하게 세자로 책봉되었고, 전쟁이 종식된 이후 즉위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리한 궁궐 건축을 추진하며 과중한 추가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들을 공사에 동원하면서 원성이 높았다. 외교적으로는 임진왜란 시기 조선을 구원한 명(明)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인 여진족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왕권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동북형인 임해군과 선조의 유일한 적자인 영창대군을 살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목대비마저도 서궁(西宮)에 유폐하면서 유교적 가족 질서와 통치이념을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 큰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1623년(인조 1) 음력 3월, 이서(李曙), 김류(金澯), 이귀(李貴) 등의 서인(西人) 세력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 이종(李祘)을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가 바로 조선 16대 왕 인조이다. 명분론을 내세워 즉위한 인조였지만, 즉위 이후 과정은 평탄치 않았다. 즉위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의 원인은 공신책봉에서 비롯되었다.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와 서인들은 광해군의 측근이던 대북 세력을 대거 제거하고 자신을 옹립하는데 기여한 인사들을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책봉하였는데, 1등공신이 10명, 2등공신이 15명, 3등공신이 28명이었다. 이때 반정과정에서 공이 컸던 이괄은 2등공신에 책봉되고,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어 외지로 부임하게 된다. 나름의 불만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1624년 1월(인조 2) 문회(文晦), 허통(許通), 이우(李佑) 등이 이괄의 아들을 비롯하여 한명련, 정충신, 기자현 등이 반란을 준비 중이라는 고변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엄중한 조사 끝에 고변이 무고라고 밝혀졌지만, 조정에서는 이괄을 붙잡아 진상을 국문하고 부원수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당시 후금의 강성으로 북방의 정세가 점차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최전방 평안도의 병력을 지휘하는 이괄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고변이 무고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이괄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거둘 수 없던 것이다. 결국 조정에서는 이괄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평안병영이 있던 영변에 금부도사와 선전관을 파견하였다. 이괄은 아들이 모반죄로 죽게 되면 자신도 온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정에서 보낸 사신들의 목을 베었고, 마침내 반란이 시작되었다.

1월 24일 이괄은 휘하의 전 병력 1만여 명을 이끌고 영변을 출발하여 도원수 장만이 지키는 평양을 지나쳐 곧장 서울로 향하였다. 조정에서는 관군을 파견하였지만, 황해도 황산에서 벌어진 첫 전투에서 이괄의 부대에 대패하였다. 연달아 관군을 물리치며 반란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서울로 진격하자 조정에서는 반란군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할 만큼 허둥지둥하였고, 2월 7일에 이르러서는 도성을 버리고 파천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논의가 있던 지 하루 만에 반란군이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인조와 조정은 모두 공주산성, 즉 공산성(公山城)으로 파천할 것을 결정하였다. 물자의 운송이 편하고, 방어에 유리한 공산성이 반란군을 막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일 밤 곧장 궁궐을 떠난 인조는 한강 위에서 하룻밤을 지새웠고, 우여곡절 끝에 한강을 건넜다. 이튿날 양재역, 과천현, 사근현을 거쳐 한밤이 될 무렵 수원부에 도착했다. 충청도에서 원정을 온 군사들은 충청병사의 지휘하에 지금의 남태령에 진을 치고 반란군의 남하를 차단하였다. 다음날에는 진위현에 도착하였고, 다시 인조는 직산으로 향했다. 직산에 도착한 2월 11일, 마침내 충청감사 이명준(李命俊)은 고을 수령 10여 인을 거느리고 인조를 맞이하였다. 이때부터는 충청감사의 안내를 받으며 남하를 시작하였고, 저녁에 천안군에 도착하였다. 인조는 천안에 이르러 관군이 승리했다

는 첩보를 처음 접하였고, 신하들의 논의가 이곳에 머물면서 형세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자 공주행을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반란군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자 인조는 2월 13일 이른 새벽 다시 공주로 향하였다. 급습을 당하는 것보다 공산성에 들어가 안전하게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날 저녁 공주에 도착하였고, 이때부터 인조의 짧은 공주 생활이 시작되었다. 충청감영이 소재한 공주에 임금과 조정이 옮겨온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었다.

공주에 온 지 이틀 만인 2월 15일 반란군의 수괴 이괄의 수급이 도착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바로 공주를 떠나지 않았다. 16일에 공주에서 과거시험을 실시하고 18일에 돌아가기로 일정을 정한 것이다. 공주에서는 적장의 수급을 임금에게 바치는 헌곡례(獻穀禮)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임금은 공주에서 머물며 반란 과정에서 공이 있는 자들을 포상하고, 죄가 있는 자들을 벌하였다. 세금 감면도 시행되었는데, 이때 공주는 임금이 주필(駐蹕)한 곳이었다는 이유로 대동미 2두를 3년 동안 감면받고, 흑 흥년이 들면 다시 감면해주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계획대로 2월 18일에 인조가 떠나면서 6일간의 짧은 인조의 공주 생활은 마무리되었다.

연천은 이괄의 난 초기 평안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반란군을 막을 주요 방어거점이었다. 반란군은 관군이 대거 집결해 있는 평양을 우회하는 경로를 택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연천과 같은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조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기감사와 강원감사에게 지시하여 군량미를 모으게 하고, 이를 연천과 삭녕으로 수송하여 관군의 작전 방향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였다. 연천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괄의 난 진압에 기여한 연천 출신 인물로는 이양(李瀾)이 있다. 그는 공주로 피난 가는 인조를 공주로 호송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칠곡부사, 삭녕군수를 지내다가 임지에서 사망하여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미산면 유촌리 지내울에 있다. 이목(李穆)이라는 인물도 주목된다. 그는 당시 경기관찰사로서 부원수가 되어 반란 진압에 앞장섰던 이서(李曙)의 휘하에 들어가 종군하였다. 한성이 반란군에 의해 점령되자 군령을 받들고 정부를 수집하기 위해 반란군이 있는 곳에 잠입하다가 붙잡혔다. 이괄에게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다 받으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괄을 꾸짖다가 결국 순절하였다. 그의 묘소는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자락에 있었으나 현재는 이장되었고, 애마(愛馬) 무덤의 전설만 전해오고 있다.¹¹²⁾

한편, 연천은 인조반정 직후 광해군의 심복들이 역모를 도모한다고 의심받던 지역이기도 했다. 반정에 성공한 인조 정권은 광해군에게 충성하던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들어갔다. 이 중에는 광해군 시기 단순히 고위 관직에 있었거나 인목대비 폐모론에 동조했다는 이유

112) 연천군지편찬위원회, 『漣川郡誌』, 2000, 325쪽.

로 파직되거나 귀양을 떠난 자들도 다수 있었다. 광해군 시기 사헌부 장령, 접반사 등을 역임했던 이정(李迕) 역시 함경도 최북단에 있는 나난(羅暖)이라는 곳으로 유배되었다. 죄목은 대체로 광해군의 측근 세력이었던 이이첨(李爾瞻)에게 충성했다는 것이었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하나 더 붙었다. 바로 그가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연천으로 달려가 광해군 측근 세력들의 족속들을 불러 모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정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당시 연천현이 서울과의 유리한 접근성으로 인해 광해군 조정에 충성하는 무리가 다수 거주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연천은 서울과 북방을 잇는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하였다.

3. 정묘·병자호란과 연천지역의 전투

1) 정묘호란과 연천

임진왜란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는 크게 요동쳤다. 조선에 대규모 지원군을 파병했던 명(明)은 빠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탄생하였다.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조선은 막대한 전후 복구에 여념이 없었고, 이 과정에서 북방의 여진족은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였다. 마침내 1616년(광해군 8) 누르하치는 후금(後金)을 건국하고 칸의 자리에 올랐다. 후금은 그의 조상들이 세웠던 금(金)을 계승한다는 의미였다. 후금은 곧장 명과 대결 국면에 들어갔다. 1618년(광해군 10) 누르하치는 명에 7대 원한을 내걸고 선전포고하였다. 그리고 곧장 기병과 보병 2만 명으로 푸순성을 공격하며 명칭교체의 서막이 올랐다. 후금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푸순성을 함락하고 요동을 점령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다급해진 명은 조선에 누르하치를 공격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격문을 보냈다. 격문에는 명이 임진왜란 시기 조선을 구원해준 이른바 ‘재조지은(再造之恩)’에 보답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조선 조정에서는 대의(大義)를 내세워 군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 조선의 사정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하였다. 처음 광해군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조선은 대규모 궁궐 공사로 인해 민심이 크게 돌아선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에 파병 비용까지 마련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민심의 사정을 봐서도 무리였다.

하지만 광해군의 반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명에서 재차 파병을 압박하고, 조정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자 광해군은 결국 파병을 결정했다. 1619년(광해군 11) 2월,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군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명과 광해군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투가 심하(深河)에서 벌어졌다. 이른바 사르후(薩爾滸) 전투이다. 명군이 후금군의 매복 전술에 궤멸당하고, 조선군 역시 대패하여 전사자만 7천여 명이 넘었다. 결국 조선 원정군의 총지휘관이었

던 강홍립은 남은 군사 5천여 명을 이끌고 후금에 투항하였다. 이때도 조선은 인적·물적으로 뼈아픈 피해를 보았지만, 이후 강홍립의 투항은 더 큰 아픔이 되어 돌아왔다.

1623년(광해군 15) 광해군은 무리한 토목공사와 과중한 부세 징수 등 여러 실정과 어머니를 폐하고 형제를 죽인 ‘폐모살제(廢母殺弟)’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 명의 재출병 요구를 거부하고 후금과 교류하는 대의(大義)를 저버린 행위들을 명분으로 일어난 반정 세력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정권을 잡은 인조는 반정의 명분상 명과의 우호를 두텁게 하고, 후금은 멀리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 노선은 곧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당시 후금은 명과의 전쟁으로 물자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전부터 조선과 명에서 생필품과 식량 등을 무역하며 살아왔던 후금에게 조선은 명과의 대치 상태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물자 조달처였다. 또한 조선이 친명 노선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명과의 전면전을 위해서는 배후를 위협하는 조선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때마침 이괄의 잔당들이 광해군의 부당한 폐위를 호소하며 조선의 군사력이 약한 지금 속히 공격할 것을 종용하면서 후금은 전쟁을 결정하였다.

1627년 3만여 명의 후금군은 앞서 항복한 강홍립 등 조선인을 길잡이로 삼아 압록강을 건너 의주, 평양 등을 점령하고, 평안도를 지나 황해도 황주까지 진격하였다. 후금은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명분을 걸고 조선을 압박했다. 조선에서는 도원수 장만이 항전하였지만, 역부족으로 개성까지 후퇴하였고 인조와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하였다. 결국 조선은 후금과의 화약(和約)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조건은 ① 화약 후 후금군은 즉시 철수할 것, ② 철병 후 재차 압록강을 넘지 않을 것, ③ 두 나라는 형제국으로 관계를 정할 것, ④ 조선은 후금과 화약을 맺되 명나라와 적대하지 않을 것 등이었다. 또한 인질로 종실이었던 원창군(原昌君)을 보내면서 후금군을 철수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이다.

정묘호란 당시 연천은 청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방어선을 형성하는 핵심 지역이었다. 조정에서는 연천을 비롯하여 인근 삭녕(朔寧)과 마전(麻田), 적성(積城)에 문신 대신 무관 수령을 파견하였다. 도원수 장만은 후금군이 황해도 봉산군(鳳山郡)의 검수(劍水)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진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장단(長湍)으로 향했다. 그는 눈이 녹아 강물이 불어나자 후금군의 육로 이동을 예상해 군사를 이끌고 연천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때 비변사에서는 “13성(聖)의 능침과 200년 기업(基業)이 모두 임진강 이남에 있으니, 보호하느냐 침몰하느냐는 모두 이 강의 방어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며 임진강 방어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¹¹³⁾ 적이 임진강을 우회할 경우, 이를 차단할 곳은 바로 연천이었다. 다행히 후금과 조선이 황해도 황주에서 화약을 맺으면서 적들이 임진강과 연천으로 오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113)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12월 18일 병자

2) 병자호란과 연천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후금의 조건을 수용하여 중강(中江)과 회령(會寧)에서 무역을 재개하며 필수품과 예물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후금은 명과의 전황이 급박해지자 추가로 식량 지원과 병선 등을 요구하며 조선을 겁박하였다. 나아가 후금은 기존에 맺은 ‘형제의 맹약’을 ‘군신(君臣)의 의(義)’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마(戰馬) 3천 필과 군병 3만 명, 무리한 세폐(歲幣) 등 조선을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추가하였다. 조선 내에서는 후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갔고, 심지어 후금에 선전포고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후금에서도 조선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1636년(인조 14) 국호를 ‘청(淸)’으로 고치고, 조선에 사죄를 요구한 뒤 그해 12월 12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공격했다.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청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서울로 진격하자 인조는 미쳐 강화도로 탈출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12월 14일부터 시작된 남한산성에서의 농성은 이듬해 1월 30일까지 이어졌지만,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물자 고갈 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삼전도에서의 굴욕스러운 항복으로 마무리되었다.

청군은 조선의 항복을 받은 뒤 수만의 포로를 이끌고 조선을 떠났다. 이때 많은 포로가 도주하여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포로들이 돌아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파주에서 서울까지 직도로 오는 경로와 다른 하나는 연천과 삭녕을 거쳐 돌아서 오는 것이었다. 포로들은 의복이 없고 거의 아사(餓死)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연천현감은 고을 내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져 모두 모을 수 없으며, 현재 백성의 생존 여부와 피랍(被拉) 여부, 탈출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스스로 탈출에 성공한 자들도 거의 굶어 죽을 상태였기 때문에 빠른 지원을 요구하였다. 백성의 피랍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이 경기였는데, 그중에서도 서울과의 우회로에 있던 연천현은 다른 지역보다 그 피해 정도가 심했다.

연천에서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물은 홍명구(洪命耆)와 이경빈(李慶彬)이 있다. 홍명구는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자는 원로(元老), 호는 나재(懶齋)이다.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홍춘경(洪春卿)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광국공신(光國功臣) 홍성민(洪聖民)이고, 아버지는 병조참의(兵曹參議) 홍서익(洪瑞翼)이며, 어머니는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지낸 심종민(沈宗敏)의 딸이다. 그는 연천현 읍내에서 태어났다. 8세에 시를 짓자 이항복(李恒福)·신흠(申欽)과 같은 선비들이 칭찬하며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이라 하였다. 1619년(광해군 11) 알성시(謁聖試)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나, 시골에 은거하다가 인조반정 이후 등용되었다. 부수찬(副修撰), 이조좌랑(吏曹佐郎), 좌부승지(左副承旨), 우승지(右承旨), 대사간(大司諫), 부제학(副提學)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쳐 병자호란이 발발한 1636년(인조 14) 1월에는 전운이 감도는 평안도의 관찰사가 되어 임지로 떠났다. 청군이 공격할 시 가장 중요한 방어거점을 책임진 그는 실제 병자호란이 벌

어지자 목숨을 던져 싸웠다. 청군과 김화(金化)에서 큰 전투를 벌이다 사망한 그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洪命耆)가 적과 김화(金化)에서 크게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 처음에 홍명구가 적보(賊報)를 듣고 자모성(慈母城)에 들어가 지켰는데, 얼마 뒤에 오랑캐 기병(騎兵)이 곧바로 경성(京城)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휘하의 별장 장훈(張勳) 등 2천 기(騎)를 보내어 들어가 구원하게 하였다. 그 뒤 거가(車駕)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자신이 날랜 포병(砲兵) 3천 명을 조발(調發)하여 먼저 떠나는 한편, 납서(蠟書)로 병사(兵使) 유림(柳琳)에게 동행할 것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유림이 뒤따라오다가 강동(江東)에 이르러 조정의 명령이 없다는 것을 핑계 대고 군대의 행진을 저지시키려고 하자, 홍명구가 꾸짖기를, “군부가 화란을 당했으니, 직분상 목숨을 바쳐야 마땅하다. 더구나 적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와서 전투하게 함으로써 남한산성 공격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 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계책이다”하고, 마침내 진격하니, 전로(前路)에 주둔한 적이 도망하였다. 김화(金化)에 이르러 적을 만나 수백 명을 베고 사로잡힌 사람과 가축을 빼앗았는데 몇십, 몇백을 헤아렸다. 군사를 백전산(柏田山)으로 옮겼을 때 적의 연합군 1만 기(騎)가 침범해 왔다. 홍명구가 이들을 맞아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고 두 명의 장수를 죽였는데 시체가 즐비하였다. 조금 있다가 적의 한 진(陣)이 산 뒤편을 돌아 나왔는데, 말을 버리고 언덕에 올라 모포로 몸을 감싸고 밀어붙이며 일제히 옹위하여 진격해 오니 그 형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 홍명구가 급히 유림을 부르며 서로 구원하도록 하였으나 유림이 응하지 않고 도망하였으므로 휘하의 장사(將士)들이 많이 전사하였다. 이에 홍명구가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부인(符印)을 가져다 소리(小吏)에게 주며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죽어야 마땅하다”하고, 활을 당겨 적을 사살하였는데, 몸에 세 개의 화살을 맞자 스스로 뽑아버리고 칼을 빼서 치고 찌르다가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¹¹⁴⁾

홍명구의 일이 알려지자 인조는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평소 그의 사람됨을 알았다. 이렇게 나라가 결탄난 때에 단지 이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애통해하였다. 곧장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하도록 명하였고, 장례비용을 정부에서 마련해 지급하였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매달 늬료(廩料)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고, 자손을 관직에 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는 임금이 있는 행재소(行在所)가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전투하고, 곧장 전진하면서 죽어도 후퇴하지 않았으므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비록 그는 사망했지만, 수백 명의 적을 살상한 그의 마지막 전투는 병자호란 때 아군이 승리한 몇 안 되는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의 의로운 죽음은 오랫동안

114)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28일 무진

조선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그가 순절한 장소에는 1650년(효종 1) 김화 사람들이 충렬사(忠烈祠)를 세웠고, 1652년(효종 3)에는 의열(義烈)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 평양의 충정서원(忠正書院), 자산의 의열사(義烈祠)에 제향되었다. 1816년(순조 16)에는 그의 후손 홍병륜(洪秉倫) 등 18명이 연명한 주청으로 4대를 넘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불천위(不遷位)의 은전(恩典)을 내렸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이경빈은 1610년(광해군 2) 지퇴당(知退堂) 이정형(李廷馨)의 손자이며 참봉(參奉)을 지낸 이국(李澗)의 아들로 태어나 운명적으로 병자호란이 발생한 1636년(인조 14) 별시무과(別試武科)에 병과(丙科) 29위로 급제하여 무관으로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해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인조의 어가(御駕)를 남한산성까지 호위하여 그 공으로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고, 이어서 오위(五衛)의 도사(都事)가 되었다. 항복한 뒤에는 청에 볼모로 끌려가는 두 왕자를 수행하는 익찬(翊贊)이 되어 심양(瀋陽)까지 갔다가 3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1640년(인조 18) 귀국하였다.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이듬해 송화현감(松禾縣監)에 제수되었고, 인조 마지막까지 안동부 판관(安東府判官), 사과(司果) 등을 역임하였다. 효종이 즉위한 뒤에도 자산군수(慈山郡守), 수안현감(遂安縣監), 종사관(從事官), 순천군수(順天郡守), 사정(司正) 등을 지냈다. 비록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지만, 1663년(현종 4) 사망할 때까지 세 왕대를 거쳐 관직 생활을 계속하여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그의 무덤은 연천군 청산면 장탄2리에 있다.

3) 보개산 성령산성 전투

성령산성(城嶺山城)은 연천현 연천읍 동막리(東幕里)의 성령산에 설치된 방어시설이었다. 이 산성은 ‘고성(高城)’, ‘성령(城嶺)’, ‘보개산고성(寶蓋山高城)’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대동지지(大東地志)』와 『경기지(京畿誌)』에 따르면 보개산고성이 연천현 동북쪽 15리 거리에 있으며,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일명 ‘석문동(石門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둘레는 4리이고 가운데 우물이 3개 있었다. 주변에서 지대가 가장 높아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쉽고, 방어에도 유리한 천혜의 요새였다.

연천현감 이창조(李昌祚)는 이곳에서 청군을 2번이나 읍민과 함께 격퇴하였다. 이창조는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그해 겨울 12월 22일 연천현감으로 부임하였다. 당시에 연천현은 장단도호부에 속해 전시에는 연천현감이 장단진영의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를 겸직하였다. 이창조는 직접 군사를 인솔하여 장단 본영으로 들어가 진영부대에 인계하고 연천현으로 귀환하던 중 적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연천현에 돌아왔다. 그는 고을의 아전들과 백성을 끌고 성령산성으로 들어가 전황을 설명한 뒤 적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때 난리



[그림 4] 성령산성(동여도)

를 틈타 훈련도감에서 무기를 탈취해 온 도둑 떼가 이곳을 지나자 이창조는 그들을 생포하여 궁수(弓手)로 편성하였다. 며칠 뒤 양주군 영근면 명천동 일대에서 대로를 따라 북상하던 수십여 기의 적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민가를 약탈하면서 연천현까지 북상하던 중이었다. 이창조는 적이 지나가는 통로에 궁수를 잠복시키고 적이 다가오자 일시에 공격하여 적들을 물리쳤다. 그 뒤 다시 적들이 공격해왔는데, 이창조는 미리 지리적으로 유리한 고지로 이동하여 방비를 재정비한 상태였다. 아군과 읍민들이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쟁하자 적들은 군마(軍馬)와 사상자를 두고 빠르게 퇴각하였다.¹¹⁵⁾ 노획한 군마 9마리는 전투에 공이 있는 자에게 상으로 주고, 한 마리는 관청에서 사용하는 관마(官馬)로 삼았다. 이후 현감에서 교체되는 이창조에게 읍민들이 그 관마를 바쳤지만, 그는 받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이 말이 바로 연천현 고마(雇馬)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이창조는 1640년(인조 18) 숙환으로 사망하였고,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높이 사서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하였다.

115) 연천군지편찬위원회, 『漣川郡誌』, 2000, 329쪽.

Ⅲ. 조선 후기 연천지역의 제도 개편과 사회경제

1. 지방제도 개편

1) 군현제도 개편

조선시대 지방통치제도는 국왕의 통치 방향과 백성을 위한 은택이 지방 곳곳에 고르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전국을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 등 8개 도(道)로 구분하여 책임자로 관찰사(종2품)를 두었으며, 그 아래로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을 읍의 규모에 맞게 설치하여 각각 부윤(종2품),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정3품), 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그중에서도 경기는 도성의 배후지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 역사상 경기의 이념은 중국 고대의 『시경』, 『서경』, 『주례』 등에서 최초 확인된다. 특히 『주례』에서는 국가의 영역에 등급을 두면서 기내(畿內)를 중시하는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즉 왕의 직할지를 벗어나는 지역을 제후의 봉작 순서에 따라 분봉지를 5백리 단위로 설정하고, 전국을 9주로 나누었으며, 9주 밖으로는 오랑캐 나라인 번국(藩國)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9주의 중심에는 왕성(王城)을 두고 그 주위 사방 1천리를 왕기(王畿) 또는 방기(邦畿)라고 하여 왕의 직할지로 설정한 것이다. 『주례』에서 설정한 왕기 또는 방기는 이후 진·한대를 거치면서 진나라 때는 관내(關內)로 한나라 때는 삼보(三輔) 혹은 관중(關中)이라 명명하면서 구체적인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후 당나라 때에 이르러 도성의 안과 밖을 지칭하는 경(京)과 기(畿)는 일반 지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통치 구역으로 정착되었다(이근호, 2021: 12). 조선시대에 와서도 경기는 왕성을 직접 지원하는 특별한 행정구역이었지만, 전국 8도 체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경기에는 종2품부터 종9품까지 다양한 품계의 관원이 행정을 책임졌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하면서 그 체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경국대전』과 『대전통편』의 경기 행정편제 비교

품계	직함	『경국대전』	『대전통편』
종2품	관찰사(觀察使)	1원	1원
	부윤(府尹)	-	광주(1인)
정3품	목사(牧使)	광주, 여주, 파주, 양주(4원)	여주, 파주, 양주(3원)
	사(使)	승의전(1원)	-
종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수원, 강화, 부평, 남양, 이천, 인천, 장단(7원)	수원, 부평, 남양, 이천, 인천, 장단, 풍덕, 통진, 교동, 죽산(10원)
	수(守)	승의전(1원)	-
종4품	군수(郡守)	양근, 풍덕, 안산, 삭녕, 안성, 마전, 고양(7원)	양근, 안산, 삭녕, 안성, 마전, 고양, 김포, 교하, 가평(9원)
	영(令)	승의전(1원)	승의전(1원)
종5품	판관(判官)	좌도수윤, 우도수윤, 광주, 여주, 수원(5원)	-
	현령(縣令)	용인, 진위, 영평, 양천, 김포(5원)	용인, 진위, 영평, 양천(4원)
종6품	감(監)	승의전(1원)	승의전(1원)
	찰방(察訪)	영서도, 양재도, 평구도(3원)	영서도, 양재도, 평구도, 중립도, 도원도, 경안도(6원)
	현감(縣監)	지평, 포천, 적성, 과천, 금천, 교동, 통진, 교하, 연천, 음죽, 양성, 양지, 가평, 죽산(14원)	지평, 포천, 적성, 과천, 금천, 연천, 음죽, 양성, 양지(9원)
	교수(教授)	광주, 여주, 파주, 양주, 수원, 강화, 부평, 남양, 이천, 인천, 장단(11원)	-
종9품	훈도(訓導)	양근, 풍덕, 안산, 삭녕, 안성, 마전, 고양, 용인, 진위, 영평, 양천, 김포, 지평, 포천, 적성, 과천, 금천, 교동, 통진, 교하, 연천, 음죽, 양성, 양지, 가평, 죽산(26원)	-
	심약(審藥)	감영(1원)	-
	검률(檢律)	감영(1원)	감영(1원)
	역승(驛丞)	중립도, 경안도, 도원도(3원)	-
	도승(渡丞)	벽란, 한강, 임진, 노량, 낙하, 삼전, 양호(7원)	-
	여릉참봉(麗陵參奉)	-	승의전(1원)

조선 후기 경기의 행정편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읍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과 관원의 수를 대폭 줄여 재정지출을 줄였다는 점이었다. 연천의 경우 조선 전기 연천현으로 출발하여 후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현의 읍격을 유지하였다. 종6품 현감이 수령을 맡은 현으로 조선시대 읍격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규모였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승의전의 관원 변화이다. 1397년(태조 6)에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설치된 승의전은 고려 태조를 비롯하여 혜종·성종·현종·문종·원종·충렬왕·공민왕 등 고려의 여덟 왕과 고려조의 충신 정몽주 외 15인을 제사하는 곳이었다. 고려 왕족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조선 전기에는 종3품 사(使) 1원, 종4품 수(守) 1원, 종5품 영(令) 1원, 종6품 감(監) 1원 등 도합 4명의 관원이 배속된 비교적 큰 규모의 기관이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사와 수를 폐지하고, 대신 종9품인 여릉참봉(麗陵參奉)을 1원 추가하여 영·감과 함께 승의전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승의전은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마전군 소속이었다.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는 전 왕조에 대한 예를 갖추고, 흑시 모를 화를 피하고자 고려 왕과 충신들을 위한 제사를 올렸다. 조선 전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려 태조의 진영(眞影)을 역군(役軍)을 차출하여 승의전에 옮기고, 운영비 지원을 위한 토지도 12결을 지급하였다. 승의전을 수호하는 군사를 두어 경작이나 벌채를 금지했으며, 왕씨의 후손은 군대에 보내지 않고, 호역(戶役)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 승의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큰 전쟁을 겪은 이후에는 승의전의 운영이 순탄치 않았다. 전쟁으로 승의전도 파손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제사를 폐지되었다가 1602년(선조 35)에서야 수리를 진행하여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광해군 시기에 다시 제사가 중단되었지만, 인조반정 이후 폐조(廢朝) 시절 단절되었던 예법을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곧장 재개되었다. 그러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되면서 승의전의 관리도 점차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현종 즉위년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최근에 법령이 해이해져 금지 구역 내에서 농사하기도 하고, 몰래 묘를 쓰는 경우도 많아 승의전의 법도가 점점 예전만 못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왕씨의 후손들을 군역(軍役)에 편입하지 않고, 호역을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경기감사의 조사 결과 승의전 근처에 몰래 쓴 묘 두 기가 발견되어 모두 파내도록 하였고, 왕씨 후손에 대한 혜택도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었다. 당시에는 왕릉과 사당이 풍수지리상 길지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몰래 묘를 쓰는 일이 허다했다. 일례로 개성에 있던 왕건의 묘 인근에는 몰래 쓴 민간의 묘가 무려 170기가 되었다고 한다. 결국 현종이 강력한 처벌을 지시하면서 승의전의 운영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왕씨의 후손이 맡던 관직도 승급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들의 처우도 개선되었다.

조선시대 연천은 현으로 시작하여 조선 말까지 읍격이 바뀌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다만, 연

천현이 폐지되고, 인근에 마전군(麻田郡)과 통합된 적이 한 차례 있었다. 1662년(현종 3) 12월 연천현은 전패(殿牌)를 분실한 책임을 물어 혁파되었다. 전패는 조선시대 지방관청의 객사에 왕의 초상을 대신하여 봉안하던 목패(木牌)를 말한다. 앞면에 전(殿)이라는 글자를 새겼기 때문에 전패라고 하였다. 고을 수령과 서울에 출장 온 관원이 배례(拜禮)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만일 전패가 훼손되거나 분실하면 불경죄로 범인은 물론, 수령과 그 고을까지 모두 처벌을 받았다. 연천현은 혁파된 이듬해에 복설되었다. 전패 분실사건은 1671년(현종 12)에 재차 발생하였다. 이때는 이애립(李愛立)이라는 자가 전패를 훔쳤다가 붙잡혔는데, 삼성죄인(三省罪人)으로 처형당했다. 삼성죄인은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에 규정된 죄인으로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 등의 10악(十惡)을 비롯하여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여, 임금의 특지(特旨)를 받고 사헌부·사간원·형조, 혹은 의정부·사헌부·의금부 등으로 구성된 삼성(三省)에 의해 추국을 받는 중범죄인을 말한다. 연천현은 이애립이 살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혁파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좌의정 허적(許積)이 고을을 혁파하면 폐단이 많고, 이전에 혁파한 고을도 모두 회복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혁파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 뒤로는 이러한 범죄가 있을 때는 본도(本道)에서 잡아 벌을 주고, 조정에는 아뢰지 말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종이 이를 수용하면서 연천현은 혁파를 면하였다. 이 뒤로 연천현은 읍격의 변화나 혁파 없이 고종 연간까지 유지되었다. 연천현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원으로는 종6품 현감 1원이 있었고, 장단 진관의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를 겸하였다. 현감을 보좌하기 위해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군관(軍官) 15인, 아전(衙前) 17인, 지인(知印) 9인, 사령(使令) 15명, 관노(官奴) 19명, 관비(官婢) 13명이 있었다.

2) 행정구역

연천현에는 19세기 전반을 기준으로 군내면(郡內面), 동면(東面), 서면(西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등 5개 면이 있었고, 그 예하에는 도합 30개 리(里)가 있었다. 다음은 연천현의 행정구역을 정리한 것이다.

군내면(4개리): 읍내리(邑內里), 지혜동리(智惠洞里), 동막리(東幕里), 무수동리(無愁洞里)

동면(4개리): 상수회리(上水回里), 와초리(瓦草里), 옥산리(玉山里), 가척리(加尺里)

서면(6개리): 계명리(鷄鳴里), 군영리(軍營里), 영전리(營殿里), 안월리(安月里), 야전리(野田里), 소포리(小浦里)

남면(8개리): 석현리(石峴里), 왕림리(旺林里), 진상리(進上里), 하심곡리(下深谷里), 갈모리

(葛畝里), 옥계리(玉鷄里), 진전리(榛田里), 상심곡리(上深谷里)
 북면(8개리): 하수면리(下水面里), 상삼곶(上三串), 하삼곶(下三串), 중산리(中山里), 횡산리(橫山里), 사동리(沙洞里), 적거리(赤巨里), 마거리(馬巨里)

연천현을 둘러싼 사방 경계는 다음과 같았다. 연천현은 동서로는 50리, 남북으로는 40리의 규모로서 서울에서 동북쪽으로 읍치까지 143리 떨어져 있었다. 관문 동쪽에서 영평(永平) 경계의 마가천(摩訶川)까지 20리였고, 서쪽으로는 장단(長湍)의 고양산까지 30리였다. 남쪽으로는 마전 경계인 용림정(龍林亭)까지 20리였고, 남쪽으로는 양주(楊州)와의 경계인 진목정(眞木亭)까지 15리였다. 북으로는 삭녕(朔寧)과의 경계인 조장현(鳥場峴)까지 30리였고, 동북쪽으로는 철원과 이어지는데 그 경계인 녹마애(綠摩崖)까지 15리였다. 한편, 연천현에는 인공적인 유일한 다리로 차탄교(車灘橋)가 있었다. 차탄교는 유량이 적은 가을과 겨울에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봄과 여름에는 허물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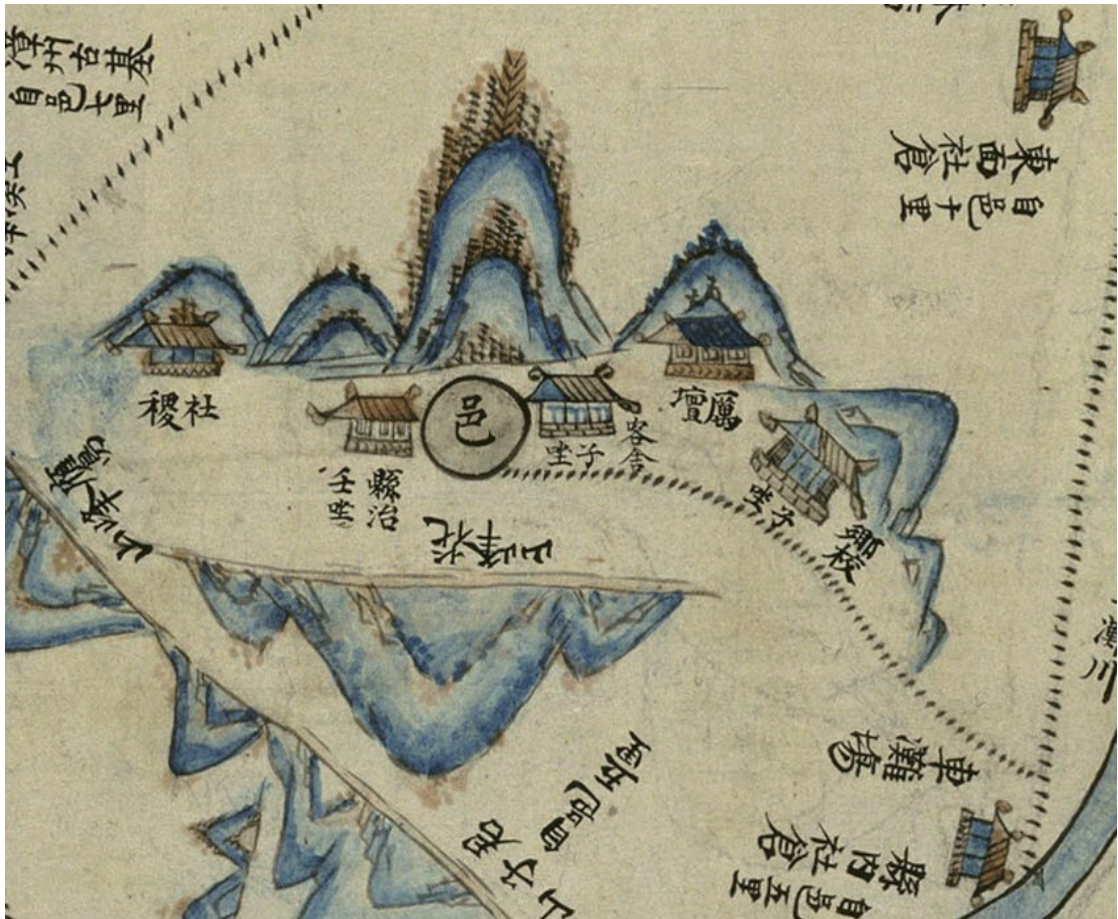
3) 읍치와 주요 시설

(1) 행정시설과 창고

고을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시설이 필요했다. 1842년(헌종8)의 읍지를 기준으로 연천현의 행정시설을 살펴보도록 하자. 연천현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시설은 객사였다. 객사는 고을의 각종 의례를 행하거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이 지방에 머물 때 사용하던 숙소이다. 객사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보관하였고, 궁궐을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모시는 곳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리는 망궐례를 행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단연 위상이 가장 높은 장소였다. 조선시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르면 망궐례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길한 일이나 흉한 일이 있을 때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리는 의식, 국왕이 발표하는 문서인 교서(敎書)를 받드는 의식, 임금이 의례 때 사용하도록 내려주는 향인 내향(內香)을 맞이하는 의식, 군현을 순행하는 관찰사를 맞이하는 의식 등 여러 국가적인 행사를 객사에서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객사에는 전패를 모시고 의례를 진행하는 정청이 중앙에 있고, 양옆에는 관리들이 묵었던 동익헌·서익헌이 배치되었다. 정청은 동익헌·서익헌보다 위계가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기단이나 지방을 두 건물보다 더 높게 건축하였다. 연천현의 객사는 현의 중앙에서 동쪽에 위치하였고, 남향 건물로서 8칸의 규모였다.

다음으로 현감의 집무실이 자리하고, 각종 행정 실무가 이루어지는 동헌(東軒)이 있다. 연천현의 동헌은 건좌(乾坐)에 10칸의 규모로 지어졌다. 동헌에서는 고을의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재판, 그리고 세금 징수 등이 행해졌다. 동헌에는 10칸 규모의 책방(冊房)이 별도로 자리하

였다. 책방은 조선시대 수령을 보좌하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책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연천현의 책방은 수령의 집무실인 동헌과 같은 규모로서 상대적으로 컸다. 아마도 책을 보관하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서리들이 업무를 보던 장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관아에는 쌀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과 관청 운영에 사용되는 비품들을 보관하던 관수고(官需庫)가 2칸 있었고, 작업 공간인 공방고(工房庫)가 1칸 설치되었다. 관아로 통하는 정문은 삼문(三門)으로 모두 3칸이었다. 수령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내아(內衙)는 건좌(乾坐) 방향으로 12칸 규모로 지어졌고, 그 옆으로 행랑(行廊)이 7칸, 산정(山亭)이 3칸이었다. 행랑은 대개 수령의 시중을 들고 관아의 잡무를 보던 하인과 노비들이 거주하던 공간이었고, 산정은 수령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연회를 즐기던 공간이었다.



[그림 5] 연천현 읍치(1872년 지방지도)

이 밖에도 연천현에는 향청(鄉廳)과 무청(武廳), 사령청(使令廳)이 각각 10칸, 9칸, 8칸 규모로 설치되었다. 향청은 본래 수령을 자문하고 보좌하던 자치기구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수령 휘하에서 그를 보좌해 행정 실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변화하였다. 향청의 좌수는 수령의 수석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지방행정에서 나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무청은 관아에 딸린 장교(將校)들의 집무소였고, 사령청은 무청의 하부 기관으로서 사령들의 집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사령은 관아에 딸려 심부름을 하거나 잡무를 보던 하졸, 하급 관원을 말한다.

연천현에는 관아에 속한 관수고 외에도 여러 창고가 있었다. 먼저 전세나 대동미를 걷어 서울로 상납하기 전에 보관하거나, 군량미를 보관하던 사창(司倉)이 가장 큰 16칸의 규모로 설치되었고, 유사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남창이 12칸이 있었다. 칙사가 방문했을 때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칙수고(勅需庫)은 10칸 규모였다. 경기는 평안도, 황해도와 함께 칙사가 오가는 대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칙수(勅需) 부담을 각 고을이 분담하고 있었다. 각 고을에서는 불시에 발생하는 칙사의 접대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 칙수고를 설치하고, 쌀과 동전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비축하였다. 연천의 칙수고도 같은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었다. 한편, 연천현에는 경창고(京倉庫)라는 이름을 가진 8칸의 창고도 있었다. 경창(京倉)은 일반적으로 서울에 설치한 창고를 부르는 명칭인데, 연천현의 경창고는 서울의 예비 창고의 성격보다는 경기감영 소속의 환곡을 보관하던 창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좌기청(坐起廳) 6칸, 대문(大門) 창고 2칸, 사고(私庫) 5칸, 군기고(軍器庫) 3칸이 소재하였다. 군기고는 무기류를 보관하던 곳이었고, 사고와 대문 창고, 좌기청의 용도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연천현에는 서울로 보낼 세곡을 보관하던 창고로 공세창(貢稅倉)이 별도로 있었는데, 『경기지(京畿誌)』에는 공세창과 좌기청 창고가 관아에서 10리 떨어진 남면(南面)의 징파강(澄波江) 변에 있었고, 단지 전세와 대동미,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곡식(移轉米)만을 받아두었다고 한다. 아마도 상기한 사창(司倉)이 관아의 군량미를 비축하던 용도였고, 공세창과 좌기청이 서울로 보낼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징파강은 임진강이 한탄강과 합류하기 전에 연천현 방향으로 난 상류의 강을 부르는 임진강의 다른 이름이었다. 수운에 유리한 임진강에 창고를 설치한 것으로도 창고의 성격이 서울로의 세곡 운송에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 역원(驛院)과 누원(樓院)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공문서를 지방관청에 전달하거나 서울에서 공무로 파견한 관리와 신입 지방관의 부임할 때 말을 공급하던 곳을 역(驛)이라고 하고, 이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



[그림 6] 옥계역



[그림 7] 남송정

하던 곳을 원(院)이라고 한다. 역에서 일하는 관리들은 중요한 공문은 물론이고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이나 지방에서 걷은 세금을 운반하기도 하였다. 역과 원은 유사한 성격으로 같은 경로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역원이라고 통칭하였다.

조선시대 역원은 대략 30리마다 하나씩 설치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전국에는 500여 개의 역과 1,310개소의 원이 있었다. 역도는 도로의 중요도와 지리에 따라 여러 개의 역을 묶어 종6품 찰방(察訪)이나 종9품 역승(驛丞)을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역에는 역장(驛長), 역리(驛吏), 역졸(驛卒) 등을 두어 역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역원에는 운영비 마련을 위한 토지가 지급되었다.

연천현에는 옥계역(玉溪驛)과 송절원(松折院)이 있었다. 옥계역은 현의 북쪽 7리에 있었으며 도원역(桃源驛)에 속하였다. 송절원은 현의 동쪽 10리에 있었으며, 고려 때는 한양과 송도(松都)의 분기처였기 때문에 원을 설치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폐지되었다.

누정(樓亭)은 은행정(銀杏亭)과 남송정(南松亭)이 있었다. 은행정은 현의 동쪽 7리 지점에 있었는데, 이양소(李陽昭)가 노년에 휴식을 취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양소는 고려시대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었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시대 성균관(成均館)에 두었던 종4품 벼슬이었던 사예(司藝)를 거쳐 군수를 역임하였다. 조선의 태종(太宗)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오랜 친구로서 황해도 곡산(谷山)의 청룡사(靑龍寺)에 함께 들어가 학문을 닦았고, 성균관에서 도 같이 있었기에 친분이 두터웠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뒤에 여러 차례 등용하려 했지만 두 왕조에 걸쳐 벼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세상을 피해 연천(漣川)의 도당곡(陶唐谷)에 은둔하였다. 태종이 즉위한 뒤 이양소가 사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 태종이 그의 의절을 높이 사서 그가 숨어 사는 산을 '청화산(淸華山)'라 부르고 집을 하사하였다. 죽음이 임박해지자, 스스로 명정(銘旌)에 '고려이양소지구(高麗進士李

陽昭之樞'라 썼는데, 태종이 이 사실을 듣고 '살아서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더니, 죽어서도 그 벼슬을 더럽히지 않는구나.' 찬탄하며, 장지(葬地)를 지정해 주고 무덤을 지킬 수총군(守冢軍) 4호(戶)를 두게 하였다. 시호는 산의 이름을 따서 청화(淸華)라고 하였다.

남송정은 현의 남쪽 20리에 있었다. 고려 무신이었던 현문혁(玄文奕)의 거주하던 곳이다. 19세기에는 폐허가 되었다. 그는 1270년(원종 11) 배중손(裴仲孫)과 노영희(盧永禧) 등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왕온(王溫)을 왕으로 받들고 관부(官府)를 설치할 때, 강화를 탈출하여 개경으로 향하였다. 이때 추격해오던 적선과 맞붙어 화살을 쏘자 현문혁의 배가 물이 얇은 곳에 걸리어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이때 현문혁의 아내는 적에게 치욕을 당할 수는 없다 하고 두 딸을 껴안고 물에 빠져 자결하였고, 현문혁은 적에게 붙잡혔다. 삼별초군은 현문혁의 용기를 아깝게 여겨 살해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재차 탈출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현문혁의 처는 절개를 높이 사서 열녀로 표창되고 자손은 벼슬을 받았다.

이밖에 연천현에는 봉산(封山), 제언(堤堰), 목장(牧場), 봉수(烽燧)는 설치되지 않았다.

2. 임진강 방어체계와 군사 편제

1) 지리적 배경

연천은 경기 북부의 중앙에 위치하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강과 그 지류인 한탄강이 관통해 흐르는 곳이다. 현재 연천군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연천현, 삭녕군, 마전군 지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과거 장단부(長湍府) 소속이던 고랑포(高浪浦) 역시 현재는 연천군 소속이다.

조선시대 임진강에는 가장 서쪽에 있는 낙하(洛河)와 중앙에 임진(臨津), 그리고 동쪽에 고랑포 등 세 곳의 도하처가 있었다. 현재 연천군 소속인 고랑포는 임진강 이남에 위치한 임진에 비해서는 다소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양주-북한산 방면으로 남하하여 한양의 동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요 경로였다. 본래 11세기까지는 임진보다 고랑포 일대가 임진강의 주된 도하처로 활용되면서 삼국시대에는 이 지역에 호로그루 등 여러 관방시설이 만들어지고 각축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한양 일대가 고려의 남경(南京)으로 개발되고 조선시대 한양으로 발전하면서 조금 더 한양에 인접한 경로인 임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고랑포를 통과하는 이른바 장단도로(長湍渡路)는 비교적 위축되었다(정요근, 2005: 19). 또한 고랑포는 18세기 후반 강원도 이천(伊川), 안협(安峽) 등지의 대동세를 서울로 운송하는 출발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오는 물류와 교통이 집적되는 곳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1777년(정조 1) 강원도 관찰사 김이소(金履素)가 고랑포로 운송하는 대동세의 문제를 언급한 상소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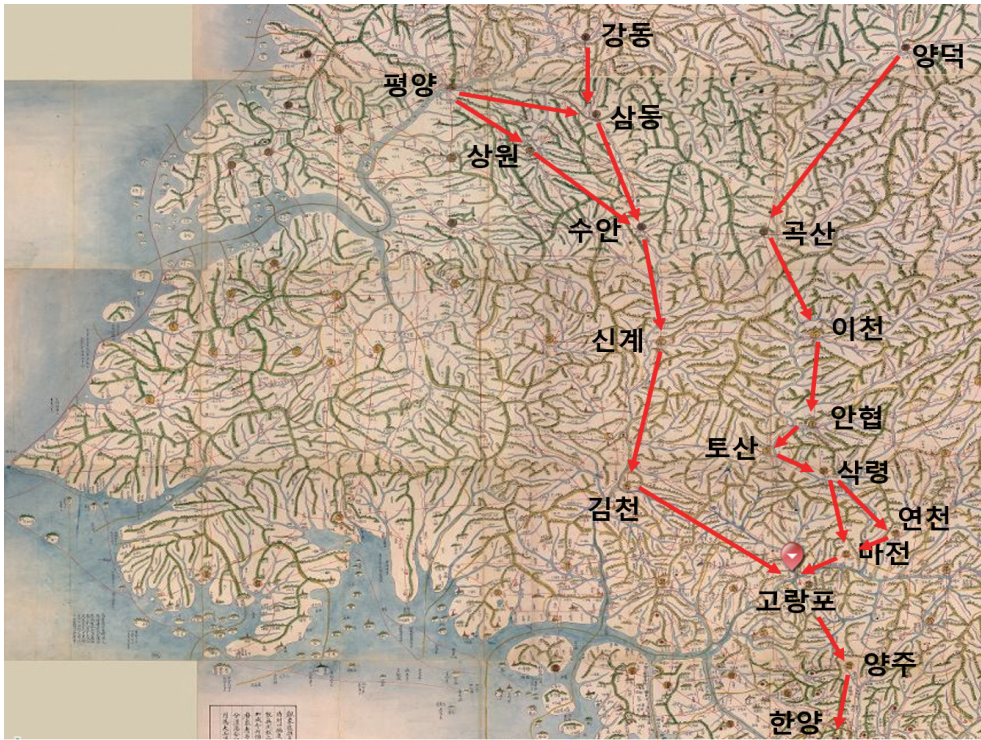


[그림 8] 임진강 도하처 및 주요 교통로

강원도관찰사 김이소(金履素)가 이천(伊川)·안협(安峽)의 대동세미(大同稅米)를 운반하여 장단(長湍)의 고랑포(皐浪浦)로 도착시키는 것은 거리가 멀어 수송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연전(年前)에 돈으로 상납한 예(例)에 의거하여 이를 영원히 항식(恒式)으로 하게 해주기를 청했습니다. 이 일은 백성의 고통을 살피는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를 인하여 특은(特恩)으로 단지 당년(當年)에만 시행하게 한 것이니 이를 원용(援用)하여 준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정지시키소서.¹¹⁶⁾

안협은 연천 북쪽으로 삭녕보다 더 올라가면 나오는 고을이었고, 그 위에 위치한 고을이 이천이었다. 즉 강원도에서도 최북단에 있는 고을들이었다. 산지가 많아 물류에 어려움이 컸지만, 임진강을 통한 수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고랑포까지 대동미를 운송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랑포는 강원도 북부지역의 세곡 운송과 서울과의 교통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116) 『정조실록』 권3 정조 1년 4월 5일 경자



[그림 9] 연천을 경유하는 적의 침입로(동여도)

세국 이동보다 더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은 북방의 적이 침략했을 때 서울로 남하하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남하하는 적이 의주로와 우회로를 따라 고랑포를 이용해 서울과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왕조 내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 지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단은 곧 경기 서쪽 제일의 요충지로 동쪽으로는 신경(神京)을 호위하고 있고, 서쪽로는 송도(松都)를 견제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심도(沁都)의 문호(門戶)가 되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우보(右輔)에서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그곳의 지세(地勢)를 말하면 서북(西北)의 대로(大路) 이외에 또 사잇길 두 가닥이 있습니다. 강변(江邊)에서부터 은밀히 양덕(陽德)·맹산(孟山)을 넘어서 곡산(谷山)·수안(遂安)을 지나 이른바 본부(本府)의 고랑포(高浪浦)에 닿는 데는 4백여 리에 불과합니다. 또 북쪽의 육진(六鎭)에서부터 곧바로 삼방곡(三防谷)·추가령(楸柯嶺)으로 달려 평강(平康)·이천(伊川) 사이로 나와서 고랑포에 도달하는 것도 또 3백여 리에 불과합니다.¹¹⁷⁾

117)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12월 9일 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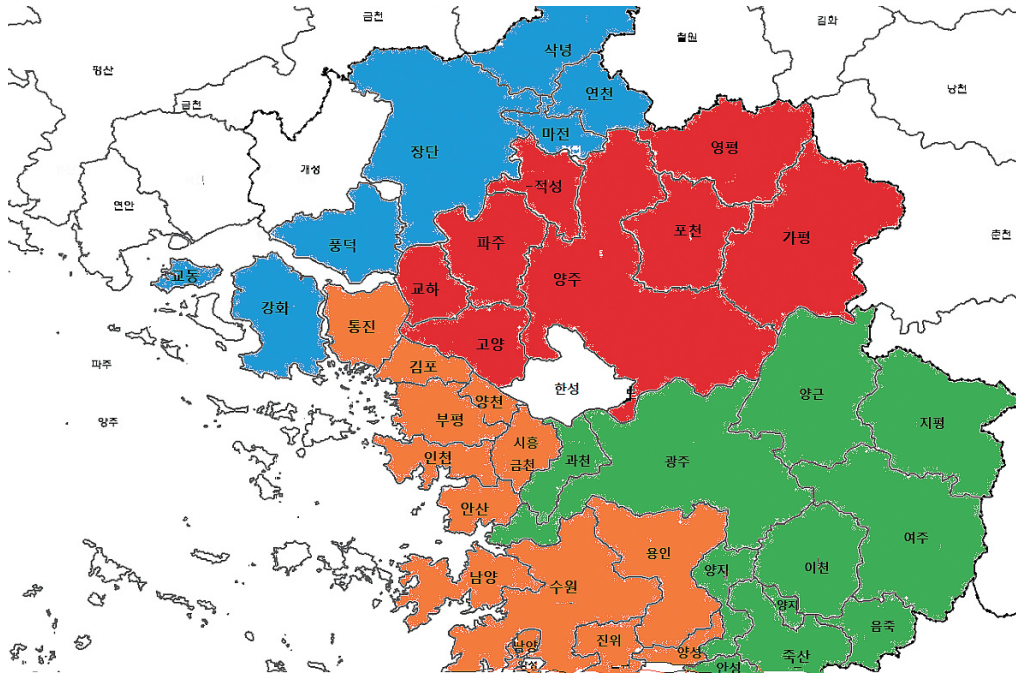
장단은 고랑포를 포함하여 인근 임진강 방어선의 중심이 되는 거점이었다. 인용문에서는 적들이 의주대로를 피해 사잇길로 남하하면 압록강에서 고랑포까지 300~400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방비 강화를 요청하였다. 위 지도에서처럼 고랑포는 의주대로를 벗어나 다양한 경로로 우회하는 적들이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다. 또한 임진강의 긴 방어선을 모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지만, 수량이 많은 시기에는 중하류 지역에서 도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강폭이 좁은 상류에 위치한 고랑포 일대는 특히 중요한 방어선이었다.

2) 조선 후기 연천 일대 방어체제의 개편

조선 전기 지방군이 진관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연천 일대의 방어체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단계에서 임진강 이북은 장단 진관을 중심으로, 이남은 양주 진관을 중심으로 군사조직을 편제하고 순찰사를 겸하는 경기감사가 이를 총괄하였다. 다만, 조선 전기에는 경기지역보다 왜구와 여진족 등의 침입에 대응해 서남 해안 혹은 북방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축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연천을 비롯한 임진강 일대에는 관방 시설의 마련이 미비하였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이나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에서 연천과 임진강 일대의 방어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장단도호부사(長湍都護府使)를 종2품의 경기우방어사로 삼으면서 장단에 방어영을 상설하고, 임진(臨津)의 맞은편에 덕진산성(德津山城)을 구축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17세기 전반까지 후금과의 전쟁에서 주로 인근 산성이나 보장처로 대피하는 방어전략이 채택되며 임진강의 방어가 쉽게 포기됨에 따라 적군이 손쉽게 강을 넘어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서울에서는 도성 방비를 강화하거나 지원군이 합류하는 시간을 벌지 못하였다. 기마병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는 국왕의 도피처를 강화하기보다는 강이나 산과 같은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적병의 전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이 요구되었다.

그런데도 임진강 방어에 중추적 역할을 하던 장단방어영은 인조 연간에 충용군으로 귀속되었다. 장단 방어영에는 속읍(屬邑)으로 주변에 소재한 삭령, 마전, 연천, 적성, 장단, 파주 등의 군현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이강원, 2021:228). 장단 방어영 소속 군병들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 충용군의 일원으로 남한산성과 한강 일대에서 국왕을 호종하거나 보장처의 외곽 방어에 동원되었다. 충용군은 조직 당시부터 유사시에 세자를 호종하여 남한산성 방어에 투입하는 것이 규정이었기 때문에(이태진, 1985:99) 임진강 방어체제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다.

병자호란 등 여러 전란에서의 패배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는 임진강 일대의 방어에 대한 개편 작업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17세기는 주로 의주대로 상에 있는 방어시설의 정비에



[그림 10] 경국대전의 경기지역 진관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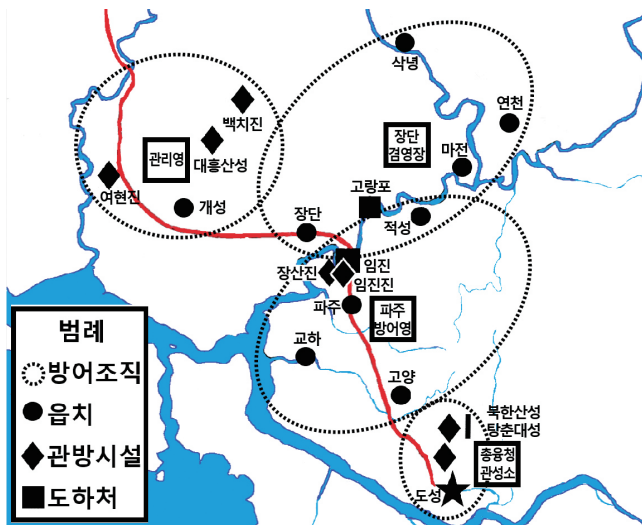
초점이 맞춰졌다. 1676년(숙종 2)부터 1678년(숙종 4) 사이 개성 인근 지역의 요충지인 백치와 청석동 일대에 백치진(白峙鎭)과 대흥산성(大興山城)이 설치·보수되었다. 1711년(숙종 37)에는 개성유수가 관리사를 겸하는 방식으로 개성유수부에 관리영이 설치되었다. 장단 방어영을 강화하기 위해 속읍을 추가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기존 임진강 유역의 6개 고을에서 2곳이 추가되어 장단, 삭녕, 마전, 연천, 파주, 적성, 고양, 교하로 조정된 것이다.

1754년(영조 30) 임진강의 가장 중요한 도하처인 임진에 임진진과 장산진이 설치되었다. 이어 경기 우방어영이 임진이 속한 파주로 이설되었다. 다만, 이때 임진 못지않게 중요한 도하처였던 고랑포의 방어를 고려하여 임진강 이북 4개 읍인 연천, 마전, 장단, 삭녕은 파주 방어영 소속이지만 총융청 소속의 후영장을 겸하는 장단부사의 지휘를 받아 유사시 임진강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임진강 주변 8개 읍은 모두 파주로 이설된 경기 우방어영 소속이지만, 유사시 이북 4개 읍은 장단 겸영장의 지휘를 따르고, 이남 4개 읍의 병력으로 구성된 파주 방어영 직속부대는 파주 방어사의 직접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다. 또한 당시 파주 방어영 직속부대에는 특수 기병 병종인 별효사도 창설되었다.

일련의 정비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진강 방어체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높았다. 임진강 방어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1781년(정조 5) 경기감사 이형규(李亨逵)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랑포를 비롯한 장단 지역의: 필자주) 군사와 백성에 대해 말한다면 땅이 사방으로 매우 넓고 또 사람의 총수가 상당히 많아서 무기(武技)를 정예롭게 단련하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이 없고 군졸은 액수(額數)를 충당시키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치(措置)해둔 지 해가 오래되고 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므로, 만일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아침에 징발하여 저녁에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무신년의 변란 때에도 신속하게 부대를 편성하여 죽산(竹山)에서 엄히 진을 치고 있었으니, 이것이 그 증험입니다. 아! 저 파주에서 의지하여 믿는 것은 곧 한 가닥 허리띠 같은 강물과 하나의 탄환만한 작은 성(城)뿐입니다. 강가의 얇은 여울은 옷을 걸거나 벗고서 건널 수 있는 곳이 많으니, 파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성(京城)으로 달려간다면 방진(方鎭)에서 수비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파주목은 지역이 좁고 사람이 적어서 영(營)을 설치한 이후 각읍(各邑)의 군보(軍保)를 모두 이속(移屬)시켰어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여 구차스럽게 군사의 액수를 더해주고 있다.¹¹⁸⁾

이형규에 따르면 임진강 상류의 장단과 고랑포 인근에는 관방 시설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파주 방어영은 임진강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건너온 적을 막는 것에 불과했다. 이에 경기감사는 상류에 있는 장단 쪽에 관방시설을 설치하여 적의 도강 자체를 막고자 한 것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영조 연간에 발생한 ‘이인좌의 난’ 때도 군사를 빠르게 조직하여 반란 진압에 공을 세운 기억이 있었다. 따라서 이미 제도를 갖춘 상태에서 군영을 설치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림 11] 조선 후기 임진강 방어체제

118)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12월 9일 정축

경기감사의 요청처럼 파주 방어영을 장단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임진강 상류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791년(정조 15) 고랑포에도 별도의 방어시설인 진사(鎭舍)가 설치되었다. 고랑포 근처에는 총융청 소속의 둔전(屯田)이 많아 총융청 소속 감색(監色)이 해마다 수확한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곳 남쪽 한 기슭에 진사를 지어 해당 장교와 병졸들이 상주한다면 고랑포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변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미 군사 목적의 농지인 둔전이 경영되고 있었고, 소속된 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관방 시설을 설치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랑포는 임진강 방어의 핵심 요충지로 거듭났다. 당시 임진강 방어 체제 정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8세기 연천 일대를 포괄하는 의주대로 주요 거점에 대한 관방 시설과 군사 기구의 정비는 중첩적인 방어의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임진강 상류 일대는 장단 겸영장과 파주방어영이 동시 방어를 맡으면서 어느 한 곳이 무너져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처럼 산성이나 보장처로 대피하던 방어 전술의 한계를 적극적인 지역방어로 극복하려 한 것이다. 둘째, 별효사 등 정예 기병 병종을 육성한 것은 과거 기병을 중심으로 한 청의 기동전술에 패배한 것에 대한 반성 속에서 방어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동적으로 도강을 저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병을 통한 강력한 항전을 준비한 것이다.

3) 연천의 군사와 무기

19세기 전반을 기준으로 연천현의 군사와 무기를 살펴보자. 연천현에는 기병(騎兵) 381명, 보병(步兵) 3명, 내취보(內吹保) 24명, 노원역보(盧元驛保) 13명, 금군보(禁軍保) 8명, 자보(資保) 9명, 관보(官保) 60명, 금위원군(禁衛元軍) 19명, 자보(資保) 20명, 관보(官保) 117명, 수어군수보(守禦軍需保) 8명, 총융군수보(摠戎軍需保) 87명, 아병(牙兵) 74명, 수첩군관(守堞軍官) 5명, 포보(砲保) 56명, 군향보(軍餉保) 18명, 공조장보(工曹匠保) 2명, 사복제원보(司僕諸員保) 44명, 악공보(樂工保) 4명, 선무(選武) 20명, 휘경원수호군(徽慶園守護軍) 4명, 속오군(束伍軍) 275명, 영기수보(營旗手保) 15명 등 도합 1,266명의 군역자가 있었다. 중앙군에는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금군 등에 소속되었고, 각종 지방군에서 배속되었다. 연천현에는 직접 군대에 가는 입역자보다 보(保)가 많았는데, 보는 군대에 간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병종을 의미했다. 즉, 매년 정해진 수량의 쌀이나 무명, 삼베 등을 군대에 가는 대신 납부하여 군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특징은 기병은 3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실역자(實役者)가 기병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임진강에서 북방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 기병을 강화한 정책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연천현에서 보유한 무기는 조총(鳥銃) 161병(柄), 이찬철(耳鑽鐵) 161개, 삼혈총(三穴銃) 5

병, 환도(環刀) 241병, 화약(火藥) 101근, 약통(藥筒) 161개, 화승(火繩) 161원(圓), 철환(鐵丸) 5,320개, 환낭(丸囊) 161건(件) 양환두(量丸斗) 1개, 교자궁(絞子弓) 53장(張), 장전(長箭) 108부(浮), 미전(尾箭) 69부, 통아(筒兒) 38개, 장족(樟足) 1개, 거마창(拒馬槍) 55명, 장창(長槍) 184개, 동노구(銅爐口) 18좌(座), 아리금(阿里金) 36개, 오방신기(五方神旗) 5면(面), 고초기(高招旗) 1면, 파총수기(把總手旗) 1면, 인기(認旗) 1면, 초관수기(哨官手旗) 2면, 인기(認旗) 2면, 기총대장기(旗總隊長旗) 24면, 영기엽(令旗葉) 4면, 순시기엽(巡視旗葉) 4면, 홍전립(紅箭笠) 6립, 주장(朱杖) 2척, 대중소고(大中小鼓) 8좌, 호적(號笛) 2척, 나팔(囉叭) 2척, 쟁(錘) 2좌, 정(鉦) 1좌, 사초롱의(紗燭籠衣) 2건, 기대장철초롱이(旗隊長鐵燭籠衣) 22척, 편담(扁擔) 18개, 부자(斧子) 18개, 요구금(腰鉤金) 2개, 인자군막(人字軍幕) 19부, 군막철말독(軍幕鐵末獨) 4개, 숙정패(肅靜牌) 1개, 기추관혁(騎蒭貫革) 5면, 관혁(貫革) 1면, 칭자(稱子) 1좌, 오장교군복(五將校軍服) 5건 등이었다. 연천현은 조총을 중심으로 한 무기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조총에 큰 피해를 당했던 조선은 17세기 이래로 군기시와 화기도감(火器都監) 등을 중심으로 조총을 제조하여 전국에 배치하였다. 지방 군현에서는 월과군기(月課軍器)의 하나로 조총의 제조 비용을 서울에 상납하였다. 연천현도 수년에 걸쳐 월과군기로 조총을 구비해 놓은 것이다. 조총을 운용하기 위한 화약과 약통, 화승, 철환 등도 충분한 수량을 갖추었다. 또한 적의 기병 부대를 방어하기 위한 각종 창류도 연천현의 주력 무기였다.

3. 인구와 경제

1) 연천의 인구와 토지 변화

현재의 연천군에는 조선시대 연천, 마전, 삭령, 적성 등의 4개 고을이 속해 있었다. 4개 고을의 인구와 토지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우선, 토지 결수가 가장 많은 고을은 삭령이었다. 삭령은 15세기 전반 3,854결이던 토지가 18세기 후반에는 1,892결로 감소하였다. 지목별로는 밭이 1,651여 결, 논이 240여 결로 논보다 밭이 7배가량 많았다. 주로 산지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콩 농사가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천은 15세기 중반 1,939결의 토지가 18세기 후반에는 1,315결로 줄었다. 밭은 1,128결, 논은 186결로 밭이 논보다 6배 많았다. 적성은 2,663여 결에서 1,022결로 줄었고, 마전 역시 1,171여 결에서 880여 결로 감소하였다. 감소 폭으로 보면 적성이 가장 컸고, 두 고을 역시 밭이 월등히 많았다.

다음으로 인구이다. 조선시대 호구(戶口) 자료는 부세 수취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불필요한 호구는 누락된 사례가 많다. 따라서 당시 인구를 정확히 반영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증감 추이와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현재 연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을은 삭

〈표 7〉 호구와 토지 규모의 변화

문헌	군현	결수(결)	수전(결)	한전(결)	호(戶)	인구(명)	남자(명)	여자(명)
세종실록 지리지 (15세기 중반)	적성	2,663	533	2,130	212	380		
	삭령	3,854	286	3,568	233	722		
	마전	1,171	234	937	146	484		
	연천	1,939	431	1,508	186	360		
여지서 (17세기 후반)	적성				1,011	7,155	3,821	3,334
	삭령				2,104	11,104	6,028	5,076
	마전				1,126	4,828	2,740	2,088
	연천				1,456	7,985	4,070	3,915
여지도서 (18세기 중반)	적성	1,022.83	265.94	756.88	1,418	5,312	2,669	2,643
	삭령	1,892.29	240.9	1,651.39	2,810	10,691	5,623	5,068
	마전	880.11	228.21	651.9	887	2,702	1,368	1,334
	연천	1,315.01	186.14	1,128.87	1,263	4,079	2,353	1,726
호구총수 (18세기 후반)	적성				1,698	5,909	3,123	2,786
	삭령				2,792	10,896	5,801	5,095
	마전				1,011	3,605	2,207	1,398
	연천				1,342	4,778	2,622	2,156
대동지지 (19세기 중반)	적성	1,074						
	삭령	1,892						
	마전	880						
	연천	1,315						

령이었다. 15세기 삭령에는 233호 722구의 호구가 있었고, 18세기 후반에는 2,792호 10,896구로 증가하였다. 삭령은 연천군에서 유일하게 1만 구가 넘는 지역이었다. 17세기 후반에는 1만 1천여 명을 넘기도 하였지만, 18세기에는 그보다는 감소한 상태였다. 다음으로 마전은 146호, 484구의 호구가 887호, 2702구로 증가하였다. 조선 후기에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적성이었다. 적성은 15세기 중반에 212호, 380구였던 호구가 18세기 후반에는 1,698호, 5,909구까지 증가하였다. 적성은 임진강 남쪽에 위치하여 연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 지점이었고, 삭령 다음으로 토지 결수가 많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주가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전은 146호, 484구였던 호구가 1,011호 3,605구로 증가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연천군 지역에서 3번째로 많은 호구를 가졌었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 되었다. 그 이유는 토지에 있었다고 보인다. 마전은 연천 모든 지역에서 가장 논과 밭이 적은 지역이었다. 산지가 많아 농사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인구 증가도 제한적이었다. 연천은 15세기 중반 186호, 360구로 가장 적은 호구였지만, 18세기 후반에는 1,342호, 4,778구로

〈표 8〉 연천 소재 군현별·면별 호구 규모(18세기 후반, 『호구총수』)

군현	면	원호	남	여	합계
삭녕	읍내면	493	1,070	921	1,991
	서면	385	774	794	1,568
	남면	272	596	486	1,082
	동면	294	530	504	1,034
	인목면	447	919	656	1,575
	내문면	471	980	1,004	1,984
	마장면	430	932	730	1,662
마전	군내면	271	545	419	964
	북면	238	544	335	879
	서면	160	287	251	538
	동면	234	504	284	788
	화진면	108	327	109	436
적성	현내면	128	235	210	445
	동면	246	415	344	759
	남면	421	832	813	1,645
	서면	290	491	378	869
	북면	432	853	809	1,662
	읍내리	181	297	232	529
연천	현내면	326	564	465	1,029
	동면	199	451	340	791
	서면	168	372	350	722
	남면	322	584	458	1,042
	북면	327	751	543	1,194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구수(口數)에서는 15세기보다 1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조선 후기 달라진 연천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인구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경기지역 전체에서 연천의 인구와 토지 규모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18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경기의 39개 고을 중 토지 규모는 삭녕이 24위, 연천이 27위, 적성이 32위, 마전이 35위 였으며, 호구는 삭녕이 19위, 적성이 34위, 연천이 36위, 마전이 38위였다. 이처럼 연천 지역에 소재했던 네 4개 군현은 경기에서 가장 적은 인구와 토지를 보유했다. 17세기 이후 연천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 부족은 이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농민들의 이주를 독려할 만한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고랑포에도 18세기 말이 돼서야 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9〉 18세기 중반 연천의 토지와 인구(『여지도서(輿地圖書)』)

군현	면적(km ²)	결수(결)	수전(결)	한전(결)	호구(구)	인구(명)	남자(명)	여자(명)
수원	688.63	11,605	5,276	6,329	14,696	55,680	28,373	27,307
양주	1,110.42	10,163	2,200	7,964	11,256	53,547	23,775	29,772
광주	888.45	6,076	1,868	4,208	11,721	55,218	23,625	31,593
여주	643.12	4,794	2,124	2,670	6,105	25,422	14,151	11,271
용인	396.86	4,719	1,313	3,406	4,363	17,933	7,760	10,173
강화	291.46	3,515	2,055	1,460	9,925	33,911	17,856	16,055
통진	190.19	3,110	1,634	1,476	3,327	10,724	5,527	5,197
양성	161.06	3,057	1,080	1,977	2,296	6,321	3,523	2,798
이천	312.16	3,043	1,592	1,450	4,056	22,549	12,089	10,460
부평	177.2	3,030	1,472	1,558	2,923	10,898	4,928	5,970
풍덕	262.38	2,861	1,539	1,322	3,646	11,042	5,897	5,145
개성	461.84	2,758	1,018	1,740	11,450	38,873	22,506	16,367
남양	224.63	2,697	1,190	1,506	18,320	19,644	10,481	9,163
안성	231.13	2,623	1,444	1,180	4,459	17,747	8,873	8,874
파주	292.93	2,523	1,139	1,384	3,109	9,797	5,326	4,471
음죽	149.98	2,505	1,281	1,224	1,880	7,824	3,889	3,935
인천	139	2,445	986	1,459	2,934	9,932	4,752	5,180
고양	218.08	2,299	1,234	1,065	2,890	13,175	6,627	6,548
진위	153.49	2,289	1,134	1,154	1,987	4,814	2,518	2,296
죽산	249.23	2,266	1,195	1,070	4,332	20,903	9,502	11,401
장단	764.51	2,197	762	1,435	5,557	29,016	16,544	12,472
양근	539.24	1,999	380	1,619	3,216	10,705	5,290	5,415
교하	144.74	1,949	1,232	716	2,503	9,070	3,964	5,106
삭령	401.8	1,892	241	1,651	2,810	10,691	5,623	5,068
김포	98.9	1,565	783	783	1,566	8,119	4,256	3,863
과천	139.18	1,565	581	985	3,150	13,812	5,700	8,112
연천	178.05	1,315	186	1,129	1,263	4,079	2,353	1,726
영평	410.74	1,300	90	1,210	1,435	6,081	3,014	3,067
시흥	125.42	1,276	510	765	1,873	7,763	3,322	4,441
교동	44.16	1,271	950	321	1,739	7,211	3,559	3,652
안산	111.69	1,153	549	604	2,221	10,090	5,082	5,008
적성	171.2	1,023	266	757	1,418	5,312	2,669	2,643
양지	159.96	1,010	485	525	1,531	8,662	2,922	5,740
양천	55.67	970	400	570	1,039	3,642	1,773	1,869
마전	97.89	880	228	652	887	2,702	1,368	1,334
포천	326.31	872	263	609	2,492	8,325	4,594	3,731
가평	713.32	585	51	534	2,391	6,907	3,800	3,107
지평	504.84	468	125	342	2,349	9,121	4,457	4,664

2) 연천의 경제와 세금

연천의 농업 환경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열악한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연천 지역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산지 환경에 맞는 농업과 다른 경제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연천군읍지에는 이 지역의 풍속이 순박하고 근검하다고 하였다. 부족한 생산량은 주민들에게 근검한 생활 태도를 강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어서 조금은 특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민(小民)들이 흑 상업에 종사하거나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내용이다. 연천현은 농지가 부족했지만, 지리적으로 서울과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를 잇는 길목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 있었다. 게다가 연천에는 임진강이라는 편리한 수운 교통이 있어서 서울까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었다. 이는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이었다. 경제적 여건으로 농지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상업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다.

연천현에는 차탄장(車灘場)과 군영장(軍營場) 등 두 곳의 시장이 있었다. 차탄장(車灘場)은 관아의 남쪽으로 5리 거리에 있었다. 1일과 6일에 열리는 시장으로 1달에 6번 열렸다. 매번 장이 열릴 때마다 자리세로 동전 5전(錢)씩 거두었고, 5~6월은 거래가 적었기 때문에 자리세를 줄여주었다. 차탄장은 시장의 이름처럼 연천에서 임진강으로 이어지는 차탄 변에 소재한 장이었다. 물류의 이점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모여면서 시장의 발달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군영장(軍營場)은 관아 남쪽 20리 거리에 있었는데, 19세기 중반 폐지되었다. 군영장은 명칭처럼 군영이 소재한 곳에 자리한 시장이었다. 군영(軍營) 인근에는 다수의 군인들이 1년 내내 거주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식(衣食)을 해결하기 위한 상업이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군대에 가더라도 의식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 군대에 간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 보인(保人) 제도를 마련한 것도 군대 안에서 모든 의식을 제공할 수 없던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군영장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19세기 중반 폐지된 것은 당시 서해안과 남해안에 이양선이 빈번하게 출현하면서 방어의 주안점이 바뀐 것이 연천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천은 북쪽에서 서울로 내려가는 적을 차단하기 위한 거점이었기에 청나라와의 관계가 안정된 시점에서 더이상 중요한 방어차가 아니었다. 연천 군영의 축소는 상업 물류의 감소로 이어졌고, 시장도 문을 닫게 된 것이다.

19세기 읍지에 따르면, 연천에서는 특산품으로 신감채(辛甘菜), 산개(山芥), 석공(錫貢), 멧돼지(山獐), 산토끼 등을 진상하였다. 특산품 모두 논이나 밭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산지에서 얻는 것이었다. 연천현은 특별한 수공업품도 하나 없었던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곳이었다. 신감채와 산개는 입춘(立春)에 진공(進貢)하였다. 석공은 감영에서 관문(關文)이 내려오면 그때마다 봉진(封進)하였다. 멧돼지는 산골의 고을에서 돌아가며 6~7년에 한 번씩 봉진하였다. 산토끼는 납제(臘劑)할 때마다 감영에서 관문을 보내면 진배(進排)하였다.

연천현에서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에는 크게 전세(田稅), 대동(大同), 군역(軍役) 등이 있었다. 조선 전기 전세 제도는 세종 연간 마련된 공법(貢法)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측량하는 양전(量田)을 한 뒤, 매년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되는 면적만큼 곡물을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왜란과 호란을 겪는 과정에서 농지가 파괴되고, 농민들이 다수 사망하면서 그해 풍흉과 상관없이 연분을 최하 등급인 하지하(下之下)나 한 단계 위인 하지중(下之中)으로 책정하는 형태가 고정되었다. 연분의 하향 고정은 이미 전쟁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것이었는데,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제도화된 것이다. 특히 경기는 전쟁의 피해가 큰 곳이라는 이유로 연분이 매년 하지하로 고정되어 1결당 전세 4두를 징수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흉년의 정도에 따라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를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전국 고을의 재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경차관을 파견하는 방식이 비용과 시간에서 불리한 점이 많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폐해가 발생하자 경차관의 파견을 중지하고 호조(戶曹)에서 지역별 농황(農況)을 보고받고 일괄적으로 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즉, 세율을 정하는 연분은 대부분 최하로 고정되고, 부과 대상은 호조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된 것이다.

연천현의 전세 운영도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했지만, 화전세(火田稅)의 징수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정부에서 정한 화전세 규정은 화전 1결당 경기·전라도·충청도는 콩 8두, 강원도는 콩 4두, 경상도는 무명 10필, 황해도는 좁쌀 100두를 거두는 형태였다. 이때 1결은 논밭과 달리 25일경(日耕)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 군현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방식을 조금씩 달리하였다. 연천의 경우도 특별한 사례에 해당했는데, 정약용(丁若鏞)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화전세는 스무닷새 갈이(日耕)를 1결로 한다 했는데 또한 좋은 법이 아니다. 내가 전일에 곡산부(谷山府)를 맡았었는데 곡산은 화전이 많고 고장이므로 화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깊은 산, 큰 영(嶺)에 땅은 한이 없으나 모자라는 것은 오직 사람의 힘이다. 만약 전지의 넓고 좁음으로써 그 세액을 정한다면 그 세는 공평하지 못하다. 땅은 넓으나 사람이 드문 마을엔 그 세액을 모두 거두기가 어려운데, 백성이 날로 흩어지니 세액을 채우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고, 땅이 좁고 사람이 뻘뻘한 마을에는 세액을 충당하기가 쉬운데, 백성이 날로 모여드니 세액을 거두기가 더욱 쉬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이다. 그 법은 한 마을마다 그 마을의 원총(原總)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 마을 안 호걸들이 느티나무 밑에 모여서 함께 공론하기를 “금년에 아무개는 열흘 갈이를 지었으니 10부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고, 아무개는 비록 열흘 갈이를 지었으나 재상(災傷)이 제법 많으니 8부만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며, 아무개는

닷새 갈이를 지었으니 5부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고, 아무개는 비록 닷새 갈이를 지었으나 그 초농(草農)이 제법 잘되었으니 7부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손익(損益)을 참작하여 세율을 올리고 내려서, 그 원충에 충당할 뿐이어서 풍년에도 더 많지 않고 흉년에도 더 적지 않은데 이것이 천하의 좋은 법이다. 오직 사람이 드문 마을에는 원충이 본래 높으니 백성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마치 흉노의 풍속처럼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녀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전지의 넓고 좁음에 따라서 그 세액을 묶어두겠는가?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넉넉지 못한 것이니, 이와 같은 곳은 농부의 많고 적음으로써 그 세액을 정함이 마땅하다. 자년(子年) 봄마다 그 쇠하고 불은 것을 살펴서 그 액수를 정하고 (12년 만에 한번 개정한다) 전지만 측량해서 세를 책임 지우는 것은 불가하다. 내가 일찍이 암행어사로서 경기 북방을 다니면서 삭녕(朔寧)·연천(漣川) 지역을 보니 그곳 법도 역시 그러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무릇 8도 화전으로서 산이 깊고 땅이 넓은 곳은 모두 농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세율을 정함이 마땅하다.¹¹⁹⁾

연천현은 정약용이 부임했던 곡산부(谷山府)처럼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화전(火田)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화전의 규모에 비해 농민의 수는 부족했기 때문에 매년 넓은 화전에 부과되는 세액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곡산부에서는 부과된 세액을 면적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농민 개개인의 경작 면적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과하고 있었다. 정약용은 경기지역의 암행어사로 다니면서 연천에서도 같은 방식의 운영을 보았다고 하였다. 연천현에서도 지역 내에서 공론(公論)을 통해 화전세 부과액을 결정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정약용은 이 지역의 운영사례를 근거로 화전이 많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아닌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삼수미(三手米)는 임진왜란 기간에 창설된 훈련도감(訓練都監) 군병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신설된 부세였다. 삼수미는 호조에서 관장하였는데, 18세기 이후에는 전세의 일부처럼 징수되었다. 초기 삼수미는 전답 1결마다 쌀 2두 2승을 징수했는데, 갑술양전을 계기로 1634년(인조 12)부터는 충청도·전라도·경상도는 1두를 줄여주었고, 경기는 병자호란에서 큰 피해를 보았기에 영구히 감면해주었다.

경기는 1608년(광해군 즉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한 지역이었다. 처음에는 1결당 쌀 16두를 거두었지만, 1663년(현종 4) 12두로 줄었다. 대동미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8두씩 징수하였고, 연천현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119) 『경세유표(經世遺表)』 권6 지관수제 전제고6

결전(結錢)은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면서 부족해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에 부과하기 시작한 세금이었다. 균역법은 그간 남정(男丁) 1인당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를 1필로 줄여준 제도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 중 일부를 결전(結錢)으로 충당하였는데, 결전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부과되었다. 결전은 매 결당 동전 5전을 징수하였고, 연천현도 같았다.

상기한 규정에 따라 연천현에서 1년간 부담하는 부세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았다.

〈표 10〉 18세기 후반 연천현의 부세(賦稅) 규모(『부역실총(賦役實摺)』)

구분	납부처	세목	품목	액수1	액수2	單位
경사 상납질	호조	전세미	미	26	0.74	石/斗
		전세태	태	128	10.928	石/斗
		노공전	전	0.3		兩
		수진궁면세전	전	76.7		兩
		화협옹주방면세전	전	76.7		兩
		화녕옹주방면세전	전	117.49		兩
	선혜청	대동소미	속	317	8.697	石/斗
	균역청	면세태	태	8	4.7	石/斗
		대동소미	속	24	14.1	石/斗
		결전	전	384.25		兩
		선무군관전	전	40		兩
	병조	기병전	전	554		兩
		보병전	전	6		兩
		금군보전	전	74		兩
		금군질직보전	전	16		兩
		호연대보전	전	6		兩
		경역보전	전	26		兩
		내취보전	전	48		兩
	훈련도감	포보전	전	112		兩
		군향보전	전	43.2		兩
	어영청	군보전	전	103.2		兩
		둔아병보전	전	40		兩
		별파진보전	전	10		兩
	금위영	군보전	전	216		兩
		별파진보전	전	16		兩
	수어청	군수보미	미	1	9	石/斗

제 2 권

연 천 의
선 사 시 대

고 대 의
연 천

고 려 시 대 의
연 천

조 선 시 대 의
연 천

근 대 시 대 의
연 천

연 천 의
현 대 사 와
한 국 전 정

경사 상납질	총용청	군수보미	미	17	6	石/斗
		둔아병양군미	미	4	12	石/斗
		둔아병노군미	미	2	6	石/斗
		둔군수보미	미	9	12	石/斗
		수첩군관미	미	2		石/斗
	공조	장인보전	전	4		兩
	사복시	제원보전	전	88		兩
	장악원	악공보전	전	8		兩
내수사	노공전	전	2		兩	
감영 상납질	경기감영	영수미	미	12		石/斗
		순아병보전	전	11		兩
		소미	속	5	4.3	石/斗
		청밀	현물		3	石/斗
		황랍	현물	3		斤
		탄	현물	6		石/斗
본읍 봉용질	연천현	관수미	미	100		石/斗
		아록미	미	16		石/斗
		관둔세각곡	모	18	2	石/斗
		관둔세남초	현물	32		把
		장세전	전	30		兩
		장세진혜	현물	108		箇
		장세초혜	현물	108		箇
		결역전	전	404.82		兩
		결역미	미	10	11	石/斗
		결역태	태	6	14	石/斗
		결역진유	현물		12	石/斗
		결역청밀	현물		12	石/斗
		결역백지	현물	400		束
		호역전	전	67.55		兩
		호역산사	현물		20	石/斗
		호역마철	현물	12		部
		호역황랍	현물	21		斤
		호역시	현물	9139		束
		호역곡초	현물	2736		束
		호역연계	현물	446		首
		호역생울	현물		22.8	石/斗
		호역대조	조	22	8	石/斗
		호역생마	현물	228		握
		호역산마	현물	228		握

연천현은 매년 전세로 쌀 26석과 콩 128석을 납부하였다. 논보다 밭이 월등히 많았기에 전세도 콩이 쌀보다 5배 가량 많았다. 대동은 본래 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연천은 논이 적은 환경을 고려하여 조로 대신 냈고, 그 수량은 연간 317석 정도였다. 균역청에 납부하는 결전은 384냥이었고, 병조와 오군영(五軍營)에 속한 군사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 동전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공조, 사복시, 장악원, 내수사 등의 중앙관청에 신역(身役)의 일환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연천현에서는 경기감영에도 영수미(營需米)로 쌀 12석과 조 5석을 냈고, 청밀, 황랍, 숯 등의 현물도 상납하였다. 연천현 관아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도 있었다. 관수미(官需米)로 책정된 값이 쌀 100석이었고, 수령의 녹봉을 위한 아록미가 16석, 그리고 각종 음식물이 현물로 부과되었다.

4. 사회와 문화

1) 향교, 서원, 제례 시설

연천현의 향교는 이전에는 관아 동쪽 1리 거리에 있었는데, 1658년(효종 9) 관아 북쪽 2리 거리로 이전하였다. 향교는 유교 교육을 위해 설치한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성종 때 전국 모든 군현에 설치되었다. 향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였다. 하나는 유교 예절과 경전을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현(儒賢)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기능이었다. 향교마다 모시는 위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공자를 중심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위패를 모셨다. 향교에 서는 음력 2월과 8월 중 길일을 골라 석전대제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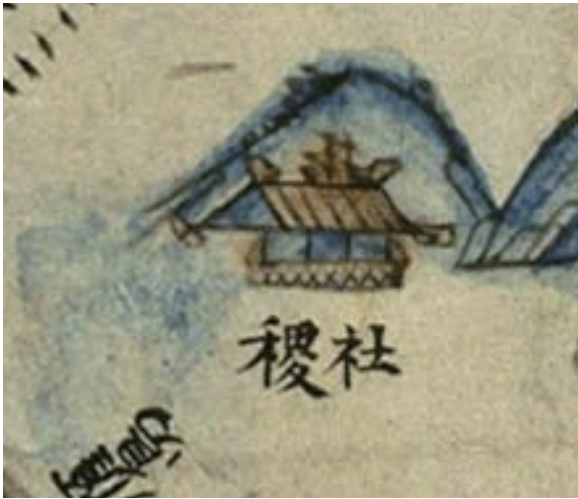
서원으로는 입장서원(臨漳書院)이 있었다. 입장서원은 관아에서 남쪽으로 5리 떨어진 무이리(武夷里)의 장주천(漳州川) 위에 있었다. 입장서원에서는 주자(朱子)의 유상(遺像)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주자는 중국 송나라 시기 유학자로서 이름은 희(熹)이고, 이른바 주자학을 집대성한 자이다. 중국 유교 경서(經書)의 뜻을 풀이하는 주(註)를 달아 조선 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1729년(영조 5) '입장서원(臨漳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을 받았다. 사액을 임금의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린 서원을 말하는데, 사액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책과 토지, 노비 등을 동시에 하사하였다. 1801년(순조 1) 우암 송시열(宋時烈)을 추향(追享)하였다.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이자 주자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주자를 배향하던 서원에 함께 추향된 것이다. 서원 안에는 어사각(御賜閣)이 있었다. 어사각은 1795년(정조 19) 정조가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 4책을 하사하면서 이를 봉안하기 위해 세운 전각이었다. 양현전심록은 정조가 직접 주자의 책과 선정(先正)의 문집에서 좋은 문구를 수집하여 하나의 책자로 만든 책이었다. 정조가 즉위하던 해에 책의 서문까지 완성하였고, 이듬해 탈고를 마무리하여 각 지방과 관리들에게 하사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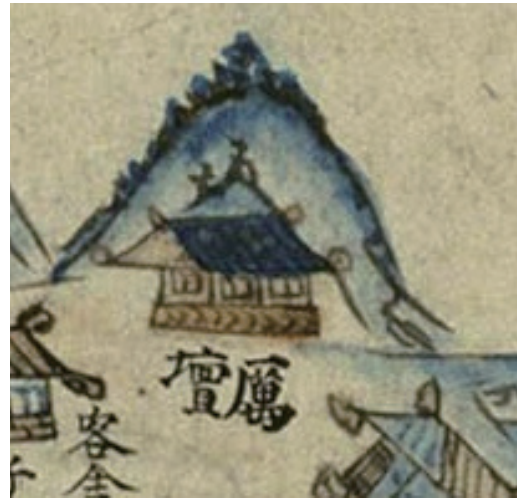
[그림 16] 연천현 향교



[그림 17] 임장서원 터



[그림 18] 사직단



[그림 19] 여제단

다. 연천현에는 비교적 늦게 책이 전달되어 어사각이 세워진 것이다. 한편, 사우(祠宇)·강당·동재(東齋)·서재(西齋)·전사청(典祀廳) 등이 있어 선현을 배향하고 교육에 힘썼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뒤에 복원되었다.

사직단(社稷壇)은 관아의 서쪽 1리 거리에 있었다. 사직단은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제례를 올리는 시설로써 향교와 함께 유교적 통치이념을 수호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사직단은 문묘와 함께 서울뿐 아니라 각 지방에도 설치되었다. 농사를 근본으로 삼는 조선에서 사직단에 올리는 제례는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주요 의식이었다.

여제단(厲祭壇)은 관아의 북쪽 2리 거리에 자리하였다. 여제는 불운하게 죽었거나 제사 지

내출 후손이 없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알려진 여귀(厲鬼)를 위로하는 제사이다. 여제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대략 조선 초기이다. 1401년(태종 원년)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권근(權近)이 임금에게 치도(治道)를 위해 시행해야 할 6조목 가운데 하나로 여제를 제안하면서 처음 여제가 시행되었다. 권근은 우리나라의 조례(朝禮)와 제례(祭禮) 모두 명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오직 여제(厲祭) 한 가지만은 거행하지 않아 원통하고 억울함을 안고 죽어서 한을 품은 영혼들이 위로받지 못하여 질병(疾疫)이 생기고 변괴(變怪)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이때부터 여제는 국가의 주요 제례로 자리 잡았고, 점차 지방군현에도 여제를 지내기 위한 여제단이 설치되었다.

성황사(城隍祠)는 서남쪽 4리 거리에 있는 성산(城山)에 자리하였다. 성황사는 산천(山川)·성황(城隍)·풍운(風雲)·뇌우(雷雨)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던 민간신앙들을 하나의 성황사로 통합하여 지방 군현마다 하나씩 설치한 제례 시설이었다. 지방관은 이곳에서 봄·가을마다 제사를 올렸다. 성황사는 성황당(城隍堂)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는데, 조선 후기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중요한 민간신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2) 연천의 주요 인물

(1) 허목(許穆)

허목은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이다. 찬성 허자(許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별제 허강(許樞)이고, 아버지는 서경덕(徐敬德)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박지화(朴枝華)의 문인인 현감 허교(許喬)이며, 어머니는 정랑 임제(林悌)의 딸이다. 부인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손녀이다. 17세기 중후반 영남학파의 적통을 이어받은 남인(南人)의 영수이자 고위 관직자로 국정에 참여하였다.

허목은 1595년(선조 28) 한양 동부 창선방에서 3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박지화(朴枝華)의 문인이었기에 그도 아버지의 학통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 정언옹에게 글을 배우다가 1617년(광해군 9) 아버지가 거창현감에 제수되자 함께 내려가서 문위(文緯)에게 학문을 배웠다. 문위의 소개로 종형인 허후(許厚)와 함께 정구(鄭述)를 찾아가 수학하였고, 이때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도 배웠다. 1624년(인조 2) 광주의 자봉산에서 독서



[그림 20] 허목 초상

와 글씨 쓰기에 전념하여 전서(篆書)에 일가를 이루었다. 1626년(인조 4) 박지계(朴知誠)가 인조의 생부를 높이는 원종추송론을 주장하자 당시 동학의 재임(齎任)으로서 박지계가 임금을 영합하여 예(禮)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인조가 분노하여 그에게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정거(停擧)의 벌을 내렸다. 이후에 정거는 해제되었으나 과거를 보지 않고 자봉산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이때가 그의 나이 32세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 평강(平康)으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자봉산으로 돌아왔다. 1629년(인조 7) 추회부(抽懷賦)와 취병기(翠屏記)를 지었고, 관동 지역을 유람하였다.

1630년(인조 8) 허목은 서울 창선방(彰善坊)으로 돌아왔다가 아버지의 임지에 따라 금천과 포천에서 거주하였다. 그의 나이 38세인 1632년(인조 10) 아버지가 위독하여지자 허목은 의관과 띠도 벗지 않고 밤낮으로 보살피며 약을 달여 드렸다고 한다. 이때 한 의원이 두꺼비를 약으로 써야겠다고 하자 한겨울이었음에도 성력(誠力)을 다해 얻어오니 아버지가 그 효성에 깊이 칭찬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효자의 성심 바다보다 깊은데 / 孝子誠心深過海
서산에 걸린 해 배보다 빠르도다 / 西山迨日急於帆

아버지는 다음 구를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허목은 몹시 애통해하며 죽만 먹다 기년(期年)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소와 밥을 먹었다.

1636년(인조 14) 그의 나이 42세에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허목은 연천에 있었고, 마침 어머니는 서울의 아우 집에 있었는데 가묘(家廟)와 처자는 일가에게 부탁하여 동쪽 산으로 들어가게 하고 본인은 바로 서울로 향했다. 도중에 중형(仲兄)이 이미 어머니를 모시고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연천으로 돌아갔고, 평강으로 대피하였다. 이듬해에는 영동(嶺東)의 강릉에 있으면서 남한산성의 포위가 풀렸다는 말을 듣고 감회시(感懷詩)를 지었다. 4월에는 대략 남한산성과 강화도 일의 전말을 기록한 『병자일기』를 지었다. 이후에는 한동안 의령과 사천, 창원, 칠원 등지에서 우거하였다. 1645년(인조 23) 51세의 나이로 경기로 돌아왔다. 이듬해 경상도 김해로 내려가 수로왕(首露王) 및 태후의 묘를 배알하고 관찰사 허적(許積)이 표석에 기(記)를 부탁하여 지었다. 1647년(인조 25) 선생 나이 53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상여를 모시고 조령을 넘어 연천으로 와서 아버지 묘소 서쪽에 장사하였다.

1648년(인조 26) 『거우록(居憂錄)』을 완성하였고, 이듬해 『경례유찬(經禮類纂)』 상례편을 지었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56세의 나이로 정릉참봉(靖陵參奉)에 제수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 달 만에 곧 사직했다. 1651년 내시교관(內侍敎官)에 제수되었는데, 왕이 글을 읽다가 의심나는

대문이 나오면 내시를 시켜 자주 물었다고 한다. 이듬해 다시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연천으로 돌아왔다. 1653년(효종 4) 부인 이씨가 별세하여 연천에서 장사하였다. 1656년 조봉대부(朝奉大夫) 조지서(造紙署) 별좌(別坐)에 제수되었고, 그해 공조좌랑(工曹佐郎)으로 승진하였지만, 이내 사직하고 연천으로 돌아왔다. 용궁현감(龍宮縣監)에도 제수되었지만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공조정랑과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지만 역시 나가지 않았다. 이때 효종을 인견한 자리에서 왕은 그에게 누차 명을 내렸는데 굳이 사양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재질이 용렬하고 노둔하여 학술이 없는데 잘못 알려져 은명(恩命)이 내려졌으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며 완곡하게 관직을 거절하였다. 효종은 재차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에 제수하였지만 그대로 연천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1658년(효종 9) 64세의 나이로 봉정대부(奉正大夫)에 오르고 지평에 제수되어 관직에 나갔지만, 그해 가을 사직하였다.

현종이 즉위한 뒤에는 경연에 입시하며 자신의 학문적 의견을 진달하였다. 그는 현종 즉위부터 시작된 예송논쟁을 계기로 조정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의 상복(喪服) 문제가 발단이 된 1659년의 기해예송(己亥禮訟)에서 허목은 조대비의 3년복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년복을 주장하는 송시열, 송준길 등 서인들에 맞서 허목이 3년복을 주장한 것은 차남이라는 효종의 가족 내 위치보다는 국왕이라는 지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효종의 왕통(王統)을 인정한다면 효종의 장례에 조대비가 3년복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현종이 조대비의 상복을 1년복으로 결정하면서 기해예송은 서인들의 승리로 끝났다.

기해예송 후 남인들은 실각하였고, 허목 역시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비록 좌천되었지만 허목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목민관으로서 삼척 백성들을 위해 고민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삼척의 향교(鄕校)와 향약(鄕約) 제도를 정비하고 마을에서 공동 제사인 이사제(理社制)를 실시하였다. 삼척의 현황과 역사를 정리한 읍지인 『척주지(陟州誌)』를 편찬하기도 했다. 조류(潮流)가 심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오십천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범람하는 해수 피해를 막아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그곳에서 이조판서와 삼정승(三政丞)을 모두 역임한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의 연보를 완성하였다.

1662년(현종 3) 연천으로 돌아온 그는 1665년 71세의 나이에 연천의 강에서 뱃놀이를 하며 시 한 편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 밑의 봄 강은 물이 깊어 흐르지 않는데 / 山下春江深不流
파란 마름은 바람 일어 물방울을 튕기네 / 綠蘋風動浪花浮

풀 푸른 백사장에 해 그림자 떨어짐에 / 草靑沙白汀洲晚
 낚시 걷고 배 돌려 나루로 돌아왔네 / 捲釣移舟上渡頭¹²⁰⁾

1666년(현종 7)에는 『요전(堯典)』, 『중용』, 『홍범(洪範)』을 고정(考定)한 윤희(尹鑣)의 서신에 답신하며 학문적으로 교류하였다. 답서에서 그는 “문을 뜯어고침은 대개 옛적에도 듣지 못한 일인데, 계속 이렇게 한다면 육경(六經)도 온전한 경(經)이 없고 고문(古文)도 온전한 글이 없게 되어, 육경과 고문의 피해가 불살라 없앴이 한 차례, 뜯어고침이 한 차례일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육경과 고문 뜯어고치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면, 증자(曾子)와 자사(子思)도 진실로 형편없이 볼 것입니다.”라고 하며 경서를 고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연천에서 학문과 글쓰기에 전념하던 그는 1674년(현종 15)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승하하면서 조대비의 복제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자 전면에 나섰다. 2차 예송인 갑인예송(甲寅禮訟)이 전개되었고 허목은 재차 남인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은 9개월복을, 남인은 1년복을 주장하였다. 갑인예송이 한창이던 과정에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숙종은 송시열의 예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1674년 갑인예송의 승리로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대거 등용되었다. 당시 남인의 영수는 허적(許積)이었는데, 그는 허목과 윤희를 후원하여 남인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허목은 대사헌, 이조판서에 이어 우의정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하였다.

허목은 허적의 천거를 받았지만, 허적과 자주 대립하였다. 1675년(숙종 1) 남인은 서인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청남(淸南)과 온건파인 탁남(濁南)으로 분열하였다. 기존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허적·권대운 등을 따르는 탁남과 허목과 윤희를 따르는 청남으로 갈린 것이다. 허목은 문인 이수경에게 허적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게 했으나, 숙종은 국정 경험이 있는 허적을 더 신뢰하였다. 탁남과 청남의 대립이 격화되던 중인 1679년(숙종 5) 허목은 숙종에게 직접 허적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허적이 위엄과 권세가 드세지자 척신(戚臣)과 결탁하여 세력을 만들고 환관과 측근들을 밀객(密客)으로 삼아 임금의 동정을 엿보고 있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숙종은 허적이 3대에 걸쳐 조정에 재상으로 있으면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허적을 변호하였다.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허목은 사직하고 연천으로 돌아왔다. 숙종은 허목에게 연천 7칸짜리 집을 하사하여 예우를 다했다. 허목은 숙종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이 집을 은거당(恩居堂)이라 하고, 은거당 뒤쪽의 바위를 일월석(日月石), 용문석호(龍門石戶)라 이름하고 그의 글씨를 새겨 두었다.

120) 『미수기언(眉叟記言)』 연보(年譜)1

허목이 낙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정은 다시 정치적으로 요동쳤다. 1680년(숙종 6) 서인들의 주도로 경신환국(庚申換局)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의 여파로 허적과 윤희 등 남인의 핵심 인사들이 사사(賜死)되었고, 허목이 주도하던 청남도 크게 위축되었다. 허목은 다행히 화를 피하였고, 연천의 은거당에서 조용히 말년을 보내다 1682년(숙종 8) 88세를 일기로 임종을 맞았다. 그의 묘소는 은거당 뒤쪽 100여 보 떨어진 곳에 조성되었다.

(2) 허후(許厚)

허후는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중경(重卿), 호는 관설(觀雪)·둔계(遯溪)·일휴(逸休)이다. 양천현감 허양(許亮)의 아들이며, 우의정 허목(許穆, 1595~1682)의 종형이다. 장현광의 문인이다.

1623년(인조 1) 이항복(李恒福)의 천거로 내시교관(內侍敎官)이 되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창일(金昌一)을 도와 공을 세웠고, 난이 끝난 뒤 제용감직장(濟用監直長)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사도시주부(司導寺主簿)를 거쳐 지평현감(砥平縣監)이 되었는데, 내노(內奴)가 인폐를 끼치자 이들을 엄중히 다스려 폐단을 없앴다.

그러나 내노를 함부로 죽인 죄로 투옥되었는데, 현의 백성들이 호소하여 풀려났고, 치악산 둔계 시냇가에 소암(素庵)이라는 정자를 짓고 기거하였다.

1637년(인조 15) 태묘영(太廟令)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이후 의성현령(義城縣令), 형조좌랑(刑曹佐郎),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역임하고 1644년 세자익위사의 좌익위(左翊衛)가 되었다. 인조가 승하하자 원주의 관설로 돌아가니 이것으로 호를 정하였다. 1654년(효종 5) 선공감부정에 이어 지평이 되고, 곧 장령에 발탁되었다. 1658년 회양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효종의 장례를 당하여 장악원정(掌樂院正)이 되었다. 이때 조대비의 복상문제로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서인의 기년설(暮年說)에 반대하여 3년상을 주장하였다. 글씨에 능하며 특히 전서(篆書)에 뛰어났다. 원주 도천서원(陶川書院)에 제향되었다. 그의 묘는 왕징면 노동리 새울에 있다. 저서로는 『둔계집』이 있다.

『미수기언(眉叟記言)』

『경기지(京畿誌)』(奎12178)

『만기요람(萬機要覽)』

『대동야승(大東野乘)』

『대동지지(大東地志)』

『택리지』

이근호·송기중·임성수, 2021, 『사방의 근본 경기관찰사의 성분과 역할』, 경기문화재단
차용걸, 2016, 「고려 말·조선 전기 읍성과 진·보의 정비」 『한국 축성사 연구2』, 진인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강원, 2021, 「18세기 경기 서북부 방어체제의 재편과 장단 방어영의 파주 이설」, 『한국사연구』
194, 한국사연구회

이태진, 1985, 『朝鮮後期 政治와 軍營制 變遷』, 한국연구원.

정요근, 2005,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長湍渡路」, 『韓國史研究』 131

연 천 의
선 사 시대

고 대 의
연 천

고려시대의
연 천

조선시대의
연 천

근대시대의
연 천

연 천 의
현 대 사 와
한 국 전 쟁



제 5 장

근대 시기의 연천

- I. 근대적 지방제도 도입과 연천군의 변화
- II. 일제의 통감부 통치와 연천지역의 의병항쟁
- III. 일제의 식민지배와 민족운동

집필

I절, II절 : 서영희(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III절 : 박종린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근대 시기 연천군은 갑오개혁으로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잠시 한성부에 속했다가 대한제국 기에는 13도 체제 하에서 다시 경기도 산하에 소속되었다. 갑오개혁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에 진주한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개화정권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갑오개혁에는 갑신정변 이래 개화파가 추구해 온 근대국가 구상과 동시에 조선 보호국화를 도모한 일본 측 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화정권은 초기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근대국가 체제 수립을 위한 각종 개혁안들을 추진하였고, 1895년 5월, 박영효가 주도한 근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으로 기존의 8도 체제를 전면 폐지하여 23부(府) 334군(郡) 체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23부제 하에서 연천군은 조선왕조 시대의 수도인 한성부가 격하된 한성군(郡)을 비롯하여 양주군, 광주군, 적성군 등과 함께 한성부(府)에 소속되었다. 23부제는 기존의 부(府)·목(牧)·군(郡)·현(縣) 등 계서적인 지방행정 구역을 폐지하고 전국을 23부 아래 334군으로 일원화시킨 조치였다. 하지만 아관파천으로 개화정권이 무너지면서 23부제는 불과 1년 3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1896년 8월, 다시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23부제는 13도 체제로 변경되었다. 조선왕조 시대의 8도 체제가 13도 체제로 편제되었으므로 갑오개혁 이전으로 복귀는 아니며, 이때 연천군은 경기도 38개 군 중 4등급 군으로 분류되었다.

1905년 11월의 불법적인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고 통감부 통치가 시작되면서 연천지역에도 일제 통치기구의 말단인 우편취급소, 헌병분견소 등이 설치되었다. 1907년 8월,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군대 해산 이후에는 연천군이 경기 북부지역 의병항쟁의 핵심 근거지가 되었다.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연천지역에서 활약한 여러 의병부대는 양반 유생 출신으로 대한제국 의정부 참찬을 지낸 허위(許薦)의 지휘 하에 연합 의진을 형성하고 1908년 초 13도 의병부대 연합 서울진공작전에도 참여했다. 13도 연합 의진이 해체된 후에도 연천지역 의병항쟁은 계속되었으며, 진위대 강화 분견대 해산군인 출신인 연기우가 이끄는 의병부대는 1910년 병합 후까지 무장투쟁을 지속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절대 권력자인 조선 총독 아래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을 따로 두었는데, 경무총감을 헌병사령관이 겸임하였다. 이른바 헌병경찰제가 실시되면서, 7개의 경찰서와 4개의 헌병 분대, 그리고 8개의 헌병 분견소가 경기도에 설치되었다. 연천군에도 헌병 분견소가 설치되었는데, 그 산하에 헌병 파견소 3곳과 헌병 출장소 4곳이 설치되었다.

일제는 '식민지의 효율적 통치'를 목적으로, '구역의 지리적 불균등과 세 부담의 불균등 해결'이란 명분을 앞세워 행정구역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경기도의 36개 군과 492개 면은 각각 20개와 250개로 통폐합되었다. 4개 면으로 구성되었던 연천군은 개편 이후 13개 면이 되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철도와 간선도로를 따라 인근 도시

와 농촌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경기도의 만세시위는 참여 인원과 시위 횟수 모두 전체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전국의 만세시위를 견인하였다.

연천군에서는 3월 21일 백학면 만세시위와 미산면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4월 10일 관인면 만세시위까지 모두 '14건'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는 경기 북부지역의 만세시위 횟수로 보면 고양군, 개성군 다음이었다. 13개의 면 가운데 9개의 면에서 발생한 만세시위는 개편 이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I. 근대적 지방제도 도입과 연천군의 변화

1. 갑오개혁기 23부제 실시와 한성부 연천군

1) 군국기무처 개혁과 지방제도 개편의 방향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빌미로 조선에 진주한 일본군은 불법적으로 경복궁에 침입하여 개화파 정권을 세우고 갑오개혁을 단행했다. 갑오개혁은 비록 일본군의 물리적 지원 하에 이루어졌지만 오랜 왕조질서를 끝내고 근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방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군국기무처에서 주도한 초기 관제개혁은 기존의 중앙 관부를 왕실 사무에 관련된 궁내부(宮內府) 소속과 일반적인 국정 운영 담당의 의정부 소속으로 양분하고 의정부 산하에 내무·외무·탁지·법무·학부·공부·농상의 8아문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왕조시대의 6조 체제 대신 근대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 분장에 따라 8개 아문을 설치하고 의정부 총리대신에게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중앙 관제의 대대적인 개편에 따라 관리 임용 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근대적인 관료 선발 제도로서 <선거조례(選舉條例)>가 실시되었다.¹²¹⁾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으로 문벌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기로 결정한 후속조치였다. 관료의 등급은 종래 정·종 9품까지 총 18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던데서 일본식으로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 제도를 채택하여 크게 3그룹으로 구분했다. 고위 관리인 칙임관의 임명은 후보자 3명을 국왕에게 상주하여 택일하게 하였고, 주임관은 각부 대신이 선발한 후보자에 대해 도찰원(都察院)에서 평의(評議)를 거쳐 국왕에게 상주한 후, 재가를 받아 임명하게 되었다.

<선거조례>를 보면, 각부아문(各府衙門)의 대신이 소속 주임관 및 판임관을 선발할 수 있는데, 즉 각부아문에서 후보자를 의정부 전고국(銓考局)에 추천하면, 전고국에서 보통시험과 특별시험 두 차례의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 후 해당 관서에서 임용하게 했다. 보통시험 과목은 국문, 한문, 사자(寫字), 산술, 내국정략(內國政略), 외국 사정 등이고, 특별시험은 추천서에 명시된 해당 업무에 대한 재능을 평가했다. 과거제도를 폐지한 후 각부아문의 대신에게 하위 관료에 대한 추천, 임용권을 주고, 신분이나 출신 지방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과거시험에서 평가했던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이나 문장력이 아닌

121)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국회도서관, 33~34쪽

근대적인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관료선발 제도로써 근대교육의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우선 각 지방에서 인재를 추천받는 향공법(鄉貢法)을 실시했다. 경기 10인, 충청도 15인, 전라도 15인, 경상도 20인, 평안도 13인, 황해도 10인, 강원도 10인, 함경남북도 각 5인, 5도(五都; 한성부, 수원부, 廣州府, 개성부, 강화부) 및 제주에서 각 1인을 추천받았다. 갑신정변 때부터 문벌을 타파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을 주장하던 개화파의 개혁 구상이 반영된 제도로써, 갑오개혁 이후 과거 합격자가 아닌 근대식 교육을 받은 신진 관료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중앙 관제의 개혁에서 더 나아가 지방제도의 개혁은 근대국가의 행정력이 일반 민에게까지 미치게 하는데 관건이 되는 문제였다. 일본은 군국기무처 개혁을 본격화하기 전인 1894년 6월 27일에 이미 조선의 내정개혁안 7개조 중 첫 번째로 ‘관사(官司)의 직수(職守)를 명확히 하여 지방장관의 정폐(情弊)를 교정할 것’이라는 항목을 내세웠다. 이 내정개혁안의 기안자는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 당시 일본 외상으로 알려져 있다(김인순 1983: 202-203쪽). 이러한 구상은 조선주재 일본공사 오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를 통해 <내정개혁방안강목>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정부에 제시되었다. <강목>의 제1조는 ‘중앙정부의 제도와 함께 지방관 제도를 개정하고 아울러 인재를 채용할 것’이었는데, 이하 세목에 ‘현재의 부군현치(府郡縣治)는 그 수가 너무 많다면 마땅히 그 수를 헤아려 폐합하고 민치(民治)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그 수를 줄일 것’, ‘지방관리의 정폐(情弊)를 교정하는 법을 설치할 것’ 등의 조항으로 지방제도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일본 측 요구에 대하여 조선 정부는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일본은 불시에 경복궁을 포위하고 개화정권을 세움으로써 자율적인 개혁 추진을 봉쇄해 버렸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의 요구사항 중 많은 부분이 지방관 및 지방재정과 관련 있을 만큼 당시 지방행정 현장은 일반 민에게 봉건적 모순의 집약체와도 같은 것이 현실이었다.

사실 조선후기의 지방제도는 8도 아래 부(府)·목(牧)·군(郡)·현(縣) 등 서로 위상을 달리하는 행정구역들이 상하 위계질서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다 면리(面里) 이하에는 지방관도 파견되지 않아서 중세국가의 지방지배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지방관도 각도의 관찰사(종2품)와 목사(정3품), 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이 상하 명령체계 없이 파견되고 있었고, 임기제이지만,¹²²⁾ 실제로는 임기 전에 잦은 교체로 지방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의 업무 분장과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행정 뿐아니라 징세, 재판,

122) 『大典會通』 外官職條, 관찰사 360일, 수령 1800일, 당상관 및 未挈家 수령 900일

군사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졌다. 지역 실정에 어두운 수령들을 보좌한다는 명분하에 이서층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됨으로써 소위 '수령-이향수탈구조'의 근본 원인을 만들기도 했다. 그밖에 향청, 향회를 중심으로 한 재지사족들의 지방행정 체계 내에서의 위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군현 이하 면리 단위의 행정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자치의 영역으로 남겨진 게 현실이었다. 근대국가의 지방통치에 비하면 상당히 자의적인 운영의 위험성이 있는 행정체계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군현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된 지방재정의 경우 지세, 대동미, 잡세, 환곡 등이 다기하게 얽혀서 동학농민전쟁의 직접적인 발발 배경을 이루기도 하였다(서영희 1991).

이에 일본 측 요구가 아니더라도 근대국가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방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군국기무처 단계의 갑오개혁에서는 왕실의 국정 운영 제한과 의정부 및 각 아문 관제의 신설, 과거제도와 신분제 폐지 등 정치·사회 전반의 제도 개혁에 밀려 미처 지방제도 개편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사실 지방행정 구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방제도 개혁은 중앙 정부기구의 개편보다 훨씬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로서 선불리 손댈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동학농민군이 호남의 53개 군현을 장악하고 있고, 한반도 북쪽에서는 청일전쟁이 진행 중인 형편임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지방제도 개혁은 아직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따라서 1894년 12월의 <홍범14조>에서도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는 정도로 원칙적 개혁 방향을 천명하는데 그쳤다. 본격적인 지방제도 개혁은 1895년에 가서야 비로소 실시되었다. 갑신정변 실패 후 오랜 일본 망명생활에서 귀국한 박영효가 전격적으로 실시한 23부제이다.

2) 1895년 23부제 실시와 한성부 산하의 연천군

갑오개혁기 본격적인 지방제도 개편은 1895년 5월, 칙령 제98호로 23부제 실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은 1894년 9월의 평양전투에서 대승한 이후 청일전쟁 승리를 예상하면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주한 공사를 임명하여 내정개혁을 더욱 강압하였다. 내각제 실시로 왕실의 정부 간여를 더욱 강력하게 제한하는 한편, 일본인 고문관들을 다수 채용하게 강요하고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을 시도하였다. 1895년 3월에는 <내각관제> 반포로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고 종래의 각 아문을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등 7부 체제로 개편하였다. 일본의 내각 제도를 모방하여 총리대신 직속으로 대신관방과 참서관실, 기록국 등을 두었고, 법률 및 칙령 안 심의, 세입·세출 및 국세 징수, 외국과의 조약 체결, 칙임·주임관의 임면 등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개화정권이 세워진 후 일본에서 귀국한 박영효는 1894년 11월, 내무대신으로 입각한 후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1895년 4월, 88개조에 달하는 장문의 <내무아문훈시>를 통해 자신의 개혁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¹²³⁾ 박영효는 일본에 망명 중이던 1888년에도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 부국강병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박영효의 정치 개혁 구상은 군민공치(君民共治)를 실현하여 개혁관료들의 책임정치를 끌어내고, 일반 민의 정치 참여 기제로서 지방에 현회(縣會)를 설치하는 것이었다(서영희 1990). 지방제도 개편은 개화파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중앙집권적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였다.

지방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우선 지방의 실태조사를 위해 각도 시찰위원이 임명되었고, 1894년 7월부터 각군 읍지와 읍사례가 편찬되고 있었다. 이 사업은 1895년 5월 무렵까지 전국적으로 계속되었다. 실태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선 주군(州郡)의 대소와 도리(道里)의 원근(遠近)을 따져 임시로 한 읍의 수령이 여러 읍을 겸관하게 하라는 칙령이 1894년 12월 16일에 내려졌다.¹²⁴⁾ 또 8도 각 지방의 이치(吏治)와 민은(民隱)에 대해 내무아문에서 수시로 사람을 파견해 그 교정 방법을 채집한 후 상주해서 시행하겠다는 칙령도 내려졌다.¹²⁵⁾

지방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1895년 5월 26일, 조칙 <부군(府郡) 신규(新規)를 정하는 건>¹²⁶⁾과 칙령 제98호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¹²⁷⁾으로 기존의 8도제가 전격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윤5월 1일자로 23개 부(한성부, 인천부, 충주부, 홍주부, 공주부,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 진주부, 동래부, 대구부, 안동부, 강릉부, 춘천부, 개성부, 해주부, 평양부, 의주부, 강계부, 함흥부, 갑산부, 경성부) 외에 종래의 부·목·군·현의 명칭 및 부윤·목사·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의 관명은 모두 폐지되었다. 부·목·군·현 등으로 번잡하게 나뉘어 있던 지방행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23부제 하에 편제시킴으로서 지방행정 단위의 통일성을 도모했다. 또한 대구역주의 대신 소구역주의를 택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윤정애 1985:80) 조선왕조 시대 내내 유지해온 8도 체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으나,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생활권역의 문제도 있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수도 한성을 관할하였던 한성부는 한성군으로 격하되었고, 한성부는 종전의 한성부와는 의미가 전연 다른 별개의 명칭이 되었다. 즉 23부 중 하나인 한성부는 수도인 한성군을 포함하여 양주군, 광주군, 적성군, 포천군, 영평군, 가평군,

123)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183~188쪽; 『구한국관보』, 1895년 3월 10일

124) 『議案·勅令(上)』, 서울대학교 도서관, 210쪽, 1894년 12월 16일 칙령 20호

125) 『議案·勅令(上)』, 211쪽, 1894년 12월 16일 칙령 21호

126) 『詔勅·法律』, 서울대학교 도서관, 42쪽

127) 『고종실록』, 1895년 5월 26일

연천군, 고양군, 파주군, 교하군 등 11개 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한성군은 수도를 관리하는 특별한 행정 단위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원래 경기도 산하에 있던 10개 군과 동일한 하나의 군 단위로 격하되었다. 조선왕조 시대에 6조(六曹)와 동등하게 중앙 관부로 존재했던 한성부의 위상은 이제 한성부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일개 한성군으로 완전히 격하되었다. 한성부의 수장은 한성부 관찰사가 되었으며, 종래 한성판윤이라 불리웠던 한성군의 수장은 한성군수가 되어 수도 한성을 관할하는 특별한 지위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때 연천군은 한성군, 적성군, 포천군 등과 함께 한성부에 소속되었고, 마전군과 삭녕군은 개성부에 소속되었다.¹²⁸⁾

〈표 1〉 23부체제하 한성부 소속 11개군

漢城府	漢城郡 楊州郡 廣州郡 積城郡 抱川郡 永平郡 加平郡 漣川郡 高陽郡 坡州郡 交河郡
-----	--

3) 갑오개혁기 지방관의 임무와 조세행정

새로운 지방제도는 기존의 8도 체제를 전면 폐지하여 23부(府) 334군(郡)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부·목·군·현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던 왕조시대의 계서적인 지방행정 단위를 일원화시킨 것이었다. 대지역주의에 입각했던 8도를 세분해서 23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군을 배치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관 임용 규정 및 지휘 명령체계도 명확히 규정했다.

칙령 101호 <지방관제>에 의하면, 각 부에는 관찰사(칙임 3등 이하 주임 2등 이상) 1명, 참서관 및 경무관(주임 4등 이하) 각 1명, 주사 약간 명, 경무관보 1명, 총순(總巡) 2명 이하(판임)를 배치하였다. 각 부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수(주임)는 관찰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게 하였다. 각 군에는 군수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었다.

또 지방관의 권한에서 사법권과 경찰권을 분리시켜 순수하게 일반 행정만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방관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근대적인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경무관은 관찰사의 지휘를 받으며 관내의 경찰 사무를 담당하지만 근본적으로 경무청 경무의 직무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일단 지방관의 고유 업무에서 지방경찰권이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8) 『議案·勅令(上)』, 251쪽,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9호

지방관의 보수규정도 관등(官等) 및 군등(郡等)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다.¹²⁹⁾ 또한 9월 5일에는 전국의 군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이서층의 인원과 봉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¹³⁰⁾ 군현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사실 이때 전국을 154개 군으로 합병할 계획이었으나 이서층의 동요와 개혁 시기를 고려하여 군의 대대적인 합병은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인 통폐합으로 군의 등급과 지위를 조정함으로써 각 군의 조세 부담과 이서층의 수효는 달라지고 자치 조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이영호 1993:86쪽). 보수 지급 규정의 명문화는 무엇보다도 민폐의 근원인 가렴주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각 군수는 매년 3월 내에 전년도 경비 지출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관찰사를 경유하여 탁지부대신에게 제출해야 했다. 군수의 관등은 주임 3등급 이하로 하는데, 봉급은 1급봉이 년액 1000원, 2급봉 900원, 3급봉 800원, 4급봉 700원, 5급봉 600원으로 규정되었다. 각 군은 면과 결호수의 다소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군수의 봉급도 군의 등급에 준하여 1등급 군은 1급봉, 2등급 군은 2급봉 식으로 지급하였다. 한성부 산하에서 연천군은 5등급 군으로서, 군수의 월급은 5급봉으로 년액 600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2〉 한성부 소속 각 군 등급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성부			楊州, 廣州, 坡州(交河附)	高陽, 抱川	積城, 永平, 漣川

한편, 개정된 지방관제의 특징은 첫째,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한 것이었다. 경무관의 설치로 경찰 업무가 지방관의 업무에서 분리되었고,¹³¹⁾ 지방대·진위대의 설치로 지방관의 군사 권한도 박탈되었다. 재판권의 경우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었고, 개정 지방제도가 실시된 윤5월 11일에는 칙령 제114호로 개항장재판소, 지방재판소 개설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전국 23개 부에 지방재판소를 설치되게 되었지만, 법관 양성의 미비로 실제로는 우선 각 군 군수가 관내 소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1896년 11월 11일 재가되었다.¹³²⁾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정 지방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종래 지방관의 업무 중에서 가장 탈이

129)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255-262쪽. 칙령 제102호 〈각부 직원의 봉급에 관한 건〉; 『고종실록』, 1895년 5월 27일, 칙령 제103호 〈군수 봉급에 관한 건〉

130) 『고종실록』, 1895년 9월 5일, 칙령 제163호 〈각 군 경비 배정에 관한 건〉

131) 『議案·勅令(上)』, 243쪽, 1895년 4월 29일.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

132) 『議案·勅令(上)』, 295쪽, 칙령 제5호

많았던 징세 업무에 대한 개혁이었다. 징세 문제는 갑오개혁 초기인 군국기무처 단계부터 제기되었다. 민원의 근원이었던 이서층을 대대적으로 감원하는 한편, 중간수탈 배제를 위해 군수와 이서층을 징세체계에서 배제하고 일단 향회의 향임층에게 징세 업무가 맡겨졌다. 이는 조선후기 자치조직인 향회를 행정 조직에 편입시킨 조치였다. 개화정권은 지방사회에서 정권 기반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향회를 개혁 추진의 매개체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 향회에서 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새로운 계층에게 미납 세금의 조사 및 중앙 상납, 환곡 조사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수령층, 이서층 등을 조세징수 체계에서 떼어내려는 시도였다. 동학농민군이 봉기에서 제기한 조세 수탈 체계의 문제점을 수습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런데 23부제 실시예 앞서 관세사, 징세서, 부세소 등이 설치되면서 각 지방의 조세 부과 징수 체계는 획기적인 변동을 맞고 있었다. 1895년 3월 26일 칙령 제56호의 <관세사 및 징세서 관제>, 4월 5일 칙령 제74호의 <각읍부세소장정>에 따르면, 먼저 부세소에서 조세 및 기타 세입, 전답을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징세서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이를 관세사가 감독하는 체제였다. 실제로 제도 출범 후에 징세서장 220명, 징세주사 880명이 중앙에서 임명되어 부세소의 징세 명령 및 납세액 고지에 의해 세입의 징수를 맡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징세서가 설치된 곳은 전국 40여 곳에 불과했고 징세서장이 임지에 부임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실정이었기에 이 획기적인 조세징수 체계는 제대로 실시되지도 못한 채 새로운 23부제의 실시와 함께 그 시행이 정지되었다.¹³³⁾ 대신 탁지부 주사를 임시로 증치하고 1895년 9월 5일 칙령 제161호 <세무시찰관장정>, 칙령 제162호 <각군세무장정>에 따라¹³⁴⁾ 세무시찰관 제도가 신설되었다. 세무시찰관이 탁지부의 지휘를 받아 지방관의 징세 업무와 각군 세무주사를 감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각 군수가 세무주사 1인을 두고 조세를 징수하는 체제로서 지방관의 조세 징수권이 부활한 것이다. 종래의 지방관의 징세 업무와 다른 점은 탁지부에서 파견하는 세무시찰관의 감시를 받는다는 점이다. <세무시찰관장정>에 따라 탁지부에 세무시찰관(주임) 23인 이하를 두고, 이들이 탁지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지방 세무를 시찰하는 것이다.

세무시찰관은 각 부군에 출장하여 군수 이하 관원의 부당행위 유무를 감시할 수 있었다. 각 군수는 군내에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여 국고로 송납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데,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송납 절차는 종전의 관례에 따랐다. 다만 기존체제와 다른 점은 군수 밑에 세무주사 1인을 두어서 세무를 담임케 한다는 점이다. 세무주사는 판임관으로서 청렴하고 성망(聲望)이 있는 자를 각 군수가 추천하면 탁지부대신이 임명하게 했다.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133) 『議案·勅令(上)』 281쪽, 1895년 9월 5일, 칙령 제159호

134) 『議案·勅令(上)』, 282-284쪽

지켜졌다면 이서충이 간여하여 중간수탈을 자행하던 기존의 조세징수 체계에 비해 진일보할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 시기 세무주사로 추천된 인물이 원래 이서충 출신이거나 실무 능력이 없는 유생층 뿐이어서 아예 일년 수확이 벼 200석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부분 약 4결 이상 토지를 가진 지주 등 부유한 계층이 세무주사로 임명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이상찬 : 86쪽)

세무주사제의 도입으로 조세 징수 절차는 종래의 관행과 달라졌다. 모든 조세는 납부인이 군아(郡衙)에 직접 납부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직접 납부인에게 교부하며, 세무주사는 징수한 전곡(錢穀) 및 기타 물품을 성실히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각부 관찰사는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각 군의 세무를 감독하고 군수는 매 납기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을 조사하여 관찰사를 경유하여 탁지부대신에게 보고해야 했다. 결과적으로는 군수가 각 군 세무주사를 지휘하여 조세의 부과, 징세 및 상납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종래 지방관의 징세 업무는 그대로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서충의 자의적인 개입이 불가하도록 공식적으로 세무주사를 임명했다는 점, 탁지부에서 파견한 세무시찰관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로 군국기무처 단계 개혁에서 추진되었던 향회의 징세권은 박탈되었지만, 향회는 종래의 지역적, 신분적 차별성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치조직으로 법제화되었다. 1895년 11월 3일 <향회조규>에 의하면 리회(里會), 면회(面會), 군회(郡會)를 두되, 리회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매호당 1인씩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양반 사족들이 주도해오던 향회에서 신분적 성격을 배제시켰다. <향약판무규정>에서는 면·리임의 기능과 보수를 규정했는데, 면에는 존위(尊位), 서기(書記), 두민(頭民), 하유사(下有司) 각 1인을 두고, 리에는 집강(執綱), 서기(書記), 하유사(下有司), 면주인(面主人) 각 1인을 두어 면·리의 호구 조사 등 임무를 맡겼다.¹³⁵⁾ 종래 지방민의 자치적인 영역으로 일임했던 면리제를 중앙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였다. 동시에 양반 사족 신분이 아닐지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지방민들이 면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점에 의의를 부여할 만하다.

이처럼 갑오개혁기의 지방제도 개혁과 조세징수 체계의 혁신은 결과적으로 구래의 양반 지배계층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들의 개화정권에 대한 저항을 가져왔다. 따라서 갑오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후 징세권은 다시 군수와 이서충에게 돌아갔다. 1896년 4월 19일 <세무시찰관장정>이 정지되고,¹³⁶⁾ 지세 및 호포전의 수납을 관찰사와 군수가 담당하게 하는

135) 『고종실록』, 1895년 11월 3일

136) 『議案·勅令(上)』 301쪽, 칙령 제16호 세무시찰관장정 시행 폐지

건이 재가됨으로써 조세행정은 갑오개혁 이전으로 다시 복귀하였다.¹³⁷⁾

한편 종래의 지방자치 업무는 복구된 향청조직의 좌수(座首)에 해당하는 향장제로 귀속되었다. 향장(鄕長)은 군수를 보좌하고 군민을 총대하여 관민 간의 일체의 공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었다. 향장은 해당 군에 입적 거주한지 7년 이상인 자로서, “사민(士民) 혹은 이액(吏額)을 불구하고 성망(聲望)과 재주(才諳)가 있는 자”를 대소(大小) 민인의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양반이나 일반 민, 이서층이나 액정 등 출신에 상관없이 투표로 선출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하지만 임명권이 군수에게 있었으므로 기본적으로 군수의 행정사무와 세무를 돕는 관치 보조적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¹³⁸⁾ 향청에서 근무하지만 종래처럼 향촌 자치의 영역이 아니라 우편 사무 등 일체의 공무를 처리하는 역할이었다. 특히 양반 사족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소 민인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신분성이 배제된 존재였다. 갑오개혁으로 국가 중앙의 지방 지배력이 향촌자치의 영역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2. 대한제국기 13도제의 실시와 경기도 연천군

1) 아관파천 이후 지방제도 변화와 연천군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개화정권이 무너진 후, 1897년 10월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개화정권이 추진했던 급격한 개혁 법령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지방제도의 측면에서는 우선 매우 급진적인 지방행정 편제였던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실시되었다. 아관파천 이후 1896년 8월 4일 제35호로 23부제를 폐지한 것을 필두로 1895년에 실시된 여러 지방제도 관련 법령을 폐지하고¹³⁹⁾ 8월 6일, 칙령 제36호로 13도제를 실시했다. 이로써 23부제는 실시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중단되고, 기존의 전국 23부 337개 군은 13도(道) 7부목(府牧)과 339군으로 개편되었다. 23부제에서 채택하였던 소지역주의는 폐기되고 다시 광역의 ‘도(道)’ 체제로 복귀하였지만, 그렇다고 조선왕조 시대의 대지역체제인 8도로 복귀한 것은 아니다. 보다 세분화된 13도 체제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135) 『고종실록』, 1895년 11월 3일

136) 『議案·勅令(上)』 301쪽, 칙령 제16호 세무시찰관장정 시행 폐지

137) 『議案·勅令(上)』 301쪽, 1896년 4월 19일 칙령 제17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2, 170쪽, 각군세무장정 개정. 세무과와 세무주사 폐지

138) 칙령 제44호 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例

139) 칙령 제98호, 제101호, 제102호, 제104호, 제127호, 제163호, 제164호 폐지

〈표 3〉 13도 관찰부 설치 지역

13도	관찰부 위치	13도	관찰부 위치
京畿	水原	黃海道	海州
忠淸北道	忠州	平安南道	平壤
忠淸南道	公州	平安北道	定州
全羅北道	全州	江原道	春川
全羅南道	光州	咸鏡南道	咸興
慶尙北道	大邱	咸鏡北道	鏡城
慶尙南道	晉州		

23부제는 오랜 기간 익숙한 8도제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인해 단기간에 제도 정착이 어려웠다. 이에 다시 전통적인 8도제를 근간으로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를 제외한 각 도를 남북으로 나눈 13도제가 실시되어 오늘날 한국 지방행정구역 편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밖에 한성, 광주(廣州), 개성, 강화, 인천, 동래, 덕원, 경흥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府)를 설치하였고 제주에는 목(牧)을 설치하였다. 수도 한성은 23부 체제에서 경기도 각군을 관할하는 한성부 산하의 1개 군으로 편제되었던 한성군에서 다시 조선왕조 시대처럼 한성부로 환원되었다. 한성부는 예전처럼 한성판윤이 관할하게 되었다. 그밖에 종래 유수부가 설치되었던 광주·개성·강화, 통상의 요지인 인천·동래·덕원·경흥에도 부(府)가 설치되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특별 행정구역으로 편제된 것이다. 언뜻 보면 23부제 당시 부·목 등 계서적인 지방행정 단위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군(郡)으로 일원화시킨 조치를 폐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왕조시대의 관념으로 특정 지방행정 단위에 차별을 두어 부·목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인천, 동래 등 현실적으로 특수성을 지닌 지역을 군과 구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8월 7일 칙령 제50호로 각 개항장에 감리가 복설되었고, 8월 10일 칙령 제52호로 각 개항장에 경무서가 설치되는 등 개항장은 다시 일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어 특별 관리지역이 되었다.¹⁴⁰⁾ 또한 전국 339개 군을 5등급으로 구별하여 관원과 경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결코 조선왕조 시대의 지방제도로 복귀한 것은 아니었다.¹⁴¹⁾ 관할구역의 대·소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등급을 구별하는 등 갑오개혁기에 실시한 근대적 지방제도 개편의 취지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이 13도 8부 1목 339군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경기도에는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 인천부 등 4개부가 설치되었다. 이때 연천군은 경기도 산하 38개 부군(府郡) 중 4등급 군으

140) 『議案·勅令(上)』, 318-319쪽

141) 『고종실록』, 고종 33년 8월 4일

로 편제되었다. 23부제 실시 당시 5등급 군에서 한 등급 승격되었다.

〈표 4〉 경기도 산하 4부(府) 34군(郡) 등급표와 연천군

등급	경기도 38개 부군(府郡)
1등급	光州府, 開城府, 江華府, 仁川府
2등급	水原郡
3등급	驪州郡, 楊洲郡, 長湍郡, 通津郡
4등급	坡州郡, 利川郡, 富平郡, 南陽郡, 豐德郡, 抱川郡, 竹山郡, 楊根郡, 安山郡, 朔寧郡, 安城郡, 高陽郡, 金浦郡, 永平郡, 麻田郡, 交河郡, 加平郡, 龍仁郡, 陰竹郡, 振威郡, 陽川郡, 始興郡, 砥平郡, 積城郡, 果川郡, 漣川郡, 陽智郡, 陽城郡, 喬桐郡

2) 대한제국기 지방관의 임무와 역할

13도제 실시와 함께 기존 지방관 관련 제도도 전면 개정하여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7호 〈지방관리직제〉를 필두로 〈지방관리사무장정〉, 〈지방관청봉급경비지급규정〉, 〈지방관리직무권한〉 등이 반포되었다.¹⁴²⁾ 이들 법령에 따르면, 각 도에는 관찰사(직임 3등 이하) 1명과 관원들을 임명하고, 각 부에는 부윤(주임) 1명 외 기타 관원, 각 군에는 군수(주임) 1명, 향장(鄉長) 1명, 순교(巡校) 6명, 수서기(首書記) 1명, 서기(書記) 8명, 통인(通引) 3명, 사령(使令) 8명, 사용(使傭) 4명, 사동(使童) 3명, 객사직 1명, 향교직 1명의 관원을 두었다. 각 군은 5등급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군수 이하 각 관리의 봉급은 군등(郡等)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4등급 군에 속하는 연천군의 경우 군수의 월급은 58원이었다.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산하 각 부군의 행정 사무를 총괄했다. 특히 산하 각 부·목·군의 치적을 매년 두 차례(1월과 7월 15일) 정기적으로 내부(內部)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23부제 하에서 폐지되었던 부윤과 목사가 부활해서 구제도로의 복귀처럼 보이지만, 부윤과 목사도 군수와 같이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지방관 사이의 위계와 지휘체계를 설정한 것은 조선후기 지방제도와 달라진 점이었다. 관찰사, 목사, 군수의 지휘체계는 관찰사가 산하 목사와 부윤, 군수에게 훈령과 지령으로 명령하고, 목사와 부윤, 군수는 관찰사에게 보고서와 질품서로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목사가 산하 군수에 대해서 가지는 위상도 관찰사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었다.¹⁴³⁾

지방관 사이의 위계질서는 법률과 명령을 지방에 반포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내부(內部)나

142) 『議案·勅令(上)』, 310-313쪽 및 316-319쪽

143) 『고종실록』, 1896년 8월 7일. 勅令 第45號 地方官吏應行體制

〈표 5〉 각 관찰부 관원 수 및 월급

관명	인원수	1인 월급	일년 총계
관찰사	1人	166元	2000元
주사	6人	18元	1296元
총순	2人	16元	384元
순검	30人	6元	2160元
書記	10人	8元	960元
通引	4人	4元	192元
사령	15人	4元	720元
使傭	8人	3元	177元
使僮	8人	3元	288元

〈표 6〉 각 부(府) 관원 수 및 월급

官名	인원수	1인 월급	일년 총계
府尹	1人	100元	1,200元
鄉長	1人	6元	72元
巡校	8人	4元	384元
首書記	1人	8元	96元
書記	8人	6元	576元
通引	3人	3元	108元
巡卒	8人	3元	288元
使令	10人	3元	360元
使傭	5人	3元	180元
使僮	4人	3元	144元
客舍直	1人	1元	12元

〈표 7〉 각 군 관원의 등급별 월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郡守	83元	75元	66元	58元	50元
鄉長	6元	6元	6元	6元	0
巡校	4元	4元	4元	4元	4元
首書記	8元	8元	7元	7元	7元
書記	6元	6元	6元	5元	5元
通引	3元	3元	3元	3元	3元
使令	3元	3元	3元	3元	3元
使傭	3元	3元		3元	

〈칙령 제38호 지방관리사무장정〉

제1조 내부와 각부에서 반포하는 명령을 인민에게 고시하고 인민의 고락(苦樂) 정상(情狀)을 정부에 보고하여 정부와 인민이 간격이 없고 일심으로 서로 통하게 한다.

제2조 인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민의 선행을 권유하고 악습을 행하지 않게 할 것
- 인민의 식산(殖産)하는 방법에 이로운 일을 권장하고 방해되는 일은 예방할 것
- 인민을 가르쳐 국법을 준행하고 죄과를 범하지 않게 할 것
- 관내에 도둑을 예방하고 불량한 인민을 은애(恩愛)로 가르치며 법률로 금지하여 오염됨이 없게 할 일
- 호수와 인구를 기록할 때 빠뜨리지 않아서 국가의 은혜와 혜택을 균점케 할 것
- 전토를 개간하여 황폐함이 없게 할 것
- 도로와 교량을 수시로 보수하여 행인에 방해함이 없게 할 것
- 유행하는 질병을 예방할 것
- 산림과 공한(空閑地)에 나무를 심어 후일에 재목으로 쓰이게 할 것

각부(各部)에서 관찰사에게 지휘하여 관찰사가 부윤·군수에게 전직(轉飭)하고, 부윤·군수가 내부나 각부에 보고 혹은 질품하는 건은 관찰사를 경유하여 전보(轉報)하게 했다. 내부와 각부가 관찰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부윤·군수에게 직훈(直訓)할 수 없고, 또 부윤·군수가 관찰사를 경유하지 않고 내부와 각부에 직보(直報)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중앙 각부처→관찰사→부윤·군수이라는 행정명령 체계의 위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¹⁴⁴⁾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연천군수는 반드시 경기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의 훈령과 지령을 받고, 중앙에 보고서나 질품서를 올릴 경우 역시 반드시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야 하는 업무 체계였다.

그밖에 주사와 향장도 상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하고 순교, 서기 이하를 지휘 감독하며 총순은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내 경찰사무에 종사하게 했다. 각각의 직무 분장과 명령 체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직 기강의 확립,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로써 총순, 순검, 순교 등에 의해 지방경찰 업무는 사실상 일반 행정과 통합적으로 관리되게 되었다.¹⁴⁵⁾

일반 민에 대한 지방관의 업무를 규정한 칙령 제38호 〈지방관리사무장정〉에 의하면,¹⁴⁶⁾ 지방관들은 내부와 각부에서 반포하는 명령을 반드시 인민에게 고시하고, 인민의 사정을 정부에 보고하여 정부와 인민 간에 간격이 없게 하라고 했다. 중앙정부로서는 아무리 좋은 개혁 조

144) 『고종실록』, 1896년 8월 7일, 勅令 第46號 地方官吏職務權限

145) 『고종실록』, 1896년 8월 7일, 勅令 第45號 地方官吏應行體制

146) 『고종실록』, 1896년 8월 4일 勅令 第38號

치를 내놓아도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진 조치였다. 갑오개혁기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 근대적 개혁 조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방사회에서 생활하는 민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정부와 일반 민 사이에 위치하는 지방관에게 있다고 파악하고 양자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또 지방관의 임무에서 인민 보호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지방관 사무장정에 명시함으로써 그 직무 목표를 뚜렷이 제시한 것도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점이었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방관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선택되었을까? 관리 임용 제도는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1896년 12월 6일의 <지방관리택용규칙>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각부부(府部)에서 판임관으로 3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지방관에 임용할 수 있었다. 일찍이 문관 양사(兩司) 이상 직위를 지낸 사람은 근무 개월 수에 상관없이 임용될 수 있었고, 문·음·무관 6품 실직으로 30개월 이상을 지낸 사람도 재능에 따라 임용될 수 있었다. 그밖에 문·무과 합격자와 음사(蔭仕)는 10년 이상 경력이면 지방관에 임용될 수 있었다.

1898년 8월에는 지방관 서임 규정이 다시 바뀌어서 군등(郡等)에 따라 군수로 초임하는 경우 4등군 이하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다만 각 부부원청(府部院廳)에서 주임관으로 재직한지 3년 이상인 사람은 이러한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다. 요컨대 일반 민인들과 직접 접하는 군수직에 유경력자를 내보냄으로써 신참 군수의 실수나 미숙한 행정처리를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한제국기에도 조선후기와 마찬가지로 지방관에 대한 불만과 민원은 계속되었으므로 지방관의 치적에 따라 상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방관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즉 지방관의 치적이 특별히 현저하여 포상할 경우에는 이전의 군 등급에서 1등씩 올려서 임명해주고, 만약 1등 군에 재임하여 더 이상 승진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관찰사 혹은 중앙 각 부서에 칙임관으로 승진시킨다는 규정도 마련되었다.¹⁴⁷⁾

관찰사와 군수의 임용은 갑오개혁기에는 의정부회의에서 결정했으나 대한제국기에는 내부 대신이 임명했다. 관찰사와 군수 아래의 관리 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도군(道郡)의 의사를 존중했다. 관찰부의 주사는 한명은 관찰사가 임의로 뽑고, 나머지는 해당 관내에서 사민(士民)과 이서, 혹은 액정을 가리지 않고 성망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반반씩 나누어 관

147) 『구한국관보』, 칙령 제30호 <지방관서임규정>

148) 『구한국관보』, 칙령 제44호 <각부목판임관이하임면규례>

149) 『구한국관보』, 칙령 제48호 <지방관리임기에 관한 건>

찰사가 선택했다. 관찰사가 그 명단을 내부에 보고하면 내부에서 서임했다. 관찰사의 임명 권한의 폭이 상당히 넓었다고 볼 수 있다. 각 관찰부의 총순(總巡)은 당분간은 내부(內部)에서 경무청 총순·순검 중에서 파견하지만, 향후 지방 경무가 성숙한 때에는 관찰사가 해당 부의 순검 중에서 선택하여 내부에 서임을 청하게 한다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단 경무 본청의 규칙을 준행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경찰 업무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경무청 소관이긴 하지만, 1895년 23부제와 비교해 볼 때 관찰사의 권한이 확대된 측면이 있었다.¹⁴⁸⁾

지방관의 임기는 한성판윤과 관찰사·목사·부윤·군수 모두 4년이고, 사정상 부득이하게 다른 임지로 가지 못하고 연임할 경우 반기(半期)인 2년간을 허락했다. 그 2년을 다 채우고도 치적이 우수하면 다시 1기 즉 4년 근무를 재허락할 수 있게 하여 한 부임지에서 최장 10년까지 장기간 재임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관찰사의 임기가 360일, 수령은 1800일, 당상관 및 가족을 대동하지 않은 수령은 900일이었던데 비하면 대한제국기 관찰사의 임기는 대폭 늘어난 것이고, 수령의 임기는 5년에서 1년이 줄어서 모두 4년으로 통일된 것이다. 조선후기 지방관들이 사실상 임기도 채우지 않고 한양에 올라가 버려서 공석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관이 한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면서 지역 실정에 좀 더 정통할 수 있게 만든 규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임기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는 구체적인 지방관 임면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 한 임지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관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각 부·목의 주사와 총순은 1년마다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1등급씩 승급되었다.¹⁴⁹⁾

그런데 개정 지방관제에서 지방관의 임무와 복무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이전과 비교해서 지방행정의 실체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방관들은 다시 장악하게 된 조세 징수권을 남용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낳고 있었다. 세무시찰관 제도 폐지 이후 지세 및 호포전의 수납을 관찰사와 군수가 맡게 되면서, 공전(公錢) 외획(外劃) 등의 문제로 공납이 연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이서층의 중간수탈도 계속되었다. 대한제국기 황제권 강화와 함께 황실재정이 팽창하면서 전국적인 잡세 수취의 증가, 궁내부 봉세관(捧稅官)의 파견 등으로 인해 지방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은 개혁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1903년 11월 10일 다시 관세사 및 징세서 관제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곧이어 러일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중단되고, 이후 일제 통감부가 설치됨으로써 소위 '시정개선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식민지적 지방제도 개편이 시작되었다(이상찬 1986).

II. 일제의 통감부 통치와 연천지역의 의병항쟁

1. 통감부 시기 지방제도의 변화

1904년 2월,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러일전쟁은 대한제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대한제국의 전시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전과 동시에 대규모 군대를 한반도에 진주시킨 일제는 <한일의정서>로 군사적 강점의 길을 열고, 고문(顧問) 협약으로 '시정개선(施政改善)'을 앞세운 내정 장악에 나섰다. 재정 정리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민의 화폐 재산이 강탈당하고 각종 이권이 일본에 넘어갔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와 이사청을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장악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방제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통감부 설치의 근거가 된 을사늑약을 흔히 외교권 박탈 조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1904년 고문협약 이후 외교 고문의 파견으로 이미 일본 외무성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의 외교권 대행보다는 각국 공사관의 철수로 열강의 견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하여 식민지화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였다(서영희 2003: 318쪽). 통감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시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내정간섭을 시작했고, 종래 지방 각지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을 대신하여 이사청을 설치했다. 이사청은 일본인을 위한 영사 업무만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지방행정에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하였다.

1905년 12월 20일 공포한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의하면, 통감은 '한국에서 일본제국 관헌 및 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한다'는 조항을 통해 내정 감독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제가 고문협약 이후 시정개선 명목으로 파견한 다수의 일본인 고문관들에 대해 통감이 감독권을 가짐으로써 최고 고문 자격으로 대한제국 내정에 간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감은 필요한 경우 한국 정부나 지방관에게 직접 집행을 요구할 수 있고, 관청의 명령이나 처분을 정지, 취소시킬 수도 있었다. 한국에 진주한 일본 주차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고, 통감부령 발포와 금고 1년 이하, 벌금 2백원 이내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소유한 존재였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황제를 알현할 때 반드시 배석할 권리가 있고, 한국정부의 내각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수시로 황제를 알현하여 중요 관직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는 규정까지 국정의 최고 감독자로서 황제권을 제한하고 대한제국 최고 통치권자 행세를 하게 되었다.¹⁵⁰⁾

통감부 산하 기구로는 1906년 2월 출범 당시 총무부(비서과, 서무과, 외사과, 내사과, 법제

150) 『통감부법령자료집』 上, 1-5쪽; 『국비 일제의 한국침략사료총서』 3, 687-695쪽, <통감직무심득>의 제5조-제18조

과, 회계과, 토목·철도과), 농상공부(상공과, 농무과, 광무과, 수산과, 산림과), 경무부(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의 3부 16과가 설치되었고,¹⁵¹⁾ 1907년 3월 외무부가 신설되었다.¹⁵²⁾ 4월에는 총무부 의사, 법제, 토목·철도 3과를 폐지하고 지방과를 두었다. 외무부에는 한국과, 외국과 2과를 설치하고, 농상공부의 농무과와 산림과 2과를 폐합하여 농림과로, 경무부의 고등경찰과를 폐지하는 한편, 별도로 법제심사회를 설치하였다.¹⁵³⁾

그밖에 통감부 외청으로서 통신관리국이 우편·전신·전화사업을 관장하였고, 1906년 5월부터는 각 지방의 수세금을 취급하는 국고 역할까지 담당하였다.¹⁵⁴⁾ 철도관리국은 1906년 6월 일본이 경부철도를 매수하여 통감부에 귀속시키면서 신설되었고, 7월 경의선 및 마산선 관리권 역시 일본 육군성으로부터 통감부에 이전되었다. 대한제국의 철도는 모두 통감부 관리하에 들어간 것이다.¹⁵⁵⁾ 경찰업무는 고문 경찰에게 넘겨졌지만 한국 주차군 헌병들도 치안 경찰에 협조한다는 명분으로 각 지방에 주둔하면서 경찰 업무에 관여하였다.¹⁵⁶⁾

이처럼 한국의 국정 각 분야에 걸쳐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통감부는 기존에 한국정부에 고문관, 참여관, 보좌관, 고문경찰 등의 명목으로 고빙되어 있는 일본인 관리들을 지휘하면서 대한제국의 국정운영 전반을 장악하였다. 뿐만아니라 통감이 직접 정부대신들을 통감관사에 소집하여 일명 '시정개선협의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지시하였다.¹⁵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가 관리 임면에 관여하는 등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자,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을 빌미로 강제로 폐위시킨 다음 7월 24일에는 순종 황제에게 정미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통감의 내정 간여는 공식적으로 천명되고,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에 대한 통감의 승인권과 고등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국정의 최고 감독권자가 되었다. 또한 일본인을 직접 대한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이면 각서를 통해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된 재판소 신설, 간수장 이하 반수를 일본인으로 하는 감옥 신설, 군대 해산 등도 약속받았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유지되는데 기본적인 공권력 요소인 감옥, 군대, 재판소 등이 모두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¹⁵⁸⁾

무엇보다도 그간 고문 또는 참여관 명의로 대한제국 정부에 용빙되었던 일본인들이 이제 직

151) 水田直昌, 1974, 『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69쪽

152) 『통감부법령자료집』 上, 317-319쪽

153) 『통감부법령자료집』 上, 371-375쪽

154) 『통감부법령자료집』 上, 5-6쪽

155) 『한국시정연보』 1(1906-1907), 11쪽

156) 『일본외교문서』 38-1, 522-3쪽

157) 『일한외교자료집성』 6(상), 128-145쪽

158) 통감부 편, 『한국조약유찬』, 25-28쪽

접 중앙 및 지방 관리에 임명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각부 차관, 내부 경무국장, 경무사 또는 부경무사, 내각 서기관 및 서기랑 중 약간 명, 각부 서기관 및 서기랑 중 약간 명, 각도 사무관 1명, 각도 경무관, 각도 주사 중 약간 명과 재무·경무 및 기술관리에 일본인이 임명이었다.¹⁵⁹⁾ 이로써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중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되었으며, 내부 경무국장 임명을 통해 치안권까지 확보하였다.

사법 사무에 대해서도 일제는 대심원(한성), 공소원(한성·평양·대구), 각 지방 주요 도시에 지방재판소, 113개소의 구(區) 재판소를 설치하고, 일본인을 간수로 하는 감옥도 설치했다. 이미 1907년 1월부터 법무 고문이 사법 사무를 관장하고 평리원과 한성재판소, 13도 재판소에 각 1명의 일본인 법무 보좌관, 보좌관보를 배치하고 있었는데,¹⁶⁰⁾ 이제 대부분의 재판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일제는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위해 13도 관찰사 소재지에까지 이사청 지청을 설치했다. 이사청은 원래 일본 영사관 및 분관이 설치되어 있던 한성,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군산 등 7개소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군산, 평양, 성진 3개소가 추가되어 총 10개소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1906년에 대구, 신의주, 1907년에 청진 이사청 등 3개소가 설치되어 전국 13개 이사청이 대한제국의 지방행정에 관여하였다. 이사청에는 이사관, 부이사관, 경시 등을 두고 통감의 지휘를 받아 종래 영사에 속했던 업무를 처리하게 했는데, 치안 유지를 위해 주한 일본군의 출병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사청령을 발하여 벌금이나 구류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었다. 또 한국의 지방관에게 업무 집행을 요청할 수도 있었으므로 사실상 통감부 지휘 하에 대한제국의 지방 행정을 감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즉 단순히 재한 일본인을 보호하는 영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항장 감리서 폐지 이후 지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관할구역 내 한국의 지방행정에 관여하고 집행을 감시할 수 있었다(박경룡 1995: 69-75). 한성부에 설치된 이사청은 1906년 2월 1일부로 업무를 개시했는데, 관할 구역은 한성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기 동부 일대, 강원도 서부 일대, 충청도 동북부 일대, 황해도 동남부 일대로 상당히 넓었다. 이 시기 지방의 치안 경찰 업무도 통감부 감독 하에 고문 경찰과 이사청 경찰이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각 관찰부의 경무관, 총순도 큰 의미는 없는 자리였다. 그나마도 1907년 정미조약 이후에는 경찰의 고위직에 모두 일본인이 임명되었고 경시, 경부, 순사 등 하급 경찰에 대한 임명권도 모두 일본에 넘어갔다.

159) 『일한외교자료집성』 6(중), 627-629쪽

160) 『한국시정연보』 1, 91-92쪽

2. 국권수호운동과 연천지역의 의병항쟁

1) 일제의 강제 군대해산과 의병항쟁

일제는 1907년 7월 31일 새로 즉위한 순종 황제로부터 군대 해산의 조칙을 얻어냈다. 명분은 재정 부족이었지만, 그보다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킬 때 일부 시위대 병사들이 양위 반대 쿠데타를 계획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한제국 수립 이래 정부 재정의 40% 이상을 써가면서 근대식 군대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일제는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군부고문 노즈 쓰네다케(野津鎮武)를 시켜 갖가지 명목으로 대한제국 군대를 축소시켰다. 1904년 5월 일본 측이 파악한 대한제국 군인 수는 16,000여 명이었는데, 1905년 4월과 1907년 4월 두 번에 걸쳐 대대적으로 감축한 결과, 군대 해산 당시 병력은 만 명도 채 되지 않은 숫자였다. 시위보병 2개 연대 약 3,600명, 기병·포병·공병·치중병 약 400명, 지방군대 8개 대대(수원·청주·대구·광주·원주·해주·안주·북청 8개소) 약 4,800명을 모두 합쳐봐야 8,800여 명에 불과했다. 이런 숫자로 막강한 일본 주차군과 대적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지휘 아래 치밀한 해산 계획을 세운 일제는 8월 1일 이른 아침 중앙군인 시위대 해산부터 시작했다. 훈련원 주위에 일본 군대를 배치하여 완벽한 전투 준비를 갖춘 가운데, 오전 7시 군부대신 이병무가 일본군 사령관 관저인 대관정에 시위대 각 대장들을 소집하고 해산 조칙을 전달했다. 각 대장들에게는 8시까지 각 대원들을 훈련원에 소집하면 10시에 해산식을 거행한다고 통보했다.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 제2연대 제1대대는 미리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 오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대 군인들에 대해서는 모자와 견장을 회수하고 고향에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신 하사에게는 80원, 병사 1년 이상자에게는 50원, 1년 미만자에게는 25원의 은사금을 지급했다.

이날 훈련원 해산식에 참가한 인원은 제1연대 제2대대 575명, 제1연대 제3대대 488명, 제2연대 제3대대 405명, 기병대 88명, 포병대 106명, 공병대 150명 등 총 1,812명에 불과했다. 제2연대 제2대대는 궁궐 호위를 위해 근위대로 개칭하여 존속시켰으므로 참석하지 않았다 해도, 절반에 가까운 병사들이 일제에 의한 강제 해산에 응하지 않고 저항에 나선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잔존 부대인 여단사령부, 연성학교, 헌병대, 치중대, 흥릉수비대, 군악대는 8월 28일 해산되었다. 갑작스러운 해산 명령에 군인들은 비분강개했지만 이미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일본군의 총검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일부 해산 군인들과 장교들은 서로 껴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분을 토했다.

해산식에 참가하지 않은 시위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 병사들은 무장한 상태로 탈영하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특히 시위 제1연대 제1대대장

참령 박성환이 군대 해산에 반대하여 자결하는 모습을 보고 병사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병영 내에 있던 일본인 교관에 대한 충격을 시작으로 인근의 제2연대 병사들과 합세하여 병영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남대문 부근에서 일본군과 맹렬한 총격전을 벌였다.

한편 시위대 해산을 마친 일본은 지방군인 진위대에 대해서도 해산 작업을 시작했다. 8월 1일부로 각 지방 진위대 대대장이 배속된 일본군 교관과 함께 군부(軍部)에 출두하여 해산 지시를 받고, 각 대대 인근의 일본군 수비대의 지원을 받아 병사를 무장 해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8월 3일 개성과 청주를 시작으로 9월 3일 북청 진위대까지 약 1개월에 걸친 해산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8월 6일 강원도 원주 진위대의 저항을 시작으로 강화도 분견대가 무장 봉기하고 충주·제천 등 각지 진위대 군인들의 저항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진압에 나선 일본군의 사상자도 68명에 이르렀지만, 해산 진위대 군인을 포함하여 대한제국 측 피해는 1,850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에서 일제에 의한 시위대 강제 해산과 항전 소식은 곧바로 지방 진위대 병사들에게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봉기한 진위대는 원주 진위대였다. 그동안 의병부대를 탄압하는 관군의 역할이었던 대한제국 군인들이 일제에 의한 강제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항일 전선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해산군인들은 유생 출신 의병장이나 동학 농민군의 후예인 농민 출신 의병부대원과 달리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인력으로서 서양 총을 비롯하여 근대적인 무기와 탄약 사용 능력을 갖추어 향후 의병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의병부대를 지휘해왔던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들의 위상과 그들의 신분 관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원주 진위대의 장교 민금호(閔肯鎬)는 8월 2일 대대장 홍유형(洪裕馨)이 소집 명령을 받고 상경한 후 대대장 대리 김덕제(金德濟)와 함께 비밀리에 봉기계획을 세우고, 8월 5일 무기고를 장악하여 1,200여 명의 소총과 4만발의 탄환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원주 우편취급소 및 군아(郡衙), 경찰분서를 습격했고, 원주 본대의 봉기 소식을 들은 여주 분대 병사들도 합세했다.

원주 진위대의 봉기에 이어 수원 진위대 강화 분견대 병사들이 8월 9일, 지홍운(池弘允), 이동휘(李東輝) 등의 지휘로 무기고를 습격하며 봉기했다. 이들은 일진회원인 강화 군수를 처단하고 일본 순사를 사살하는 한편 강화성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일본군은 보병 1소대를 강화도로 급파했고, 8월 10일 강화 분견대와 갑곶(甲串)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일본군의 기관총 집중사격으로 8월 11일, 강화성은 함락되었다. 강화 분견대 병사들은 강화성을 탈출하여 통진, 해주 등지로 이동했고, 이후 북한지역 의병부대의 선구가 되었다. 강화 분견대 부교였던 연기우(延基羽)는 연천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병부대를 이끌었다.

이처럼 해산군인들은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기존 의병부대와 합류하거나 독자적으로 항전을 계속했다. 이에 군대해산 후의 항일 의병전쟁은 이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기존에 유생 의병장이 이끌던 의병부대와 해산군인들이 연합하는 모습은 연천지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양반 유생 출신으로 대한제국에서 의정부 참찬을 지낸 허위(許蔦)가 이끄는 의병부대와 강화 분견대 해산군인 출신인 연기우 부대가 합류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활약한 것이다. 이들은 강원도 원주에서 기병한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 이인영(李麟榮)이 총대장이 된 13도연합의진에도 함께 주력으로 참여했다.

해산군인들의 저항은 1907년 8월 이후 전국적인 의병 봉기의 열기로 연결되었다. 서울에서 내려간 시위대 병사나 각 지방 진위대 병사들이 무기를 지닌 채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 차츰 충청도, 호남 일대로 내려가면서 의병부대에 합류했다. 을사늑약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부대들은 애초에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이 많았는데, 민종식, 최익현 등 충청도 및 전라도의 양반 유생층이나 전직 관리들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1천 명이 넘는 대규모였다. 하지만 양반 유생층들은 전투 지휘 능력이 떨어지고 여전히 척사론적 입장에서 일본에 맞서 유교의 가르침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의 양반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13도연합의진은 1907년 11월, 경기도 양주에서 집결하여 서울로 진격할 계획이었으나, 총대장인 이인영이 부친 사망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귀가해버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도부가 붕괴되어 퇴각해야 했다. 반면 동학 잔당이나 화적 등 민중 세력이 집결한 평민 의병 부대 중 대표적인 신돌석 부대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영해, 영덕 지방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참여하면서 분위기는 주로 평민들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민공호, 지홍윤, 연기우 등이 대표적인 군인 출신 의병장이었다. 해산군인들은 일단 정식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의병부대는 실제로 전투력과 기동성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의병부대들은 군대 해산 이후인 1908년부터 1909년 2년간 가장 격렬한 전투를 치렀다. 또 전국적으로 서울·경기 지역 외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등 북한 지방까지 한반도 전 지역에 의병부대가 확산되었다. 총을 잘 쏘는 사냥꾼 포수들도 일본이 모두 총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반발해서 의병부대에 참여했다. 유명한 의병장으로서 나중에 독립군 대장이 되는 홍범도가 바로 포수 출신이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해산, 심남일, 강무경, 안계홍 등 의병장이 유명했다. 이들은 일본인 농장이나 우편취급소, 금융조합, 헌병보조원, 순사, 세무관 등을 공격함으로써 일본 통치를 중단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1909년 하반기부터 일제의 병합 단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일본군이 대대적인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치면서 호남 일대의 막강한 의병부대들이 점차 궤멸되기 시작했다.

이때 사망한 의병이 1만 6천 명, 부상자는 3만 6천 명에 달했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할 수 없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곧 일제 식민지 시기의 독립군으로 전환된 것이다.

2) 경기 북부지방 임진강 유역 의병부대의 항쟁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 정미조약과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된 정미의병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고 이어 남부와 북부지방으로 확대되었다. 경기 북부지방 임진강 유역 의병부대의 항쟁도 군대해산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연천지역에서는 양반 출신 의병장 허위가 이끄는 세력과 해산군인 연기우가 지휘하는 의병부대가 연합전선을 펼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방에서 활동한 주요 의병부대는 허위, 연기우, 김민수, 강기동, 이은찬 등이 이끄는 부대였다. 이들은 시기에 따라 수십 명의 소규모 부대에서 2~300명까지 활동했고, 연합부대를 이끈 허위 산하의 병력 수는 한때 2000명에 이르렀다. 의병부대원들은 대부분 구식 화승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해산군인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식 서양총을 구비하고 일본군을 상대로 기습 공격이나 게릴라전을 펼치거나 통감부 통치의 지방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병분견소, 우편취급소를 공격했다. 군자금과 군량미 확보를 위해 친일 지주들의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반대하는 방곡령을 요구하기도 했고, 군수물자를 징발할 때는 각 읍 면 동장에게 통고하고 군표에 해당하는 문서를 지급하는 등 일반 인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노력했다. 일제를 위해 밀정 활동에 나선 일진회원이거나 헌병보조원들은 처단하기도 했다.

일제는 의병항쟁 진압을 위해 1907년 7월 20일 보병 12여단, 10월말 기병 1연대를 대한제국에 증파했다. 일본군 3000명을 조선주차군 사령부 지휘 하에 1500명은 부산·대전지역에, 1500명은 경성과 평양지역에 배치했다. 1907년 12월, 포천·삭녕지역에도 보병1소대 내지 2소대, 연천·적성지역에도 보병 1분대가 배치되었다(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60). 임진강 유역 의병 토벌을 위해 연천수비대, 적성수비대, 마전헌병대, 문산분견소 등이 동원되었다. 이에 더해 일제는 1907년 7월부터 9월 사이 전국 211개소에서 헌병보조원을 모집한 결과, 4000여명을 채용했다. 헌병보조원은 일본 헌병 1명에 1~2명씩 배속되어 의병의 은신처를 수색하거나, 민정 경찰, 토벌 임무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밖에도 밀정 800여명을 모집하여 서울과 각 지방에 분산 배치하여 의병활동을 정탐했다.

연천지역은 동쪽에 보개산 등 험준한 산악지대이고, 서쪽으로는 황해도 금천군부터 남북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중앙부에 3번 국도와 경원철도가 지나가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철원 보개

산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친 김규식 부대가 있었고, 허위 부대도 보개산 심원사를 근거지로 활동한 바 있다. 1907년 8월, 허위부대 800여명은 심원사 일대에서 활동 중 일본군 토벌대의 기습 정보를 알고 분산 이동했으나, 김화수비대와 일본군 보병 제50연대 60중대 1소대의 연합작전으로 70여명이 전사했다.

감악산을 거점으로 한 적성·파주·양주·포천지역에서는 윤인순, 황재호, 정용대, 김연성, 유포연 등이 이끄는 66개 의병부대가 있었고, 연천지역에서 활동한 의병 수는 최소 3600명에서 최대 593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의병 수는 연천 및 인근 마전, 적성, 장단, 삭녕, 철원, 영평, 포천, 파주, 양주 등지를 무대로 활동한 의병 수를 합쳐서 추산해 본 것이다.

1907년 9월 중순 연천에서 합진한 허위·연기우 연합부대는 30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시 철원에서 김진묵 부대와 통합한 후 일제의 우편취급소를 습격하거나 연천군 우편취급소장 및 일본상인을 처단했고, 10월 28일에는 임진강 연안 의병 200명을 토벌하러 내려온 일본군 보병 제50연대 제8중대와 연천에서 교전했다. 11월 무렵 허위 부대는 13도의병 연합작전에 참여하려고 마전군으로 진출하다가 마전군의 양반 가문인 윤씨들을 태형에 처하기도 했다.

11월 4일 연천의 임진강 유역 의병 150명은 일본군 보병 제30연대 제8중대와 격전을 벌이다가 심원사 쪽으로 퇴각했다. 마전·적성·삭녕 등지에서 활동하던 의병 3~400명은 마전에서 보병 제50연대 105명과 격전을 벌였다. 11월 7일 허위 부대는 마전과 적성 사이에서, 장단 지역 의병장인 김수민의 900명, 박종한의 500명, 각처 1200명 등 2000여명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중 1000여 명은 11월 8일 마전 읍내를 포위 공격하다가 일본 헌병과 교전 중 김화수비대의 후원 공격으로 퇴각했다.

한편 11월 17일, 동학당 출신 평민의병장 김수민(金秀敏)이 이끄는 의병부대 300여명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 장단군 솔랑리에서 개성수비대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경기도 장단(長端) 출신의 김수민은 사격 명수로 백발백중일 뿐아니라 스스로 탄약을 제조할 줄 알았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술에 의하면, 김수민이 13도 총도독(總都督)이 되어 의병 2천명을 거느리고 장단의 덕음동에 웅거하며 군량을 저축하고, 보부상들을 모집하여 정찰대로 삼았다고 한다. 1908년에 들어서도 20~30명의 소집단으로 각지를 횡행하면서, 4월 16일, 구화장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여 무기와 탄약을 빼앗았다는 기록도 있다. 김수민 부대는 주로 장단·풍덕 부근에서 활동했으나 일본군 수비대 및 헌병의 토벌로 패퇴했다. 김수민은 재기를 도모하고자 서울에 잠입하여 인력거꾼 노릇을 하며 일제 측 정보를 정탐하던 중 일본 밀정에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임진강 연안의 의병부대는 1908년 1월의 13도연합의진에 의한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관동창의원수부를 조직하고 활동을 계속했다. 허위는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인 순사와 헌병 보조원을 상대로 ‘고시순검보조원’이라는 격문을 발하고,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서를 공격했다.

일제는 지역 사정에 어두워서 의병 토벌에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지리나 민정(民情)을 정탐해서 알려줄 지역 인사들을 헌병 보조원 등으로 포섭했다. 일진회 출신 지역 인사들은 이러한 일제 측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일진회는 오랜 일본 유랑 생활에서 돌아온 송병준이 1904년 8월 전(前) 독립협회 회원 윤시병, 유학주, 염중모 등과 함께 결성한 유신회와 구 동학 세력인 손병희, 이용구가 9월 전국의 구 동학도들을 결집시킨 진보회가 결합하여 탄생된 단체였다. 진보회가 구 동학 조직을 바탕으로 대중적 기반을 가진 데 비해 일본 주차군의 보호 하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일진회는 이용구를 매수하여 합동 일진회를 창립하였다. 일진회의 송병준은 유약한 박제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고종 황제 폐위를 적극 추진한 결과 이완용 친일 내각에 농상공부대신으로 입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진회의 친일 행각으로 일반 민의 심각한 반대 여론이 조성되었고, 의병부대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 통감부는 지역에서 자위단을 결성하게 하고 일진회 자위단이 활동에 나섰지만 의병부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양반 의병장 허위와 13도연합의진의 서울진공작전

연천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 왕산(旺山) 허위(1855~1908)는 이강년(李康年), 고광순(高光洵) 등과 함께 대표적인 양반유생, 관료 출신 의병장이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을미의병 당시에도 의병 수백 명을 모집하여 금산·성주를 거점으로 활동했으나, 고종의 해산 권유 밀지를 받고 자진해서 해산한 적이 있다. 1899년 2월, 상경한 허위는 환구단 참봉을 시작으로 대한제국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고, 성균관 박사, 중추원 의관, 평리원 재판장, 의정부 참찬, 비서원승(祕書院丞)을 역임했다. 일제의 불법적인 국권 침탈에 대해 그 죄상을 열거한 격문을 살포했다가 의정부 찬정 최익현(崔益鉉), 판서 김학진(金鶴鎭) 등과 함께 체포되어 4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일본은 허위를 회유하기 위해 칙임관(勅任官) 2등으로 서품하려 했으나 거절하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인석(柳麟錫) 등과 의거를 결의했다. 1907년 7월,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자, 9월 민금호(閔肯鎬)·이강년(李康年) 등의 의병부대와 연계하면서 연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907년 가을,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양주로 집결하여 13도연합의진을 편성하고, 이인영(李麟榮)을 원수부 13도총대장으로 추대하자 허위는 군사 참모에 해당하는 군사장(軍師長)이 되었다. 허위 등 여러 의병장이 이끄는 경기 북부 의병 5000여명은 가평군 선등산과 영평군 백운산을 근거로 삼고 수십명 혹은 수백명씩 부대를 형성하여 양주로 향했다.

허위 부대가 13도연합의진에 참여하기 위해 마전군 강동면 고왕산리 윤씨 마을에 들어갔을 때, 윤씨들은 양반 마을에 왜 의병이냐고 나무라는 말을 했다. 이에 허위가 양반은 나라가 위급해도 상관없냐고 하면서 윤씨들에게 태형을 가한 일화가 유명하다. 허위 자신이 양반 유생 출신이지만, 양반 신분 의식에 간혀 있기 보다는 이를 넘어 국권수호 운동에 나섰기에 해산군인 출신의 연기우 부대와도 연합전선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허위 부대는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적성·양주·파주·포천·삭녕·철원·이천·마전 등지에서 활동했다.

반면 13도연합의진 총대장으로 추대된 이인영은 양반 유생 의병장으로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1907년 9월,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활약하던 유생 의병장 이은찬(李殷瓚)과 이구재(李九載)는 해산군인 80여명이 포함된 의병 5백명을 이끌고 경상북도 문경에 퇴거해 있는 이인영을 찾아갔다. 이인영은 명망 있는 재야유생으로서 을미의병 때도 봉기했다가 부친의 와병으로 문경으로 은퇴한 상태였다. 이은찬 등이 연합의병부대의 총대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인영은 ‘효’를 지켜야 할 처지라고 대답했고, 이은찬은 국가의 위급을 주장하며 구국 항일의 거사를 간청했다. 이인영은 결국 이들과 함께 강원도 원주로 가서 관동창의대장으로 추대되고 횡성·지평·춘천 등에서 의병을 규합한 후, 전국 각지 의병장들에게 격문을 전달했다. 각도의 의병을 통일하여 경기에 진입하자는 내용이였다. 또한 원주에서 관동창의대장의 이름으로 각국 영사관에 격문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불법행위와 대한제국이 처한 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병을 국제 공법상 전쟁 단체로 인정하여 성원해 달라는 호소였다. 또 9월 25일자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을 통해 동포들이 단결하여 독립을 회복하고, 전 세계를 향해 야만적인 일본인의 심한 부정과 난폭을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활하고 잔인한 진보와 인도의 적인 일본인과 그 스파이 부일분자 및 야만의 군대를 참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였다.

이인영이 각도 각지에 보낸 통문에 따라 1907년 11월 전국 각도의 의병장들이 속속 양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충청도의 이강년(李康年) 부대, 강원도의 민궁호(閔肯鎬) 부대, 경상도의 신돌석(申堧石) 부대, 황해도 권중희(權重熙) 부대, 평안도 방인관(方仁寬) 부대, 함경도 정봉준(鄭鳳俊) 부대와 함께 경기도 의병부대는 허위(許蔚)가 이끌었다. 해산군인 민궁호가 이끄는 강원도 부대와 평민 출신 신돌석의 경상도 부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생 출신 의병장이 이끄는 부대였다. 양주에 집결한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의 총병력은 48진 1만여 명이고, 이중 해산군인 출신은 약 3천명이었다.

허위는 군사장(軍師將)을 맡았고, 연천지역에서 허위 부대와 함께 활약하고 있던 연기우 부대도 허위 산하에 합류했다. 연기우는 경기도 삭녕 출신으로 진위대 강화 분견대 부교(副校)로 있다가 군대 해산 당시 덕물포(德物浦)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같은 진위대 부교인 지홍윤(池弘潤

允)이 갑곶(甲串)에서 일본군 1개 중대를 깨뜨리고 합류하여 덕물포에서 여러 차례 일본군을 격파하였으나, 일본군의 강화성 공격으로 결국 패퇴했다. 다시 의병 60여 명을 모집한 연기우는 동한창의대장(東韓倡義大將)이 되어 연천·적성·삭녕·마전 등지에서 활약했다. 양주, 포천 방면의 강기동(姜基東) 의병부대와 연결하여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을 공격하고, 장단·철원·영평·양주 등에서도 활동했다.

1908년 1월, 13도 연합 의병부대가 서울진공작전을 펼칠 때, 허위는 정병 300명의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하여 전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후속부대와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일본군이 선제적으로 기습 공격을 시작하는 바람에 이에 맞서 사격전을 펼치던 허위 부대는 후원군의 지원이 없어 퇴각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산하 의병장 연기우와 김규식이 부상을 당했다. 게다가 양주에서 부친의 부고를 받은 이인영이 뒷일을 군사장 허위에 부탁하고 고향인 문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결국 13도 연합 의병부대의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낙향한 이인영도 결국 1909년 6월 7일 황간군 금계동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이인영을 대신하여 중책을 맡게 된 허위는 가평 방향으로 물러나 적성군 감악산을 근거지로 군사훈련을 했으나,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13도 연합 의병부대도 해체되었다. 이후 허위는 박종한(朴宗漢)·김수민(金秀敏)·김응두(金應斗)·이은찬(李殷瓚)의 의병부대와 관동창의원수부를 편성했다. 허위가 이끄는 의병연합부대는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황해도에 걸쳐 과감한 대일 항전을 계속했다. 일본에 납부하는 세금이나 미곡의 반출을 정지시키고 군수미로 징발했으며, 일본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친일적인 한인 순사나 헌병 보조원에게 협박장을 보내 경고했다. 하지만 통신 선로를 방해하거나 관공서를 습격하더라도 군율이 엄해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었고, 지역에 군정(軍政)을 실시하면서 모든 군수물자에 대해 군표(軍票)에 해당하는 문서를 발행하고 물품을 조달했다.

허위가 이끄는 의병연합부대는 주로 소규모 게릴라 부대를 편성하여 유격전으로 일본군을 공격했지만, 1908년 2월에는 가평·적성 방면에서 의병 5,000명을 집결시킨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4월에는 보다 전국적인 의병항쟁을 위해 이강년·이인영·유인석·박정빈과 공동 명의로 전국 의병부대에 총궐기를 호소하는 통문을 보내고, 5월에는 30개 조에 달하는 요구 조건을 통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는 헌병대와 삭녕·적성수비대를 총동원하여 임진강 유역 의병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20여일이나 벌였다. 전국적인 항쟁을 준비하고 있던 허위도 6월 11일, 경기도 양평에 잠복하고 있던 중 죽마고우의 밀고로 적성헌병부대 및 철원분견소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

허위는 체포된 후 일본 심문관의 심문에서 국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면

서 의병의 주창자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주장을 펼쳤다. 9월 15일 서울 공소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일본인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본이 마음대로 만든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심문을 거부했다. 하지만 허위는 결국 9월 18일 사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나이 51세였다. 교수형 집행 직전 일본 승려가 명복을 비는 독경을 하려 하자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당연히 하늘로 올라 갈 것이다. 혹 지옥으로 간다 하여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복을 얻는단 말인가?”하고 물리쳤다는 일화가 있다.

허위가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교수형을 당한 배경에는 일제의 사법권 침탈이 있었다. 일제는 1908년 1월 대심원, 공소원과 서울 외 7개 지방재판소, 서울 외 15개 구재판소를 개청하고, 1909년 1월에는 인천 외 7개소 지방재판소 지부와 개성 외 23개 구재판소를 개청했다. 뿐만 아니라 1908년 3월부터 대심원장, 검사총장, 서울 공소원장, 서울 공소원 검사장, 서울 지방재판소장 및 검사장, 서기 6인에 일본인을 용병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일본인 법관을 임명함으로써 경찰권과 함께 통치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기구인 사법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1908년 6월에 체포된 허위에게 사형을 언도한 재판정은 이처럼 일본의 불법적인 사법권 침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1909년 10월에는 대한제국 법부가 아예 폐지되고 그 사무는 신설된 통감부 사법청으로 이관되었다. 칙령 제236호 통감부 재판소령과 제243호 통감부 감옥 관제를 발표한 일제는 통감부 사법청 산하에 고등법원 1개소, 공소원 3개소, 지방재판소 8개소, 동 지부 9개소, 구재판소 80개소를 설치하고 일본인 판사 192명, 검사 57명, 통역관 기타 246명, 총 495명과 한국인 판사 88명, 검사 7명, 기타 215인 총 310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한국인 법관은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한국인일 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담당하게 했다. 특히 적용 법규는 일본제국 법규를 원칙으로 하되,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 법규 및 관습을 적용한다고 했으면서도, 실제로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사람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일본 법규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국민들은 병합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 일본제국주의의 법률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경찰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가 공권력인 사법권을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한국인은 일본 손사에 의해 체포되고 일본인 판사의 재판을 받은 뒤 일본인 간수가 감독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대한제국이 한 나라로 운영되는 데 필수적인 행정권에 이어 감옥과 재판소까지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으니, 사실상 대한제국의 공권력은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허위가 순국한 후에도 그의 직속 부대는 항전을 계속했고, 김수민 부대는 장단 구화장과 풍덕 일대에서, 이은찬 부대는 양주·포천 일대에서 과감한 항전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은찬 역시 정탐활동을 위해 서울에 잠입했다가 1909년 3월,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이은찬

은 강원도 원주 출신 유생으로 군자금을 모을 때도 직접 민에게 요구하지 않고, 각 면 동장들에게 통고하여 징수하게 하고, 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도 기일을 어긴 바 없었다고 한다. 지방민들은 이러한 의병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토벌대의 진압을 막는 보초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은찬이 사형을 당한 후에도 경기도 서북부와 황해도 토산 지방에서는 해산군인과 평민 의병부대인 연기우(延基羽)·강기동(姜基東)·지홍윤(池弘允)·김수민(金秀敏) 의병부대가 항전을 계속했다.

4) 해산군인 연기우 부대와 의병항쟁의 최후

연기우(延基羽)는 경기도 삭녕 출신으로 일찍이 진위대 강화분견대 부교(副校)로 근무했다. 연기우는 민공호(閔肯鎬), 김규식(金奎植)과 함께 대표적인 해산군인 출신 의병장이다. 13도 연합의진의 서울진공작전 실패 후 1908년 허위, 이강년 등 대표적인 양반출신 의병장들이 체포되거나 순국한 후 의병 항쟁은 주로 평민 의병장 중심으로 끈질기게 진행되었는데, 연기우는 경기 북부지역 임진강 유역의 의병항쟁을 이끈 대표적인 평민 의병장이다.

연기우는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진위대 해산 당시 강화도 덕물포(德物浦)에서 기병한 후 연천·마전·삭녕·장단·포천·철원·영평·양주 등지에서 활동했다. 1907년 말에는 허위 의병장 아래 들어가 13도 연합 의병부대의 서울진공작전에 참가했으나, 양주에서 패한 뒤 철원 보개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스스로 창의한북대장(倡義韓北大將)이 된 연기우는 휘하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고양·연천·마전·삭녕·강화·교동 방면에서 활동했다. 1908년 2월에는 5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철원 헌병분견소와 연천수비대의 통신 시설 설치 현장을 습격하여 총검, 실탄 등을 탈취했다.

연기우 부대는 허위가 체포된 후에도 의병항쟁을 계속하면서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 이후까지 항쟁을 벌였다. 1908년 7월, 연기우 부대 200여명이 연천군 동탄에서 삭녕·철원 부근으로 이동했고, 9월에는 마전에서 삭녕수비대와 교전한 후 연천군 서면 옥계리, 마전군 서면 작동리 방면으로 분산 이동했다. 10월에는 연천군 부흥리에 의병 300여명이 모여 연천헌병분견소 습격을 계획했다는 기록도 있다. 연기우 부대는 포천군 청송면 백의리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이장을 헌병 밀정이라고 의심하여 영평군으로 끌고 가 처단하기도 했다. 의병들이 면장이나 촌장이 세금을 거두러 다닐 때 수비대 밀정이라고 여기고 차단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기우, 김수민 부대 등은 연천·장단·마전 등지에서 각 촌에 방곡령을 내리고 미곡 유출을 금지함으로써 이 일대 상업 활동이 일시에 정지될 상태에 이르렀다. 의병부대들이 지역에서 군수미로 미곡을 징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의병장 김인수는 적성창의중앙장 명의로 양주·포천·적성 각 면장에게 일제 통치기구인 재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의병소에 납부하라고 요청하거나,

소작인들이 서울의 지주에게 소작료를 납부하지 말고 의병소에 납부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지원하라는 격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일대의 의병부대들은 연천에서 임진강을 도강하여 철원수비대 헌병과 교전한 후 다시 강을 건너 퇴각하거나, 각 지역의 일본군 수비대 및 경찰서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무장투쟁을 계속했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인 순사나 헌병보조원에게는 <고시순검보조원>이라는 격문을 띄워 경고했다. 연기우는 1908년 12월 1일, 양주·적성의 각 면·동에 의병장 윤인순과 정창희를 비판하는 격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1909년 1월 13일, 연기우는 14명의 의병을 이끌고 평산에서 토벌대와 격전을 치르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토산군에 잠복하여 토산·삭녕 헌병분견대의 토벌을 따돌리고 다시 연천 쪽으로 이동했다.

1909년 2월에는 연기우·하상태 부대가 김천군 수룡산에서 장단군을 근거지로 토산군 외 소면 안동리를 습격하여 세금징수위원을 납치한 후 장단군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은 토산군수 및 주사에게 군량금을 조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기우 부대는 철원군 심원사를 습격하여 일본인과 짜고 인근 주민의 전답과 산림을 강제로 빼앗은 60세 노파를 처단했다. 연기우는 각 군을 돌며 일반 민들을 회유하면서 헌병보조원과 맞닥뜨리면 싸우지 않고 간곡히 설득하여 의병에 투신하게 했다. 일본의 의병부대 토벌이 계속되면서 지역 민심을 획득하는 것이 곧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 되었기에 나온 처사였다고 생각된다. 연기우 부대는 일제의 대토벌 계획을 미리 알고 철원군 보개산 일대로 향하였다.

철원 보개산을 근거로 안협에서 군자금 조달했던 연기우 부대는 3월, 장단군 대남면 수룡산에서 대부대를 해산했다. 일제의 가혹한 토벌에 대응하여 일단 부대원 수를 줄인 후, 부하 50명을 이끌고 이천 쪽으로 이동했다. 그럼에도 일제는 끈질기게 연기우 부대를 추적하여 개성경찰서장 외 일본인 순사와 한인 순사들로 구성된 토벌대가 연기우 부대의 중대장과 참모 등을 체포했다. 일제는 철원·삭녕·이천 등지 각 수비대와 일본 경찰, 한인 순사·헌병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실시했다. 연기우 부대는 토벌을 피해 삭녕군을 통과해서 수비대를 따돌렸으며, 5월 초순 강원도 금강산 부근으로 근거지를 옮겨 회양·통천 등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연기우 부대가 수십 명 단위로 장단·마전·적성 등에서 수비대 및 헌병분견대와 교전한 기록으로 보아, 대부대가 해산한 후 소규모 부대로 나뉘어 게릴라식 전투를 각지에서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1909년 9월 30일, 연기우가 인솔한 의병 10여명은 철원군 공장동의 김원백에게 군복 30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기우가 보병총과 권총을 들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단발총 혹은 화승총을 휴대하고 마포로 만든 다갈색 양복에 학생모를 쓰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삭녕군 쪽으로 이동했는데, 10월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 지점인 광덕산 속에 가옥 5

채를 짓고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이때 화천헌병대와 순사 연합 토벌대가 밤 12시경 근거지에 접근했으나, 연기우 부대는 이미 망원경으로 토벌대 움직임을 정찰하고 있다가 영평군 돌이리 쪽으로 돌아 도리어 오전 7시 30분 경 토벌대를 공략하고 약 1시간 동안 교전했다. 이후 12월에도 연기우 부대는 마전군에서 일본 헌병과 교전하는 등 항전을 계속했다.

1910년 1월에 들어서 연기우 부대 15~6명은 연천군 동면 당후리에서 우편물 호위 헌병과 격돌한 뒤 군내면 부흥리로 물러났다가, 쫓아온 연천군 순사와 헌병을 당후리 산속에서 저격했다. 또한 삭녕에서 토산군 내리를 습격하여 군용 자금을 조달한 뒤 웅천 순사와 헌병 토벌대의 추격을 피해 황해도 안협군으로 퇴각했다. 2~3월중에도 연기우 부대는 마전·연천·삭녕·철원 등 각지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였으므로 일본은 연기우 부대 등을 토벌하려고 철원·지포·영평·포천·연천·토산·적성·마전·개성 각 헌병분견소에서 상등병 1명과 보조원 3명씩을 선발하여 연합토벌대를 구성하기도 했다.

4월말 연기우는 강원도에서 헌병보조원의 동정을 살피다가 체포되었다. 이에 그의 부하 17명이 연기우를 구출하고 오히려 헌병보조원의 무기를 탈취하여 도망했다. 연기우 부대는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항전했지만 8월 22일,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후, 9월 말 연기우 부대의 부장 현학인은 부하들과 함께 자수했다.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상 국내에서 더 이상의 무장투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의 의병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무도해서 연기우 등 의병장들의 집을 불태우고 가족까지 학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1909년 9~10월에 걸쳐 진행된 '남한대토벌작전'이 호남 전역을 초토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지방 임진강 유역에서 활동한 의병부대들도 일제의 철저한 토벌에 의해 점치 궤멸되어 갔다. 1909년 11월 이후 일부 의병 세력이 만주·연해주로 등지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전환되었을 때도 국내에서 항전을 계속한 경기 북부지방 의병부대의 항쟁은 일본 헌병대나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거나 조세 징수를 방해하면서 일제 통치에 항거했다는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Ⅲ. 일제의 식민지배와 민족운동

제 2 권

연 천 의
선 사 시대

고 대 의
연 천

고려시대의
연 천

조선시대의
연 천

근대 시기의
연 천

연 천 의
현 대 사 와
한 국 전 쟁

1. 일제의 지배체제와 지방제도 개편

1) 일제의 지배체제 정비와 연천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통치할 최고 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조선 총독은 일왕에게 조선 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아 행정·사법·입법권과 군 통수권을 모두 아우르는 절대 권력자로, 육군과 해군 대장 출신만 임명되었다. 초대 총독으로는 조선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임명되었다.

조선 총독 아래는 행정을 총괄하는 정무총감과 함께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을 두었다.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이 겸임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군대의 경찰인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며 일반 경찰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운영하였다.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경찰서장은 헌병 위관장교가 겸임하였다. 전국에는 경찰의 경찰서·주재소와 함께 헌병의 분대·분견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군 2개 사단이 조선에 주둔하였다.

1910년대 경기도 관할 구역엔 7개의 경찰서(강화, 개성, 김포, 수원, 안성, 인천, 진위)와 4개의 헌병 분대(개성, 양주, 여주, 용인), 그리고 8개의 헌병 분견소(가평, 광주, 양평, 연천, 이천, 장단, 파주, 포천)가 설치되었다.¹⁶¹⁾ 1918년 현재 전국의 경찰조직(경찰서, 파출소, 주재소, 헌병 분대, 헌병 분견소, 헌병 주재소, 헌병 파출소)의 수는 모두 1,796개였다. 이 가운데 12%인 214개가 경기도에 설치되었다. 이는 다른 도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이었다. 연천에는 헌병 분견소가 설치되었는데, 연천군 내 13개 면을 관할하였다. 연천 헌병 분견소의 산하에는 3개의 헌병 파견소와 4개의 헌병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헌병 경찰은 의병 토벌과 첩보 수집을 자신의 업무로 하였는데, 그 외에도 세금의 징수와 산림 감시, 위생 감독과 민사 소송 조정, 일본어 보급과 우편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조선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또한 범죄 즉결레나 경찰법 처벌 규칙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조선인에게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 1912년에는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이는 조선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된 악법으로, 헌병과 경찰은 즉결 심판을 통해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

중앙 행정의 고위직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차지하였다. 조선인의 정치 참여나 고위직 관리

161) 지금의 서울(당시 경성)도 당시에는 경기도의 관할 구역이었다. 경성에는 4개의 경찰서와 2개의 헌병 분대가 설치되었다. 이하 서울에서는 경성의 경찰조직은 제외한다.

임용은 철저히 배제되었는데, 조선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할 목적으로 설치된 중추원은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다.

일제는 한반도를 일본의 한 지역으로 만들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11년 조선인을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제1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조선 교육령은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에 치중하면서 일본어를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왕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교육이었다. 일제는 그 연장선에서 민족 교육을 담당하던 사립학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여 해산시켰다. 1910년 2천여 개에 이르던 학교는 1919년 700여 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일제는 관리뿐 아니라 교사들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이자 일본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식민지 경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1910년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한 조선총독부는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지세를 공정하게 하고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되고 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농민들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대거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나 일본 등 국외로 이주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8년 임야 조사령을 공포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임야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소유 관계가 불분명했던 공유림과 미신고 사유림이 국유림으로 귀속되었는데, 조선총독부는 농민들의 관습적인 산림 이용권도 제한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 수탈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제반 법령을 공포하였다. 먼저 1910년 12월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였다. 또한 어업령, 삼림령, 조선 광업령 등을 통해 조선의 자원을 독점하였다.

일제는 1910년대 철도망의 확충에 나섰다. 1905년 개통된 경부선과 1906년 개통된 경의선 외에 1914년에는 호남선과 경원선을 개통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X자형의 간선 철도망이 완성되었다. 경성과 원산을 잇는 223.7km의 경원선 가운데 경기도를 지나는 구간은 77.2km인데, 12개의 역이 설치되었다. 연천역은 한수 이북지역의 물류 중심으로 기능하였는데, 1912년 7월 설치되었다. 또한 연천역은 경성과 원산의 중간지점으로 금강산관광의 길목이었던 관계로,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100톤 용량의 급수탑이 설치되었다. 1914년 설치된 15m 높이의 급수탑은 현재도 연천역에 남아 있다.

일제는 또한 도로망의 확충에도 나섰다. 1911년부터 7년 동안 약 2,700km에 달하는 도로

가 건설되었다. 경성에서 의정부, 동두천을 거쳐 평양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연천군을 관통하였다. 일제는 1910년대 전반기 연천 관내의 도로 정비와 치도 사업에 ‘봉사’라는 명목으로 군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철도와 도로는 주요 항만으로 이어져 일제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수탈하고 만주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이용되었다.

2) 지방제도 개편과 연천군

일제는 1910년 9월 30일 도(道)·부(府)·군(郡)·면(面)을 지방제도의 골격으로 규정한 칙령 제357호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어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는데, 면의 지위를 말단 지방행정기구로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의 면(面)이 가졌던 자치적 운영이라는 관행을 부정하고, 일제의 ‘직접 지배의 최일선’ 행정기구로 면을 법제화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공포하고, 1914년 3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행정구역 개편의 명분으로 ‘구역의 지리적 불균등과 세 부담의 불균등 해결’을 내세웠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으로 ‘군은 40방리 인구 10만, 면은 4방리 800호’를 내세워 통폐합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 317개의 군이 220개(이전의 69%)로 통폐합되었다. 면의 경우는 도장관이 도령을 발표한 후 시행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자로 4,336개의 면이 2,522개(이전의 58%)로 통폐합되었다.

경기도의 경우는 36개의 군이 20개(이전의 56%)로 통폐합되었다. 과천군, 교동군, 교하군, 남양군, 마전군, 삭녕군, 안산군, 양성군, 양지군, 양천군, 영평군, 음죽군, 적성군, 죽산군, 통진군, 풍덕군 등 16개 군이 폐지된 것이다. 이들 군을 통폐합하여 가평군, 강화군, 개성군, 고양군, 광주군, 김포군, 부천군, 수원군, 시흥군, 안성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군, 이천군, 장단군, 진위군, 파주군, 포천군 등 20개 군이 설치되었다. 492개의 면도 250개(이전의 51%)로 통폐합되었는데, 통폐합된 경기도의 군과 면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은 연천군의 관할 구역을 크게 변화시켰다. 개편 이전 연천군은 관인면, 군내면, 남면, 동면 등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 연천군은 관인면, 군남면, 군내면, 남면, 동면, 미산면, 백학면, 북면, 서남면, 영근면, 왕징면, 적성면, 중면 등 13개의 면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단순히 면의 수가 증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후 연천군의 행정구역을 정리한 <표 1>은 이 시기 행정구역 개편이 연천군에 미친 변화의 몇 가지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첫째, 개편 후 연천군은 기본적으로 종래 연천군을 중심으로 마전군, 삭녕군, 적성군의 통합을 통해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개편 후 만

들어진 13개의 면 가운데 관인면·군내면·중면은 연천군, 미산면·백학면·왕징면은 마전군, 동면·북면·서남면은 삭녕군, 남면·적성면은 적성군에 각각 기반하고 있다. 군남면은 연천군 남면과 미산군 화진면이 통합된 것이다. 그리고 영근면만 이들 네 개 군이 아닌 양주군 영근면에 기반하고 있다.

둘째, 개편 후 연천군에는 경기도의 양주군, 영평군, 파주군과 강원도의 철원군, 그리고 황해도 장단군, 장연군, 토산군의 일부 지역도 편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다는 점과 함께 ‘군은 40방리 인구 10만, 면은 4방리 800호’라는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과 무관하지 않았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후 연천군으로 묶인 연천군, 마전군, 삭녕군, 적성군은 이전까지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였다. 즉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은 이러한 역사성이나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¹⁶²⁾ 또한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구역의 지리적 불균등과 세 부담의 불균등 해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진행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본질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목적으로 단행한 일제의 인위적인 개편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인위적 개편은 이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1934년 4월 동면과 북면이 삭녕면으로 통합되면서 연천군은 12면 체제가 되었다. 또한 1938년 군내면이 연천면으로 개칭되었고, 1941년에는 영근면이 전곡면으로 개칭되었다. 연천군의 행정구역은 해방 이후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변동을 거쳤는데, <표 1>의 ‘비고’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남면의 수복지역은 현재 왕징면의 관할이 되었고, 삭녕면의 수복지역은 중면의 관할로 변경되었다. 또한 관인면, 남면, 적성면은 현재 각각 포천시, 양주시, 파주시의 관할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162) 1999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연천군을 10여 차례 방문하여 연천에서 태어난 70대 이상의 토박이들을 인터뷰한 연구자는 “연천 관내에서 몇 대에 걸쳐 살아온 토박이들에게는 여전히 ‘연천사람·삭녕사람·마전사람’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連川郡誌編纂委員會 編, 2000, 『連川郡誌』 上, 連川郡誌編纂委員會, 383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역사성과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1〉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후 연천군의 행정구역 비교

	1914년 이전	1914년	비고
연천군	동면 군내면 남면 일부 *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신서리 일부 * 양주군 영근면 명천리 일부	군내면	연천읍
	북면	중면	현재 포천시
	관인면 군내면 일부 * 영평군 북면 월경리 일부	관인면	
	남면	군남면	
화진면			
마전군	군내면 동면 서면 일부	미산면	
	강신면 북면 서면 일부 연천군 서면 * 장단군 대위면 나부리 일부	왕징면	
	장신면 하신면 * 장단군 대위면, 장현매면, 고남면 일부	백학면	
	서면 남면	서남면	일부 수복 / 왕징면
삭녕군 ¹⁶³⁾	동면	동면	일부 수복 / 중면
	군내면 * 황해도 토산군 다치면 외리 일부	북면	
적성군	남면 * 양주군 석적면, 묵은면 일부	남면	현재 양주시
	동면 서면 마전군 군매면 삼화리 * 양주군 영근면 하원리 * 파주군 파평면 천천리 일부 * 황해도 장연군 고남면 장좌리	적성면	현재 파주시
	동면 적암리 일부	영근면	전곡읍
* 양주군 영근면			

※ 비고 : ‘*’은 연천군, 마전군, 삭녕군, 적성군 이외 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163)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7개 면 가운데 내문면, 마장면, 인목면 등 3개 면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편입되었다.

2. 3·1운동과 연천지역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민중들의 삶은 일제의 선전과는 달리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일제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제도와 조치들을 '근대'라는 허울로 강요하였다. 또한 친일정치단체인 일진회조차 해산시킬 정도로 조선인의 정치 및 사회 활동을 규제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은 조선 민중들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켰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종래 약육강식으로 대표되는 사회진화론적 세계관과 그에 의해 합리화되던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침탈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 후 레닌은 식민지·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미국 대통령 윌슨도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에게도 이제 바야흐로 '무력에 의해 좌우되던 시대가 가고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다'는 믿음을 주었다. 피폐한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과 도의(道義)가 이야기되는 '이상'이 기묘하게 뒤엉킨 상황에서 3·1운동이 시작되었다.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급서하였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과 죽음을 둘러싸고 퍼진 독살설은 일제의 압제 아래 폭발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조선 민중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2월 8일에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이 조직한 조선청년독립단은 제국의 수도인 도쿄의 YMCA회관에서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血戰)"을 선언한 2·8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다양하게 준비되던 만세시위는 종교계와 학생계가 단일한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급진전되었다. 지도부는 '일원화'와 함께 '대중화'와 '비폭력'을 만세시위의 원칙으로 정하였다.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당일 북부 지방의 주요 도시인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에서 전개되었다. 이후 만세시위의 열기는 철도와 간선 도로를 따라 인근 도시와 농촌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도시의 만세시위는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거나 지하신문을 발행하고 동맹휴학 등을 이끌었다. 상인들도 철시를 통해 만세시위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농촌의 만세시위는 주로 장날에 장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도시에서 귀향한 학생들과 지방 유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만세시위는 3월말부터 4월초에 정점에 이르렀다. 1919년에만 232개의 부·군 가운데 218개

(전체의 94%)의 부·군에서 약 200만 명의 식민지 조선 민중들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만세시위에는 태극기가 등장하였고 애국가와 운동가들이 불려졌다. 이러한 만세시위는 식민지 조선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만주와 상하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연해주와 시베리아, 미주지역에 이르기까지 조선인 이주민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자 일제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였고, 화성의 제암리 등에서는 학살을 자행하였다. ‘비폭력’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전개되던 초기의 만세시위는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경찰관서나 면사무소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관을 파괴하는 등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4월말까지 전개된 만세시위는 3월 1일부터 9일까지의 개시 국면, 3월 10일부터 27일까지의 파상 국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의 절정 국면, 4월 9일부터의 퇴조 국면으로 구분된다.¹⁶⁴⁾

개시 국면에서는 연일 10곳 이상의 장소에서 1만 명 이상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경기도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가 만세시위의 중심지였다. 만세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일제는 군대를 투입하였다. 파상 국면에서는 만세시위가 고양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 함경남도가 만세시위의 중심이었다. 일제는 전국화한 만세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였다.

절정 국면은 시위의 열기가 폭발한 기간으로, 최정상에 도달했던 4월 1일은 전국에서 56회의 만세시위에 55,000여명이 참여하였다. 만세시위의 중심은 경기도로 전국의 약 30%에 달하였다. 일제는 만세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에서 부대를 추가로 출병시켰다. 퇴조 국면은 일제가 추가로 부대를 출병시키고, 무차별 총격으로 만세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도래하였다. 4월 10일에는 만세시위 횃수가 한자리로 급락하였고, 4월 14일에는 3.1운동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만세시위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시위는 6월 초까지도 간헐적이거나 전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만세시위는 3.1운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전국의 만세시위를 견인하였다. 참여 인원과 시위 횃수 모두 전체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경기도의 만세시위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되었는데, 철도와 간선 도로를 따라 20개 군 전 지역으로 파급되었다. 3월 3일 개성군을 시작으로 7일 시흥군, 10일 양평군, 11일 안성군과 평택군, 13일 강화군, 14일 양주군, 15일 가평군, 16일 수원군, 21일 연천군, 22일 김포군, 23일 고양군, 24일 부천군과 장단군, 26일 광주군과 파주군, 29일 용인군과 포천군, 31일

164) 임경석, 1999, 「31운동과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의 변화 - 만세시위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일제식민통치연구 1: 1905~1919』, 백산서당.

이천군, 그리고 4월 1일 여주군에서 만세시위가 처음 전개되었다.

거족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의 특성상 연천군에서도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연천군에서는 3월 21일 백학면 만세시위와 미산면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4월 10일 관인면 만세시위까지 모두 ‘14건’¹⁶⁵⁾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연천군에서 전개된 14건의 만세시위를 국면 별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만세시위 국면 별 연천군 만세시위 건수

	개시 국면 (3. 1 ~ 3. 9)	파상 국면 (3.10 ~ 3.27)	절정 국면 (3.28 ~ 4. 8)	퇴조 국면 (4. 9 ~)	합
건수	0	5	8	1	14

<표 2>와 연천군의 만세시위 일람을 정리한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천군의 만세시위는 파상 국면 후반에 시작되었다. 3월 21일 2건, 22일 1건, 23일 1건, 27일 1건 등 5건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절정 국면에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월 30일 1건, 31일 2건, 4월 1일 1건, 4일 2건, 5일 1건 등 모두 8건이 이 국면에서 전개되었다. 또한 퇴조 국면에도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4월 10일 관인면 만세시위가 그것이다.

이렇듯 연천군의 만세시위 14건은 대체로 전국적인 만세시위의 양상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연천군의 만세시위는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65) 연천군의 만세시위 건 수에 대해서는 종래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였다. 박은식은 1920년 출간한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서 연천군의 만세시위를 ‘3건’으로 기술하였다(박은식 지음·김도형 옮김, 2008,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192쪽). 이에 대해 1968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한국독립운동사』 제2권의 「경기도 운동 일람」을 기본으로 제반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군별 운동 일지’를 정리한 이지원은 연천군의 만세시위가 ‘13건’임을 밝혔다(이지원, 1989, 「경기도 지방의 3·1운동」,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313~316쪽). 이 가운데는 참여 인원이 ‘불명’인 ‘4건’의 만세시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1995년 편찬한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를 통해 이지원의 연구에 3월 31일 적성면 만세시위까지 모두 ‘14건’의 만세시위가 있었음을 밝혔다(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1995,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500~503쪽). 이 경우도 참여 인원이 ‘불명’인 ‘4건’의 만세시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2006년 편찬한 『경기도사』 7권에서는 ‘5건’의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서술하였다(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2006, 『경기도사』 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59쪽).

최근 박환과 최재성의 연구(박환·최재성, 2019,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경기문화재단)는 이지원의 연구를 따르고 있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천군의 만세시위만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만세시위를 통계화한 자료를 다른 자료들과 교차 검토한 결과이다.

본고의 ‘14건’ 가운데 3월 23일 미산면 만세시위, 3월 31일 왕징면 만세시위와 장파리 만세시위, 4월 4일과 5일 북면 만세시위 등 ‘5건’은 종래 통계에서 언급되지 않은 만세시위를 새롭게 밝힌 것이다.

1) 3월 21일 백학면 만세시위와 미산면 만세시위

연천군의 첫 번째 만세시위는 3월 21일 백학면(白鶴面) 두일리(斗日里)의 두일시장에서 일어났다. 그 날은 백학면의 면 소재지인 두일리의 장날이었다. 만세시위는 늦은 6시경 미산면(岬山面) 석장리(石墻里)에 사는 농민 조우식(趙愚植)의 주동으로 시작되었다. 조우식이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이에 적극 호응한 구금룡(具今龍)·김문유(金文裕)·김복동(金復東)·이낙주(李洛周)·정현수(鄭賢秀)·한상혁(韓相赫)·홍순겸(洪淳謙) 등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이들은 이경천(李景天)의 집에 숨어 있던 백학면 면장 윤규영(尹圭榮)을 찾아내어 함께 만세를 부르도록 하였다. 또한 정현수는 인근 집들을 돌면서 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고, 구금룡은 소방용 경종(警鍾)을 울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였다.

늦은 6시 30분경 100여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조우식과 정현수의 지도 아래 두일리에 있던 백학면사무소로 행진하였다. 면사무소에 도착한 시위대는 면 서기인 정기만(鄭基萬) 등에게 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면 직원들은 불응하였고, 이에 시위대는 면사무소에 투석하여 유리창과 문을 부수었다. 시위대는 조우식과 정현수의 지도 아래 제지하는 헌병들을 뚫고, 늦은 7시 30분경 미산면 마전리(麻田里)의 문묘(文廟) 앞에 집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산면의 시위대가 합류하면서 시위대는 200여명으로 늘어났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시위대는 마전리의 마전헌병주재소로 행진하였고, 새벽까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같은 날 미산면 통구리(通口里)에 사는 농민 백천기(白天基)의 주도로 동리 사람 60여명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백천기의 지도 아래 백학면 시위대가 모여 있던 미산면 마전리의 문묘로 이동하여 합류하였다. 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함께 마전리의 마전헌병주재소로 행진하여 22일 새벽까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날 만세시위 과정에서 주도자인 조우식과 구금룡·김문유·김복동·백천기·이낙주·정현수·한상혁·홍순겸 등이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주도자인 조우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인사들은 징역 8월부터 2년까지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조우식만 징역 3년으로 변경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같은 해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3월 21일 일어난 백학면 두일리 두일시장 만세시위와 미산면 만세시위의 주도자 가운데 10명에게 애족장(구금룡·김복동·이낙주·정현수·조우식·한상혁·홍순겸, 이상 7명)·건국포장(김문유·박영학)·대통령표창(백천기)을 추서하였다. 이는 연천군 만세시위 참여자 중 서훈자를 정리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운동과 관련하여 서훈된 14명 가운데 71%에 이르는 것이다.

〈표 3〉 연천군 만세시위 일람

시위국면	시위일시	만세시위 장소	참여인원	주도자
파상국면	3.21	백학면 두일리 두일시장, 면사무소 미산면 마전리 문묘, 마전헌병주재소	200	조우식, 정현수
		미산면 마전리 문묘, 마전헌병주재소	60	백천기
	3.22	미산면 마전리 면사무소, 마전헌병주재소	300	
	3.23	미산면 마전리 마전헌병주재소	500	
	3.27	남면 입암리	500	
절정국면	3.30	왕징면 강내리, 고왕리	300	
	3.31	왕징면 고왕리	200	
		적성면 장파리 안동	20	한은동
	4. 1	적성면 객현리	300	
		중면 삼꽃리	400	나용기, 이홍식
	4. 4	북면 삭녕리 면사무소	20	
		서남면	600	
4. 5	북면 삭녕리	600		
퇴조국면	4.10	관인면 사정리 신촌동 다랑고개, 남창동	600	조아당, 박용길

〈표 4〉 연천군 만세시위 참여자 중 서훈자 리스트

만세시위	이름	출생년	직업	주소	형량	훈격
백학면 두일리 (3. 21)	구금룡	1896	날품팔이	백학면 두일리	1년 6월	애족장(1995)
	김문유	1894	날품팔이	백학면 두일리	1년 6월	건국포장(2013)
	김복동	1889	음식점 영업	백학면 두일리	1년	애족장(2016)
	박영학	1876	음식점 겸 잡 화상	백학면 백령리	2년	건국포장(2021)
	이낙주	1896	농업	미산면 석장리	1년 6월	애족장(1990)
	정현수	1899	농업	왕징면 동중리	2년	애족장(1990)
	조우식	1874	농업	미산면 석장리	3년	애족장(2011)
	한상혁	1877	농업	미산면 석장리	1년 6월	애족장(2011)
	홍순겸	1892	농업	백학면 두일리	1년 6월	애족장(1990)
미산면 마전리 (3.21)	백천기	1880	농업	미산면 통구리	8월	대통령표창(1992)
?	정도현	1878	농업	적성면 식현리		대통령표창(2014)
적성면 장파리 (3.31)	한은동	1897	농업	적성면 장파리	6월	대통령표창(2014)
중면 삼꽃리 (4. 1)	나용기	1889	농업	중면 적거리	2년	애족장(1990)
	이홍식	1886	서당 교사	중면 적거리	台90度	대통령표창(2002)

2) 3월 22일과 23일 미산면 만세시위

미산면에서는 3월 22일 오후에도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는 당일 새벽까지 이어졌던 만세시위와의 연관이 있었다. 300여명의 시위대가 미산면의 면 소재지인 마전리의 면사무소와 마전헌병주재소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에 헌병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기록에 따라 사망자 수는 1명 또는 3명)가 발생하였다. 이 날 만세시위는 늦은 4시경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자 22명이 일제에게 체포되었다. 3월 23일에도 500여명의 시위대가 마전리 마전헌병주재소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3월 22일과 23일의 미산면 만세시위는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다.

3) 3월 27일 남면 입암리 만세시위

3월 27일 남면(南面) 입암리(笠岩里)에서 500여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4) 3월 30일과 31일 왕징면 만세시위

3월 30일에는 왕징면(旺澄面) 강내리(江內里) 주민 300여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면 소재지이자 고왕헌병주재소가 있던 고왕리(高旺里)로 행진하였다. 고왕리에 있던 왕징면 면장의 집으로 몰려가던 시위대를 향해 헌병들이 발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3월 31일에도 200여명의 시위대가 왕징면 고왕리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3월 30일과 31일의 왕징면 만세시위는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다.

5) 3월 31일 적성면 만세시위

적성면(積城面) 장파리(長坡里) 농민 한은동(韓殷東)은 3월 29일 밤 마을 장파리 구장 유병성(柳秉性)의 방에서 그와 그의 아우 유병익(柳秉翼), 우춘산(禹春山) 등에게 “다른 마을에서는 왕성하게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3월 31일 20여명의 주민과 함께 장파리 안동(安洞)의 뒷산에 올라가 화톳불을 피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체포된 한은동은 1919년 6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6) 4월 1일 적성면 만세시위

4월 1일 적성면 객현리(客峴里) 주민 300여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7) 4월 1일 중면 만세시위

중면(中面) 적거리(赤巨里)의 농민 나용기(羅龍基)는 3월 31일 자기 집에서 마을의 서당 교사인 이홍식(李洪植)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 4월 1일 아침 7시경 세양골로 모이라'는 내용의 격문을 부탁하였다. 나용기는 이홍식이 작성한 문서 6통을 한씨동(韓氏童)·나개똥(羅開童) 등을 통해 중면의 6개 마을인 마거리(馬巨里), 삼곶리(三串里), 적거리(赤巨里), 중사리(中沙里), 합수리(合水里), 횡산리(橫山里)의 구장들에게 전달하였다.

예정된 4월 1일 아침 7시경 중면 삼곶리에 주민 400여명이 집결하였다. 이에 나용기는 선두에 서서 옥양목으로 만든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대를 이끌었다. 시위대는 군내면(郡內面) 차탄리(車灘里)로 향하였다. 그 과정에서 헌병과 대치한 시위대는 나용기를 포함한 100여명이 체포되면서 해산하였다. 이후 다시 집결한 400여명의 시위대는 100명의 시위대가 구금되어 있던 삼곶헌병주재소로 몰려갔다. 그리고 구금된 시위대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헌병들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다.

1919년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주도자인 나용기는 징역 2년, 이홍식은 태(台) 90도(度)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같은 해 6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에 주도자인 나용기에게 애족장을 추서하였고, 2002년에는 이홍식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8) 4월 4일 북면 만세시위와 서남면 만세시위

4월 4일 정오 삭녕리(朔寧里) 소재 북면(北面) 면사무소 앞에 20여명의 시위대가 집결하였다. 시위대가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출동한 헌병들은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 가운데 8명이 체포되었다.

같은 날 늦은 2시경 600여명의 시위대가 서남면(西南面)에 집결하였다. 시위대는 서남면 면장에게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만세시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9) 4월 5일 북면 만세시위

4월 5일 늦은 6시경 북면의 면사무소 소재지인 삭녕리에 동면(東面)과 서남면의 주민 600

여명이 집결하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시위를 전개하면서 헌병을 공격하였다. 그 과정에서 헌병들이 시위대에게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0) 4월 10일 관인면 만세시위

관인면(官仁面) 삼울리(三栗里)의 남감리파 기독교인인 조아당(趙亞堂)은 4월 1일 나용기가 주도한 중면 만세시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이였다. 4월 8일 관인면의 박용길(朴龍吉)의 집을 방문한 조아당은 관인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금 조선 전도(全道)에서 학생과 일반 민중이 독립을 부르짖고, 각지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 동리도 여기에 찬동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하려 하니, 4월 10일 다랑고개에 집합하자. 그러면 그곳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하겠다. 만일 이날 집합하지 않으면 후일 큰 화를 당하리라.”라는 내용의 격문을 작성하였다. 격문은 박용길이 관인면 관내인 냉정리(冷井里), 부곡리(釜谷里), 사정리(射亭里), 삼울리, 중리(中里), 초과리(初果里), 탄동리(炭洞里)의 구장들에게 발송하였다.

4월 10일 사정리 신촌동(新村洞) 다랑고개에 600여명의 주민들이 집결하였다. 조아당은 미리 만들어 둔 태극기 2개를 휘드르며 선두에서 시위대를 지도하였다. 시위대는 다랑고개를 출발하여 사정리 신촌동과 남창동(南倉洞)을 돌려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대는 헌병들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연천군에서는 3월 21일 백학면 만세시위와 미산면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4월 10일 관인면 만세시위까지 모두 ‘14건’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는 경기북부 지역의 만세시위 횟수로 보면 상위권에 드는 것이다.¹⁶⁶⁾ 또한 13개의 면 가운데 관인면, 남면, 미산면, 백학면, 북면, 서남면, 왕징면, 적성면, 중면 등 9개의 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연천군의 만세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역사성과 생활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21일 백학면의 면 소재지인 두일리 두일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이들은 모두 백학면(구금룡·김문유·김복동·박영학·홍순겸), 미산면(이낙주·조우식·한상혁), 왕징면(정현수) 출신이었다.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은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모두 마전군이었던 공통점이 있다. 또한 3월 21일 각각 만세시위를 전개하던 미산면 시위대와

166) 경기북부 지역의 만세시위 횟수는 다음과 같다. 고양군 21회, 개성군 14회, ‘연천군13회’, 양주군 13회, 장단군 9회, 파주군 9회, 포천군 7회, 가평군 3회. 연천군의 만세시위 횟수는 필자가 ‘14건’으로 확인했지만, 경기도의 군별 운동 일지를 정리한 이지원의 연구를 이용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다른 군과 비교하였다(이지원, 1989, 『경기도 지방의 3·1운동』,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313~316쪽).

백학면 시위대가 자연스럽게 합세하여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한 것도 이들이 모두 마전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4월 5일 동면과 서남면의 시위대가 북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것도 같은 예인데, 동면과 서남면 그리고 북면은 모두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삭녕군이였다.

이렇듯 만세시위는 행정구역 개편 이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이 역사성과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목적으로 단행한 인위적인 개편이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겠다.

3·1운동은 이념과 계급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개된 전 민족적 항일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운동으로, 이후 전개된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와 베트남 등 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반제국주의운동에 선행한 운동이었다.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통해 통일적 지도부의 필요성과 공화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움직임은 공화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토대가 되었다. 만세시위에 참여한 노동자와 농민들은 이후 대중운동을 통해 민족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확산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들에게도 3·1운동은 무장투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연천지역의 사회운동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을 거치면서 식민지 조선에 사회주의사상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수용된 사회주의사상은 맑스주의뿐만 아니라 페이비어니즘, 기독교사회주의, 길드사회주의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조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을 거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사회주의운동의 지도이념은 맑스주의가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열린 공간’이 생겨나자, ‘서울공산단체’, ‘조선공산당(중립당)’, ‘마르크스주의 크루조크’, 사회혁명당 등 몇 개의 공산주의그룹이 비밀결사의 형태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대중운동단체의 조직과 함께 맑스주의의 선전에 주력하였는데, 맑스주의를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해방의 이데올로기’로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열린 공간’이 생기자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력양성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육의 보급을 통한 인재 양성과 민족 자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민립

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으로 가시화되었다.

1) 청년운동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조직된 사회운동 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청년운동 단체였다. 이러한 청년운동 단체는 청년의 수양과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지역의 유지와 종교계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연천군의 청년운동도 비슷한 경로로 전개되었다. 처음으로 확인되는 청년운동 단체는 이산청년회(梨山靑年會)이다. 1921년 9월 17일 미산면 동이리(東梨里)에서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이산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집행부는 회장 김형식(金滢植), 부회장 김능연(金能演), 총무 김호식(金浩植), 서무부장 김태혁(金泰爨), 재무부장 김태정(金泰程), 권업부장 이근화(李根和), 학예부장 김영연(金永演), 종교부장 김대식(金大植)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야학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21년 4월 이전에 기독교 감리파의 청년운동 조직인 연천엠패청년회가 조직되었다. 4월 현재 집행부는 회장 최창호(崔昌昊), 부회장 박금산(朴金山), 총무 황영수(黃永洙), 서기 겸 재무부장 부경돈(夫敬敦), 부서기 김대식(金大植), 교육부장 이상의(李湘儀), 종교부장 이경안(李敬安), 운동부장 권용현(權龍賢), 사교부장 최덕환(崔德煥), 자선부장 노병준(盧炳準)으로 구성되었다.

연천엠패청년회는 감리파의 주요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들었다. 그 해 4월 20일과 6월 20일에 각각 윤치호(尹致昊)와 박희도(朴熙道)가 강연하였다. 또한 박금산, 황영수, 부경돈, 노병준으로 전도강연대를 조직하고,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연천군의 10개 면에서 순회 강연을 실시하였다. 1923년 8월 18일에는 “우리의 생활을 향상함에는 지식이나 금전이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천엠패청년회는 이 시기 연천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청년운동 단체이다.

면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청년운동 단체들이 군 단위 조직을 결성하는 가운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혼재된 가운데 전개되던 청년운동은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한 청년들의 영향으로 점차 변모되었다. 또한 서울청년회와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이 중심이 되어 전국 단위의 청년운동단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1924년 250여 개 단체를 포괄하는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이 결성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래 청년운동은 기본적으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지도를 받았다. 1927년 조선청년총동맹은 ‘신운동 방침’을 통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의 협동전선 결성과 군 단위의 청년동맹 조직을 주장하였다.

연천군에서 군 단위 청년회가 조직된 것은 1925년 8월 17일이다. 그러나 이후 활동에 대한 기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2) 노동·농민운동

1920년대 조선인 노동자들은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면서도 일본인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 조건과 민족 차별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1921년 5,000여 명이 참가한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이나 1923년 평양에서 발생한 양말 직공 파업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조선의 농민들은 빠르게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더욱이 고율의 소작료와 빈번한 소작권 이동 등은 농민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농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1922년 24건이던 소작쟁의는 1923년 176건으로 급증하였는데, 특히 1923년 전남 무안군 암태도에서 발생한 암태도소작쟁의는 대지주와 일제에 대항하여 승리를 쟁취한 대표적 사례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고무되어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농운동 단체가 전국적으로 출현하였다. 1920년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가 출범한 이래, 1924년 전국 260여 개 노동운동단체를 포괄하는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이 조직되었다. 조선노동총동맹은 신사회의 건설과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을 강령으로 내걸었다.

조선노동총동맹은 노동운동의 발전에 따라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과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으로 분리되었다. 조선노동총동맹이 조직되자 파업 투쟁의 규모와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종래의 경제투쟁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또한 조선농민총동맹의 조직과 함께 농민운동은 종래 소작인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에서 농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조합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종래 지주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에서 벗어나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연천군에서 전개된 대표적인 동맹파업은 마쓰우라제사공장(松浦製絲工場) 동맹파업이다. 1930년 4월 10일 군내면(郡內面) 차탄리(車灘里) 소재 마쓰우라제사공장의 노동자 50여명은 임금 체불에 항의하여 동맹파업을 전개하였다. 4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파업은 일제 경찰의 탄압으로 당일 실패하였다. 이에 회사 측은 파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6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 4.29.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 5.22.

「판결문(大正8年 刑控 第322號)」, 경성복심법원, 1919. 6.23.

「판결문(大正8年 刑控 第547·548·681號)」, 경성복심법원, 1919. 7. 7.

「판결문(大正8年 刑控 第234號)」, 경성복심법원, 1919. 6.29.

「판결문(大正8年 刑控 第706號)」, 경성복심법원, 1919. 7.22.

「판결문(大正8年 刑上 第711·712·713號)」, 고등법원, 1919. 9.18.

「판결문(大正8年 刑上 第887號)」, 고등법원, 1919.10.18.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1995,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2006, 『경기도사』 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국사편찬위원회, 1987, 『한민족독립운동사 1-국권수호운동 1』

金順德, 1992, 「京畿地方 義兵의 組織과 活動(1907~1911년)」, 『역사연구』 1

김순덕, 2003, 「경기의병의 현실인식과 지향」, 『역사연구』 13

김영찬, 2015, 「대한제국 해산군 간부들의 정미의병활동에 대한 고찰」, 『軍史研究』 139

김익한, 1999, 「일제의 초기 식민통치와 사회구조변화」, 『일제식민통치연구 1: 1905~1919』, 백산서당

김인순, 1983, 「조선에 있어서 1894년 내정개혁의 연구」, 『갑신갑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족운동』, 청아출판사

김정인·이정은, 2009, 『국내 3·1운동 I - 중부·북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金鎮植, 1975, 「1907~1910年 京畿地方 義兵抗爭의 性格」, 『畿甸文化研究』 6

김희곤 외, 2005, 『왕산 허위의 나라사랑과 의병전쟁』, 안동대박물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70, 『독립운동사』 2(3·1운동사 상), 고려서림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73, 『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사재판기록), 고려서림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1971, 『한국독립운동사』 1·2·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자료집』 2

박경룡, 1995, 『개항기 한성부 연구』, 일지사

박은식 지음·김도형 옮김, 2008,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박종린 외, 2011,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5, 웅진지식하우스

박환·최재성, 2019,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경기문화재단

연 천 의
선 사 시 대

고 대 의
연 천

고려시대의
연 천

조선시대의
연 천

근대 시기의
연 천

연 천 의
현 대 사 와
한 국 전 쟁

- 서영희, 1990,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 23
- 서영희, 1991, 「개항기 봉건적 국가재정의 위기와 민중수탈의 강화」, 『1894년 농민전쟁 연구』1, 역사비평사
- 서영희, 1999, 「대한제국의 종말」, 『신편 한국사』 42, 국사편찬위원회
- 서영희, 2012, 『일제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 역사비평사
- 連川郡誌編纂委員會 編, 2000, 『連川郡誌』 上, 連川郡誌編纂委員會
- 오영섭, 2007,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출판사
- 왕현중, 2003,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 越智唯七 編,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洞里名稱一覽』, 中央市場
- 유정현, 1992, 「1894-1904년 지방재정제도의 개혁과 이서충 동향」, 『진단학보』 73
- 윤정애, 1985, 「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역사학보』 105
- 이광린, 1981, 『한국사강좌V 근대편』, 일조각
- 이상찬, 1986, 「1906-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논의」, 『한국학보』 42
- 이상찬, 1989, 「1894-5년 지방제도 개혁의 방향-향회의 법제화 시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7
- 이영호, 1993, 「갑오개혁 이후 지방사회의 개편과 城津民擾」, 『국사관논총』 41
- 임경석, 1999, 「31운동과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의 변화 - 만세시위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일제식민통치연구 1: 1905~1919』, 백산서당
-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1989,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 홍영기, 2009, 『한말후기의병』,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제 6 장

연천의 현대사와 한국전쟁

I. 연천지역 38도선 분단과 미소군의 진주

II. 전쟁의 발발과 연천지역 초기전투

III. 1·4 후퇴 이후 연천지역 작전

IV. 휴전회담과 연천지역 상황

집필

양영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해방 직후 연천군은 대부분 지역이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소군정이 실시되었고, 고랑포, 전곡, 초성리 등 일부 지역이 그 이남에 위치하여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38선 접경지역에 경비 초소가 세워지면서 미소군, 남북간의 갈등이 전쟁 발발까지 지속되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직후부터 연천군에 군사작전을 위한 토목사업을 전개하였고, 그 이듬해 전쟁 준비가 완료되자 북한군 제4사단을 배치하여 남침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고랑포, 노곡, 학곡, 구미리, 초성리, 대전리 등 지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북한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많은 피난민이 남쪽으로 이어졌다.

그 후 아군의 반격으로 전쟁 이전의 현상을 회복하여 국군 제8사단이 초성리-전곡으로 진출하고, 제1사단이 고랑포, 무등리로 진출하였고, 이어 북한의 대부분 지역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북진하던 아군이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 38선까지 철수하게 되면서 다시 연천군은 중국군이 점령하였다.

1951년 2월 아군의 반격으로 38선 일대를 회복하였으나, 중국군의 4월 공세에 직면하여 아군은 고랑포, 임진강 중성산-설마리 그리고 금굴산, 전곡 장승천 일대, 울동 부근에서 중국군과 혈전을 전개하였다.

아군은 휴전회담의 개막으로 연천지역을 고수하기 위해 불모고지, 티본고지, 폭참고지 등에서 많은 고지전을 전개하였고, 코만도작전, 카운터작전 등을 전개하여 자작리~기곡리~고잔리~중사리~신현리~덕산리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연천지역에서는 중국군의 최후 공세로 마지막까지 고지전이 전개되었고, 휴전 당시 아군은 연천군 장남면, 백학면, 왕징면, 중면, 신서면 등 대부분 지역을 수복하였다. 연천군은 특히 양측의 공방이 거듭되고 고지전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으며, 휴전 이후에도 주로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6·25전쟁 전후 연천군의 상황을 4개 절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제1절에서는 연천지역 미소군의 진주와 군정, 그리고 38선상의 갈등을 다루었고, 제2절에서는 연천지역에서 북한의 전쟁 준비와 남침 상황, 그리고 반격작전을 정리하였다. 제3절에서는 1·4 후퇴 이후 연천지역 상황, 마지막 제4절에서는 연천지역 고지전 상황과 휴전 이후 상황을 기술하였다.

I. 연천지역 38도선 분단과 미소군의 진주

1. 해방과 미소군의 진주

1) 미소군의 진주와 38도선 분단

소련군의 남하, 38선의 획정 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천황의 전국 방송말을 통하여 항복 성명이 발표되었다. 소련군은 북한지역으로 남진을 계속하여 그 선두부대가 8월 25일경에는 38선 북쪽 접경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연천군은 해방 직후 백학면, 장남면, 전곡면, 청산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소련군은 8월 20일 전후하여 해주로 진출하고 재령, 안악, 장연에 각각 진주하였으며, 연천지역을 포함 9월 중순까지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다(양영조 2000 : 50).

뿐만 아니라 소련군은 미군이 남한에 배치되기 전에 이미 38선 이남 지역까지 내려와 주둔한 곳도 있었다. 소련군은 개성 지역에 주둔하다가 미군이 개성에 진주하기 몇 시간 직전인 9월 10일 새벽 4시 30분에 38선 북쪽으로 물러났고, 연천 지역에 8월 25일경 접경지로 진출한 후 동두천까지 점령하였다가 9월 4일 초성리를 거쳐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미·소군이 처음 대치할 무렵 38선 부근에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10여 개를 중심으로 초소와 차단막이 설치되었고, 소군 초소 중에는 심지어 38선 이남 지역에 위치한 것도 있었다.¹⁶⁷⁾

한편 남한 점령을 담당한 미군 주력부대는 소련군이 상륙한 지 22일 만인 9월 4일 선발대를 투입하고 제24군단 휘하의 전투부대인 제7보병사단(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 개성, 파주, 연천, 동두천을 포함 38도선 일대와 경기, 충청)을 진출시켰다. 미 제7사단은 전 병력을 서울로 이동시켜 신속하게 점령지역을 경기지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성, 고랑포, 전곡, 초성리 등 38선 접경지까지의 지역으로 점령을 확대하였다(양영조 2000 : 58).

2) 연천지역 군정 실시

미소군이 진출할 당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38선 이남 지역에, 황해도 대부분은 이북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경기도에서도 연천군 대부분 지역과 가평, 포천, 파주, 장단, 개성, 개풍

167) <배천으로부터 초인스키 보고>(1946.5.14), Records of the HUSAFIK, Report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38th Parallel, vol.2, 1945-1950, SN.1718(SN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p.289.

등 일부 지역이 38선 이북에, 황해도 연백, 웅진군의 대부분은 이남에 각각 소재하고 있었다.

미소 군정은 군정법령을 근거로 38선을 경계로 한 경기도, 황해도의 행정구역을 새로 조정하여 38선 이남 각 면, 읍, 리를 개편하였다. 연천군은 고랑포, 전곡, 초성리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빠지게 되고, 38선 이남에 위치한 황해도 연백군, 웅진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행정구역 단절로 인해 화폐 문제와 농업용수 문제, 토지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38선 분할점령은 남북한 경계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단선으로 변질되어 갔다. 고랑포, 노곡, 학곡, 초성리, 대전리, 구미리 등 38선 접경지에 군경 초소가 세워져 남북 간의 왕래가 차단되었다.

38선 획정과 미·소군의 남북한 진주는 한반도의 산과 평야, 농촌과 도시, 통신과 수송망들을 일시에 분할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보다 공업화된 북한지역과 농업이 압도적인 남한지역을 분리시켰다. 소련군은 해방 직후부터 열차 운행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한편 은행, 우편국을 산발적으로 폐쇄하였다. 소련군사령부는 미군사령부가 석탄과 교환할 목적으로 북한에 식량 열차를 보냈을 때 석탄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량을 신고 간 열차를 억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련군은 군정 기구를 갖추어 나가면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실시하는 한편 남북을 왕래하는 통행인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고 교통·통신을 폐쇄하였다. 이렇게 장벽을 친 소련군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 인민위원회 등 자치 조직을 개편했다(군편 2004 : 21).

연천지역에는 해방 직후부터 청년단체 등 다수의 자생적인 자치 단체가 결성되는가 하면, 국내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먼저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결성되어 정부 수립에 대비하였으며, 각 면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자생적으로 조직된 자치위원회가 행정공백 상태를 메우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연천군 인민위원회는 현장 조사업무와 각종 집회 관련 업무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서는 군면리 단위로 크고 작은 대중집회가 매일 개최되었으며, 주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반혁명세력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연천군 인민위원회는 사상교육과 함께 세금징수 및 호적조사 작업도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당에서 직접 지시한 일을 최우선으로 수행하였다(강집갑 2000 : 405).

이들은 소련군이 진주한 이후에도 외관상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군정 당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민위원회 조직은 민족진영 세력이 점차 배제되면서 주로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갔다. 연천군의 자치위원

회도 개편되었고 민족주의 계열의 위원장인 박성철도 교체되었다(강진갑 2000 : 404). 이렇듯 소련군은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각종 자치 조직을 공산주의 위주로 정비해 나갔다.

소련 군정은 연천지역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을 일반 대중에게 심어주려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북한의 공산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포섭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여기서 소련 군정에 협조하는 동조자는 포섭하고, 비협조자는 구금하거나 숙청하였다(군편 2004 : 24).

한편 38선 부근에서는 남북한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천지역 상인들은 주로 38선 접경지역인 양문리 시장에서 남한 상인과 물물 교환하였다. 연천 상인들은 남한상인들과의 교역을 통해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는 편이었다. 양문리 시장에서는 연천 상인들이 가지고 온 북어, 고등어 등 해산물과 남한 상인들이 가지고 온 의약품, 고무신, 비누, 라이터 등 생필품이 물물 교환되었다. 연천 상인들은 주로 원산과 안변 등지의 상인들이 가져온 것을 받아 남한 상인들과 교역하였다. 당시 연천에서는 남북교역 시장에서 제때 교환되지 못한 해산물이 넘쳐나 이를 비료로 사용할 정도로 경기도 좋은 편이었다(강진갑 2000 : 407).

2. 정부수립 전후 38선상의 갈등

38선 분할선은 미·소군이 진주하였을 때부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미·소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직후 38선의 경계는 행정적인 도계와 군계 등 행정적인 지역을 고려하여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지도상의 38선으로 구분하여 중립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미소 군정간에는 이미 38선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는데, 열차 운행에 관한 문제, 남북 간 우편 문제, 미군의 용진으로의 육로 이용에 관한 문제, 접경지에 위치한 동산 및 부동산 소유권 문제, 민간인 접경지 월경 금지 문제, 관개수로의 이용 문제, 일본인 월남문제 등이었다.¹⁶⁸⁾ 연천주민인 김평환에 의하면, 연천군이 38선 분할되어 연천군이 소련군 점령하에 들게 되자 월남하였으며, 자신의 소중한 유물들을 소련군의 통제로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고 했다.¹⁶⁹⁾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문제는 이 시점부터 미소군에 의한 38선 월경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직 38선 접경지에 확실한 표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었

168)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4.27), 위의 자료, p.209.

169) 「보성대학 박물관 김평환이 러치소장에게」(1946.4.7), 위의 자료, pp.191-192.

지만, 소련군이 의도적으로 38선 이남 지역에까지 내려와 부대를 배치한 데 연유하는 것이었다. 10월 시점 미군정이 38선 일대의 경비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 경찰병력을 투입할 무렵, 소련군과 북한경비대의 월경사건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충돌의 강도도 점차 격화되고 있었다. 소련군은 38경계 및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38선 경계선으로 소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 예로 소련군에 의하면, 해주에서 멀지 않은 38선 북쪽 지역에, 일단의 한국인이 소련군 검문소를 공격하였으며 그중에는 미군도 있었고, 양측의 사격전으로 소군이 1명이 부상 당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미 제7사단이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¹⁷⁰⁾ 즉, 어제 오후 경계선 부근의 미군은 한국인으로부터 소군이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미군은 미군 2명과 한국 경찰 6명을 트럭으로 38선 이남 1km 지점인 현장으로 보내었으며,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군이 트럭을 탈취하려 하여 한국 경찰이 공포 사격을 가함으로써 소군이 북으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미군은 소군측에 38선 경계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소군의 답변은 보류되었다.

1946년 12월 30일 소련 군정은 기존의 방침을 갑자기 수정하여 38선 공동조사단 편성에 합의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최종 38선 공동조사가 완료되어 1947년 5월 10일 38선 공동조사단의 최종결과보고서가 정리되었다. 즉, “조사단은 83개의 표지판을 교체하였다. 가옥은 38선 북쪽에 소재해 있어도 이전의 소유자에게 소속한다. 거주지가 다르지만 소유권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농사와 수확을 허용한다는 것” 등이었다.¹⁷¹⁾

한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38선 접경지에서는 약탈·납치·보복 등 이질적 체제에서 오는 대항 의식과 경쟁심·적대감이 가열되고 있었다. 주한미군 정보 보고에 의하면, 38선 일부 지역에서 남·북한간의 총격전이 발생하고 있었다.

1949년 7월 하순 38선 지역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전쟁 발발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양영조 2000 : 207). 1950년 1월 이후 옹진·개성을 비롯한 38선 접경지에서는 큰 전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규모 충돌과 포격이 일상의 일처럼 이어졌다. 이러한 전투는 전쟁 발발 바로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 양상은 인명 손실이 없는 단순한 총격전과 포격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170) 「미제7사단 사령부의 38선부근 사건보고」(1946.4.23), 위의 자료, p.223.

171) 「미소군 38선 공동조사단 최종 동의서」(1947.5.10), 위의 자료, pp.203-219.

II. 전쟁의 발발과 연천지역 초기전투

1. 38도선 방어선 전투

1) 연천지역 북한군의 전쟁 준비와 공격부대 배치

북한군 1949년 초부터 38선 접경지에서 군사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군사작전용 토목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병력과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도로와 교량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였다. 38선 부근의 도로와 교량수리는 1950년 봄까지 진행되었으며, 임진강과 한탄강 부근 그리고 연천 등지에서 토목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연천에는 한탄교가 신축되었는데, 이 공사는 1949년 3월부터 1950년 6월 1일 완성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관인면의 신천에도 신천교가 건설되었다(강진갑 2000 : 409). 연천역에는 철로 플랫폼의 높이를 무개열차 높이에 맞추어 보강공사가 이루어졌다. 연천은 동두천-서울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접근로였으므로 전차, 야포 등 대형 장비를 바로 용이하게 탑재, 하역할 수 있도록 공사한 것이었다.

한편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경 38선 접경지의 연천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소개령은 38선 부근의 주민에게 내려졌다. 이는 북한군의 38선 전진 배치를 앞두고 병력이동 등 군사작전의 비밀을 유지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3월 18일 오후에는 백학면과 군남면의 접경지 주민들이 강제로 트럭에 태워져 연천면을 거쳐 원산으로 보내졌다. 4월 중순에는 전곡면의 여러 마을 주민들이 후방으로 소개되어 트럭에 태워져 원산으로 소개되었다(강진갑 2000 : 410).

북한군은 1950년 3월부터의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이어 5월 중순부터는 남침을 위한 본격적인 부대정비와 이동을 개시하였다. 전쟁 개시 2주 전인 6월 10일 민족보위성은 전방 사단장과 여단장을 평양으로 긴급 소집하였고, 이 회의에서 총참모장 강건은 6월 23일까지 어떠한 적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2일 총참모부의 전투명령 제1호에 의해 6월 23일까지 전개를 완료하라는 지시에 따라 38선 일대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국군 제7보병사단의 정면을 담당한 북한군 제4보병사단은 진남포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6월 21일에 돌고개(신망리 서남쪽 8km, 석현), 선곡리(신망리 서남쪽 6km), 신망리 지역에 집결하였다(군편 2005 : 291).

제4사단은 신망리, 의정부, 서울 북부지역 축선으로 주공을 투입하여 관동(문산 동북쪽 20km), 고문리(신망리 동남쪽 8km) 지역을 공격하고 제1·제3보병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협조하여 서울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제4사단은 신망리에서 의정부 방면으로의 공격준

비태세를 갖추었다.

사단이 총참모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마지리(문산 동북쪽 15km)-객현리(마지리 북동쪽 4km)-장현리(초성리 서쪽 9km)-초성리(신망리 남쪽 17km)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 이후 제4사단은 계속 공격을 확대하여 오현리(의정부 서북쪽 16km)-하패리(의정부 북쪽 15km)선까지 진출하며, 특히 공격 첫째 날인 25일에는 마장리(의정부 서쪽 13km)-가좌리(의정부 북쪽 1km)-마전리(의정부 동남쪽 9km) 선을 점령하여 차후 공격준비를 갖춘 후 둘째 날 아침에 서울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북한군 제4사단의 전투지경선은 좌측으로는 부곡동(신망리 남동쪽 5km)-종현산(신망리 동남쪽 14km)-535고지(칠봉산, 포천 서북쪽 11km)-금오리(의정부 동북쪽 3km)를 연하는 선으로 되어 있었다. 제4사단의 주공은 신망리-의정부간 3번도로 축선에서 공격하는 제16연대에 주어졌다.

북한군 제4사단은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제4사단의 제1제대인 제16보병연대는 포병연대 예하 제2·제3포병대대, 독립전차대대 예하 1개 전차중대, 1개 독립공병대대, 2개 전차중대 및 공병중대와 협동으로 초성리 고개(전곡 남쪽 2km, 한탄교 부근) 및 상대전리(전곡 동남쪽 3km) 동남쪽 경계선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8보병연대는 사단포병인 제1포병대대, 독립대전차대대, 독립공병대대와 협동으로 동이리(전곡 서쪽 6km) 지역에서 공격을 전개하도록 하였다(군편 2005 : 292).

2) 연천지역 초기 전투

1950년 6월 25일 04:00!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이른 새벽 북한군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서울을 목표로 정한 북한군의 주공 제1군단과 제105전차여단은 연천, 동두천, 의정, 서울에 이르는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하였다.

육군본부 상황실에는 밤새 적의 공격을 예고하는 징후의 첩보가 간헐적으로 보고 되더니 새벽에는 전방사단으로부터 접적을 알리는 상황 보고가 잇달았다.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 북방의 국군 제7사단 정면에서는 제4사단이 연천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북한군 제3사단이 운천에서 포천으로, 각기 제107, 제109전차연대와 협동하여 전격적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다.

북한군 주력이 지향된 의정부 북방의 국군 제7사단은 적성에서 사직리까지 47km의 정면을 방어하였다. 당시 제1연대가 동두천 정면, 제9연대가 포천 정면을 담당하였는데 연대의 각 1개 대대가 38도선 경계를 실시하고 주력은 교육훈련 중에 있었다. 사단은 예하의 제3연대가 수도 경비사령부로 예속 변경되고 그 대신 온양의 제2사단 제25연대가 편입되도록 명령이 하달되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아 사단예비를 보유하지 못하였다(전편 1977 : 576).

국군 제7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이 개시되자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한편 전방에 추진 배치된 경계부대로 하여금 적의 전진을 저지시키면서 제1연대(연대장 함준호대령)와 제9연대(연대장 윤춘근 대령)를 적 접근로 상의 주진지에 신속히 배치하기 위하여 서둘렀다. 그러나 당시 전방 양 연대 주력은 의정부에서 교육훈련 중이어서 이들이 집결하여 감악산-마차산-소요산-가량산-천주산을 연하는 주저항선에 투입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동두천 북방 제1연대 정면의 적 북한군 제4사단(사단장 이권무 소장)은 전곡-초성리-동두천 방향에 전차 2개 대대로 증강된 보병 제16연대를 주공으로 투입하고, 그 서쪽의 적암-봉암리 축선에 제18연대를 조공으로 투입하여 병진공격을 실시하였다. 전곡에서 한탄강을 건너 제1연대 제2대대 경계진지를 돌파하고 초성리를 점령한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는 전차를 선두로 동두천 전방으로 진출하였다(사회과학원 1981 : 115).

이때 제1연대 제2대대는 주저항선인 동두천 북쪽 소요산 일대의 진지로 철수하여 남하하는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면서 진지를 사수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2대대가 적의 강력한 보전 협동부대를 저지하고 있을 때 연대장은 제1대대를 제2대대 서측 주저항선인 마차산에 투입하고, 제3대대를 마차산 남쪽 봉암리에 계획대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가 마차산의 방어진지를 점령하였을 때 적은 이미 마차산 서측으로 우회하여 덕정 방향으로 남하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1대대는 이들과 접촉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동측 3번 도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대대와는 거리가 멀어 지원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군편 2005 : 315).

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제3대대와도 접촉을 피한 채 서측으로 우회 남하하였다. 이로써 제1연대는 개전초기의 긴박한 상황 하에서 1개 대대만이 사투를 벌이고 2개 대대가 접촉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두천 부근 보산리까지 추진되어 준비된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연대 직접지원 포병 제5야전 포병대대 제2중대는 제2대대 정면에서 밀집대형으로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적 1개 대대에 집중 포격을 가하여 대부분을 격멸하는 수훈을 세웠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 적은 또 다시 전차 2대를 앞세우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제1연대 57미리 대전차포 중대장은 창말고개(소요산역 북쪽 500m)에서 선두전차 2대의 측면을 사격하여 모두 파괴하였다. 이렇게 되자, 후속하던 북한군의 공격제대는 다시 초성리 쪽으로 후퇴하였다.

이 무렵 제1연대 제2대대와 지원부대 병력은 탄약이 떨어져 재보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결국 15:00경 제107전차연대소속의 전차 수십 대를 앞세운 북한군 제4사단의 총공격에 소요산 일대의 주저항선은 돌파되기 시작하였고 제2대대는 10시간에 걸친 혈전을 하였으나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은 주저항선을 돌파한 공격기세를 이용하여 해질 무렵에는 동두천 시내로 돌입하였다(군편 2005 : 322).

추동리, 양문리 방면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이 타 지역에서보다 20분이 앞선 03:40부터 국군의 경계초소와 거점을 중심으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고 전차 40여 대를 앞세워 주공부대를 양문리(지금의 38휴게소)로부터 영평에서 포천에 이르는 43번 도로에 투입하였다.

양문리 서쪽 영평리에서 포천 북쪽 가랑산에 이르는 축선에 투입된 적의 조공은 전차의 지원 없이 소로를 따라 4열 중대의 밀집대형으로 경계진지 전방으로 접근하다가 아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은 후에야 전투대형으로 전개하였다. 결과적으로 작전 초일에 국군 제7사단은 동두천과 포천 및 송우리까지 피탈 당하고 부대의 전력이 분산되어 의정부까지 밀리는 상황이었다(군편 2005 : 350).

한편 고랑포 북쪽 38선 방어선에는 국군 제1사단 제13연대 제3대대(유재성 소령)가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대대는 대대지휘소를 아곡동(장단 북쪽)에 두고 예하중대를 대대의 중앙전면에 있는 두매동(박골)에서 남으로 신장단에 이르는 소로를 경계선으로 하여 배치하였다(군편 2005 : 108).

제10중대장은 04:30 사내동(고랑포 서남쪽 3km)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적의 포성을 들었고, 112고지의 제1소대(장재만 중위)로부터 적의 공격을 보고 받았다. 당시 중대의 배치는 제2소대(임헌덕 중위)를 중대 좌측에 있는 104고지에, 제3소대(정세용 소위)를 중앙의 126고지에 배치하였는데 소대간의 배치공간이 3~5km나 되었다. 제1소대를 중대 우측 38도선상의 112고지(고랑포 북동쪽 2km)에 배치하여 주로 전방의 사미천 계곡과 남북간 주변도로를 경비하였는데, 112고지는 한때 남북교역이 성행한 당시 일일 수십 대의 차량이 왕래하던 곳이다.

얼마 후 하고랑포쪽에서 임진강을 도하하는 한 집단이 관측되었다. 이들의 선두가 이미 임진강 남쪽 800m에 있는 53고지 정상에 올라 적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쳤다. 중대장은 적이 중대와 가까운 아곡동의 대대본부 지역까지 침공하였을 것이라 판단하여 중대를 이끌고 일단 임진강변 석포로 철수한 다음 이날 오후에 동판리(임진나루터 대안)에 도착하여 전방에서 철수하는 대대와 합세하였다(군편 2005 : 191).

38선 일대의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 제1군단은 남진을 계속하여 결국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하였고, 38도선 이남에 위치해 있던 일부의 연천지역도 모두 북한군 점령하에 들게 되었다.

3) 북한의 점령정책과 피난민 상황

38도선 일대 고랑포, 노곡, 학곡, 구미리, 초성리, 대전리 등 지역은 남침 당일 아침 북한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 지역은 적색의 세계로 일변하였고 거리에는 적의 전차와 후속 병력들이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연천 이남지역을 장악한 적은 소위 반민족주의자들의 색출

에 앞장세웠다. 이들은 '북한군이 이미 대전 등지를 점령하고 계속 남진 중이다'라는 유언비어를 살포함으로써 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귀가시키기도 하였다(양영조 외 1995 : 163).

북한에 점령된 연천 이남 지역을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 적기를 들고 북한군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이전부터 공산주의를 지지 또는 동경한 자들도 있었고 또 적이 점령한 이상 자포자기하여 적에 동조하는 자들도 있었다.

한편 어떤 주민들은 집에 숨어 있거나 산중으로 대피하였다가 위험을 고려하여 마지못해 적을 환영하는 양 가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처 철수하지 못한 국군의 낙오병이나 경찰관들은 줄곧 숨어서 은신하였다.

북한군은 점령한 당일부턴 사전에 계획된 공산주의 체제하의 행정시책을 곧바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각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모두 몰수하였다. 북한은 점령지역에서 군수물자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북한의 중앙은행권과 남한의 한국은행권을 병용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환율은 북한권 1원에 남한권 8원으로 결정하고, 남북한 물품 교역을 금지하는 동시에 6월 27일 이전에 예금된 금액은 지불 정지하였다. 이들은 그후 남한권을 무제한으로 남발함으로써 화폐가치가 급락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물가가 폭등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위협과 타격을 초래하였다(양영조 외 1995 : 164).

북한군은 시민들의 생계에 절실한 식량을 일반 시민들에 동등하게 배급한다고 발표하여 수급대상자를 등록시켰으나 각 기관원이나 소위 의용군 유가족을 제외하고는 배급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매일 군중집회를 열어 많은 사람이 반동분자로 몰고 또 이를 색출하기 위해 분분하였다.

북한당국이 점령정책에 중점을 둔 전쟁 지원사업은 한국 주민을 동원하여 각종 복구사업을 벌이는 것이었다. 전쟁 기간 중 북한군은 유엔군의 제공권에 의해 물자와 병력 수송에 커다란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병참로상의 주요 교량이나 도로는 유엔군의 공습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파괴된 교량이나 도로를 복구하였고 전선에 무기와 탄약 및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부상병을 치료하는 등 전쟁 개시 후 대규모로 주민들을 지역 단위별로 조직하여 동원하였다(온만금 1992 : 479).

북한군은 유엔군의 절대적인 제공권 하에서도 야간에 수 개의 열차와 수백 대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노무자들을 동원하여 최소한의 보급품을 운반하고 있었다. 후방동원을 위한 노력동원의 실시는 이미 1950년 7월 26일 군사위원회 결정 제23호 "전시 의무 노력동원에 관하여"를 발표하고 동년 9월 1일 군사위원회 지시 제51호 "전시 의무 노력동원에 관하여"를 각각 발표하여 노력동원을 지시하였다(권영진 1989 : 145). 경기도에서도 많은 주민이 파괴된 교량, 도로.

철도 등의 복구에 동원되었는데 각 군별 인원은 8월 하순까지 연인원 30만 명이 동원되었다.

북한군은 동원된 주민들로 기후, 지형 등을 불문하고 일인당 하룻밤에 20kg의 보급량을 20~30km 거리를 운반하고 다른 마을 주민이 인계 받아 수송하는 식으로 총 400여 톤을 보급하였으며, 각 전투사단은 일일 평균 15톤 정도의 최소한 보급을 유지하면서 작전에 임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 김영호 소위의 진술에 의하면, 사단은 7월 중순 이후 주로 한국지역의 징집자들로 병력을 보충하였으며, 식량조달도 부역자들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었다.¹⁷²⁾ 이 무렵 점령지 주민들이 대부분 북한군의 위협을 받아 마지못해 협조해야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한편 25일부터 아침부터 많은 피난민이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28일 아침까지 38선 접경지에서 수도 서울에 이르는 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황의 도가니였다. 서울 이북 지역 주민의 소개 계획 없이 시행된 피난 행렬은 통제 불가능한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피난민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쪽으로 행해 피난길에 나서고 있었다. 주민들은 탈출로를 찾아 아우성쳤고 모든 거리는 사람들로 메워졌다(서경석 1999 : 33). 모든 도로는 이들 피난민들과 전방부대에 보급할 탄약과 보급의 추진차량과 뒤섞여 대단히 혼잡하였다. 예기치 않던 수십만의 피난민 인파가 몰려들어 모든 도로를 점하게 되자 병력과 보급품을 잔뜩 실은 수송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도착한 병력이 전선으로 적시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방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다.

남침 직후 정부의 조치는 전방에서 적의 돌파를 저지하고 후방에서는 민심의 동요를 막는 것에 주력하였다. 대통령은 6월 25일 <긴급명령> 제1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하달하고 치안안정을 위해 각종 범죄를 자행할 경우 사형에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질서유지와 민심 동요 예방에 주력하였다.(국방부 1951 : 48)

이날 05:00 내무장관은 치안국장으로부터 북한의 남침 보고를 받고 06:30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여 전투태세로 돌입케 하였으며(전편 1977 : 631), 아울러 시민들의 동요와 불순분자들의 만행을 방지하고 적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안명령> 제26호를 각 시·도에 긴급히 시달하여 통행금지 시간의 연장과 등화관제를 실시토록 하고 주요 기관과 산업시설의 경비를 강화케 하였다. 또한 26일에 이르러 생필품의 품귀현상과 매점매석 행위마저 겹쳐 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자 담화를 발표하여 전국민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매점매석자를 극형에 처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집중단속에 나서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자 하였다. 6월 28일 정부는 <긴급명령> 제2호인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도 전쟁으로 인한 예금 인출사태에 따른 경제적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국방부 1951 : 49).

172) ATIS, Interrogation Rpts, N.K. 4th Div 45mm 대전차포대대, 김영호 위, 3 Oct. 1950(SN.984)

6.25 당일부터 38선 접경지의 주민들이 밀리고 밀려 서울까지 이르러 부상자와 병약자를 포함한 피난민이 다수 발생하자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가장 우선 문제가 된 것은 서울 철수에 따른 피난민 대책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국군은 사전에 서울 철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철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난민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¹⁷³⁾

38선 접경지의 주민들은 25일 새벽 북한군이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하자 포격 소리에 놀라 황급히 피난길에 나섰다. 적의 압력이 가해지자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서울 이북 지역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에 의해 시내는 더욱 혼잡하였다. 접경지 주민의 피난 상황은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38선 접경지 주민들의 피난 상황에 대해, 당시 경기도 장단서장 홍은식 경감에 의하면, 25일 “상오 10시쯤 벌써 고량포지서를 비롯한 모든 지서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피난민이 열을 지어 내려왔다”고 하였으며(중앙일보사 1971 : 69), 당시 고대 조지훈 교수는 “라디오에서는 전황이 좋다고 하지만, 기분 나쁜 것은 분명히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에서 오는 피난민대열을 보았기 때문이다”이라고 하였고, 유진오 박사는 “바깥 큰 길에 피난민들이 들어왔으며, 청량리거리의 남부여대하고 오는 피난민으로 떠들썩하였다”고 하여 개전 당일부터 서울 이북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로 시내는 짙 메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중앙일보사 1971 : 41).

서울 이북의 주민들이 맨몸으로 피난길에 오르자 경기도지사는 관할 각 군에 지시하여 급식과 치료대책을 마련케 하였으나 계속 그 대열이 서울로 쇄도하자 사회·보건부 장관과 서울 시장을 찾아 이들의 수용과 치료대책을 긴급히 강구토록 건의하였다(전편 1977 : 633).

2. 인천상륙작전 직후 연천지역 반격작전

1) 반격작전과 38도선으로 진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계속된 남진으로 낙동강 선까지 밀렸으나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반격을 개시하여 1주일 만에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북한군의 전선사령부는 최초 인천상륙에도 불구하고 대구 또는 부산점령이라는 계획을 단념하지 못하고 낙동강전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9월 18일 북쪽에서는 김포비행장이 유엔군 상륙부대의 수중으로 들어오고 남쪽에서는 낙동강 서안에 유엔군의 교두보가 형성되자, 북한군의 전선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북한군은 다부동 서측방이 돌파되면서 방어선에 균열의 징후가 현

173)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June 1950 and December 1950 to January 1951. p.2 .

저하게 나타남으로써 현 전선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서울 수복과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작전에 의해 국군과 유엔군은 9월 말까지 38도선 이내의 북한군을 구축하고 사실상 전쟁 이전의 현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9월 15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전격적인 작전으로 인하여 북한군은 포위되거나 붕괴되었고, 북한 정권은 스스로 힘으로는 전쟁을 더 지속할 능력마저 상실하였다. 예하의 각 사단도 조직이 와해되어 분산 후퇴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으로 접근하자, 38선의 돌파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끈 정책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군 제2군단의 예하 3개 사단은 10월 3일부터 8일 여간에 38도선에 도달하였다. 군단의 좌익인 국군 제8사단이 10월 7일에 동두천 북방 38도선 2km 남쪽 초성리로 진출하였으며, 당시 군단 예비부대인 국군 제7사단이 10월 8일 포천 북방 38도선 상에 있는 양문리로 진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군보다 먼저 국군에게 북진 명령이 하달되었고, 국군 제2군단(군단장 유재홍소장)이 10월 6일에서 8일 사이 38도선을 돌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좌측의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10월 8일 사단의 선두인 제10연대가 초성리 북쪽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북한군 제27여단의 일부 병력을 격퇴하면서 한탄강을 건너 전곡으로 진출하였다. 전곡을 점령한 사단은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공격 제대로 하고 제16연대를 예비로 하여 추격을 재개하여 10월 9일에 연천지역 전체를 탈환하고 평강으로 도주하는 적을 바짝 추격하였다.

한편 국군 제1사단은 10월 8~9일 제11연대가 파평을 거쳐 고랑포까지 진출하였으며, 38선 돌파를 눈앞에 둔 국군 제1사단은 10월 10일 사단의 전 예하부대가 임진강을 넘어 고랑포 일대의 공격 대기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사단 지휘부도 고랑포에 있는 면사무소로 추진하였다.

사단의 우측 전투지경선 부근인 마전리로 진출하여 위력 수색 임무를 수행 중이던 제15연대 제1대대는 이날 아침 다시 마전리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무등리에서 임진강을 건너 북쪽 7.5km 지점 연천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제15연대의 잔여 2개 대대는 계속 고랑포에 머물면서 다음날로 예정된 북진 작전에 대비하였다

2) 유엔군의 점령정책

유엔군의 군정은 현황에 따라 미 제10군단의 북한 동부지역과 미 제8군의 북한 서부지역으로 각각 나뉘어 실시되었다. 유엔군은 점령지침을 하달하여 현지 정부를 구성할 것이며 북한의 행정과 경찰조직을 최대한 그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하달하였다.¹⁷⁴⁾

미1군단이 진출한 지역에는 대부분 현지인으로 구성된 현지정부가 수립되었다. 유엔군의

북한 통치방식은 통상 현지인으로 현지 정부를 구성하고 유엔군 민사지원팀의 자문과 지도를 통해 행정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미 제1군단장은 10월 13일 <포고 제1호>를 통해 유엔군 통제 하에 북한지역의 현행 법령, 경찰을 포함한 북한 행정당국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 포고는 미군의 진출 이전에 이미 경찰을 포함한 관리들이 대부분 퇴각하였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당시 미 대사관 직원들은 처음부터 공산당원을 확실하게 배제해야 하며 북한 정부나 기관의 유지에는 반대하였다.¹⁷⁵⁾

미 제1군단 민사처는 먼저 경기도와 연천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일부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군이 이미 철수 전에 상당수의 죄수를 사살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3개의 민간 시민단체들이 치안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군단 민사처는 10월 22일 각 도시군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는 예하에 조사, 상공, 농림, 문교, 보사, 경찰, 건설, 재무 등 8개 부를 두었고, 각 부 아래에는 과와 계가 있어 완전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어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면리 단위의 자치정부도 수립되었다. 면사무소를 설치하고 모든 관료를 선거로 임명하고 면장과 부면장은 선거를 통해 임명되었다. 연천군도 각 면단위의 면장과 파출소장 등을 임명하였다. 대체로 미군 민사 장교들은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관료들을 매우 잘 선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⁷⁶⁾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영향력과 권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한미간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건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편은 한국인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군인, 정치집단, 사업가들이었으며, 11월 말 많은 사람이 북한지역으로 들어갔다.(라종일 1988 : 362) 이들은 점차 북한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대해 나갔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청년단, CIC 파견대, 한국 군정경찰과 철도경찰 등도 정부의 영향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대한청년단의 경우는 전원을 내무부 촉탁으로 하여 여비 1만원씩을 지급해 1개 군마다 대장 1인, 대원 20인 단위로 투입했다. 이들은 조직을 급속도로 확산해 들어갔다. 이밖에 한청, 서청, 기독교청년회 소속 등의 자생적인 치안대들도 편성되었다. 철도경찰대는 북한철도를 경계하기 위해 철도경찰관을 북한으로 파견하였고,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¹⁷⁷⁾ 이들은 한국군과 미군을 지원하여 적색분자를 색출하고 공공시설을 보호하면서 치안유지에 노력하였다.

174)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Oct 20, 1950, 795B.00/10-2050, SN.1457.

175) Seoul to Secretary of State, Oct 14, 1950, 795B.00/10-1450,

176)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Dec 8, 1950, 795A.00/12-850, SN.1457.

177) 「동아일보」 1950년 10월 17일자 ; 「조선일보」 1950년 11월 1일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군 장병들의 약탈, 강간 등 비행 정도가 심각해져 현지 주민들의 발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다. 통상 장병들의 태도와 규율은 곧 현지 점령정책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음의 육군본부 훈령은 당시 한국군 장병들의 비행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육본은 “이미 육본 훈령 제77호로 하달한 바 있으나 불미한 행동은 일이 증가하고 일선 장병의 사욕은 날로 심해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차제 훈령을 엄히 하달하니 각급 지휘관은 이 취지를 명심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국군 역사상에 오욕을 남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¹⁷⁸⁾

이러한 상황에서도 점령정책에 관한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현지 주민이 유엔기관이나 미군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규모 행사를 의미 있게 잘 치렀다고 평가되었다. 그들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¹⁷⁹⁾

그러나 북한 점령지역에 관한 민사행정만 해도 수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 유엔군사령부도 훈련된 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무초는 일종의 3두 체제를 제안하여 지역별로 미군대표, 한국정부 지명자(우선적으로 그 지역출신 월남인), 그리고 주민대표 등 3인으로 행정부서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라종일 1988 :361). 대체로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나, 문제는 맥아더가 유엔군의 방침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북한 점령정책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인 12월 4일 유엔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정책을 보완해나갈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대체로 민사지원 장교의 규모도 11월 중에 크게 증가하면서 정책이 상당히 호전될 기미를 보였으나, 점령 초기 상당수 행해지고 있던 한국군과 청년단 등의 비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¹⁸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해지기 시작하였다.

통화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원래 한국과 북한 통화가 10 : 1 기준이었지만, 일반적으로 1 : 1로 교환되었으며, 북한주민들은 오히려 한국통화를 선호하는 경향마저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측면도 컸기 때문이었다.¹⁸¹⁾ 이러한 분위기에서 평양 시민들은 점차 부정적인 눈으로 미군과 한국군을 바라보았다.

178) 육군본부 「훈령」 제101호(1950.11.13.), 『작전명령철』(1950.7.25-12.20) HO00202.

179) Civil Assistance Report NO.3(1950.11.26-12.2).

180) Seoul to Department of State(1950.11.14), 795a.00/11-1450, SN.1457.

181) Seoul to Secretary of State, Dec 9, 1950.795B.00/12-950,

Ⅲ. 1·4 후퇴 이후 연천지역 작전

1. 1·4후퇴 시기 연천지역 상황

1) 연천 철수 작전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작전을 전개하여 평양, 원산을 점령한 후 계속 밀고 올라가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중국군이 압록강을 도하하여 유엔군과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전쟁의 국면은 다시 크게 바뀌게 되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중국군의 제1차, 제2차 공세로 38선까지 철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은 12월 11일 고랑포를 거쳐 임진강을 도하하여 신산리에 도착하였고 12월 14일 고랑포 일대 임진강 남안에 방어부대를 배치하여 38도선 방어 태세에 돌입하였다. 신계에서 철수한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을 연천-의정부 축선상의 전곡 일대에, 미 제24사단을 김화-의정부 축선상의 영평 일대에 배치하였다. 군단의 좌전방인 국군 제6사단은 계획된 철수로인 시변리-삭령-연천 도로에 북한군 패잔병의 출몰이 빈번해지자, 12월 11일 시변리-구화리-연천 도로로 우회하여 철수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를 한탄강 남쪽에, 제19연대를 백의리 일대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제2연대는 사단 예비부대로 동두천에 집결시켰다.

국군 제8사단은 철수로인 시변리-연천 간 도로가 아군의 항공 폭격으로 교량과 도로 10여 곳이 절단되어 증장비는 물론 차량도 이동이 어려웠고 또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적의 저항이 경미해지면서 사단은 연천으로 철수한 후 원주로 이동하였다.

2) 중국군 3차 공세와 1·4후퇴

국군과 유엔군은 중국군의 제2차 공세에 밀려 1950년 12월 20일경 임진강 하구-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잇는 38도선상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조·중연합사령부는 제3차 공세를 위해 1950년 12월 23일 서부전선 중국군 각 부대가 38선 부근으로 이동하고 금천, 연천, 철원, 화천지구에 집결하였다. 연천지역에는 중국군 제38군이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천은 다시 한 차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였다(군편 2011 : 106).

국군 제1사단은 적의 주공이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랑포 정면 임진강 남쪽의 장파리-마포리-도감포 일대의 주저항선을 강화하였다. 사단은 방어정면이 넓어 좌전방 제11연대를 비장리 일대에, 우전방 제12연대를 도감포 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였다.

1950년 12월 31일 중국군은 제3차 공세를 개시하여 임진강과 한탄강을 연하는 대규모 정면에서 밀고 내려왔다. 임진강 정면의 중국군은 1개 군단 이상의 대규모 병력으로 인명을 돌보지 않고 강습 도하와 돌파로 우회와 포위의 양면작전을 전개하여 공격하였다. 결국 국군 제1사단은 이날 밤부터 적중 고립을 피하고 차선택으로 사전 계획된 철수를 단행하게 되었다(군편 2011 : 133).

국군 제1사단의 방어에 대하여 중국군의 공식 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39군의 주력은 31일 17시 40분에 임진강을 돌파하였으나 제117사단은 도중에 5차에 걸친 강력한 저항을 받아 1일 05시에 동두천 남서쪽 비상리, 선암리로 진출하였다”라고 하였다(전략문제연구소 1991 : 87).

한편 국군 제6사단은 미 제9군단으로부터 “동두천 북쪽 10~12km의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때 사단이 담당하였던 방어정면은 연천군과 포천군 그리고 양주군이 상호 인접하는 서부전선의 요충 지대였다.

국군 제6사단은 동두천 일대로 철수한 후 38선 부근에 사단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사단은 전곡-동두천 도로 좌측의 고능리 부근에 제7연대를, 우측의 추동리에 제19연대를 배치하였다. 이때 사단의 책임지역 내에는 한탄강과 도처에 단애지역이 산재해 있고 연천으로부터 동두천~의정부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접근로인 3번 도로를 중앙에 끼고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군편 2011 : 145).

중국군 제38군 공격부대는 31일 야간 전곡 도로와 회춘리, 고소성리 일대로 진출을 기도하였고, 전곡으로부터 한탄강을 건너 대규모의 적 주력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다음 날 1951년 1월 1일 새벽 중국군이 사단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면서부터 사단의 전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군단명령에 따라 한강 남안으로 철수하였다. 38선 이남에 위치한 일부의 연천지역마저 다시 공산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2. 서울 재수복 이후 연천지역 전투

1) 중국군의 춘계공세

국군과 유엔군의 1951년 2월 반격 작전을 전개하여 37도선까지 진출한 중국군을 격퇴하고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유엔군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임진강-연천-영평천-화천저수지-양양에 이르는 이른 바 캔사스선¹⁸²⁾으로의 진출을 위한 작

182) 캔사스선(Kansas Line)은 임진강하구-전곡-영평천-화천저수지-양양을 연결하는 선임.

전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중국군은 38선과 그 이북 지역의 방어 배치를 조정하여 제3병단 제 60군이 임진강 동쪽의 삭녕과 연천 지구를 담당하였다.

캔사스선을 확보한 국군과 유엔군은 중국군의 대부대가 집결해 공격을 준비 중인 평강-철원-김화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공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8군은 캔사스선 10~20 km 북방에 연천-고대산-와수리-화천저수지를 잇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¹⁸³⁾을 설정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돈틀리스(Dauntless) 작전을 계획하였다(군편 2011b : 387).

공격제대들은 4월 11일 돈틀리스 작전을 개시하였고 4월 20일을 전후하여 미 제3사단이 연천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4월 22일을 기해 대규모 공세인 '4월 공세'를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또다시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공격하던 미 제1군단의 중앙과 우전방 부대들은 급편방어로 전환하였고, 이때 터키 여단은 대광리 남쪽의 고지군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터키 여단의 좌인접에는 미 제3사단의 제65연대에 배속된 필리핀 제10대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군편 2011b: 473).

중국군은 주공인 제19단의 3개 군이 임진강 부근, 제3병단 3개 군이 연천 북쪽, 제9병단 5개 군은 김화 부근에서 미 제1군단의 좌우 및 정면을 공격하였다. 유엔군은 서부 지역의 국군 제1사단이 파평산 일대에서, 영국군 제29여단이 설마리 일대에서 최대의 혈전을 펼쳤다. 중국군 공격제대들의 방어진지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군 포병의 강력한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1951년 4월 22일 야음을 틈타 일제히 4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2) 임진강-설마리 전투

국군 제1사단의 우인접 영국군 제29여단은 당시 마지리-도감포간 11km의 광정면을 방어하고 있었다. 작전지역 전방에는 임진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주저항선은 지대 내의 가장 양호한 감제고지인 감악산(675고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방어진지 편성에는 매우 유리하였으나, 도로망이 계곡통로로 한정되어 부대기동과 군수지원이 제한되었다.

여단은 이러한 지형의 특징을 감안하여 적성-신산리, 도감포-봉암리 도로를 중심으로 대대 단위 거점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는데, 그 결과로 대대와 대대간은 물론 좌우 인접부대 간에도 공백지대가 형성되어 적의 침투나 돌파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당시 여단은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진강 북쪽과 적의 예상 도하 지점에 대한 정찰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여단 정면에서는 4월 22일 아침부터 정찰대와 중국군의 접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접촉지점도 평소보다 훨씬 남하하여 임진강 부근으로 한정되었다. 보름달이 떠오른 임진강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이날은 영국군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 조오지의 날(St.

183) 와이오밍선(Wyoming Line)은 임진강하구-전곡-철원-김화-화천저수지로 연결되는 전진 한계선

George's Day) 전야로서 주진지의 일부 부대들까지도 전통적인 관례대로 칠면조 만찬과 모자에 달 장미를 준비하는 등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다.¹⁸⁴⁾ 22:00경 좌전방 글로스터대대의 정면에서 수미상의 중국군이 가여울 일대에서 도하를 기도하였으나 매복대의 집중사격과 포병화력으로 격퇴되었다. 그러나 탄약이 소진된 매복대가 철수하자 적은 즉시 1개 연대규모로 도하 공격을 개시하였다(군편 2011b : 463).

글로스터대대는 방어진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결사적인 저항을 하였으나, 적의 주요 접근로 상에 배치된 A중대와 B중대가 중국군의 인해진술에 의한 파상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가여울 도섭장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 감제고지인 중성산(148고지)을 방어한 A중대는 중대장(P. A. Angier. 소령)이 전사하는 등 전사상자가 속출하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다행히 중국군도 공격 간 여단포병의 탄막사격과 대대의 화력집중에 큰 피해를 입고 증원 병력이 임진강을 도하할 때 까지 공격을 중지하여 대대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대는 새벽 무렵 중국군의 공격기세가 둔화된 틈을 이용 접적을 단절하고 감악산 기슭의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우전방 푸실리아 대대도 Z중대가 방어중인 임진강 남쪽의 감제고지인 257고지에서 중국군 제188사단을 맞아 격전을 치렀는데 결국 피탈 당함으로써 23일 오전에 중국군에게 임진강 남쪽에 교두보를 허용하고 말았다(군편 2011b : 466).

그러나 먼동이 트면서 유엔군의 항공폭격이 개시되자 적이 접적을 단절하고 숲과 계곡으로 잠적하여 전선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이루었다. 낮 동안 좌전방 글로스터 대대는 314고지 부근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중국군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으며, 우전방 푸실리아대대는 피탈된 257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정오경 보전 협동으로 역습을 개시하였다. 금굴산에 배치된 벨기에 대대의 철수로를 확보하고 적의 박격포 사정권에 들어 있는 적암리 부근의 포병진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고지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대대의 역습은 이미 이곳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실패하였다. 여단장은 적의 후방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예비인 얼스터대대를 398고지에 배치하여 도감포-봉암리 도로를 통제토록 하였다.

임진강을 도하한 중군 제63군의 1개 사단이 미 제3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곡-동두천 축선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사단장은 영연방 제29여단의 상황보고와 전방 연대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글로스터대대는 진지를 고수 중이므로 후방 퇴로만 확보하면 철수가 가능하지만 적이 동두천축선을 차단하면 사단 주력의 철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전곡-동두천축선으로 진출중인 적을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설마리고지 역습을 준비하고 있던 미 제65연대와 필리핀대대를 전곡-동두천 축선에 투입하였다(군편 2011b: 467).

184) Brigadier C.N. Barclay, The First Commonwealth Division, Great Britain, Gale and Polden, 1954, p.61.

3) 금굴산-전곡 전투

영국군 제29여단은 1개 대대를 감악산 좌전방 적성부근에, 1개 대대를 감악산 북쪽에, 그리고 배속 받은 벨기에 대대¹⁸⁵⁾를 금굴산에 배치하고, 1개 대대를 봉암리에 예비로 확보하여 임진강을 방어하고 있었다. 이중 벨기에대대가 배치된 금굴산(194고지)은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돌출된 감제고지로서 동쪽과 남쪽이 임진강으로 둘러싸여 도감포에 설치된 2개의 교량이 유일한 남쪽으로의 통로이며, 이로 인하여 중국군의 공격에 고립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지가 중국군에 탈취되면 여단의 방어의역이 감제 관측을 받게 됨은 물론 우인접 미 제3사단의 주보급로인 연천-의정부 도로가 측방 위협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전술적 중요성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대가 금굴산 일대에 철조망과 지뢰를 매설하는 등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였다(군편 2011b : 463).

이곳의 전투는 22일 자정 무렵 중국 제188사단 정찰대의 침투를 알리는 조명지뢰가 폭발되면서 시작되었다. 대대는 수차에 걸친 중국군의 파상적인 공세를 박격포사격과 전방중대의 화력 집중으로 격퇴하였지만, 적은 이 틈을 이용 일부 부대를 우측방으로 우회 기동시켜 도감포로 진출하였다. 적은 23일 01:30에 교량을 점령한 후 계속하여 영국군 제29여단의 우전방 푸실리아대대¹⁸⁶⁾ Z중대가 방어하던 임진강 남쪽의 257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적은 철수로가 차단된 벨기에대대의 좌전방과 우전방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돌파를 기도하였고, 대대는 악전고투하며 방어진지를 고수하고는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방어정면은 점차 축소되었다. 대대는 새벽 무렵 차단된 철수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1개 소대의 정찰대를 도감포로 파견하였으나 교량에 매복하고 있던 중국군의 기습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만 낸 채 철수하였다(군편 2011b : 465).

대대장(Crahay 중령)은 영 제29여단에 철수로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여단장(T. Brodie 준장)은 여단예비대가 Z중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이미 전방으로 투입되어 지원능력이 없음을 설명하고, 우인접의 미 제3사단 주력이 우타선에서 전곡으로 철수할 때까지 진지를 고수토록 명령하였다.

미 제3사단장(Robert H. Soule 소장)은 영 제29여단도 전 정면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받아 혈전을 펼치고 있어 벨기에대대를 지원할 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사단예비인 제7연대의 1개 보병중대와 2개 전차소대로 벨기에대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지원부대가 전곡을 출발하여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도감포로 접근하자 257고지를 점령한 적이 교량에 탄막을 설치한 듯 박격포와 중화기 사격을 집중하며 지원부대의 접근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전차 1개 소대는

185) 벨기에대대는 The BELGIAN Bn- LUXEMBOURG Infantry Detachment의 약칭.

186) 푸실리아대대는 1st Bn 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의 약칭.

이 지역을 돌파하고 벨기에대대 진지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군편 2011b : 466).

중국군의 포위망이 시시각각으로 압축되고 있을 무렵 미 전차소대의 도착으로 사기가 고조된 대대는 정오 무렵 보전협동작전으로 피탈된 전방진지를 다시 탈환하였고, 이후 중국군의 공격도 주춤하여 대대는 재편성을 서두는 한편 미 제3사단에서 지원된 헬리콥터로 부상자를 후송하였다.

이 무렵 여단장은 벨기에 대대장의 건의에 따라 사단장에게 대대가 보유중인 차량과 장비를 파괴하고 병력만 임진강 동쪽의 전곡으로 철수하도록 허락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대대의 철수로 상에 있는 257고지를 미 제7연대 제1대대가 공격 중이므로 철수로 확보를 자신하고 이러한 대대의 철수계획에 반대하였다. 부득이 여단장은 와이오밍선으로 진격하던 우인접 부대들이 캔사스선으로 철수함에 따라 이의 완료시간을 고려하여 일몰 전에 철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대에 철수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다. 대대가 철수를 준비하는 동안 이 상황을 간파한 적이 15:00에 포위공격을 시도함에 따라 다시 격전이 전개되었으나, 대대는 근접항공지원과 포병화력을 요청하여 격퇴하였다(군편 2011b : 467).

적중에 고립된 벨기에 대대는 17:00에 고대하던 사단의 철수명령을 받았지만 금굴산에서 중국군과 접촉을 단절하고 철수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제7연대 제1대대의 257고지 공격이 부진하여 철수로 상의 교량과 임진강 남쪽 주저항선 일부마저 중국군이 장악하고 있어 이 지역을 돌파하고 여단 후방지역으로 철수하기란 불가능하였다. 대대장은 차량제대는 항공 및 전차의 엄호하에 교량지역을 강력 돌파하고 병력은 동쪽의 임진강을 도섭하여 15m 높이의 천연 단애를 돌파한 후 각각 전곡으로 철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대대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한 근접항공지원이 17:30분 정확하게 개시되자 전차소대를 선두로 80대의 차량제대와 보병제대는 금굴산 방어진지를 이탈하였다. 도보부대가 동쪽의 임진강을 도섭하기 시작하자 바람도 대대의 철수를 지원이라도 하듯 북서풍이 불어 전방지역에 투하된 네이팜탄이 연소하면서 발생된 연기가 적의 관측을 차장하였다. 이때부터 적은 대대의 철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단애지역으로 박격포사격을 집중하였고 반면 대대는 눈앞의 험준한 단애를 등반으로 통과해야만 되었다(군편 2011b : 466).

벨기에 대대는 공병이 단애를 폭파하고 통로를 개척하더라도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이 장애물지대를 필사적으로 기어올라 18:30 전곡 서쪽 남계리 부근 미 제65연대의 진지로 복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차량제대도 아군의 화력지원으로 중국군의 포격에 단 4대의 손실을 입은 채 무사히 철수하여 본대와 합류하였다. 금굴산을 탈출하여 전곡에 집결한 대대는 영국군 제29여단의 상황이 악화되어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20:30에 차량으로 동두천을 경유 여단예비로 봉암리 일대에 재배치되었다(전편 1979 : 205).

4) 장승천, 울동 전투

중국군 제60군 예하 제179사단은 4월 22일 연천과 철원 사이의 도로 우측 장승천 일대에 배치된 터키 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군은 40분간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터키 여단은 포병진지와 통신시설이 적의 포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내로 접근한 중국군과 공방전을 펼치며 주저항선을 고수하였다.

중국군은 정면공격과 병행하여 좌인접 필리핀 대대 및 우인접 미 제25사단 제24연대와와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포위공격을 시도하였다. 자정 무렵 터키 여단은 한탄강 남쪽 캔사스선 진지로 철수하라는 사단의 명령을 받고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터키 여단은 중국군이 철수로의 중요 거점인 나미현을 먼저 차단함으로써 철수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군편 2011b : 473).

터키 여단이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좌인접 울동 부근에 배치된 필리핀 제10대대도 4월 22일 23시부터 중국군 제12군 제34사단의 파상공격을 받았다. 필리핀 대대는 중국군의 압력을 다른 지역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울동 남쪽 능선으로 부대이동을 실시하고, 즉시 인근 야산을 이용하여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대대는 중국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피해가 속출하였고 결국 대대가 포위되고 급기야 대대지휘소까지 적 침투부대의 습격을 받아 대대원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필리핀 제10대대는 중국군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비교적 취약한 부분에 역습을 전개하여 구사일생으로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필리핀 대대는 적의 포격에 미 제65연대와 통신이 두절되어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총력전을 전개하여 새벽까지 진지를 고수하면서 미 제3사단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대대는 미 제3사단의 명령에 따라 캔사스선인 임진강 남안으로 무사히 철수하였다(군편 2011b : 475).

중국군 제5차 공세가 종료된 직후 태국 대대가 1951년 5월 21일부터 북진하면서 캔사스선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5월 27일 오전에 태국 대대는 전곡 서남쪽의 161고지를 거쳐, 다음날 오후 한탄강을 도하하여 탈원리와 그 부근 방어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캔사스선 탈환에 기여하였다. 태국 대대는 6월 6일 새벽 연천 북방 울동 방면과 휘옥동 부근 234고지로 진출하여 중국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대대는 6월 9일 연천 북방으로 계속 진격하여 218고지 방어진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수차례 격퇴하였다. 6월 18일 태국 대대는 연천 서북쪽 4km 지점의 167고지까지 진출하였다. 대대는 7월 초부터 상촌 인근 337고지 일대에 대한 수색작전을 실시하다가 7월 16일 전곡 서남쪽 4.5km 지점의 양원리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와 훈련에 들어갔다.

IV. 휴전회담과 연천지역 상황

1. 휴전회담 시 연천지역 고지전

1) 1951년 후반기 연천지역 고지전

미 제1군단은 1951년 7월 휴전회담의 개막으로 전선의 고착된 상황에서 연천지역을 고수하고 적을 최대한 북쪽으로 격퇴시키기 위해 수많은 고지전을 치렀다. 연천지역의 대표적인 고지전은 고왕산, 마량산, 불모고지, 폭잡고지, 사미천, 에리고지, 노리고지, 티본(T-Bone)고지, 요크고지 전투 등이었다. 불모고지는 연천 서북방 역곡천 남안에 위치한 275고지이며, 주변에 포잡고지, 티본고지를 포함한 대체로 200m 내외 고지군의 중앙에 위치한다.

유엔군은 1951년 10월초 미 제1군단에 와이오밍선에서 약 10km 북쪽의 제임스타운선으로 진출하는 코만도(특공) 작전을 명령하였다. 즉, 좌측으로부터 임진강을 연해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백학면 기곡리~왕징면 고잔리~중면 중사리~신서면 신현리~신서면 덕산리~철원읍 중세리 북서쪽을 연하는 지점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군편 2012a : 518).

미 제1군단의 코만도작전은 10월 3일 이른 아침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6시에 시작되었다. 첫날 작전에서 좌익의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 상의 주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사미천 서안의 91고지와 146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군단목표를 점령하였다. 역시 우익의 미 제25사단도 터키여단이 경미한 교전 끝에 이길리의 372고지를 점령하고 제14연대가 제임스타운선 동단의 정연리 북측 430고지를 접적 없이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작전목표선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양익 사단이 순조롭게 임무를 완수한 반면 나머지 사단은 적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고, 특히 중앙의 제1기병사단 공격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군편 2012a : 519).

미 제1기병사단은 첫날 좌전방 제5기병연대가 중간목표 222고지, 272고지, 346고지, 287고지를 공격했으나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 끝에 222고지를 점령하였고, 272고지는 6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점령에 실패하였다. 우전방 제7기병연대는 제3대대와 그리스대대 그리고 제2대대를 전방으로 하여 목표 남쪽의 347고지, 313고지, 418고지를 공격했으나, 모두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스대대의 313고지전투와 제2대대의 418고지 전투에서는 이날 하루에 3~4차례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으나 적은 백병전에서 밀려나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하였다(군편 2012a : 521).

제1기병사단 좌익의 영연방 제1사단은 우전방 제28연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여 이날 목표 하단의 고잔하리-199고지를 점령한 데 이어 일부는 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목표의 중간지점까

지 진출하였다. 우익의 미 제3사단은 이미 목표를 거의 점령하고 천덕산(477)을 공격하였다.

다음날인 10월 4일도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격전이 전개되었고, 특히 제1기병사단의 공격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그리스대대는 313고지 공격에서 연일 큰 피해를 입었다. 10월 5일부터 적의 방어선도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날 제1기병사단은 313고지를 공격한 그리스대대가 정상에 도달하였고, 우측의 418고지를 점령하고 347, 344고지를 목적으로 두었다.

한편 영연방 제1사단이 담당할 목표지역은 연천군 백학면 기곡리~왕징면 고잔리 일대였다. 영연방 제1사단은 10월 4일 중앙의 캐나다 제25여단이 187고지와 가마골일대의 고지를 점령하였고, 좌전방의 제29여단이 187고지 서단으로 진출함으로써 목표 포스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우전방 제28여단은 목표 무어와 포스터와의 중간에 위치한 고왕산(355)과 227고지를 점령하고 무어의 남단 일각을 차지하였다. 이 여단은 다음날 5일 공격을 재개하여 마량산(317)과 그 서남의 217고지를 탈취함으로써 목표 지점을 무난히 확보하였다. 미 제3사단은 10월 4일 제15연대가 이틀째 공격에서 천덕산을 점령했으나 적의 역습에 의해 다시 피탈되었고, 제7연대는 281고지까지 점령함으로써 목표 지점을 완전히 확보하였다(군편 2012a : 523).

영연방 제28여단의 우측에서 공격에 나선 호주 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여 중국군의 저항이 없는 틈을 타서 마량산 전방의 낮은 구릉인 199고지를 점령하였다. 호주 대대는 계속된 공격 작전에서 중국군의 완강한 저항을 차례로 격파하고 마량산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영연방 제1사단 예하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전곡 서쪽 15km 지점의 세골에 포 진지를 편성하고, 영연방 제28여단이 담당할 고왕산 공격작전과 마량산 공격작전을 지원하였다. 고왕산과 마량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을 지원하는 약 6일 동안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약 7만 2,000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는데, 이 포탄 발사량은 이 부대가 6·25전쟁에 참전한 이래 단일작전에서 가장 많은 포탄을 사격한 양에 해당한다.

군단의 특공작전 10월 6일에도 가장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제1기병사단은 격전을 계속하였다. 346고지를 중심으로 한 230고지와 272고지에서는 10월 9일까지도 목표탈취를 위한 격전이 계속되었다. 이날 군단은 목표 1개가 남아있었음에도 군단의 작전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작전을 일단 종결하였다.

이 코만도작전 기간 동안 중국군은 포로 500명을 포함해 2,100여 명의 손실이 발생하여, 제47군의 전력이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이 중 76%인 1,600명은 제1기병사단에 의한 것이었다. 아군도 제1기병사단의 2,900명을 포함해 모두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군편 2012a : 525).

아군은 이러한 많은 희생의 대가로 작전목표를 달성하고 방어선을 제임스타운선까지 추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진지를 회복하려는 중국군의 공격이 반복되어 특히 제1기병사단과 영연방 제1사단 지역에서는 전초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전투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 중국 제64군은 마량산과 고왕산 일대에 대해 차례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해왔다.

특히 미 제1기병사단 예하 태국 대대는 천덕산(477)-덕산리 일대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받아 격전을 수행하였다. 태국 대대는 백병전까지 실시하며 적을 격퇴하였다. 11월 13일에 중국군이 티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다가 태국 대대 전초부대와 충돌한 곳은 서부전선 전체 방어지점 중에서 유독 적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지역인데, 작전을 수행하던 장병들이 지점을 '섬뜩한(Eerie) 곳'으로 불렀고, 점차 에리 고지로 통용되었다.

에리 고지 남쪽에는 두명동, 동북쪽 2km 지점에는 악어 고지(Alligator Jaws)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에리 고지와 악어 고지는 아군 방어지역 전체를 광범위하게 관측할 수 있어 적의 접근을 조기경보하고 또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 에리 고지 일대에서 대규모 중국군과 격전을 벌인 태국 대대는 약 1개월 후인 12월 15일에 미 제45사단 제180연대 예하 부대에 티본 고지를 인계하고 전곡리 인근으로 철수하였다. 이곳에서 태국 대대는 그동안 자신들이 배속되었던 미 제1기병사단과 작별하고, 이제부터 미 제2사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다(군편 2012a : 524).

2) 1952년도 연천지역 고지전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장 켄달 중장(Paul W. Kendall)은 1952년 7월 중순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2사단을 배속받고 미 제45사단을 미 제10군으로 전환 조치함에 따라 미 해병 제1사단(배속 : 국군 해병제1연대)-영연방 제1사단-국군 제1사단-미 제2사단 순으로 전방에 배치하고 미 제3사단을 예비로서 확보하여 임진강 하구에서 철원에 이르는 전선을 담당하였다(전편 1975 : 17).

이때 군단 정면에는 중국군 제65군이 개성, 제40군이 구화리, 제39군이 삭녕, 제38군이 마장리 일대에 배치되었고 제60군이 곡산, 제63군이 배천에 예비로 집결하고 있었다. 적은 전초진지 방어작전을 펴면서 아군의 국부공격에 대비해 하달된 조·중연합사령부의 전술적 반격계획에 따라 추계공세를 준비하였으며, 1952년 9월 18일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는 2개 단계로 계획된 바 제1단계 작전은 9월 18일-10월5일까지, 제2단계는 10월 6일-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다(군편 2012b : 363).

미 제1군단은 지난달까지 우익인 미 제45사단으로 소위 카운터(Counter)작전을 전개하여 철원 서쪽 역곡천변의 주요 고지군을 확보한 뒤로 적의 반사적인 역습을 받아 고지쟁탈전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주로 미 해병제1사단이 병커고지에서, 미 제2사단이 불모(Old Baldy)고

지에서, 국군해병 제1연대가 사천강 일대의 전초진지에서, 국군 제1사단이 텃시(Tessie)와 닉키(Nickie) 고지의 쟁탈전에 이어 베티(Betty)와 노리(Nori)고지에서 각각 쟁탈전을 수행하게 된다.

연천 북방 불모고지, 포크찹(Porkchop)고지(234), 티본고지 일대에서의 전투는 7월 중순 미 제2사단이 진지를 인수한 이후 여름내내 계속되었다. 특히 포크찹고지에서는 미 제2사단에 배속된 태국 대대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중국군 2개 연대의 공격을 격퇴하고 동 고지를 확보하였으며, 대대는 그 용감성을 인정받아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전편 1986 : 170).

반면, 임진강 일대에서의 전선은 장마로 인하여 7월까지 비교적 소강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장마가 끝나자 전초 고지에서는 다시 전투가 격화되어 8월에 들어서 미 해병사단이 적의 공격에 맞선 분전 끝에 병커고지를 확보하였고, 9월에 국군 해병연대가 다시 사천강 연변에서 격전을 수행하여 연대가 전투단으로 개편된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거듭하였다. 이 기간 임진강 북방 고왕산(355고지)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캐나다 제25여단은 중국군의 공격을 받아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돌격부대의 역습으로 적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군편 2012b : 364).

한편, 미 제3사단은 9월에 켈리전초를 적에게 넘긴 채, 다시 군단 예비인 국군 제1사단과 교대하게 되며, 10월에 들면서 제2단계 공세인 “10월 공세”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화살머리고지(281m)에서는 프랑스대대가 우인접인 백마고지의 제9사단과 아울러 중국 제38군의 침공에 맞서 격전을 치루었다. 11월의 군단 정면은 대체로 소강상태였으나, 12월 초 국군 제1사단이 적의 침공에 맞서 노리 및 베티고지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전투가 전초진지를 놓고 쟁탈전을 반복하는 양상이었으므로 군단의 주진지는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군편 2012b : 47, 364).

(1) 불모고지 부근 전투

미 제9군단 예비로 있다가 미 제1군단으로 배속된 미 제2사단은 1952년 7월 17일 제23연대(배속: 프랑스대대)를 좌일선 역곡천 동안 진지에, 제9연대(배속: 태국대대)를 우일선 동광리동쪽 천덕산 일대의 진지에 배치하였으며, 제38연대 제3대대와 네덜란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당초 미 제45사단은 6월의 카운터작전으로 역곡천 남안에서 적을 격퇴하고 방어에 유리한 전초진지 확보하였으나 이를 되찾으려는 적의 역습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육군본부 1968 : 204).

따라서 사단의 전초진지인 불모고지(266)-포크찹고지(255)-에리고지(191)에서는 매일 공방전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특히 불모고지는 역곡천 바로 남안의 주요 감제고지로서 북·서·남쪽

의 삼면을 모두 통제할 수 있어 피아 모두에게 중요하였다(전편 1975 : 576).

중국 제38군은 제113사단 제338·제339연대와 제117사단 제349·제350연대 및 제115사단 제344연대를 주진지에 배치하고 나머지 연대 및 제116사단을 예비로 둔 가운데 포병 10개대대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육군본부 1968 : 205). 이들은 역곡천 북안의 주요 감제 고지를 차지하여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적은 아군의 부대 교대를 틈타 17일 야간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대규모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제23연대 전초진지인 불모고지에 접근하였다. 이에 F중대가 전초에 다른 1개 소대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적의 저항으로 여의치 못하였다.

22:50 대대규모의 적이 계속되는 포지원하에 전초진지로 육박하기 시작하였다. F중대가 고지에서 분전을 계속하는 동안 대대는 23:30 E중대를 투입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7월 18일 E중대가 고지에 진출했을 때 이미 고지 정상은 피탈되었다. 중대는 즉시 역습을 감행하여 뺏고 빼앗기는 악전고투를 연속하였으나 결국 15:00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제23연대는 불모고지의 적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계획, 제3대대 K중대가 전차의 지원하에 E·F중대와 합세하여 반격을 개시하였으나 이또한 적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연대는 이날 야간 다시 1개 대대규모의 공격부대를 편성하여 재반격을 개시하였으나 역시 진출이 지연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려 진흙탕 속에서 공격이 둔좌되고 말았다. 특히 B중대 경우 20여 명밖에 남지 않는 손실을 입으면서 철수하였다(전편 1975 : 591).

다음날 아침부터 대대는 I·L중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몇 차례 반격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의 집중포화를 받아 많은 병력손실을 입은 채 실패하였다. 이날 제2사단 제38연대 제1·제2대대가 인천에서 전곡 일대로 집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45사단과의 진지교대를 완료하였다.

제23연대는 불모고지 탈환을 위해 계속 반격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연일 계속되는 강우로 인하여 도로·교량이 유실되어 병력 일부가 고지 동남일부를 차지한 채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제1대대가 공격부대로 선정되어 제3대대와 진지교대를 한 후 후방에서 1주일간 계속되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리틀 조(Little Joe)라고 명명된 반격작전 훈련(예행연습)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작전은 제37야포대대가 직접지원하며 사단 공대대대 B중대와 전차 및 중박격포중대 등이 지원되었다. 또한 사단 항공정찰이 행해지고 별도의 통신대책과 전진에 따른 보급대책까지 모두 마련되었다(전편 1975 : 592).

마침내 7월 31일 22:00 비가 개이자 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A·C중대는 병진하여 목표로 진격하였다. 양중대는 적의 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고지 양면으로부터 적의 방어진을 압

축하였다(육군본부 1968 : 211). 다음날 04:25 양중대는 고지정상까지 약진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백병전을 전개하여 마침내 적을 격멸하고 09:10 정상에서 합세함으로써 10여 일 만에 다시 불모고지 탈환에 성공하였다. 미 제23연대가 불모 고지와 폭잡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열중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대대가 전방의 아스날 고지와 티본 고지에 배치된 적에 대한 고착 견제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 제23연대는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주간동안의 항공지원하에 참호작업과 지뢰 매설, 그리고 통신망 가설에 주력하였다. 이후 제2사단은 간헐적인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소규모 수색·정찰전을 전개하면서 불모고지를 방어하였다(전편 1975 : 592).

3) 1953년도 연천지역 고지전

중국군의 최후 공세의 시작은 1953년 5월부터 전개되었지만, 이미 연초부터 수세로부터 공세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전력 증강과 진지공사에 주력하다가 유엔군 전초 특히 서부전선의 유엔군 전초진지에 대하여 제한된 규모이지만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1952년 12월 말 미 제7사단에 배속된 에티오피아 대대(각뉴)가 연천 북방 역곡천 연안의 방어진지를 태국 대대로부터 인수받았다. 에티오피아 대대의 진지는 중국군과 불과 1km 거리에 있었으나 진지를 인수하자마자 1953년 연초부터 중국군의 공격을 받았다(전편 1979 : 459).

대대는 1953년 1월 4일 180고지에서 소규모의 적 정찰대가 접근하자 소화기와 대전차포를 발사하여 적을 제압하고 격퇴하였다. 이후에도 중국군은 거의 매일 에티오피아 대대의 전초진지에 대해 소규모 공격을 가해왔으며, 이때마다 대대는 적절하게 대응하며 적을 저지하였다.

에티오피아 대대가 연천 북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1월 중순 인근 T고지 일대에서는 미 제7사단이 보병, 전차, 포병과 공군의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미 제7사단은 방어전방의 전초선인 T고지에 수일 동안 폭격과 포격을 집중하였으며, 이후 보병과 전차가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적 진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에티오피아 대대는 미 제7사단이 T고지를 공격하는 동안 우전방에서 적을 고착 견제하여 적 병력이 T고지로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 작전을 실패로 끝냈고, 에티오피아 대대는 1951년 1월 31일에 미 제7사단의 예비대로 전환되어 거마리로 철수하였다(전편 1979 : 462).

에티오피아 대대는 1953년 4월 초 연천 북방의 실개천이 숨어 있는 개활지 정면에 배치되었다. 이곳에는 정면에 악어 턱처럼 생긴 악어 고지와 T자 능선 남단의 에리 고지, 그리고 서북쪽의 아스날 고지가 위치해 있었다.

대대는 4월 16일 야간에는 야포와 박격 포탄을 퍼부으며 대대 전초선인 에리 고지와 아스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접근하는 적 부대와 격퇴하였다. 그 후 미 제32연대 제3대대로부터 연

천 북방의 갈화동과 덕산리 인근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였다(전편 1979 : 466).

대대는 배치된 이후 대대는 최초로 악어 고지 인근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였고, 5월 14일 악어 고지 서남쪽 1.5km 지점의 198고지를 정찰하다가 중국군의 매복작전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날 21명 규모의 매복조가 대대의 전초진지인 요크(Yoke) 고지 전방 개활지에 파견되어 중국군 정찰부대를 공격하여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중국군은 5월 16일에 요크 고지를 향해 약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적의 공격을 예상했던 에티오피아 대대 지휘부는 적 공격로 중간에 1개 소대 규모의 매복조를 배치하여 적의 공격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대대는 상급부대에 포격 지원을 요청하여 퇴각하는 적 병력에게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다(전편 1979 : 471).

에티오피아 대대 전초진지인 요크 고지와 잉클 고지는 모두 해발 200미터 남짓한 구릉이며, 두 고지 모두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라진 짙막한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대대의 최북단 전초진지인 요크 고지의 서북쪽 2km 지점에는 티본 고지가 있고, 동북쪽 3km 지점에는 악어 고지가 있었다.

1953년 5월 19일 밤부터 중국군은 에티오피아 대대가 장악하고 있는 요크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차례 정찰을 시도하더니, 5월 20일 새벽부터 V자 대형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에 투입된 적의 규모는 1개 중대 남짓이었다. 최초부터 적 병력의 공격 방향은 요크 고지와 잉클고지를 정면으로 겨냥하였다. 이처럼 점차 대대 전초기지에 대한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두 고지 중간 개활지에서 매복작전을 실시하던 에티오피아 대대 매복조는 즉시 공격하는 적에게 기습적인 사격을 통해 접근을 저지하였다. 이후 곧바로 적의 주력이 접근하는 지점에 아군 지원부대의 포격이 시작되자 적은 순식간에 철수하기 시작했다(전편 1979 : 483).

그런데 아군 지원부대의 화력이 적 공격부대를 타격하는 사이, 중국군 포병부대가 대대 주병력이 점령하고 있는 요크 고지와 잉클 고지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개시하였다. 이 포격으로 에티오피아 대대와 상급부대 사이의 유선과 무선 통신이 모두 두절되고 말았으니, 대대는 향후 적의 공격을 상급부대의 화력지원 없이 막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요크 고지와 잉클 고지에 대한 적의 포격이 지속되는 동안 잠시 자취를 감췄던 1개 대대급 규모의 중국군이 다시 두 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두 고지 정상 부근에서 대대적인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시작된 아군의 포격이 다시 시작되자, 각뉴 부대원들은 적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새벽 3시가 넘어서자 기세가 꺾인 적은 급하게 퇴각하기 시작했다. 중국군은 연이은 공격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6월 4일까지 간헐적으로 요크고지와 잉클 고지에 대한 기습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각뉴 부대는 자체 화력과 상급부대 화력지원, 적시적절한 정찰대와 매복조 운용 등을 통해 적의 공격을 마지막까지 저지

하면서 고수하였다(전편 1979 : 486).

한편 사미천 부근에서는 중국군이 3월 3일 미 제2사단의 전초인 후크고지를 공격하였으며 3월 하순에도 또 한 차례 공격하였으나 격퇴되었다. 3월 17일에는 중국군이 역시 미 제2사단 방어선상의 355고지 고왕산을 공격하였다. 미 제9연대는 약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고왕산을 방어하였다.

그 후 3월 23일에는 중국군이 미 제7사단이 방어 중인 역곡천 남안의 불모고지와 포크참고지를 공격하였다. 불모고지의 콜롬비아 대대(미 제7사단에 배속)와 포크참고지의 미 제31연대 제3대대는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방어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대는 이날 밤 불모고지 전초중대가 이미 며칠간의 계속된 적의 포격에 손실을 입어 중대 교대 중이었는데 이때 적 대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다. 같은 시간 포크참고지도 2개 중대규모의 공격을 받았다(군편 2013 : 213).

콜롬비아 대대의 양 중대는 허를 찔려 전열을 가다듬어 적과 백병전을 수행했으나 전력의 부족으로 고지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사단은 24일 사단 예비까지 투입하여 역습하였으나 탈환에 실패하였다. 한편 불모고지가 피탈되던 날 야간 포크참고지의 미군도 밀려났으나 시한 신관포탄으로 계속 고지를 공격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비중대로 역습을 실시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

사단은 며칠간 공격준비를 하여 불모고지 탈환전을 벌이려 하였으나 군단으로부터 “전술적 가치도 없는 전초진지를 그보다 값비싼 인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만을 고집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승인 거부됨으로써 불모고지는 결국 적의 수중에 들게 되었다.

한편 영연방 제1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작전지역의 한 가운데는 백학면 나부리 일대가 위치해 있었다. 1953년 5월 초에 캐나다 제25여단 예하 정찰대가 정찰작전 중 중국군 매복부대에 의해 기습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양측 사이에 대규모 포격전과 더불어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전편 1980 : 313).

아군 정찰대가 적군 매복 진지에 걸려 피해를 입은 사실이 캐나다 제25여단 본부에 보고되자, 여단장은 즉시 정찰대가 위험에 처한 곳에 정찰 대기부대를 즉시 파견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여단이 보유한 박격포를 총동원하여 나부리 인근의 적군 매복진지를 포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아군 지원병력으로 인해 전세가 아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곧이어 중국군의 대규모 포격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아군 정찰대와 적 매복부대 사이의 교전으로 시작된 나부리 전투는 양측 상급부대의 화력지원까지 연결되어 대규모 전투로 발전하여 1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더구나 1953년 5월 2일에는 좌측 후크 고지와 우측 고왕산 등 요충지에 대한 공격에서 매

번 실패했던 중국군이 야음을 이용해서 나부리에 배치된 캐나다 제25여단 예하부대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불시에 예상치 못한 적의 기습을 받은 캐나다군 장병들은 즉시 적에게 대적하면서, 이와 동시에 안전한 엄폐호로 대피한 이후 상급부대에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방어진지를 돌파당한 캐나다군 방어 병력이 일시에 교통호와 엄폐호로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시작된 상급부대 포격이 아군 방어진지에 돌입한 중국군 공격부대를 일시에 강타하였다.

그 결과 중국군 침투부대는 심각한 인명 손실을 입은 채 즉시 철수하여 복귀하였고, 전세가 역전된 상황을 간파한 아군 병력이 즉시 반격을 개시함에 따라 다시 전선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날 중국군 침투부대의 기습으로 나부리 일대 방어진지가 돌파되었던 왕립캐나다 대대 C중대에서는 16명이 전사하고, 36명이 부상당했으며, 20명이 실종되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고 말았다(전편 1980 : 319).

2. 정전협정 조인 후 전후 복구

1) 정전협정 조인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휴저회담을 2여 년을 끌어오다가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조인하였다. 협정 조인 당일 정각 22시가 되자 한국 전역에 걸쳐 포성이 멎고 마침내 열전은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 공산군 측도 북한의 김일성이 27일 22시 평양에서 서명하고 중국군의 팽덕희가 다음날 28일 오전 9시 30분 개성에서 서명함으로써 휴전 조인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되었다(군편 2013 : 700).

정전협정은 모두 4개조 63개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핵심 내용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적대 행위와 무장출동의 정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치 등이었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전선으로부터 모두 2km씩 물러났고,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에 따라 경기도에 속하는 서해안의 섬과 강원도에 속하는 동해안의 섬에서 유엔군이 철수하였다(군편 2013 : 820).

전쟁 이전에는 청산면, 전곡면, 백학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38선 이북에 포함되어 있었다. 38선 접경지에는 고랑포, 노곡, 학곡, 초성리, 대전리, 구미리 등이 위치하였다. 연천군은 정전 이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 소위 수복지구이다. 연천군 일대가 대한민국 영토가 되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다. 전쟁이 정전으로 휴전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분할선으로 군사분계선이 설정됨에 따라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원래 38선 이북에 있던 8개 군이 대한민국 관할 아래 들어왔다. 그 대신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연백군 등 원 대한민국이 관할하던 시군은 북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2) 전쟁 피해와 전후 복구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 많은 수의 연천군민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고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당장 호구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여러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절제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연천군은 전쟁기간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것은 북한군 주력 공격선이 모두 연천군을 통과했고 두 차례에 걸친 양군의 진격과 후퇴로 거듭 되는 전쟁의 추이와 관계가 있었으며, 또 1951년 이후 휴전협회담 개막에서부터 정정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연천 일대에서 많은 진지전과 고지전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었다.

연천군민은 전재민과 피난민도 다수 발생하여 기아와 질병 속에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인천상륙과 수복으로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원 거주지로 복귀하였으나 곧 이은 중국군의 개입과 1·4후퇴로 다시 연천지역은 전장이 되었다.

휴전 이후 연천 지역은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집과 생업을 잃어버린 전재민들과 수많은 피난민들로 식량, 의복, 주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주로 서울, 인천 등의 도시 또는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옮겨 갔지만 농촌지역에도 상당수가 정착하였다. 연천군에서는 정전 직후부터 유희지 등을 최대한 개발 이용하였으며, 피난민 정착사업을 전개하여 귀향불능 피난농민 정착 개간 및 사업장을 확대하고 전재를 당한 노인과 어린이들에 대해 다양한 기관과 사업가들로부터 지원받아 응급구호에 전력하였다.

또한 연천군은 구호대를 조직하여 식량 배급과 의료 등 구호에 노력하였다. 난민에 대한 응급조치가 끝나고 정국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자 원주민에 대한 주택건설도 시작되었다. 운크라에서 무상원조로 보내온 자재로 후생주택이라는 이름의 주택을 건설하였다. 이 밖에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주택을 복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 큰 성과가 있었다. 연천군은 상당 부분 자력으로 복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천군은 피난민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피난민을 위한 항구적인 생활대책을 마련하여 정착촌을 건설하고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연천군 곳곳에는 자력 또는 국가의 지원으로 주택, 점포, 공장, 사무실 등이 복구되었다. 도로마다 가로수가 심어졌고 농촌에는 영농개선에 열중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였다. 도시에서는 녹화운동에 호응하여 구공탄, 토탄을 연료로 하는 가구가 점차 증가되었다. 전기사정도 좋아져 전쟁 이전을 능가하였으며 공장 생산량도 날로 증가되었다.

한편 연천군은 여러 지역에 군 부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군부대에 의한 토지, 건물 강제 수용 및 기지 시설 사용상의 특혜, 부대 주둔으로 인한 개발 제한 등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기도 했다. 연천지역은 주로 군사안보와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연천군은 군사적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개발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경제활동이 제약되었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연천 전반에 걸쳐 있었고, 무장충돌이나 군부대 훈련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상당부분 제한받았다. 지역 전체가 군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 과정에서 사실상 개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연천군은 이른바 불균등발전을 통해 성장한 지역이었다.

제 2 권

연 천 의
선 사 시 대

고 대 의
연 천

고 려 시 대 의
연 천

조 선 시 대 의
연 천

근 대 시 기 의
연 천

연 천 의
현 대 사 와
한 국 전 쟁

- 국방부, 1951, 『한국전란1년지』, 정훈국.
- 육군본부, 1968,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육군본부.
- 중앙일보사, 1971, 『민족의 증언』제4권, 중앙일보사.
- 전사편찬위원회, 1971, 『한국전쟁사』제4권, 국방부, 국방부.
- 전사편찬위원회, 1972, 『한국전쟁사』제5권, 국방부.
- 전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전쟁사』제6권, 국방부.
- 전사편찬위원회, 1974, 『한국전쟁사』제7권, 국방부.
- 전사편찬위원회, 1975, 『한국전쟁사』제8권, 국방부.
- 전사편찬위원회, 1976, 『한국전쟁사』제9권, 국방부.
- 전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전쟁사』제1권, 국방부.
- 전사편찬위원회, 1979, 『한국전쟁사』제10권, 국방부.
-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제11권, 국방부.
-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1981, 『조선전사』제25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전사편찬위원회, 1986, 『한국전쟁 요약』, 교학사.
- 육군본부, 1987, 『한국전쟁』제9권, 육군본부.
- 권영진, 1989, 「한국전쟁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 정책 연구」, 고려대 정치외교석사논문.
- 전략문제연구소, 1991,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세경사.
- 온만금, 1992, 「공산치하의 남한」,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제3권, 행신.
- 양영조 외, 1995, 『한국전쟁』(상), 국방군사연구소.
- 양영조 외, 1997, 『한국전쟁』(하), 국방군사연구소.
- 라종일, 1998, 「북한통치의 반성 : 1950년 가을」 『탈냉전시대 한국전쟁 재조명』 한국전쟁학회.
- 서경석, 1999, 『전장감각』, 샘터.
- 강진갑, 2000, 「제7장 현대」, 연천군, 『연천군지』(상).
- 양영조, 2000,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1945-1950』, 국방군사연구소.
- 군사편찬연구소, 2004, 『6·25전쟁사』제1권 국방부.
-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제2권 국방부.
- 군사편찬연구소, 2008, 『6·25전쟁사』제5권 국방부.
- 군사편찬연구소, 2009, 『6·25전쟁사』제6권 국방부.
- 군사편찬연구소, 2010, 『6·25전쟁사』제7권 국방부.
- 군사편찬연구소, 2011, 『6·25전쟁사』제8권 국방부.
- 군사편찬연구소, 2012(a), 『6·25전쟁사』제9권 국방부.
- 군사편찬연구소, 2012(b), 『6·25전쟁사』제10권 국방부.
- 군사편찬연구소, 2013, 『6·25전쟁사』제11권 국방부.

Records of the HUSAFIK, Report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38th Parallel, vol.1-vol.14, 1945-1958), SN.1718(SN은 군소편찬연구소 소장자료).

GHQ ATIS, Interrogation Rpts, 1950-1951, SN.984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June 1950 and December 1950 to January 1951, SN.1332.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Oct 20, 1950, 795B.00/10-2050, SN.1457.

Seoul to Secretary of State, Oct 14, 1950, 795B.00/10-1450, SN.1457.

Seoul to Department of State(1950.11.14), 795a.00/11-1450, SN.1457.

Civil Assistance Report NO.3(1950.11.26.-12.2), SN.1457.

C.N. Barclay, 1954, The First Commonwealth Division, Gale and Polden, SN.1555.

제 2 권

연 천 의
선 사 시 대

고 대 의
연 천

고 려 시 대 의
연 천

조 선 시 대 의
연 천

근 대 시 기 의
연 천

연 천 의
현 대 사 와
한 국 전 쟁

漣川郡誌 (2권)

| 연천의 역사

발행일	2022년 8월 30일
발행처	연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집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제 작	네오이크(02-3143-6092)
ISBN	979-11-951975-8-3(05090)
	979-11-951975-9-0(세트)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 031-839-2114(대표번호)

비매품

05090



9 791195 197583



ISBN 979-11-951975-8-3

ISBN 979-11-951975-9-0(세트)